

하지만, 조선인이 정신통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며, 생활이 불안정한 것은, 우리들 조선인이 지금까지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근로정신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소위 유림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일본정신에 어두운 것입니다. 신국이란 무엇인가고 질문을 받을 경우 대답할 수 있는 유림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당국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신국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자가 있다면 일반유림에게 나누어 주워서 읽게 할 것, 실제로 내지를 보일 것, 이 두 가지가 긴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단장께서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영전 단장** 참 맞는 말입니다. 내지인은 조손이 이어받아서 유구 2천 6백 년 동안 내지인에게는 국민정신으로서 신국의 숭고한 정신이 침투하고 있지만, 조선인은 천황폐하의 적자가 되어 신국일본의 정신을 입은 것은 불과 3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경신사상이 철저히 못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지 7천만 민중은 2천 6백년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정신이 투철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영향도 있었지만, 저는 교육의 영향보다도 이것은 신의(神意)에 의하여 국민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국(肇國)의 정신, 팔굉일우의 정신도 교육에 의해서 천하에 보급했다고 하기 보다는 신의에 의하여 실현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2천 4백만 반도민중에게도 굵고 큰 신의의 힘이 내지와 마찬가지로 침투해서 언젠가는 팔굉일우의 정신은 조선에서 지나대륙으로, 나아가서 지나대륙으로부터 멀리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내선일체의 구현에 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이 될 것으로 추호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저는 카시하라신궁에 참배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시하라신궁에 참배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궁의 사전(社殿)이 황조 진무천황의 신령을 모시고 있는 신궁으로서, 그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기원 2천 6백년 기념식을 계기로, 국민의 진무천황에 대한 흠양(欽仰)하는 생각은 감연하게 끓어올라, 새로운 사전을 조영하게 하는 등 그 정성은 비상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국민성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느낀 것이지만, 신직(神職)에 있는 여러분이 친절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천 6백년간 우리나라의 정신인 사랑의 일체생활이,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잘 이것이 양양되어, 신직의 여러분도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신직에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나라(奈良)의 도읍은, 제도(帝都)가 헤이안쿄(平安京) 지금의 교토에 천도될 때까지는, 제도로서 자랑하는 곳이었으나, 나라의 고적명승지를 돌아보시고 그 감상은 어떻습니까.

○ **서촌(徐村) 충남 강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조선에서 들던 것과, 자신이 직접 와서 본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참으로 2천 6백년간의 문화는 웅대하고 찬연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반도인도 내지문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신사상을 하루라도 빨리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젊은 연배의 사람들은 일본정신·일본국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지만, 중견유림이라고 자처하는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면의 서책을 번역하여 읽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총독부에서도 국제명감(明鑑)한 것을, 지금 만들고 있으므로, 완성이 되면 바로 여러분 앞에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서촌님에게 여쭙어 보고 싶은데 아까 증견유림을 계몽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으나, 그중견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까.

○ **서촌 충남 대표** 제가 증견유림이라고 말한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저도 적어도 증견유림이라고 자칭하는 자는, 유학에 조예가 깊은 것은 물론, 여기에다 사회의 일반상식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증견유림이라고 내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유림 중에서 증견인물은 사회에서, 명예라거나 덕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일하지 않으면, 효과를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향토에서 유림이라고 지목되는 인사는, 우리들과 같이 사회에 출입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두문불출의 인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청으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어도 마을사람들은 먼저 이와 같은 인사에게 의논하고, 이것에 협력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문불출의 유림의 향토에서의 지반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으로 단장께 부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즉 본부(本府)에 예산이 있다면, 그러한 유림을 모아서 내지를 시찰시켜 내지 사정을 보인다면, 그 효과는 놀랄 만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이 문제에 관해서는, 뒷날 좌담회에서 시찰단 조직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때에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나라에서 체득한 감상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화제가 바뀌어졌기에, 본래로 돌아가서 나라에서의 감상담을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鄭) 경남 강사** 저는 나라에 도착한 뒤, 맨 먼저 느낀 것은, 신록(神鹿)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와 닿은 것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 **영전 단장** 나라는 조선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즉 조선 문화와의 교류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불교가 그렇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불교문화의 내선교류에 관해서는, 교토에서 각 불사를 순배했을 때도 느꼈던 것이지만, 내지의 불교는 유교와 마찬가지로 조선을 거쳐 들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보다 훨씬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지는 현대국가로서 물질문명이 넉넉하게 융성하지만, 정신문명은 이것에 지지 않게, 물질문명의 이면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토에 가소 미토학(水戸學)의 개략을 청강하여, 내지의 정신문화는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면에서는 위대한 힘이 잠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직 감격했습니다.

○ **영전 단장** 내지의 불교는 교토에서 본 것만으로 알 수 있듯이, 불교문화는 참으로 찬연함이 있습니다. 지나의 문화는 제왕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으나, 내지문화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불교중심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불교문화가 우월한 것입니다. 백제 성명왕(聖明王)(제25대)은 킨메이(欽明)천황(552년)에게 불교를 권해주었으므로 비로소 불교가 전래된 것이나 내지에서는 대승불교가 대단한 세력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어서 세계적인 불교국이 되어 대승불교의 총본산으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방불교로서 세일론, 미얀마, 태국, 월남, 캄보디아 등의 지방에 유포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유적으로 남아 있을 뿐인 곳이 많습니다. 불교교세를 바라보면서 내지와 조선과를 비교해 보면, 내지에서는 불교신도 수가 4,175만 명쯤 되지만 조선은 조선인의 신도 수가 불과 19만 5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내선불교의 교류를 생각해서 조선불교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지나사변 이후에 내지불교의 대륙진출이 활발해 짐으로써 불교의 빛도 동쪽으로부터라고 하면서 불교의 총본산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 **고산(高山) 평북 대표** 저는 이번에 내지를 시찰하여 느낀 것은, 불교도 유교도 그 발원지는 어떤 경우에는 인도, 혹은 지나입니다만, 그것이 일본에 들어오면 섭취(攝取) 창조되어 일본의 불교, 일본의 유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르지만, 동경의 유시마(湯島) 성당을 배관해도, 교토와 나라의 각 불사를 배관해도, 남김없이 신국화(神國化)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신동아 건설에 많은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천(白川) 황해 강사** 나라에서는 저도 인력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보았습시다만, 차부(車夫)가 친절할 것에는 감격했습니다. 저는 국어를 말하지 못하기에 차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대불당(大佛堂) 앞에 와서 인력거는 멈추어서 저를 내려 주었으나, 대불당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참으로 대불은 웅대했습니다. 차부가 대불당 앞에 내려준 데 대하여 지금 생각해 보면, 차부가 평소에도 얼마나 대불을 숭상해 왔던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교를 믿고 대불을 평소부터 숭상해 왔기 때문에, 외지에서 멀리 찾아 온 사람에게 꼭 대불만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 씀씀이가 있었음으로써 저를 인력거에서 내려 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선의 민중은 일반적으로 산 속의 암자나 절의 불상에 대해서도 절은 하지만, 공자묘에는 참배하고자 하는 관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 **영전 단장** 일반적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인륜을 설명한 것으로, 마치 인간이 대기 중에 살고 있으면서 대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유교의 고마움 또는 공자에 대한 감사의 생각은 얼핏 잊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민중의 부처에 대한 관념은 인력으로는 불가항력인 어떤 것을 부처 앞에 빌어서 부처의 도움을 염원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종교적인 신념에서 부처를 숭상하는 것일 겁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유교관계는 그와 같이 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공부자의 제자 자공(子貢)도 서역에 성현이 있다고 말한 것도, 그 성현은 석가를 가리킨 것입니다. 또 유교를 존경하는 참다운 대학자는 불교의 교리에 통달하고 있으며, 불교를 존경하는 참다운 대승은 유학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 **영전 단장** 유교가 당송시대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철학적인 체계를 갖추며 온 것은 정주(程朱)의 설을 읽어 보면 잘 알게 됩니다.

다음은 이세신궁에 참배하여, 어떤 감상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주기 바랍니다.

○ **죽성 사성** 저는 이세신궁의 신 앞에서 머리 숙여 황국신민의 서사를 소리높이 제창한 것이 지금도 가슴이 떨 정도로 벅차게 저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황국신민이 된 것은, 지금부터 47년 전 즉 일청전쟁의 때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로부터 또 일로전쟁 이후에는 메이지천황의 은덕이 점점 반도에 미쳐서, 결국은 한국이 병합되어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비로소

이세신궁에 참배하여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한 것은, 가슴이 저미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서는 이제 와서야 비로소 신 앞에 맹세하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가족과 함께 궁성요배를 마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려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도리에 맞습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저는 이세신궁에 참배하고 느낀 것은, 이세신궁의 제신이신 아마테라스 오우미 카미의 신덕(神德)이 얼마나 영묘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국제관념을 한층 명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통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신궁이나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연구하여 철저한 경신관념으로써, 신궁이나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관(神官)을 통해서 신도에 대한 강연회들을 개최하여 민중에게 철저한 경신사상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이 국제명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가서, 신사나 신사(神祠)를 많이 건조해서 민중을 참배시켜, 경신관념을 철저하게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신관(神官)은 기독교의 목사나 같은 자격을 얻는 기관이 있습니까.

○ **영전 단장** 있습니다. 중학 정도의 것과 대학 정도의 것도 있습니다. 국학원이거나 황도관대학이 그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신관에 대한 관제(官制)가 있습니까.

○ **영전 단장** 신관은 국가의 대우관리로 신직(神職) 관제가 있습니다. 신직에는 아시다시피 궁사(宮司), 권궁사(權宮司), 예의(禰宜), 주전(主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폐대사(官幣大社)에의 궁사는 직임대우, 권궁사는 주임대우, 예의, 주전은 관임대우로 되어있으나, 보통 관국폐사(官國幣社)의 궁사는 주임대우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교토의 토요쿠니(豊國)신사에 조선청년이 있었습니다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 **영전 단장** 그 청년은 금본영환(金本英煥) 군인데, 조선신궁에 매일 참배한 경신사상이 독실한 청년입니다. 금본(金本) 군을 매일 참배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지금 토요쿠니신사의 요시다(吉田) 궁사이며 요시다 궁사가 조선신궁 권궁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이 인정을 받고, 꼭 이 반도청년은 신관을 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자신이 내지에 전근하는 기회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밤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좌담회에서 또 감상을 들여보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29일(수) 맑음

해가 밝으니 쾌청의 신선한 아침이었다. 늦은 가을의 기분 나쁜 아침바람을 몸에 느끼면서 호반을 소요했더니, 아침 햇살을 받고 호수 면에 은비늘로 덮여진 추우젠지코(中禪寺湖)가 황양(滄洋)¹⁷⁸⁾하게 꿈과 같이 눈앞에 펼쳐져, 마치 속진을 떠난 느낌이 든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서, 닛코 연산의 주봉인 난타이산(男體山)의 선이 풍부한 신성한 모습이 의연히 서 있고, 그림자를 호면에 비치고 있는 풍치는

178) 물이 깊고 넓은 모양.

천고의 꿈을 감추고 있는 듯이 보였다. 냇코에 오는 자는 반드시 추우젠지코에 와서, 난타이산과 잘 조화된 산수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서 떠나기를 잊을 것이다.

여기에서 추우젠지코와 난타이산의 유래를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한다. 추우젠지코는 일명 추우구우시코(中宮祠湖)라고 불리며, 옛날 메이지천황이 동북 순행할 즈음에 행복의 호수의 이름을 하사하고, 또 하나는 난타이산의 남쪽기슭에 있음으로써 미나미노에(南湖)라고도 옛사람들은 부르고 있다 한다. 그 넓이는 동서 20리, 남북 30정(町)¹⁷⁹⁾이나 되는 호수이다. 키소지즈카이(木曾圖會)라는 서책에는, “…… 나무가 우거져 호수를 뒤덮는다 해도, 낙엽 하나도 수면에 뜨지 않고, 바닥이 깊지만, 고기비늘이 하나도 깃들이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으며, 또 향산실기(晃山實記)라는 서책에는 “…… 추우구우시코에 맑고 더러움의 하나의 티끌이 없음으로서, 옛날부터 전해 오기를 인충(鱗蟲)이 끊어지고 살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고기 종류가 없었던 것 같으나, 유신 후부터 잉어, 곤들매기(嘉魚), 송어 등의 고기를 놓아서 지금은 일대 어장이 되었다고 한다.

난타이산(男體山)은 표고 2천 5백 미터나 되며, 일명 쿠로카미산(黑髮山)이라고도 불리며, 이것은 흑신(黑神)의 뜻으로, 신산의 나무 빛이 울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오우마나코산(大眞名子山), 코마나코산(小眞名子山), 노호우(女峰), 아카나기(赤薙)의 여러 봉우리는 동북으로 이어지며, 타로우다케(太郎嶽), 온센다케(溫泉嶽)는 서북으로 이어졌으며 또 서쪽에는 센조우가하라(戰場之原), 유코(湯湖), 유다키가와(湯瀧川)의 낮은 좁음을 건너서 멀리 시라네야마(白根山)를 마주보며, 난타이산은 바로 냇코연봉의 주봉인 것이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숙사를 나왔다. 그리고 만고의 영기(靈氣)를 감추고 있는 신비경, 신화시대인 채로 있는 추우젠지코의 거울과 같은 조용한 호수 위에 한 잎의 작은 배에 맡겨서 사방의 풍광명미한 산수를 바라보기로 했다. 배는 호수 위의 가을 바람을 받으면서 천천히 달린다. 대자연은 아무 소리도 안 내며, 대기는 티끌하나 미진(微塵)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극락의 정토가 있다면, 여기보다 더 나올까. 배는 또 경승지를 찾아 달린다. 경승지는 다 끝나지 않는다. 취람(翠嵐)에 홍대홍지(紅黛紅脂)를 치장한 호반의 연봉이 취운(翠雲)과 잘 어울린다. 물속에 비친 아름다운 영상은 그 심미(審美)가 무엇이라고 형용하기 어려우며, 오직 꿈 세계에서 노니는 기분이 든다. 이러한 선경에서 떠나기 애석해 하는 표정이 역력히 읽을 수 있다.

일행은 배에서 내려서, 후타아라산(二荒山) 상소(三所)신사에 참배하고, 황산(晃山) 72폭포의 으뜸이라고 일컬어지는 케곤(華巖)을 향했다. 이 폭포는 다이아가와(大谷川)의 원류를 이루고, 또 추우구우시코가 낭떠러지를 급히 흘러내려, 이러한 기관(奇觀)을 이룬 것이다. 폭포에 가까이 가니, 대폭포의 물기운은 튀어 날며 지축(地軸)도 진동시킬 듯 노호(怒號)하여, 들여다보기에도 몸이 움츠러 든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폭포 아래에 내려갔다. 폭포는 내려다보기보다 우러러보는 것이 전체가 잘 보여서 장관이다. 비류직하(飛流直下) 3천 척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비폭(飛瀑)은 물이나 물이 아닌 것처럼, 구슬이 되어 흩어져 떨어지며, 연기가 되어 흩어지는 풍경은 이 세상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폭 노호의 위세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멍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며, 간담을

179) 1정은 약 109미터.

서늘케 한다. 오호라! 위대한 조물주의 작품. 우리는 케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케곤의 웅장하고 위대함에 다만 감탄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일행 중 고산(高山) 씨는 숙소의 계단에서 굴러서 차골(蹉骨)을 다쳤다.

오후3시 닛코역에서 열차를 타고 동경 경유로 오사카를 향했다. 우에노역에 도착한 것은 동 6시 25분, 전철로 바꾸어 타고 동경역에 도착하니 병 때문에 남아있던 청하(清河) 씨가 마중해 주었다. 일동은 역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들고, 동 9시 40분 열차로 곧장 오사카로 달렸다.

○ 추우젠지코(中禪寺湖)

鏡湖秋水淨朝暉, 滴翠山光點客衣, 駕一葉舟凌萬頃, 此遊正似挾仙飛. 가천구사(嘉川久士)
 山下瀑聲山上湖, 口難盡說亦難圖, 世人苦問東洋事, 此地名勝第一區. 청하달빈(清河達斌)
 平湖山上日光輝, 米屋初寒曉拂衣, 遙看紅葉迴扁棹, 玉瀑華岩白雪飛. 부산삼(富山森)

10월 30일(목) 맑음

오사카에 도착한 것은 30일의 오전 9시 7분이었다. 일행은 오사카역전의 스테이션호텔에 들어갔다. 숙소에 들어가니 아침식사 시간이 지났기에, 점심을 미리 당겨 11시경이 되어서 먹었다. 이러한 일은 내지 여행 중에 처음 있는 경험이다. 전시 하 국민의 긴장됨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누구하나 없이 마음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오사카라고 하면 연기의 서울이 연상될 만큼 공업이 발전하여, 공업도시로서는 이미 세계에 알려져 있다. 옛날부터 지역의 이점과 근대공업화로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2대 공업화를 이루고, 코베와 함께 소위 한신(阪神)지대의 중심이 되고, 서일본 산업을 대표하여, 동일본의 케이힌(京濱)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물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육상운수는 물론 수운도 대단히 발달하여, 공업발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의 고장은, 숲처럼 서있는 굴뚝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로 하늘을 뒤덮고, 맑은 날씨라고 해도 어두컴컴하여, 햇빛마저 흐리고 있다.

오전 11시 30분에 부(府)의 협화회(協和會)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오사카성 견학에 향했다. 오사카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축성한 천하의 명성이다. 이제 오사카성의 유래를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오사카성은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축조된 이시아마혼간지(石山本願寺)의 옛터이다. 이 절은 혼간지(本願寺) 제8세의 렌노(蓮如)가 이시아마어당(石山御堂), 또는 오사카어방(御坊)으로 세운 것으로, 정치적인 수완을 갖고 있는 그는 이 땅을 근거지로 요새로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쇼요(證如) 때는, 완전히 무력 본위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게 고통을 준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史實)로 되어 있다. 또 켄노(顯如)의 때에 이르러서는, 칙(勅)을 받들고 노부나가(信長)와 화친을 맺고, 이 이시아마(石山)를 물러났다. 그런데 그의 자식 교우노(教如)는 그 화친에 동의하지 않고 또다시 거사를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화친하여 성을 명도를 하였다. 그 후 노부나가(信長)가 혼노우지(本能寺)에서 쓰러지고, 유명을 받은 히데요시(秀吉)가 천하를 호령하자, 노부테루(信輝)를 대신하여 오사카를 거두었다. 노부나가(信長)의 1주기를 교토 다이토쿠지(大徳寺)에서 치르고, 얼마 안 되어 오사카에 와서 새로이 이 땅

을 근거로 해서, 나라 내외에 비교할 수 없는 오사카성을 축조한 것이다. 이 위대한 성은 히데요시의 명성을 올림과 동시에, 멀고 가까운 여러 성주들은 스스로 공사에 자진해서 나와서 큰 돌과 거석(巨石)을 날라서, 7개월 만에 텐슈(天守) 공사가 끝났다고 한다. 공사를 계속하여 1584년 8월에 히데요시가 입성하게 되었다.

성루(城樓)와 성벽을 둘러싼 제루(堤壘)는 하늘 높이 솟아, 오사카성 아래를 부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선(善)과 미(美)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사카성이 축조되기 전까지는, 사카이(堺)항만으로도 매일 2백 척의 배가 돌을 싣고 입항하며, 어떤 때에는 1천 척이나 되는 석선(石船)이 만범(滿帆)에 바람을 안고 장관을 보인 때도 있던 것 같다.

오사카성의 견학을 마치고, 텐마바시(天滿橋)의 노다야(野田屋)에 향하여, 오사카부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즈음하여 먼저 주최 측을 대표하여 사카모토(坂本) 주사(主事)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에 이어서 영전(永田) 단장의 답사가 있었다. 사카모토(坂本) 주사 및 영전 단장의 인사의 요지를 간단히 적으면,

사카모토(坂本) 주사의 인사말

한 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 유림의 대선배 분들이 이 곳을 시찰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사카는 시찰하실 만한 명소는 없지만, 다만 오사카성이라거나 조폐국(造幣局)이 볼만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아 주실 것은, 오사카시의 협화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오사카에는 반도출신 사람이 33만 살고 있습니다. 내지 전체에 살고 있는 반도인 수는 약 110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만으로 그 3분의 1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반도인이 살고 있음으로서, 이에 따르는 협화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이지만, 협화회의 경비는 연간 어림잡아 31만 엔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비를 가산하면 상당한 액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도출신의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경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府)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해서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부는 각 경찰서 단위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부장에는 서장이 각각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사카부가 경영하고 있는 린포칸(隣保館)이 있어서, 주로 반도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제교육, 보호구료에 이르기까지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린포칸의 수는 열군데 있으며,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면 알게 될 것이지만, 그 사업이나 시설은 훌륭해서 그것의 이용자도 많고 한마디로 좋습니다.

저는 유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오직 유림은 사회의 상층부에 있으며,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민중을 지도하고 있는 지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화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시찰하시고 조선에 돌아가서 반도민중의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화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힘과 더불어 영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협화회의 사업은 국가적인 견지로 보아서,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지에 있는 우리들도 반도에 있는 2천 4백만 민중도, 진지하게 이와 같이하여 문제를

속히 현실화시켜서, 내선일체의 구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하여 2천 4백만 반도민중의 정신력은 유림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여러분의 책임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내선일체의 구현은 협화사업의 충실화로서, 또 협화사업은 반도의 상층부에 계시는 여러분의 협력에 의하여 비로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사카에는 유람을 할 만한 곳이 적지만, 협화사업만큼은 확실하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협화사업의 내용을 오사카의 토산품으로서, 조선에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지 않으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 가지를 보아 주시고, 내지시찰의 유력한 힘을 얻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변변찮은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의 왕림을 바란 것을 사과드립니다. 또 오늘은 두 번에 걸쳐 협화회 주최로 아사히(朝日)회관에서, 협화회원을 위하여 최승희(崔承姬)님의 무용을 무료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상, 저는 그곳으로 가 보지 않으면 안 됨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 영진 단장 인사

우리들이 이번에 성지참배를 한 것은 조선유도연합회 행사의 하나이며, 본 연합회는 1939년 10월에 조선유림의 총의로 결성된 것입니다. 이 연합회가 결성된 것은 고 윤덕영(尹德榮) 자작 각하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윤 자작은 윤비(尹妃)의 숙부에 해당하시는 분이냐, 노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업을 이루어 낸바 본 회의 은인입니다.

지나사면 이래 조선 2천 4백만 민중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유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에, 미나미 총독을 비롯하여 오노 정무총감은, 전선유림의 대동단결을 윤 자작에 중용함으로써, 윤 자작은 전선 2백만 유림에게 호소하여, 유림대회를 경성에 초집했으니, 이 자리에서 조선유도연합회가 힘차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10월 15일의 추계석전제를 계기로 하여 제2회 총회를 열어서, 매년 중견유림대표를 선발해서 성지참배를 시키기로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회의 성지참배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각지에서 그 고장의 유지와 간담을 가지게 되었으나 열렬한 환영에는 오직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일에 보답하고자 우리도 성지참배의 취지를 잘 체득하여, 신국 일본의 진수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또 오늘도 이와 같이 성대한 환영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후에도 아무쪼록 중견유림 성지참배단을 위하여 뒷바라지 해 주실 것을 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사카는 진토쿠(仁德)천황이 전도(奠都)하신 옛 도읍입니다만, 진토쿠천황은 유교를 대단히 숭상하신 분이로서, 왕인(王仁)이 논어와 천자문을 야마토(大化)조정에 헌상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일이나 이 왕인은 또 나니와(浪速)에서 수리를 일으켜 식산공업에 힘썼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아서도, 조선의 유림단이 오사카를 방문했다는 것은, 뜻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아까 사카모토 주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선일체의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조선동포의 보호통일을 도모하는 협화사업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듯 하며, 우리들로서는 감격해 마지 않습니

다. 또 향토에 돌아가서도, 사카모토 주사가 말한 것처럼, 협화회 사업내용을 자세히 선전하고, 내선일체의 실현에 도움 주고자 생각합니다. 또 내지에 살고 있는 반도인은 옛날보다는 자질도 향상되고, 전시 하에 생산력확충의 국책에 순응하여, 산업전사로서 일하며, 또 내지에 계시는 여러분의 지도 아래 총량한 황국신민이 되어 가는 것은, 우리들로서 참으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반도인의 내지로 오는 도항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오니 더욱 더 적절한 지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또 오늘은 이와 같이 환대까지 해 주셔서 감사 해 하지않습니다. (이상)

○

이것이 끝나고, 주객이 함께 화기애애하게 점심을 들면서 간담에 들어갔다. 먼저 협화회의 상무이사 타니무라(谷村靈眞) 씨가 동 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

협화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협화회는 부령(府令)으로써 1923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그 목적하는 바는 조선인의 지도교화가 주된 것입니다. 이 기관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내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자칫하면, 내지인으로부터 불온사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비난받거나, 혹은 불량한 도배들이라고 지목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으로 일시동인이라는 성지(聖旨)에 비추어,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인의 지도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사회문제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조선인을 황민화에 유도하고자 협화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조직망은 전국적으로 퍼내어, 각 부현(府縣)에 각각 협화회가 결성되도록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1939년에는 동경에 중앙 협화회가 설립되고, 협화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각 부현(府縣)에 부현 협화회가 연락협조를 맡도록 된 것입니다. 또 본 협화회 아래에는 각 경찰서를 표준으로 59개의 지부가 있으며, 또 그 아래에는. 호수 2백, 인구 8백을 단위로 분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회에는 지도원을 임명하여 보호교화를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원에는 반도출신자가 1천 5백 명이나 있습니다. 아까 주사가 말한 것처럼, 오사카에는 반도출신자가 33만 명이나 살고 있으며, 하나의 커다란 시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후쿠오카시의 인구가 30만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출신자가 33만이라고 함으로, 오사카에는 내지인 5명에 조선인 1명의 비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협화회 기구도 정비하고, 사업도 설비도 완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국의 진전에 따라서 협화사업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반도인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협화회가 탄생해서 20년 내외입니다만, 그 사이에 수십만 엔의 자산가도 공장주인도 나오게 되어, 경제적으로 우선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종래의 태만한 생활상은 청산하고, 근검하게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사카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해마다 5천 명 정도가 자연증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근래 2, 3년간에 유입해 들어 온 자만해도 2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5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협화사업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일단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근래에 와서 새로 이주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지도보호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반도출신자로 내지에 오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 벌이 나온 정신으로써, 돈벌이해서 성공하면 조선으로 돌아갈 작정으로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왕에 내지에 온 이상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이 땅에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는 것이 내 몸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협화사업 달성에 협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국의 진전에 따라서, 협화사업도 현재보다 확대하여 확충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만 엔의 예산으로써 협화회의 도장(道場)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 확충의 한 예입니다. 현재 대체로 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 때쯤에 여러분이 오신다면, 그때는 보여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장은 반도청년의 정신수양도장으로서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반도동포는 일본 정신을 체득하여, 하루라도 빨리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도장이 갖는 사명은 한 없이 큰 것입니다. 또 반도민중의 지도적 입장에 계시는 여러분이 성지참배를 하시는 것도 그 의의는 심대한 것이 있습니다.

협화사업의 상세한 것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여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그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간단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교환했다.

▽ 오사카 협화회에서 부여신궁(扶餘神宮) 건조의 근로봉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 영전 단장 근로봉사는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엇인가의 통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사카에 살고 있는 반도청년들은 지원병에 지원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을 각자의 고향에 부쳐주도록 의뢰한 것 같은데, 좀처럼 부쳐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전 단장이 귀임해서는 각도에 통첩을 하도록 담당자에게 부탁하기 바랍니다.

▽ 오사카에서는, 반도청년에게 1주에 2번씩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나미 총독각하도 이 훈련을 시찰하고, 매우 감격했습니다.

○ 영전 단장 조선청년단지도요강이 있음으로,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 33만이라고 했습니다만, 평양인구가 25만임으로 경성 다음에 오사카가 되는 셈이지요.

▽ 반도에서는 적령아동이 전부 취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사카에 살고 있는 반도아동은 내지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새로이 건너 온 사람 중에는, 의무교육의 적령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 못한 아동이 있음으로, 부에서 구청에 지시하여, 국민학교를 이용하여 야학을 보내도록 하였으나, 현재 10군데로 수강자는 2천 3백 명이나 됩니다. 그중에는 24세나 되는 자도 있습니다. 또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부인들을 위하여 협화국어독본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간단이 있었으며, 끝나고 나서, 오후 2시에 츠루하시(鶴橋)의 린보칸(隣保館)으로 향했

다. 린보칸의 사업방침은 오사카에 살고 있는 반도인을 교화 선도하여, 생활의 향상개선을 지도하고, 내지동화의 철저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업종별의 대략을 적어보면,

1. 교화사업

- (1) 유아보육, 유아를 내지화 보육을 해서, 국민학교에 입학시킬 준비를 한다.
- (2) 간이국어강습, 내지 말과 글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남녀청소년을 위하여 쉬운 국어강습을 한다.
- (3) 호주 강좌, 한 집안 중심인물인 호주에게 국민사상함양을 위하여 본 강습을 한다.
- (4) 호주의 경신승조와 신사참배, 각 가정에 신단을 설치하여 아침저녁으로 예배시키는 외에 매월 1일에 부근 신사에 참배시키고, 신사 앞에서 경신승조에 관한 훈화를 한다.
- (5) 주부강좌, 주부의 내지화 촉진을 위하여 본 강좌를 특설한다.
- (6) 주부의 음식물 조리법강습, 음식물의 내지화와 시국하의 대용영양식의 조리법을 체득시키기 위하여 본 강습회를 개설한다.
- (7) 청년 수양 강좌, 장래에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서야 할 청년에게 국제관념의 양성, 국민정신의 도야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강좌를 개설한다.
- (8) 청년의 경신승조와 체력향상, 청년의 경신승조와 체력향상을 돕기 위하여 매월 1회 걸어서 신사참배를 실시한다.
- (9) 여자청년복장개선과 재봉강습, 장래 가정주부가 될 여자 청년 부원에게 의복의 내지화 촉진을 위하여 본 강습회를 개설한다.
- (10) 조합원간담회, 조합사업의 보급철저를 기할 목적으로서 매월 1회 조합원간담회를 개최한다.
- (11) 보육소 여러 의식 및 행사, 어린이 보육을 통하여 보호자 및 그 가족을 교화할 목적으로 보육소의 여러 의식 및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반드시 보호자를 참가시킨다.
- (12) 어머니회의 여러 행사, 어머니회 주최의 각종행사 및 회합을 이용하여 가정의 어머니로서 수양, 육아연구 외에 내선 양자 간의 말, 풍속, 습관, 감정 등의 틀림을 융화시키고, 내선일체의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2. 생활개선사업

- (1) 주택경영, 생활개선지도시설의 하나로서 주택경영을 한다.
- (2) 신용조합사업, 근검저축과 생활향상안정을 꾀하는 목적으로서 본관에서 ‘오사카 협화신용구매 이용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구역 내에 사는 반도인으로서 해당하는 자를 가입시켜서 그 이용을 장려해 나가고 있다.

3. 보호구료사업

- (1) 무료진료소 개설(수시)
- (2) 무료진료권 교부(빈곤자에게)

이상과 같은 사업을 해서, 반도인의 생활향상과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일행은 츠루하시(鶴橋)의 린보칸에서 나와서 오이케바시(大池橋)의 사업구 시찰에 나섰다. 이 사업구는 조선인의 모범부락이다. 건물의 양식은 물론 복장도 내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내지화 된 것이다. 쓰는 말도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어를 상용하기로 하고, 복장도 조선 옷은 되도록 입

지 않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선일체는 '일상생활부터'라는 신조 아래, 일상생활양식의 모든 것을 새로 세우고 있다. 그중에는 아직 조선 옷을 입고 있는 부인도 가끔 눈에 뜨인다. 조선 옷의 한 부인을 불러내어, 협화회의 직원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불충분한 국어로 여러 가지 구실을 말하고 있었다.

오이케바시의 사업구 시찰 외에도 일정은 있었으나, 시간관계로 중지하고, 오사카에서 가장 변화한 신사이바시(心齋橋)의 견학을 하고 숙소에 돌아 왔다. 또 해산 후는 아사히회관에서 최승희 씨의 무용회를 관람했다.

◎ 오사카 협화회

內鮮協力幾年施, 同同情神徹底期, 七萬會員總出動, 盡忠報國覺於斯. 청하달빈(清河達斌)

10월 31일(금) 맑음

오전 8시 오사카 출발 열차로 마쓰에(松江)로 향했다. 일행 중 죽성(竹城)·윤(尹)·고산(高山)의 세 사람은 귀국하기로 되고, 매일신보의 송원(松原) 씨는 회사명령으로, 또한 동경에 특파되기 위하여 우리 일행과 작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원은 6명이 줄어 어쩐지 쓸쓸하게 되었다.

동 11시 57분 쿠라시키(倉敷)에서 하쿠히(伯備)선에 갈아탔었다. 이 하쿠히선은 풍광명미한 계곡을 누비며 달리고 있다. 특히 다이센(大山)은 산세가 웅장하여, 한번 바라보는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개가 보였다. 때문에 예부터 신령이 몸을 기대게 되어 수험(修驗)을 하는 자는 이 산을 쿠마노(熊野), 킹포우(金峰)에 비유하여 영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다이센은 본토의 중앙을 차지하는 일대 산 봉치로 그 절정은 똑바로 세우면 5천 6백 피트나 되며 산인도우(山陰道)의 최고봉이다.

오후 6시 18분 마쓰에에 도착했다. 마쓰에는 구 시마네(島根)와 오우(意宇) 양군의 교계(交堺)에 해당하며, 북쪽에 성곽이 있고, 남쪽에는 상가가 있다. 또 오오하시가와(大橋川)는 시내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 편리가 있다. 또 오오하시가와에는 마쓰에 항이 있어서, 동서 약 418미터가 되고, 암벽에는 5백 톤 급의 선박이 기항하며, 신지코(宍道湖)와 나카우미(中海)의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사카이 코우(竟港)를 거쳐서, 오키(隱岐), 조선 등의 물자를 집산하고 있다. 또 마쓰에시는 시마네(島根)현의 현청소재지로, 마쓰에는 산인도우(山陰道)의 중앙도시인 것이다. 생각하건대, 마쓰에는 16세기 후반에 호리오(堀尾) 씨의 막내아들에게 성을 짓게 하여, 강 속의 명산인 농어(鱸)에 빗대어, 한(漢)나라의 송강(松江)을 생각해내서 새로이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또 마쓰에의 이름은 호리오 씨의 새로운 호가 아니며, 타이헤이키(太平記)에 보이고 있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오늘은 늦게 마쓰에에 도착했으므로, 시내 시찰도 할 수 없었고, 숙소에서 계속되는 여독을 풀었다.

11월 1일(토) 맑음 가끔 흐림

아침밥을 먹고, 우리일행은 죠산(城山)공원과 마쓰에 성터를 보러갔다. 죠산공원은 카메타(龜田)성산

의 일곽이며, 산인(山陰)지방의 유일한 텐슈카쿠(天守閣)가 솟아있고, 맨 위의 텐구(天狗) 칸은 마쓰에 시를 전망하는 좋으며, 부근에는 마츠다이라 나오마사(松平直政)의 첫 출전기념 동상이 있으며, 또 마츠다이라 나오요시(松平直亮) 찬(撰)의 마쓰에 비(碑)가 있고, 세이난(西南) 전쟁 때의 운석은(雲石隱)전공기념비가 있다. 또 텐슈카쿠에서 내려오면, 축성할 때 옛날을 이야기하는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옛날은 두 그루였으나 지금은 한 그루가 되었다.)

마쓰에성터는 카메타산(龜田山)에 있으며, 일명 천동성(千同城)이라고도 불린다. 이 성은 1601년 호리오 요시하루(堀尾吉晴)가 여기에 축성한 것으로, 뒤에 1633년 호리오 씨의 후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우고쿠 타카츠크(京極高次)가 이에 대신했다. 1636년에 타카츠크가 죽고, 다음 해 마츠다이라 나오마사에게 이봉(移封)되었으며, 이후 자손에게 세습되어, 10대 233년 동안에 걸쳐 거성(居城)하고 있었다. 호루(濠壘)는 완존하고 있고, 텐슈카쿠(天守閣)는 16세기 후반 당시의 유구(遺構)라고 하며, 그 바닥은 동서가 22미터, 남북이 20미터, 높이는 27미터의 5층 누각으로 맨 위 단에 솟아있다.

우리가 숙소에 돌아오니, 현청의 배려로, 마쓰에 시내의 유지 5, 6명이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유림이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도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다. 그중에는 87세의 고령자도 있으며, 마쓰에나 이즈모(出雲)의 유서를 간절하게 설명 해 주었다. 완전히 감탄하면서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내선동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옛날부터 내선 간에는 문화교류가 빈번히 있었다는 것을 실례나 사실(史實)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분위기는 조용하고 화목했다. 구술요지를 기념으로 게재해 두기로 한다.

향계(香溪) 다나카(田中莊次郎) 구술 요지

제가 장년일 때, 우리 이즈모나라(出雲國)의 깊은 곳인 니타군(仁多郡)에서 학교 교편을 잡았으나, 그 군은 이즈모 개척의 조신(祖神)인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와 깊은 연고를 가지며, 신화지(神話誌) 및 전설을 실지 지명으로 비추어 고증하고 있는 일이 있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는 신화시대 이즈모의 히강(簸江) 위에 내려서 (현재의 센츄잔(船通山)이라고 부른다) 야마타노오로치(八岐大蛇)를, 8개의 웅기에 술을 채워서 먹게 하여 취하게 하고, 잘라 죽여서 양민의 고통을 없애고, 이나타히메노미코토(稲田媛命)와 결혼하여 야에가키(八重垣)(장벽을 몇 겹으로 만드는 것)를 설치하여 가정을 꾸미고, 국토개척에 노력했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것이 카미요지(神代誌)에 기록이 되고 있다.

또 8개의 계곡부락은 센츄잔 기슭 방면에 분포하는 카메타케(龜嶺), 요코타(横田), 오후로(大呂), 오우야카와(大八川), 오우마키(大馬木), 코마키(小馬木), 아이(阿井), 민타니(民谷)의 8부락이다.

오로치(大蛇)라는 것은 일본 발음으로 노야(老爺)를 오야지라고 하면, 유력한 족속의 뜻인 것이다.

지명 카메타케(龜嶺)란 일본발음에 유사한 카메자케(甕酒)가 바뀌어 즉 카메(甕)에 술을 가득 부은 것이 아닌가.

카미요지(神代誌)에 코시(高志)의 야마타노오로치(八岐大蛇)로 되어 있으며 또 카메타케(龜嶺) 마을 내에 타카다(高田)의 지명이 있는 것은 글자의 잘못, 즉 시(志)를 다(田)로 뒷날 잘못 쓴 것이 아닐는지.

이 타카다(高田) 부락에는 현재 천연의 커다란 가로 굴이 있으며 또는 대사족(大蛇族)의 괴수와 그 일족이 칩거한 지점이 아닌가 하며, 만약 그렇다면 대사족(大蛇族)의 본거지인 느낌이 든다.

그 마을의 카메타케(龜嵩)천(川)의 연안에 내를 끼고 치하라(千原) 및 시오하라(鹽原)라는 지명이 있으며 시오하라(鹽原)는 그 지방 사투리로 손바라라고 부르며, 표준말은 치(千)는 치(血)로 통하고 시오(鹽)는 시오(潮)로 통한다. 즉 치하라(血原), 시오하라(潮原)로 전면적으로 치시오(血潮)의 하라(原)로 바뀐 것으로 상상이 되어 이 지점은 아마도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와 오로치(大蛇)족이 큰 싸움을 벌인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웃마을 후세(布勢)마을에 마바세(馬馳)라는 지명이 있다. 또 그곳에는 마니와(馬庭) 씨라는 구가(舊家)이며, 이 집안은 신화시대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의 마필을 다룬 집안이라고 전한다.

또 그 마을의 초우자야시키(長者屋敷)라는 지명이 있어서 생각하면 고대에 세력가의 주거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건너 작은 마을 야토(八頭)에 야에가키(八重垣)신사가 있으며, 지금 야에가키신사는 오오하라군(大原郡) 및 야즈카군(八束郡)에도 있으며, 어느 것이나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의 결혼 유적이라고 하나 카미요지(神代誌)에는 야에가키(八重垣)신사는 니타군(仁多郡)에 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야에가키신사를 신적(神跡)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곳의 북쪽에 접하는 오오하라군에 히노보리 무라(日登村)에 히노타니(肥乃谷)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히노타니(肥乃谷)는 히노타니(火乃谷)가 아닌가. 비(肥)와 화(火)는 일본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옛날 고대의 투쟁에서는 화공(火攻)으로써 한 예가 있다. 저기 아마토 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가 동쪽으로 쳐들어 갈 때 스루가(駿河)노보노(能褒野)에서 적들이 불을 놓아서 타케루노미코토를 공격한 일이 있다 (이곳은 현재의 시즈오카(静岡)현 아이즈(焼津)라고 함). 그러기 때문에 이 히노타니도 신화시대 화공(火攻)의 터였다는 것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약 2, 3십리 하류의 히이가와(斐伊川)¹⁸⁰⁾의 연안 오오하라군 히이무라(斐伊村)에 핫풍스기(八本杉)라는 지명이 있으며, 이 지점에서 오로치족(大蛇族)이 전멸했다고 전하며, 지금 아직도 8그루의 삼나무가 있으나, 이것은 고대로부터 이어 심은 것으로 오로치족 멸망 지점을 후세에 전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일설이 있는데, 1877년경 문부부 소속 다나카 요시아쓰(田中義康)라는 사람이 지은 고대사에서 말하기를, 아마타노오로치(八岐大蛇)라는 것은 지세를 감안할 때, 요호로(大呂), 요코타(横田), 시타요코타(下横田), 오야카와(小八川) 등의 큰 못으로서 이 수문의 지명을 키리도우시(切通)라고 했으며, 동서의 산자락을 잘라내서 그 물을 히이가와에 흘러내려, 그때 못 물을 준설했더니 한 보검을 얻었다. 즉 아메노무라쿠모(天叢雲)의 검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 이것 역시 일설을 이룬다.

이상과 같이 사건을 설명했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란다.

1941년 11월 1일 마쓰에 임수(臨水)여관 조선유림 숙박 환영연 석상
향계(香溪) 다나카(田中莊次郎) 씀

180) 히메카와 : 簸川을 말함.

부봉(芙蓉) 호리가메 고로(堀龜五郎) 구술 요지

저희들은 이곳에서 미숙하나마 문예에 뜻을 둔 자들이나, 이번에 조선에서 명망이 높으신 유학자 여러분이 성지참배 도중에 이곳에 두르셔서 이와 같은 환담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중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이즈모(出雲)는 신화시대에 개벽을 맞아 개척의 조신(祖神)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가 이즈모가 좁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다른 나라의 잉여부분을 끌고 와서 융합하여 확장을 도모한 바, 첫째로 조선의 잉여부분을 끌고 와서 융합하여 확장한 것을 현재의 오우야시로초우(大社町)지방으로 삼고, 이것을 쿠니비키(國引)¹⁸¹⁾라고 말하며, 마치 국토를 끌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으나, 이것은 모든 분야의 문화나 물자 수입을 동반한 이민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이 지방 각처에 전설도 남아 있고, 이 시대의 왕래교류는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후 3천년 조선 사람들의 피도 흐르고 있으며 우리 산인(山陰)사람들에게 혼입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 지방의 사람들과 연고 없는 타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마치 동족친척과 같은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래에 한층 친밀하게 서로 제휴하여 공영에 매진하고자 생각합니다.

또 제가 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은 저희 집안 일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돌이켜 보면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즉 1887년 전후에, 마침 제가 11, 12세 경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저희 집안은 이즈모(出雲)의 남부 이이시군(飯石郡)의 카케아이(掛合)라고 하는 산속 작은 시가지의 임시 주거에 살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어느 날 우츠키(杵築)항에, 즉 지금의 오우야시로초에 조선 사람들이 표착하셔서,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로 관청으로부터 보호를 하며 조선으로 송환하기 위해 도보로 히로시마에 향하는 도중 카케아이초(掛合町)의 이와타(岩田)여관에서 1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행은 대충 10명 내외로, 잎사귀가 떨어진 나무에 가끔 씨락눈이 휘날리는 쓸쓸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국회 개설 기운으로 한촌벽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의기가 몹시 왕성하여 지조연마의 단체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시대로, 당시에 그 군청에 봉직하고 또 그 단체를 주도하고 있었던 친형 육봉(六峰)이 주창하여 동지 몇 명을 동반하고 표류해서 지친 적막을 달래기 위해 몇 접이 되는 꽃감을 가지고 그날 밤 조선에서 온 여러분을 이와타여관에 위문하며,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글이 같은 우의로 필담을 교환, 한시를 주고받으며 일행 중 대표되는 분은 경상도 어떤 곳(지명은 잊음)의 한림학사 모씨(이름은 잊음)로서 석상에서 즉흥의 기구(起句)에 가로되 “去國難家看白雲”라고 하였으며, 제가 어린 마음에도 표류하여 지친 가슴속을 잘 짐작하게 하고, 지금껏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단, 햇수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어받은 구(承句)이하의 잊었으나 여관을 찾아서 꽃감을 보낸 호의를 감사하는 뜻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우인 제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인연을 느끼며 감개무량한 것이 있습니다.

181) 나라를 끌어 오다.

여기에 인사와 아울러 50년 전의 비화를 한 토막 드릴 겸 피로했습니다.

1941년 11월 1일 마쓰에 임수여관 조선 숙유(宿儒) 환영 아집(雅集) 석상
부봉(芙蓉) 호리가메 고로 슘

계속해서 예정대로 시회(詩會)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아작(雅作)을 얻고, 이번 여행기가 한층 이채
를 첨가한 것을 기뻐했다.

○ 松江雅集

白髮朱顏似老仙, 詠吟武伴夜縣縣, 延縣米壽身倍健, 獨樂兒孫繞膝前. 전중장(田中莊)
數聲漁笛動高秋, 客上名區第一樓, 邂逅新知傾蓋地, 暗消萬里旅人愁. 서촌재극(徐村載克)
綠江十里浪花秋, 一把青襟共倚樓, 數幅瓊瑤多厚意, 同來慰我望鄉愁. 가천구사(嘉川久士)
水國蒼葭白靈秋, 山陰名士集湖樓, 無數片帆松島向, 逍遙半日滌塵愁. 부산삼(富山森)
松江江上菊花新, 同志相逢此一樓, 披瀝胸衿如舊識, 却忘千里旅窓愁. 강본봉훈(康本鳳薰)
內鮮白髮弄清秋, 樓下水中水上樓, 今日松江分手後, 爲民爲國是吾愁. 청하달빈(淸河達斌)
楓菊正妍九月秋, 技桑名春聚江樓, 維新隣好非凡爾, 肝膽相傾忘旅愁
또한,
漁船無數泛江湖, 始見玄灘第一區, 張翰東萊何意味, 十年隱逸不忘鱸. 백천훈영(白川堧榮)
紅葉黃花九月秋, 郡賢來訪泛湖樓, 慇懃談笑清無限, 前路斜陽使我愁. 정순현(鄭淳賢)

○ 소화(昭和) 신기(辛己)년에 조선노유(老儒) 일단에게 임수정(臨水亭) 석상에 드림.

煙水滄茫萬頃湖, 湖樓迎客對名區, 漁歌一曲惹吹興, 欄外時跳三尺鱸.
또한,
共倚碧空湖畔樓, 仙掌呈媚嫁洲羞, 松江有此風光勝, 賴恢諸賢詩思不. 마쓰에(松江素雲)
十五年前御客裝, 遊蹤印在古平壤, 今迎高士談曾昔, 故態慚吾詩酒狂.
(계림명사를 맞이하여 느낌) 요시마츠(吉松吉樹)
鷗鷺訂盟湖上秋, 群賢迎得倚高樓, 明朝大社期參拜, 東道知無風雨愁.
(迎鷄林儒宗) 나가오(長眉一夫)
鷄林寄寓幾春秋, 相遇舊知登當樓, 半日清談歡不盡, 詩適何用說新愁. 후카즈(深津精)
正是碧雲湖畔秋, 鷄林耆宿共凭樓, 風流唱和清談興, 半日閑遊慰旅愁.
(鷄林詞宗歡迎雅集席上公賦呈偶得諸賢次韻成原唱) 호리 마코토(堀誠孝)
蓼紅蘆白入秋新, 湖畔清遊逐雅賓, 媛嶺仙峰迤一揖, 山靈亦是似相親.
倚盡湖樓眺望清, 遠來賓客結吟盟, 詩清酒思風塵外, 鷺地鷗天肝膽傾.
(鷄林詞宗歡迎雅集席上即事) 호리사(堀謝孝)

○ 마쓰에(松江) 즉경(卽景)

萬里風烟一眼前, 松江秋色碧連天, 詩情遙入迷茫處, 數點閑雲雁鴨邊. 가천구사(嘉川久士)

○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

入社先祠祈願期, 年年十月最靈知, 百八六神都會地, 邦家祝福不違時. 청하달빈(清河達斌)

주객이 점심을 함께 하고, 우리는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의 참배로 향했다. 마쓰에를 출발한 기차는 경치가 그림 같은 신지코(宍道湖)호반을 달려서, 약 40분만에 신가와(新川)를 건넌다. 또 다시 기차는 히이가와(斐伊川)의 철교를 건넌다. 히이가와는 옛날 히메카와(簸川)라고 했으며, 이 강의 상류에는 신화로 유명한 오로치(大蛇) 퇴치의 유서 깊은 곳이 있다. 기차는 이마이치(今市)에 닿았다. 이마이치라는 지명의 유래는, 하나조노(花園)천황의 시대, 호우토쿠(寶徳) 연간(15세기 후반)에 인접한 곳으로부터 서로 모여, 일상용품의 시장을 열고, 사람들이 “이마 이치가 하지맛다.(지금 시장이 열렸다)”라고 외치면서 서로 호응하여 집합했다는 것에서 드디어 지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마이치에서 타이샤(大社)선으로 바꾸어 탔다. 타이샤역에 내려서 우카바시(宇迦橋)를 건너면 큰 홍살문이 있다. 이것을 지나쳐서 비탈길을 올라가면 둘째 홍살문에 이른다. 여기부터는 참배도가 되어, 중앙에는 몸을 밝히는 다리가 있다. 참배도 좌우에는 노송이 길게 이어져서 엄숙한 신비감이 넘친다. 더 나아가서 벽동(碧銅)의 큰 홍살문을 지나면 금단의 경지에 이르며, 사방을 거친 울타리로 두르고, 안에 배전사무소(拜殿社務所), 사무소, 팔족문(八足門), 누문, 신찬소(神饌所), 제화전(齊火殿), 관제루(觀祭樓)를 비롯하여, 타이샤의 섭사(攝社)나 말사가 가지런히 서로 바라보고 있다.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의 제신은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이다. 미코토(命) 또는 이름은 오우나무치노미코토(大己貴命), 오오모노누시노미코토(大物主命),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 야치호코가미(八千矛神)라고도 일컬어졌으나, 즉 미코토에게는 귀한 신위(神威)와 신덕이 광대무변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미코토는 일찍이 국토를 경륜하고 사신(邪神)을 소탕하시고, 인민을 길들여서, 농업을 가르치고 의업(醫業)과 금염(禁厭)의 법을 창제하여, 국가 성립의 기초를 정하셨다는 것이다. 마침 그때 아마테라스오우미카미(天照大神)는 사신 건어뢰명(建御雷命)을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에게 보내서 “이 아시하라노 나카츠클니¹⁸²⁾는 우리의 자손이 통치할 땅이다”라고 하는 칙령을 전했다고 한다. 미코토는 사신에게 “나는 원래 그것을 부정하며 받들 마음이 없다, 우리 아들 고토시로누시노미코토(事代主命)과 의논한 후 회담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때 고토시로누시노미코토는 치료받기 위하여 미호사키(美保崎)라는 곳에 있었으나, 사신과 함께 급히 돌아와서, 부군(父君)에게 “항송하도다! 말씀하신대로 받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때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는 “이 아시하라노 나카츠클니(葦原乃中國)를 황손에게 받쳐서 영원히 하늘의 후사(後嗣)에게 지키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신고(辛苦)경영의 나머지 이루어진 국토를 통

182) 葦原乃中國 : 일본.

들어 헌환(獻還)하였다. 아마테라스오우미카미는 이것을 기꺼이 여겨, 천황의 황궁과 같은 궁거(宮居)를 주었다. 이것이 즉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의 기원인 것이다.

우리는 먼저 사무소에 들러, 참배자 명부에 서명하고, 정식 참배를 했다. 참배를 마치고 신직(神職) 담당자로부터 타이샤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보물전을 참관했다. 여기에서 참관한 것 중에 제가 가장 눈을 부릅뜬 것을 두세 가지 들어서 설명해 보자.

1. 수구(燧臼), 수저(燧杵)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발화기(發火器)로서, 그 기원은 멀리 오오쿠니누시노미가 나라를 만들 때, 선부¹⁸³⁾였던 수호신(水戶神)의 손자 개팔옥신(櫛八玉神)이 해포(海布)의 자루와 해존(海尊)의 자루로써 수구저(燧臼杵)를 만들어서 불을 만들어내고, 그 뒤에 해초대신에 나무를 가지고 하게 되었으며, 노송을 수구(燧臼)로, 모목(卯木)을 수저(燧杵)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팔옥신(櫛八玉神)의 자손인 별화생(別火姓)에서, 조신의 유업을 계승하여, 타이샤에서 제작하게 된 것이다. 그 재목은 타이샤 본전 뒤의 우가산(宇伽山)에서 채취한 것으로, 그 규격은 수구(燧臼)가 길이 2자 6치, 폭 6치, 두께 1치, 수저(燧杵)는 길이 2자 1치, 직경 4푼 5리(길이와 폭은 다소 변형이 있기에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인 것이다.

2. 돌도끼(石斧)(雷斧)

1893년 10월 20일 공학사 오오하라 진노스케(大原甚之助)가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에 참배하여, 경내를 순배할 때 이것을 발견하여 쟁케(千家) 궁사(宮司)에게 기증한 것이나, 돌도끼는 석기시대의 유물로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것은 마제 돌도끼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돌도끼를 뇌부(雷斧)라고 말하는 것은, 뇌우(雷雨) 때문에 토사가 유출하여, 가끔 이러한 유물이 사람 눈에 떨어 정도로 노출하게 된 것을 뇌신(雷神)이 던져내린 것으로 생각하여, 뇌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3. 고대 엄옹(嚴瓮), 3종 6개

엄옹은 고대에 제사에 쓰인 도기로서, 그 질에 의하여 연대(年代)를 나누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 한 종류는 진무(神武)천황기에 천지향구산(天之香具山)의 적토(赤土)로써 80옹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그때의 나라 만들기가 이즈모타이샤의 오오카미(大神)를 받드는데 쓰인 것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이다. 한 가지는 5, 6세기 경의 것이며, 또 한 가지는 9, 10세기 경의 것이다.

4. 봉납선

1781년 10월 17일(약 160년 전) 토사(土佐)의 고장 아마모토(山本助藤)라는 호랑이 띠 사나이가 이즈모타이샤의 오오카미의 영험이 뛰어남으로서, 시주한 보답을 받고자 바라며, 작은 통나무배를 만들어, 그 배속에 관영전(寬永錢)(엽전) 15문을 넣어서 집 앞 작은 개천에 띄어 보낸 것이 2년의 세월을 거쳐 1784년 4월 27일 키즈키(杵築)의 이나사(稻佐) 바닷가에 표착한 것이다. 이것을 마을의 도부신우위문(渡部新右衛門)이라는 자가 습득하여, 당시의 출운국조 천가준수(出雲國造千家俊秀)에게 헌납한 것이다.

보물전의 참관이 끝나고, 나라 지키기 담판으로 유명한 이나사(稻佐) 바닷가에 갔었다. 이나사 바닷가는 타이샤의 서쪽 약 7백 미터의 해안 일대의 모래사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 옛날, 오오쿠니누시노미 코토 대(對) 타카마가하라(高天原)의 사신 신경진주(神經津主), 무뢰(武雷)의 두 신과의 담판에 얽혀 있

183) 膳夫 : 요리하는 사람.

는 여러 신화는 여기에 흩어져 있는 작은 바위, 작은 섬에 감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가에 서서, 북쪽에 어기산(御碕山)의 비취색 풍경을 등지고, 남쪽은 멀리 삼병(三瓶)의 빼어난 봉우리를 향하여, 옛날을 추억하는 듯 이곳에서 엄격하게 대립하여 담판했던 신들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다. 또 밀려오는 파도소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하다.

이나사의 해변을 보고 나서, 죽야옥(竹野屋)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다. 오늘밤은 기차 안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된다.

11월 2일(일) 맑음

산인(山陰)선에는 침대차가 없다. 그만큼 뒤(裏) 일본은 문화수준이 낮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들 일행은 좌석에서 견디며 하룻밤을 할 수 없이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기차가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니 오전 6시 12분이었다. 일행은 역전 산요(山陽)호텔 식당에 들어가 아침밥을 먹고, 또다시 동 8시 15분에 출발하는 칸몬(關門)을 연락하는 작은 기선을 타고, 토목일본의 개가가 올랐던 칸몬대터널은, 이 해저를 잘도 뚫었다고 생각하면서, 동 30분에 도착했다.

동 9시에 모지(門司)를 출발한 기차는 약 2시간 만에 온천의 고을로 유명한 벳부(別府)에 도착했다. 간밤은 숙면을 못한 탓인지, 철도연선의 경치를 가끔 놓친 것 같다. 참으로 유감이다. 가끔 본 것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노약자나 부녀들이 젊은이를 대신하여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정경이다. 때마침 수확기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이러한 정경이 보여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벳부는 익켄기행(益軒紀行)에 따르면 “이것은 120년 전의 일인데, 벳부지방 지진으로서, 옛날 벳부는 마을이 완전히 바다가 되고, 옛날의 벳부는 지금 거리의 수백 미터 동쪽에 있었으며, 그 당시 마을의 서쪽인 온천은, 지금 썰물자리 속에서 나왔다. 또 옛날 벳부의 북쪽 가까운 곳에, 히사미츠(久光)라는 마을이 있었으나, 이것 역시 지진으로 바다가 되었다. 지금은 없다…….” 이 문헌에 의하여 보아도, 벳부는 상전벽해의 변고가 거듭된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한 천재가 있었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온천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벳부가 온천지대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오오이타(大分)시의 타카사키산(高崎山)에 인접하고, 북쪽은 토요오카초(豊岡町)를 잇는 동서 8킬로, 남북 4킬로, 면적 약 8만 평방킬로미터의 온천지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벳부, 하마와키(濱脇), 가메야마(龜川), 가카이지(觀海寺), 근석(根石)¹⁸⁴⁾, 묘반(明攀), 간나와(鐵輪), 호리타(堀田)의 각 온천장이 있으며, 유후인(由布院), 츠카하라(塚原) 각 온천도 함께 대 벳부 온천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중에 시영온천이 32개탕, 기타 46탕, 개인소유를 합쳐서 용출하는 온천 구가 1,916구, 증기를 뿜어내는 구멍이 714, 하루의 용출량은 약 30만 섬에 도달한다. 벳부시의 관광에서는 벳부를 다음과 같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 전시(全市)의 2천 남짓 출구에서 용출되는 온천 김은, 유후츠히루미(由布鶴見)의 고봉으로 강풍을 막고 있는 종용한 산기(山氣)에 화합하며, 또 푸른 물결의 오존을 나르는 신선한 바다기운과 일망천리 급하지 않는 비탈의 가로누운 초원에 비치는 햇빛

184) 시바세키(紫石)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은 사계절 빛나고 산수자연의 묘함에 녹아서, 유감이 없으며 우리 벳부시의 전체 모양은 보건과 요양, 관광과 유람의 이상향으로서 약동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문장은 다만 미사여구를 나열한 한 것이 아니고, 벳부의 진상을 보는 자는 반드시 이 문장을 배반할 것이다.

우리는 해안거리에 있는 여관 청풍장(淸風莊)에 여장을 풀고, 온천에 들어가서 20일간에 걸친 여독을 풀었다.

밤에는 또 지난번에 이어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의 내용은 별항과 같다. 또 좌담회 도중에 미나미 총독의 매제인 육군소령 무라타(村田) 씨가 내방 해 주었다.

○ 벳부온천

溫泉今日洗雀驅, 俯仰中間多別區, 綺山八景顏前鏡, 溪谷三勝背後圖. 청하달빈(淸河達斌)
聖域拜觀名勝遊, 露花霜葉適時秋, 若草斜陽馴在鹿, 松江朝日泛來鷗.
黃金老佛幾千寺, 碧樹神宮第一州, 須臾浴罷淸風閣, 海國青山散不收. 부산삼(富山森)

제3회 좌담회

일시 : 11월 2일 (오후 8시부터 동 10시까지)

장소 : 벳부시 키타하마(北濱)해안 청풍장

○ 영전(永田) 단장 지금부터 제3회 좌담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연일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밤 회합으로 수고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세신궁참배 이래의 감상을 전회와 중복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세신궁에 참배하고 ‘오카구라(御神樂)’를 봉납할 때는, 일행 중에 참가 못했던 가천(嘉川), 청하(淸河), 죽성(竹城) 세 사람에게는 몹시 곤란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은 그 감상을 아울러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가(山佳) 경북 강사 음악에 대해서는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부터 카구라(神樂)를 들은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음악에는 각별한 취미를 갖고 있었기에, 카구라를 들었을 때에도 흥미 깊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고래의 음악이나 서양음악을 연구한 일은 없었으나, 그러면서도 듣는 것은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왕직에서 연주하는 아악도, 경학원의 석전제 때의 연주하는 제악도 고아하며 엄숙하지만, 카구라도 매우 고상한 음률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카구라의 고상한 음률을 듣고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소위 신묘(神妙)한 경지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부산(富山) 함북 강사 옛날 신라궁중의 악(樂)에도 신인이화지곡(神人以和之曲)이 있다 하지요.

○ 강본(康本) 평남 대표 저도 카구라를 듣고 조선 고래로 전해지는 조선 아악과 이 카구라 사이에 유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악기의 고(鼓), 생황(笙簧)과 같이, 또 춤 같은 것도 그 복장이 조선과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도, 오랜 옛날부터 내선 간에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저도 카구라를 듣고 내선일체는 이론이 아니며, 확고한 근거 아래에 세워진 사실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옛날부터 그 악(樂)을 듣고 그 정(政)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음악에 취미를 갖고 있음으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내지도 조선도 그 악기는 대륙으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계에 대해서 말하면, 궁(宮), 상(象), 계(稽), 계상(稽象), 각(角), 치(齒), 우(羽)의 7음계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조선의 가야금으로 서양 악보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까 카구라를 듣고, 내선일체는 이론이 아니며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말했으나, 카구라에 맞추어 춤추는 것을 보고, 이 느낌은 더 한층 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무악은 오양선무(五羊仙舞)와 잘 닮았습니다. 오양선무는 오늘날에도 경주 근처에 가면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을 보면, 그것의 나아가고 물러서는 동작이 양쪽 모두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내선문화는 그 근거가 같고, 따라서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생각해 온 내선일체 관념은, 비로소 내선은 태고적부터 이어짐이 깊고, 어디까지나 내선일체는, 이론이 아니고 확고한 근거를 가진 사실인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역사를 통하여 내선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조시대에는 내선 간의 교섭이 소원했던 듯한 느낌이 있으나, 그 이전의 역사 특히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 나라와 같은 느낌마저 들도록 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제인이 내지에 귀화한 자가 몇 만이나 된다고 말함으로, 그 자손은 오늘날 놀라운 숫자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다음은 나고야 성을 참관하고, 어떤 감상이 일어났는지 그 감상을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 **강본 평남 대표** 나고야 성을 본 감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축성방식이 조선 것과 방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아마도 대륙의 축성방식을 조선으로 가져와서, 내지는 또다시 조선에서 수입했겠지만, 그 기술적인 가치로 말한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나, 조선의 축성방식과 비교해 보면, 나고야 성은 참으로 웅대하고 또한 그 기술이 치밀한 점으로, 조선의 성보다도 훨씬 우수합니다. 대체로 모방한 것이나 수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방불하거나 또는 떨어지게 되어 있으나, 나고야 성은 그 방식을 조선으로부터 채택하고, 그 기술적인 가치는 조선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곳에서 수입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말을 바꾸어 하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잘 씹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채택해야 할 것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 **영전 단장** 성의 형식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나고야 성과 경주 성이 같은 것 같습니다.

○ **영전 단장** 부여의 황산성에 터에 올라 가보아도, 천주각(天主閣)의 흔적 등이 있습니다. 나고야 성도 임진란 이후의 축성이기 때문에, 백제식을 가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도(帝都)에 들어가서의 감상을 먼저 니주우바시(二重橋) 앞에 가서 궁성에 배례한 감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산가 경북 대표** 성지참배 출발 이래 단장님의 지도로 조선에서 궁성요배시각에 궁성요배를 했을 때도, 궁성이 가까운 느낌이 들어 궁성요배의 뜻이 깊은 것을 느꼈으나, 니주우바시 앞에서 공손히 나아가서 궁성을 향하여 받들어 절을 했을 때는, 오직 감격에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궁성을 참관하여, 교토의 도요쿠니(豊國)신사의 공사인 요시다(吉田) 씨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요시다 공사가 말한바 “일본에는 지나와 같은 대규모의 성곽이 필요 없는 것은 신민이 모두 성곽이 되고 있으며 모두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연상하며, 궁성을 참관해 보면 과연 그렇구나, 황공한 일이지만, 그렇게 규모가 웅대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삼엄함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전차를 타고 보아도, 승객은 궁성 앞을 지나칠 때는 모두 습관적으로 궁성 쪽을 향하여 배례를 하는 데는 놀랐습니다. 그중에서도 파마를 한 여성 즉 물질문명에 현혹되어 정신적인 면은 등한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고 참으로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배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요시다 공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즉 일본문화는 외면만으로는 진실을 보기 힘들다. 그 내용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파마여성을 예로 끄집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 여성도 외면적으로는 과연 서양풍에 찌든 것 같이 보이나, 그 정신만은 일본여성의 알맹이를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 **강본 평남 대표** 궁성요배는 언제나 해 온 것이나, 니주우바시 앞에서 황공을 향하여 받들며, 경건하게 경례를 했을 때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동경에 들어 왔을 때는 마침 방공연습 중이었으나, 궁중에서도 연습의 의식이 있었는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으며, 참으로 황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존의 땅, 궁중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방공에 진념(軫念)하신다는 것은 오로지 황공함의 극치였습니다.

○ **부산(富山) 함북 강사** 니주우바시 앞에서 황공에 배례했을 때는 마치 지척 앞에서 용안을 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영전 단장** 다음은 메이지신궁에 참배한 그 감상은 어떠했습니까.

○ **서촌(徐村) 충남 강사** 국가의 대사업은 메이지대제의 대에 이르러서, 크게 펼쳐서, 동아공영권의 확립의 싹틈에도 메이지대제의 대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국(肇國) 정신이 팔굉 일우의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공영권도 필경 조국 정신의 발로임으로, 그 정신을 메이지대제에 있어서, 비로소 해외에 선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하게 메이지중흥을 해낸 명군임을 생각할 때, 신전(神前)에 머리 숙이는 순간 성은이 끝없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 **영전 단장** 그야말로 이야기대로입니다. 진무(神武)천황이 즉위한 이래 메이지대제의 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2천 5백여 년이 되지만, 조국(肇國)의 대이상이 대제의 시대가 되어 비로소 부흥한 것입니다.

○ **백천(白川) 황해 강사** 메이지신궁 경내에 있는 성덕기념회화관을 참관해서, 대제의 성덕을 더 한층 강하게 느꼈습니다.

○ **영전 단장** 그러면 유시마(湯島)성당을 참배하여, 어떤 감상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천 경기 강사** 저희들이 유시마성당을 참배하여, 느낀 것은 먼저 경학원과 비교하여, 그 규모가 웅대한 것, 건축물이 청초한 것에 놀란 일입니다. 저는 성당에 참배하여 시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졸작

이지만 가슴이 메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 피로해 보고자 합니다.

東巡聖駕仍留東
後學林林教化中
瞻仰千秋多感慕
青衿簫灑杏壇風

공자님이 철환천하(轍還天下)¹⁸⁵⁾를 하셨다고 하지만, 공자님이 오늘날 천하를 주유하셨다면, 반드시 동경에 머물러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곡부(曲阜)에 있는 공자묘가 장개석 군의 총탄을 맞고 황폐화된 것을 본다면, 공자의 영혼이 아마도 불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일본의 공자에 대한 존앙심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나인보다 훨씬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성당은 참으로 청정해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게 되지요.

○ 가천 경기 강사 저는 석전제를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전 때 보면, 대성전(大成殿)에서 제관은 엄숙하게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문묘의 동서무(東西廡)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나, 성의가 없고 통제가 없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것을 개혁통제하지 않고, 일사불란한 질서 바른, 제전다운 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봄 가을 두 차례밖에 없는 석전제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집행하는지, 감독을 맡은 사람의 심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시례되는 말이지만, 봉작(奉爵) 헌작(獻爵) 같은 것은 다만 형식적으로 어린애 장난 같이 보일 때는 참으로 분개마저 느껴집니다.

○ 서촌 충남 강사 대성전 집사들은 어떻든, 동서양무(東西兩廡)의 집사는 가천 씨가 말한 것처럼, 보기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저는 그렇게 된 원인은 제관이 일정하지 않고, 또 집사들의 훈련이 모자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그 점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차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유시마성당에 참배한 감상을 말씀드립니다. 유시마성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문회(斯文會)는, 내지의 유학계의 일대 추진(推進)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문회를 중심으로 유교를 숭상하고 유학을 연구하는 대동문학원을 설립하는 등 이 길을 진흥하기 위하여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하해야 할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마음으로 유도를 숭상함으로써, 유시마성당도 저절로 엄숙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문회의 간주나 위원들도 상당한 권위자와 학자를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문회에서 발간한 '현대일본의 유학'이라고 하는 큰 책을 보아도 관계자가 어떻게 황도에 기초를 둔 유학 즉 일본적 유학을 규명하고 있는가, 그 열심과 유학에 대한 조예의 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소위 유림대표로 추천되어 성지참배까지 오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50세나 된 유림으로서, 지금까지 유교의 진수를 연구할 기회를 못 가진 것은, 부끄럽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중견 유림으로서 성지참배를 할 만큼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하고 싶어집니다.

다음은 누군가 말한 것처럼, 경학원의 석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각 문묘에서 경전제(經筵祭)를 거행하는 것을 보아도 대동소이하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래의 유림

185)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세계 각지를 여행함을 이르는 말. 공자가 교화를 위하여 중국 천하를 돌아다닌 데서 유래한다.

이 자칫하면 형식 만에 얽매어 실천을 가볍게 본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우리들은 실천유교를 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는 종래에 형식에 구애받은 유교로부터 탈피하여, 황도정신에 따른 실천유교를 수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천 경기 강사** 각 지방유림이 집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방의 향교에 집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향교가 황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으나, 유림이 그 황폐한 정황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유림은 그 책임을 느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 **영전 단장** 유시마성당에는 배향(配享)¹⁸⁶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가천 경기 강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송우암(宋尤庵), 이퇴계, 이율곡과 같은 여러 선생은 당연히 배향해야 되지만, 배향된 분 중에는 우리들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음으로,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런 분은 배향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 **강본 평남 대표** 조선의 문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대로, 안문성공(安文成公)이 지나로부터 그 제도를 본 받아 온 것으로서, 그 제도에 다만 조선의 명유(名儒)를 배향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천 씨도 말한 것처럼, 문묘에 배향된 분들 중에는 우리들로서는 반드시 받들어 올려야 한다는 (물론 배향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천 경기 강사** 경학원에 내지의 명유를 배향하면 어떨까요.

○ **영전 단장**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시마성당에도 배향하지 않는데 오로지 조선에서만 배향한다는 것은 어떨지 하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때, 이곳의 유지로서 이름 있는 육군소위 무라타(村田恰) 씨가 찾아왔다. 그는 재향군인으로서 지방발전에 적지 않는 분투를 하고 있다는 듯, 또 우리 일행이 그의 내방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그가 총독각하의 매제라고 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온 사람이면 꼭 만나고 싶다고 함으로, 참으로 넘치는 온정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었던 것이다. 또 그는 이곳 조선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았을 때는 어쩐지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좌담회가 중단된 것이 마음에 걸려, 충분한 이야기도 못하고 자리를 떴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참으로 유감이었다.

일동은 그가 사양하여 떠난 후, 뜻밖의 진객 내방에 오직 감사함과 동시에 그의 각별한 조선인에 대한 후의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의 조선인에 대한 후의에 보답하여, 그의 건강을 축복했다.

○ **청하 함남 강사** 간단하게 저의 감상을 말씀드립니다. 유시마성당에 참배하고 나서는 과연 그렇구나 하고 머리가 숙여지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사문회에 있어서 '공자송덕의 노래'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문부대신의 인가까지 거쳐, 음악학교에 의뢰하여 작곡도 마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염원하는 것은, 이 노래가 하루라도 빨리 일반에게 보급되어, 전국 방방곡곡 이 노래가 소리 높이 불러 퍼질 것을 간절하게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온갖

186)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물질적인 시설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 주] 덧붙여서 ‘공자송가의 노래’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시모히라(下平未藏) 씨 작사, 나카타(中田章) 씨 작곡이다. 작사 4절을 들어 본다.

- (1) 태산만고(泰山萬古)는 구름에 서고
사천천세(四川千歲)의 물은 서두르지 않고
공자의 위업성덕은
산하와 함께 다하지 않을 것이다
- (2) 효제충신 백가지 행동을
뚫는 길은 하나이기에
수신제가 만민을
이끌어 주는 근본은 인(仁)에 있다
- (3) 전해 준 길은 시키시마(敷島)¹⁸⁷⁾의
야마토 고코로(大和心)¹⁸⁸⁾를 운택케 하고
색과 향기도 묘하게 피어나서
나라의 꽃이여 운택하게
- (4) 유시마의 언덕에 높이 솟는
대성전(大成殿)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평화의 빛이 빛나리.

○ **영전 단장** 고려신사에 참배하고 그 감상은 어떻습니까.

○ **산가 경복 강사** 이조 오백년 이전은 내선이 바다 건너 한 나라와 같은 친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고려신사에 참배하여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신사를 참배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깜짝 놀랄 느낌을 일으키게 한 것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팻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살문 대신에 신사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내선 간이 옛날부터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문헌을 보아서도, 고려촌의 유래는 참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당나라와 싸워서 멸망했기에, 고국을 떠나서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이들 귀화인을 우대해서 특히 고려촌을 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도 조정의 우대책에 보답하는 위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광막한 무사시노(武藏野)를 개척한 사람은, 위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고려신사를 참배한 것은 참으로 뜻이 깊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 **영전 단장** 이야기대로, 고려촌은 내선일체의 성지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짜고 연합군을 만들어 고구려를 친 것입니다. 고구려는 패망하였으므로 장병과 고관을 비롯하여 많은 민중이 일본에 귀화해 왔으므로 무사시노(武藏野)의 한 귀퉁이 땅을 조정으로부터 하사받고, 이 땅

187) 일본국의 별칭.

188) 일본인 마음.

을 열심히 개척한 것입니다. 또 황무지를 옥토로 변하게 하고, 또 내지인과의 결혼도 왕성하게 되어 그 자손으로부터는 많은 무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저 유명한 카마쿠라(鎌倉)무사 가운데도 그와 같은 혼혈아가 많다는 것임으로, 그때부터 우리 조상은 혼연하게 내지인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칸누시(神主)의 자손은 성을 고려씨로 하고 방계는 다른 성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조선 안에 살고 있는 내지인에게도 이와 같은 문헌상의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의 내선일체를 두루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미나미 총독 각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은, 총독정치의 최고 목표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기에, 내선인은 함께 이 노선에 따라서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정(鄭) 경남 대표 저는 1910년에 고려촌에 간 일이 있으나, 그때도 주민이 대단히 환영 해 주었습니다.

○ 영전 단장 신직(神職)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을 마치 고향에서 찾아 온 사람아리라도 접대하는 것처럼 환영해 주었으며, 매우 유쾌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추원의관 일동이 증정한 돌로 만든 코마이누(高麗狗)를 보았을 때는, 제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 정 경남 대표 아까 고구려가 당나라에 패배하여, 내지에 귀화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으나, 가까운 이조시대에도 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지에 카사이(河西) 씨가 있습니다만 이 카사이 씨는, 전남의 명문 하서(河西) 선생¹⁸⁹⁾의 아들이 내지에 귀화하여, 자신의 부친 호로써 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즉 내지의 카사이 씨는 하서 선생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영전 단장 코다마(兒玉) 대장 등도 고려촌 출생이라고 합니다.

○ 정 경남 대표 이조시대에 내선관계가 소원해 진 것은, 지나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저는 철도연변의 농가에서 감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면, 풍속이 이렇게도 닮았구나 하고 깊이 생각하며 느꼈습니다.

○ 영전 단장 다음은 미토(水戸)의 감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강본 평남 대표 저는 무엇보다도, 대일본사의 초고를 보고 감개무량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3백년 동안의 공적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일본사 편찬 사업이 제일 눈에 띄게 됩니다. 대일본사 편찬은 대의명분을 천명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메이지유신의 대업이 성취한 것도 대일본사가 일어나서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영전 단장 도쿠가와 막부는 다이묘(大名)의 충성을 복돋웠고, 그 충성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허나 왕정복고의 대의가 완수된 것입니다, 요는 개인의 명리(名利)를 초월한 것입니다. 미토학의 발흥과 대일본사의 대성(大成)은 도쿠가와 막부의 커다란 공적인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미토는 역사의 고장답게, 한적하고 편안해서 좋았지요.

○ 가천 경기 강사 내지인이 고적이나 보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조선인은 이에 훨씬 못 미치지요. 옛날 우가키(宇垣) 씨가 조선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 어느 재벌택의 정원에 훌륭한 사리탑이

189) 하서 김인후(金麟厚)를 말함. 1510~1560년.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출처와 유래를 물었더니, 그 출처가 조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것을 꼭 원래의 곳으로 돌려주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경주불국사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7만 엔이라고 하는 거액을 내서, 공양비라거나 운반비용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 **백천 황해 강사** 소우코우칸(彰考館)에 있는 대일본사의 목판을 보고, 해인사의 대장경 목판을 생각해 냈습니다. 해인사에 있는 목판은 7백년이나 되었다는데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석유(碩儒)로서의 후지타 도코(藤田東湖) 선생의 묘는 너무나도 빈약했지요.

○ **영전 단장** 다음은 닛코(日光)를 보신 그 감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부터 닛코를 보지 않고 켓코(結構)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좋았지요.

○ **산가 경북 강사** 그 경치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화엄(華嚴)¹⁹⁰의 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좋은 대조가 되었습니다. 닛코도 금강산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닛코는 인공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금강산에는 자연미가 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요. 금강산에도 인공미를 보태면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지요.

○ **강본 평남 대표** 오늘까지 내지의 많은 사찰을 보아 왔습니다만, 닛코에서 본 토우쇼우구우(東照宮)는 참으로 웅대하고 장엄했습니다. 특히 수백에 이르는 영조물(營造物)이 전부 국보로서, 또 모든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은, 도쿠가와 막부의 문화가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눈을 끈 것은 조선의 예조판서 이직(李穡) 씨가 토우쇼우구우의 완성을 경하한 명(銘)이 조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 **영전 단장** 토우쇼우구우는 도쿠가와 시대의 예술의 진수를 모은 것으로서, 도쿠가와 막부의 사치풍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닛코를 보시고, 그 감상은 가슴 가득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도 늦었고, 내일 예정도 있고 하니 오늘밤은 이쯤으로 끝내고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11월 3일(월) 맑음

오늘은 내지를 떠나는 날이다. 어쩐지 이별이 힘들고 마음이 남는 기분이 들었다.

오늘 일정은 맨 먼저 지옥순례이다. 벧부를 찾는 자는 반드시 지옥순례를 한다고 할 만큼 유명한 곳이다. 그 여정은 약 20킬로나 되며, 소요시간도 약 2시간 반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이 넓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우리 일행은 카메노이(龜之井) 유람버스를 타고, 소녀차장이 연도의 명소를 안내하면서 지옥에 도착했다.

먼저 회오리(龍卷) 지옥을 보았다. 이 지옥은 염류천(鹽類泉)으로 온도는 백도(분천 할 때 측정) 용출(湧出) 개소의 면적은 약 25평, 목욕용의 유노하나(湯花)를 산출한다. 다음의 피 못(血池) 지옥은 황산화철분을 함유하고, 온도는 77.5도(분천 측정) 면적은 367평 있으며, 피 못 고(膏), 피 못 염색, 목욕용의 유노하나(湯花)를 산출한다. 다음은 중머리 지옥을 보았다. 이 지옥은 칼슘이온을 함유하고, 온도는 98.5도(분니(噴泥)측정), 면적은 4개소에 80평, 중머리 만두, 삶은 달걀 등을 팔고 있다. 다음은 바다 지

190) 케곤(華嚴)의 오기로 보임.

옥을 보았다. 온도가 85.9도(분기측정), 산성천이다. 이 면적은 3개소로 1,580평이나 되며, 지옥 염색 옷, 삶은 달걀 등을 판다. 다음은 도깨비 중머리 지옥은 온도가 99도(분기측정)로,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칼슘이온 등을 함유하고 있다. 면적은 2개소로 약 90평이 된다. 또 위장약을 조제하여 팔고 있다. 다음은 아궁이 지옥은 온도가 98도(분기측정) 염류천(鹽類泉)이다. 면적은 4개소에 1백평, 아궁이 빵, 목욕소(素), 위장약 등을 팔고 있다. 다음으로 도깨비산 지옥을 보았다. 이 지옥은 온천 약어 양식장이며, 온도는 알 수 없고, 염류천(鹽類泉)이다. 면적은 3개소에 120평, 약어가죽 가공품을 팔고 있다. 다음에 흰뿔 지옥은 칼슘, 라듐을 함유하고, 온도는 94.5도(분기측정), 면적은 1개소에 70평이다. 다음은 하치만(八幡) 지옥은 라듐, 유황성분, 탄산성분을 함유하고, 온도는 91도(분천측정), 면적은 4개소에서 약 70평이 된다. 특산품은 아와타(八幡) 지옥 고(膏), 치명고(痔命膏), 진통액 등이다. 츠루미(鶴見), 무켄(無間)의 양 지옥은 단순천으로 온도도 67도(분천측정)이다. 면적은 1개소가 40평, 또 1개소가 30평이다.(이상은 어느 것이나 섭씨온도이다.)

점심 때 넘어 지옥순례를 끝냈다. 이것이 끝나고 우리 일행은 시의 관광과 초대의 오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매우 화기에애하였으며 주객이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찬회가 끝나고 일행은 자유행동이 되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시내 견학을 했다.

오후 6시 22분에 뱃부역 출발의 열차로 모지(門司)로 향했으나 승객은 글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차 칸이 꽉 찼었다. 할 수 없이 모지까지 선 채로 왔다.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한 것은 동 9시 30분, 동 10시 50분 출발의 제2편 연락선으로 내지를 떠났다.

○ 여행 중 읊다

何幸衰年做遠遊, 他鄉又是菊花秋, 數旬樂意遷喬鳥, 萬里閒踪泛水鷗。
物外林泉多絕景, 畫中樓閣幾名州, 旅勞無暇詩腸飽, 觸處風烟未登收. 가천구사(嘉川久士)

○ 귀로에 시모노세키 뱃속에서

北望鄉園路幾千, 海雲不見水連天, 一帆夕照蒼小外, 萬葉秋高白雁邊。
遠志猶存名利地, 壯遊不愧老衰年, 今行偏感皇恩重, 權域春光在眼前. 가천구사(嘉川久士)

11월 4일(화) 맑음

부산에 상륙한 것은 오전 6시를 지났을 때다. 본도의 산업부장 김대우(金大羽) 씨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 일행을 마중 나왔었다. 또 부장은 일행을 부산호텔에 초청하여 아침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아울러 감사하는 바이다.

여기에서 황해도의 백천(白川) 강사는 가사 사정으로 하루 빨리 귀가하여 나머지 단원일행은 동래로 향했다. 일행은 동래관에 들어가서, 낮부터 밤에 걸쳐 앞 뒤 두 번의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 내용은 별도 항목과 같으나, 단원 여러분은 약 20일에 걸친 장도의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조금도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성지순례로 체득한 가슴에 벅찬 만감을 감추지 않고 술회하여, 이번 행사로 하여금 더욱더 유종의 미를 거둔 것이다.

○ 동래온천

昨今兩日弄溫泉, 泉亦有緣同內鮮, 渡東所得將何用, 忠勇倍揚守北邊. 청하달빈(清河達斌)

제4회 좌담회

일시 : 11월 4일(오후 1시부터 동 4시 40분까지)

장소 : 경남 동래 봉래관

○ **영전 단장** 오늘은 예정대로 제4회 좌담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그 사이 20일에 걸친 성지참배 예정을 유쾌하고 또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오늘로써 일단 해산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성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단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 회에 이어서, 전부를 종합해보고자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감상을 말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꼭 감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저는 오늘아침에 신문기자에게 이번 성지참배에서 체득한 감상을 단편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감상이 어떠한가? 라고 질문 받았을 때는 즉석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총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성지참배를 계기로 해서는 이전에는 표면적으로 혹은 물질적인 면만 보고 온 내지를, 이면이나 정신적으로 살필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지참배를 하는 한편 특히 이번에는 내지의 지명(知名)인사로부터, 일본고유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국일본의 진수를 다소라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들은 커다란 수확을 얻어서 우리들 사명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통틀어 단체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임으로, 단체행동에는 부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단장을 비롯하여 간부 여러분에게는 대단한 폐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일동을 대신하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 이 말은 단장님 면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20일 간에 걸친 긴 여행에 단장님의 원만 무결한 인격에, 저 개인으로서는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단원 중에는 단체행동에 거스르는 행동이나 언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것을 내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장님의 수양에는 감격했습니다.

○ **단원 일동** 그 점은 동감입니다.

○ **영전 단장** 말씀은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쿄에서 진재(震災)기념당을 참관한 감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서촌 충남 강사** 저는 관동대진재가 비참했다는 것은 귀로 듣고 왔으나, 이번 기념당 안에 걸어

놓은 그림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코를 막아야 할 정도의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재에 희생이 되어 돌아가신 영혼을 그렇게도 웅대한 기념당을 만들어 위로해 모셨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재해에서 가장 혹독했던 이 땅을 밟았을 때는, 이재민이 아우성치는 소리마저 들려오는 기분이 들어서, 무엇이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느낌이 패부를 찢었습니다.

○ 영전 단장 되 돌아보면, 1923년 9월 1일 정오, 관동일대에 지진이 일어나, 그 피해야 말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동양 제일을 자랑하고 있던 도쿄는(그 당시 7백만의 인구를 안고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것입니다. 도쿄시 가운데도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은, 현재 진재기념당이 있는 구 피복창의 공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3천 8백 명이나 있었다고 듣고 있으나, 실제로 가 보면 아직도 이재민이 울부짖는 곡성과 피에 물든 시체를 밟고 넘어가, 우왕좌왕 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처참한 정황이 눈앞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비쳐지는 해도 어쩐지 음울하게 보여서, 엄숙한 그 무엇이 내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에 칭타오(靑島) 공략이나 해군의 지중해 파견 등이 있으며, 혁혁한 활동이 있었으나, 특히 연합국에 특히 러시아에 군수품이나 생활필수품도 수출하여, 일약 수출 초과국이 된 것은 특기할 만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는 백 할(割)의 배당까지도 있었다고 하나, 이렇게 하여 국민의 사치심은 높아가고, 물건은 비싼 정찰을 붙이지 않으면 안 팔린다고 하는 소위 화미(華美)의 침단을 걷는 경향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진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도 요로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계급의 사람들은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수도 도쿄에 대진재가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잿더미로 바뀐 것을 보고 장차 도쿄의 재건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야마토다마시이(大和魂)는 여기에서도 발휘되어, 대 도쿄건설계획은 불과 5년으로, 진재 전의 도쿄에 비교해서 몇 배 훌륭한 대 도쿄가 실현되어서 세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국력에 탄력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또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제국의 건설과 함께 대新京(新京)의 실현을 본 것도, 대진재 후대 도쿄 건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23년 11월 10일 선제(先帝)폐하께서는, 국민정신의 진작(振作)에 관한 조서(詔書)를 천하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 조서는 1908년 10월 13일에 공포한 무신(戊申)조서와 함께, 국민정신의 강건(剛健)을 도모한 조칙(詔勅)으로서, 무신조서는 국민정신이 전승의 기분에 자칫하면 실리를 잃고 꽃만 피는 것처럼 주색에 빠지고 할 일에 게을러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칙으로, 국민정신 진작에 관한 조서는 최근에 학술이 날이 갈수록 진전되어 감에 따라, 국민의 기풍이 점점 더 부화(浮華)방종해지고, 경망스러워짐에 흘러가려고 할 때에 마침 관동대진재가 일어나서, 국민정신이 더욱더 황폐할 우려가 있었음으로, 건실강건, 순박하고 올바른 길로 안도하게 된 고마우신 조칙입니다.

이와 같이 진재 직후 황공하게도 선제폐하께서는, 국민정신 진작에 관한 조서(詔書)를 내리시자, 국민은 오로지 공구(恐懼)감격하여, 전국 모든 곳에 교화단체를 조직하고, 성지에 따라 받드는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11월 10일을 기해서, 국민정신 진작주간을 설정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와 같은 운동으로 국민은 더욱 더 굳게 결속하게 된 것입니다. 요는 국민은 대진

재에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더욱 더 단결을 굳게 하였으나, 이것은 아마토(大和)민족이 아니면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진재기념당은 그러한 교화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사회사업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진재기념당 건립에 내탕금(內帑金)이 하사되었습니까.

○ 영전 단장 하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지금 단장님으로부터도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세계의 열국이 일본은 현재의 국력으로는 도교를 재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바, 일등국에 부끄럽지 않는 대동 아전설을 본 것은, 일본민족이 훌륭한 것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곤란을 극복하고 비약하는 것이 일본민족의 정신이라고 불려지지요.

○ 영전 단장 진동이 시작된 것이 마침 점심준비를 한창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많았습니다. 이때 각자가 불 단속에 주의했다라면, 이렇게 큰 재해는 없었을 것이지만, 당황하여 큰 짐만 끄집어내고, 불 단속할 생각이 미쳐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 아래에서는, 그러한 점에도 심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 영전 단장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도교의 대 건축물은 전부가 철근콘크리트로 세워졌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아사쿠사(淺草)에 있었던 12층 고층건축물이 넘어질 때의 모양을 그린 그림이 진재기념당에 있었지요.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창상(滄桑)의 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영전 단장 다음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한 감상은 어떠했습니까.

○ 강본 평남 대표 야스쿠니신사는 황공하게도 천황폐하가 친히 참배하신다는 것은, 호국의 영령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운 생각으로 대우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방관이나 유슈우칸(遊就館)에 들어가서, 현대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도국방국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꼭 다른 나라를 능가할 만큼의 우수한 병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임으로, 이것에 의하여 국민의 부담은 당연히 가중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사방에 적이 있음으로, 국민은 충실하게 국책 수행에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통감했습니다.

○ 영전 단장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프랑스의 대통령 크레만소는 이미, 국방상 가솔린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에 필적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어떤 조사서의 통계에 의하면, 열국의 철 생산고는,

(1938년 현재)

미국	2,800만 톤
독일	2,300만 톤
소련	2,100만 톤
영국	1,000만 톤
프랑스	600만 톤

이어서, 프랑스가 독일에 진 것은 그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철 생산이 독일에 뒤져 있었다는 것을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철은 중대성을 띠고 있음으로서, 철의 보고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1939년에는 스크랩의 수출금지, 혹은 고철의 재생산 등에 의하여, 4,600만 톤의 생산을 본 것입니다. 요

는 철의 존귀함을 일반 민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국방관 등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량 확충에 일로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산가 경복 강사** 호국의 명령을 영세에 걸쳐 잊지 않기 위하여, 야스쿠니신사가 만들어 진 것이나, 이러한 예는 외국에도 있을까요.

○ **강본 평남 대표** 기념비 혹은 기념탑으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야스쿠니신사와 같이 위패를 모시고, 대원수폐하가 친히 참배를 비롯하여, 각 왕 공족, 국민상하가 거족적으로 참배한다는 것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경성의 장충단이 야스쿠니신사와 그 정신이 대략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형식은 다른 것 같지요.

○ **산가 경복 강사** 제가 유학생 시절에는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노획한 러시아 병기가 있었으나, 그 병기를 메이지신궁에 옮겼지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본 평남 대표** 훈공이 있는 군마가,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인간으로서 저 말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 **영전 단장**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사랑정신으로 보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훈은 크게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저는 평양부에서 매년 1회 수훈제(獸魂祭)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위령제와 그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소하고 있지만, 전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켜 이것을 먹지만, 당연히 수훈제를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인류가 훌륭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유슈우칸(遊就館)의 유슈우(遊就)란 방법에 유격급취(遊擊急就)라는 문구에서 따 온 것 같으나, 유슈우칸에 들어가 보면 노기(乃木)대장을 비롯하여, 오오야마(大山), 테라우치(寺內) 대장과 같은 군신이나 성장(聖將)의 훈장이 눈에 띄게 되니, 이와 같이 위대한 분의 공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감격과 감사에 더 할 바가 없었습니다. 또 전몰한 젊은 장병의 사진도 걸려 있었으나, 앞에서 말한 널리 알려져 있는 위인의 공훈 뒤에는, 이와 같은 무명용사의 공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처럼 젊은 장병의 명령이 우리나라의 주춧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더 한층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진 앞을 지나칠 때는 스스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다음은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에 참배한 감상은 어떻습니까.

○ **강본 평남 대표** 안내하던 신관(神官)의 설명에 의하면, 타이샤의 조영 형식은 다른 신궁이나 신사와 그 취향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으나, 어떤 설에 의하면, 사전(社殿)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타이샤의 제신인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는 평소부터 부모를 따르고, 서쪽을 동경하고 있어서, 사전을 서쪽에 향해서 조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내선은 완전히 동조동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근동춘(桑權同春) 황위(皇威)가 반도에 미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 **영전 단장** 1910년에 한국이 병합이 되었으나, 이 병합도 정신은 이미 신화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보물전에 진열된 신의 보물을 참관해 보면, 경주박물관에 비장된 보물과 유사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 **영전 단장**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를 꿈에 본 일이 있습니다. 1927년경의 일입니다만, 제가 경북의 장학관을 하고 있을 때, 곳에 따라서는 교통이 몹시 불편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달성 관내의 출장이 약 2주간 있었는데 전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슴통증을 앓고 고생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현실처럼 역역하게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가 와서, 그 가슴통에는 부들강아지를 구워서 초를 문혀서 바르면 낫는다고 해서, 그 약을 구하였더니, 마침 옆집에 있어서 곧 집사람을 시켜 만들어 쓴 결과 이틀 쯤 지나서,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야기 같습니다만 이즈모타이샤를 참배할 때마다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은 한 평생 잊을 수가 없으므로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를 모시는 신사를 참배할 때는 어쩐지 감사하는 마음에 가슴 벅찬 바가 있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단장님은 평소부터 일본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시고, 또 일본정신의 체득 및 경신 사상(敬神思想)이 철저하고 있음으로, 그런 꿈을 꾸는 것이지요.

○ **영전 단장** 또 우연히도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는 농업과 의학의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뒷날 들으니 부들강아지는 해열제였습니다.

또 보물전에서 여러분도 봉납선(奉納船)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봉납선의 유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약 160년 전 토사(土佐)의 고장에 모토야마(本山村助)라는 범띠 사나이가 난치병에 걸려서, 이즈모타이샤 대신(大神)의 영험이 뛰어난다는 것을 듣고, 작은 통나무배를 만들어 여기에다 시춧돈의 뜻을 품어 엽전 15문을 싣고 집 앞의 작은 시내에 띄내려 보냈는데, 이것이 우연하게도 2년의 세월을 거쳐 1783년 4월 27일 이나사(稻佐) 바닷가에 표착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을 사람이 주위 당시의 출운국조 천가준수(出雲國造千家俊秀)에게 납입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증해 보아도, 이즈모타이샤의 제신으로 계시는 오오쿠니누시노미코토는 의학의 신으로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 **강본 평남 대표** 평양의 대동강에서도 정령(精靈) 떠나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봉납선과 마찬가지로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정령(精靈) 떠나보내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믿는 집안, 거기에다가 오래된 집에서 죽은 사람 즉 부처가 많은 집안에서 우란분(于蘭盆)¹⁹¹⁾의 행사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3일은 정령맞이 날이 되어 있어서 그날 한밤중에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여 불단 앞에 제등(提燈)을 매달고 제등을 켜고 제물을 차려서 스님을 모시고 독경하면서 정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정령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등을 배 모양의 그릇에 넣어 제물을 싣고 근처 강에 흘려보내서 부처님을 성대

191) 아귀도에 떨어진 망령을 위하여 여는 불사(佛事). 목련 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석가 모니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수행승에게 올린 공양에서 비롯한다. 하안거(夏安居)의 끝 날인 음력 칠월 보름을 앞뒤로 한 사흘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이나 부처에게 공양한다.

하고 편안히 보내는 것입니다. 강본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뜻이 다른 것입니다.

○ **서촌 충남 강사** 유우키군(結城郡)에 다케우치(竹內善之助)라고 하는 소학교 선생이 있었으나, 이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헌책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天使載五穀云云, 始以爲農”라고 하는 곳을 보이면서 이것은 조선에서 오곡의 종자를 갖고 왔다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만, 그 고서의 이름은 지금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본고사기’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도, 오랜 옛날부터 내선 간에는 문화교류가 있었던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이것은 몇 차례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선의 문화는 그것이 근거하는 바, 또는 그 출발점은 완전히 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헌이나 풍속 습관, 역사적인 사적 등으로 보아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문화가, 내지에서는 이것을 잘 일본화 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온 데 반하여 조선에서는 부분적이나 말초적인 곳에만 구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선 간의 문화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악이 개오사(善惡皆吾師)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조선에서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을 존중해서 조장해 왔으나, 악이라고 알게 되면 모조리 배척하여, 아무튼 악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 문화는 퇴보의 길을 더듬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전 단장**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개의 정신이 양 바퀴가 되어서 문화라고 하는 수레를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너무나도 보수적이 아닌가 하는 경향이 있지요. 한 예를 들면, 이조 시대는 오로지 주자학 일색으로 다른 학파는 이단시하여 배척했던 점을 들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또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향상심이 모자라는 예는, 그렇게 유명한 청기와는 그것을 창조한 사람만이 그 제조법을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예술품을 어찌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산가 경북 강사** 조선에는 옛날부터 독대비방(獨對秘方)이라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 말 이야 말로 발전성이 결핍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옛날 경상도의 곤실(困谷)이라는 곳에 명의(名醫)가 있었는데, 위장병에는 아무리 난치병이라고 해도 2, 3첩의 약으로 고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의 처방은 뒷날 사람들이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약을 발견하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 명의라고 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 닭이 알을 낳으면 어느덧 뱀이 와서 먹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닭이 알을 낳자마자 알을 주워 내고, 미리 만들어 놓은 나무로 만든 알 같은 것을 바꾸어 놓았더니, 뱀은 이것을 모르고 나무로 만든 알을 통째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달걀 처럼 쉽게 소화될 까닭이 없음으로, 뱀은 이전처럼 대추나무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풀 숲속으로 급히 가는 것을 뒤쫓아 가서 보았더니, 뱀은 어떤 종류의 풀을 먹고, 한참 있으니 배가 불렀던 부분이 차차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뱀이 기운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기뻐하며 그 풀을 채취하고 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여 훌륭한 위장병의 약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이 현대까지 전해져 왔다면, 그것이 공헌하는 바가 매우 위대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나,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요는 이것은 독대비방으로, 후세에까지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그때는 현대와 같이 특허권이 없고, 이러한 종류의 발견이나 발명을 정부로부터

옹호하고 장려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특허권이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영전 단장** 그러면 다음은 산인(山陰)지방을 거쳐서 왔으므로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산인지방을 거쳐 오면서 느낀 것은, 첫째로 상요(山陽)연선의 모든 시설보다 검소하고 어두운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농촌을 보았을 때는, 자주 조선을 생각나게 하는 고풍이 있었지요.

○ **산가 경북 강사** 저도 산인(山陰)지방을 거쳐서 느낀 것은, 방금 단장님이 말한 것처럼 조선의 철도연선의 풍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러가지 눈에 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 가운데서 수확하는 풍경 같은 것은 완전히 조선과 닮은 것이 있어서 조선 안의 농촌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영전 단장** 또 산인지방을 보고 유감으로 생각한 것은, 상요지방보다 문화시설 등이 발전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외에 발전할 때는, 상요지방이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대륙경영에는 산인지방이 중요성을 띠고 있음으로, 보다 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산인지방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다음으로 이즈모타이사입니다만, 신궁의 설명에 의하면 이즈모타이샤는 신의 총본부 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10월을 카미나즈키(神無月)라고 말하는 것도, 그 말의 유래는 전국의 신들이 이즈모타이샤에 전부 모이시는 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즈모타이샤의 사격(社格)이 존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음력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이 곳에서 신재제(神在祭)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에는 전국의 신들이 이곳에 모여서, 인연 맺거나 신들이 관장하는 토지에 관한 것을 의논한다고 하니, 속된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제국의회가 이곳에서 열린 셈입니다. 그래서 경내에 있는 19칸의 복도 건물은 모인 여러 신의 숙소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일본은 신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영전 단장** 벳부에 가는 도중에 우사(宇佐)역과 타테이시(立石)역 사이의 연선을 보았었는데, (이것은 좌담회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산의 나무를 벌채하여, 그 자리에 묘목을 바둑판식으로 심고 또 그 아래에는 산 풀이나 짚 등을 비료를 주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내지의 임상(林相)이 좋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노고가 숨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기후관계나 또는 조선과 같이 벌채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갖추어졌지만, 내지는 치림(治林)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임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점에 착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에서는 어떻습니까. 풀을 베고 와서 비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산에 있는 풀은 물론 낙엽까지도 긁어모아 연료로 하기 때문에 임상이 나쁜 것은 당연이 지나칠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조선식림장려의 한 자료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차별허가는 내지 식으로 식림한다는 조건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천 경기 강사** 여러분이 내지의 산림을 보고 여러 가지 감상을 말했습니다만, 저도 완전히 동감입니다. 조선에서도 약 10년 전부터 치림문제가 일어나서, 온돌폐지론까지 나왔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온돌이 있으면 치림 운운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군에 모범산림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군청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은 밤에 도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겨울에 추운데 온돌을 떼지 않을 수도 없기에, 아무리 군청 이웃에 있는 모범산림일지라도 도벌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입니다. 저도

용인군에 50정보 정도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도벌을 방지하려고 노력해도 효과는 추후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수사업도 치립과 직접관계가 있음으로, 온돌문제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 **영전 단장** 그러나 조선의 기후는 온돌이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 **가천 경기 강사** 온돌폐지는 어렵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돌은 개량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과학적으로 온돌을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영전 단장** 도요쿠니(豊國)신사의 요시다(吉田) 공사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했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요시다 공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참고가 되었습니다. 요시다 씨의 이야기 중에 우리 황실은 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설명은 우리 국체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규명한 명언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국민 전부가 대군의 방패이며 국가를 지키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일본은 군민(君民)이 일체가 되어, 경신애민의 통치와 경신존황의 봉사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융성을 보게 되었던 것이나, 이번에 요시다 공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 차도에 관한 이야기도 일본정신의 일단을 요령 좋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도라는 것은, 오직 기호품으로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차를 마시면서 정신수양과 우아한 풍류심을 기른다고 하는 고상한 하나의 취향입니다. 일본정신의 고상함은 차도에 의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 **영전 단장** 지나의 아방궁이나 만리장성은, 그 시대는 국민에게 호세를 보이고, 또 다른 민족을 위압했는지는 모르나, 후세에까지 그 호세와 위압은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인위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덕국가이기에 지나의 제정시대의 사고방식이나, 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일본은 표면만 보는 것으로는 참다운 일본의 훌륭한 것은 알 수가 없지요.

○ **영전 단장** 이끼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한적미(閑寂美)적인 풍류는 일본민족의 동중정(動中靜)을 구하는 경지이겠지요. 또 우리가 요시다 공사에게 만강(滿腔)의 사의를 아끼지 않는 것은 그가 조선반도의 민중을 정신적으로 인도하여, 내선융화에 심혼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교토에서 우리를 돌봐 준 김본(金本)군도 요시다 씨의 뒷바라지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척무차관 키타지마 켄지로우(北島謙次郎) 씨의 인사말은 매우 고맙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상은 어떻습니까.

○ **서촌 충남 강사** 척무대신 토오고 시게노리(東郷茂徳) 씨의 후의에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우리는 척무성으로부터 우대를 받아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가일층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성지참배를 마치고 향리에 돌아간 후에는 조선유림계에 무엇인가를 공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또 우리는 척무대신이 성지참배단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전선의 유림전체를 초청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더 결의를 굳게 하고 유도진흥에 진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 **영전 단장** 다음은 유시마성당의 우노(宇野) 박사의 강연을 듣고의 감상은 어떻습니까.

○ **강본 평남 대표** 우노 박사의 강연은 참으로 간결하고 요령을 얻은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박사의 강연요령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자의 도는 실천도덕이기 때문에 오류의 길을 명백하게 할 것, 또 오류는 인(仁)으로써 실행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선생은 논어의 어구를 인용하여, '有朋

而自遠方來不亦悅乎라고 공자가 말한 것은, 오늘 우리가 유시마성당의 일당에 모여서 유도를 논의할 때의 기분을 여실하게 명언한 어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때의 모임이 어쩐지 화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사문회(斯文會)가 일어나게 된 국내의 정세를 자세하게 이야기 했는데, 즉 사문회가 일어난 당시의 국내정세라고 하는 것은, 3백년간에 걸친 쇠국주의는 메이지유신의 대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모습을 감추고, 이것에 대신하여 태서(泰西)의 소위 물질문명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국민은 이 물질문명에 도취되어, 자칫하면 황국의 찬연한 고유문화는 헌신처럼 깡그리 버리고, 심한 자는 국어폐지론까지 말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황도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정신문명을 보다 한층 양양하고, 그러한 과격사상을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문회를 설립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메이지대제는, 일본국민이 날아갈 방향을 명백하게 나타낸 교육칙어를 하사하셨으므로, 일부 식자 중에는 사문회의 존재를 운운하게 되었으나, 오늘날의 세계동란이 일단 평상시로 돌아가면, 또 어떤 과격사상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문회의 책임은 더욱 더 가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매우 감명 깊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문회의 취지에 따라 사상 선도에 만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전 단장** 방금 교육칙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장에 생각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천년의 옛날 이미 국민도덕의 대본이 정해지고, 또 국민교화의 국가적인 대의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칙어가 발표된 1890년경은 마치 저 메이지유신, 메이지중흥의 대업이 시초가 된 때이나, 이와 동시에 구미의 호화스러운 문물이 들어와서, 그 결과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나 사상혼란의 사유가 되어 어떤 경우는 교학의 본의에 역행하는 듯한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聖明)하신 메이지대제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시정과 이것들의 배제에 진념(軫念)하시어, 우리나라의 고유정신에 따른 교학 내지 국민도덕의 쇄신과 진흥에 신념(宸念)하셔서 3천 년의 오래된 국민도덕을 성문화한 것이 즉 교육에 관한 칙어인 것입니다. 이 교육칙어의 기초한 사람은 시강(侍講)이라는 지위에 있던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선생입니다만, 특명을 하사받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씨와 전후 17회에 걸쳐 그 초안을 교정하고, 마지막으로 황송하게도 메이지대제께서 친필을 가필하셔서 결정된 것입니다. 기초를 한 모토다 나가자네 선생은 큐슈 치쿠고(九州筑後)의 오오쓰카 타이야(大塚退野) 선생의 학통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타이야 선생은 조선의 이퇴계 선생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한번 보자마자 명확하게 퇴계선생의 학설에 공명하고 또한 사숙(私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호(雅號)까지도 퇴계선생의 퇴(退)자를 따 붙인 것입니다. 즉 교육칙어 기초자는 퇴계선생을 사숙하고 있던 사람의 학통을 섭취한 제자임으로, 퇴계선생의 손자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칙어는 제국헌법과 함께, 바로 만고불후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나에도 육유(六諭)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칙어에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노 박사는 책을 통해서만 잘 듣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뵈옵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으로 겸양하시고 온공(溫恭)하신 학자였지요.

다음은 미토(水戸)로 옮겨가서, 다나카(田中) 교장의 강연을 듣고 감상은 어떻습니까.

○ **산가 경복 강사** 저는 씨의 강연을 듣고 먼저 느낀 것은, 씨가 허심탄회하고 또 솔직히 역사이야기를 하는 데에 만강의 사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 **강본 평남 대표** 다나카 씨의 이야기는 쉽게 풀이를 해서 일본역사에 어두운 우리에게도 잘 납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코우는 도쿠가와(德川)가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문교방면에 전념하고 특히 지나의 춘추, 조선의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연구하여, 정사(正邪)를 따지고 또 권징(勸懲)에 뜻을 두게 되었으므로, 대일본사 편찬에 착수했다는 것은, 참으로 뜻이 깊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남북조의 정통을 논하는데 신기(神器)를 받들고 있습니다. 남조(南朝)를 정통으로 하며, 신기를 받들지 않는 북조는 황통을 계승하지 않는다고 구별한 것 등은 국사상 불멸의 공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영전 단장** 다나카 씨는 시종일관 정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마쓰에(松江)에서 87세의 노옹이 향토애의 마음으로, 신화 같은 향토비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다나카 씨도 사도(史都)로서 미토의 면목을 눈앞에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점은, 우리로서는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향토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학교 교장으로서 틈이 없는 직책에 있으면서, 그만큼 지명에 조예가 깊다는 것은 비범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토학이라 하면, 미토(水戸) 제2대 번주(藩主) 도쿠가와 미츠클라(德川光圀) 경(卿)이 제창한 학문으로서, 절대관의 존황(尊皇)을 본의로 하는 학문입니다. 즉 부모에 대한 효도도 스승에 대한 보은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천만승(一天萬乘)의 천황폐하에 충의를 다 함으로써, 일본민족의 지상(至上)의 실천을 도덕관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산가 경복 강사** 마쓰에에서의 시회(詩會)에서는 유명인사가 다수 참석해 주셔서 성황을 보인 것에 우리로서는 깊은 감명을 받은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필은 내지보다도 조선이 본가라고 하며 우리를 칭찬해 주신 것은, 즉 내선 간은 친밀한 문화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 **영전 단장** 이번에는 평산 간사에게 성지참배 감상을 여쭙겠습니다.

○ **평산 간사**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일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였으나,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완전히 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탓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참으로 죄송스러운 바입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있었습니다.

먼저 출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으므로, 완전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출발 전에 각 성지에 관한 유서라거나 역사를 각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참고자료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간단한 지도도 드리면서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예비지식을 넣어드리고 싶었으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도수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발예정기일이 지연되고, 마침 모든 행사가 폭주하고 있을 때에 출발 일정이 결정된 것입니다. 즉 유림대회, 효자열녀 표창 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양해하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직원을 각지에 사전조사를 위하여 파견해서, 세부에 걸쳐 준비도 하고, 각 부현(府縣) 당국에 편의를 줄 것을 부탁도 해 두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릴 대로 손도 발도 낼 수 없을 만큼 바빴으므로 그 직원과 충분한 타합도 하지 못하고, 서류들의 인계도 할 수 없었

으며, 여러 가지 계획이 앞뒤가 당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한 이래 오늘까지 안심하고 구경도 못하고 또 유시마성당과 미토의 강연도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토에서 중학교 교장 선생의 강연 때도, 자동차로 마중과 전송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섭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도 있었기 때문에 강연이 귀에 들어 올 까닭이 없습니다. 또 유시마성당에서 우노 박사가 강연했을 때도 점심 준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시간은 자꾸만 가고 또 고려신사 참배가 예정되어 있어서,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니, 강연을 듣는 것은 2차 문제로 예정을 진행시키는 것만으로 벅찬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나간 경험에서 느낀 2, 3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 개인의 일입니다만, 1933년 경까지는, 물론 신궁이나 신사참배를 몇 차례나 했으나, 참배할 때에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격에 안 맞는 것 같은 기가 들어, 2배 2박수 1배를 하는 것이 오직 이것은 형식적이라고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황국신민으로서의 의식이 철저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1934년에 제가 농촌지도를 담당하게 되어, 농촌지도자의 내지시찰단에 참가하여 성지참배를 하는 한편 농촌시찰을 하게 되면서, 경기도 내의 농촌에서 1년간 실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지농촌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만 실제로 내지농촌을 보고 다만 머리가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틀렸었다는 것을 통절하게 느낀 것입니다. 오해를 깨달은 것입니다.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고방식을 고치도록 역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은 정신적으로 불구자인 것을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또 저는 도회지에서는 볼 수 없는 정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농민도장에서 양성한 12명의 청년을 데리고, 내지의 출정군인 유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일행 12명에게 내지의 예의동작을 상세하게 가르쳐서, 불단(佛壇)을 배례하는 방법까지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내지에 가는 목적과 상반되는 언행이 있으면, 이것은 12명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반도 2천 4백만 민중의 수치를 내지동포에게 폭로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상반되는 일이 있으면 3가지 방법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첫째로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둘째에는 할복자살을 한다, 셋째는 내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3가지 조건을 12명의 청년에게 맹세하게 해서, 한 치도 틀림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적에 상반되는 일이 있으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목적달성까지에 시종일관 긴장하며 호령 아래 행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으로 나간 곳은 오이타현(大分縣) 구스군(玖珠郡) 노카미마을(野上村)이 됩니다만, 현청에서 촌장님을 불러내어 함께 타합을 하거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보았으나, 촌장님은 참으로 애국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촌장으로서의 아까운 인격의 소유자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할 만큼의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촌은 매우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윤택하고, 또 여유가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촌에는 농가로서 1등급의 세금을 납부하는 50만 엔의 자산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는 70에 가까운 노부부와 22살 되는 딸이 있습니다만, 아침식사가 끝나면 한 집안이 함께 일하러 나갑니다. 이 농가의 노부인과 청년들이 문답을 했는데, 청년들이 당신은 생활에 무엇 하나 불

편한 점이 없는데, 왜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 부인이 모습을 바꾸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집안을 통틀어 일하는 것은 무슨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 사명인데다가 지금은 국가존망의 전시인 것이다, 전시에 전선후방에 식량의 불안을 없애는 첫째 책임자는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지금 가령 증산된 한 톨의 쌀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쌀이다, 라고 생각할 때 농민으로서 이러한 국가비상시국에 꿈쩍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도 일할 수 있는 자는 힘껏 일하는 것이 일터 봉사이며, 대정익찬(大政翼贊)이기도 하다, 만약 이때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잊고 천직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무거운 죄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므로 청년들은 얼굴을 붉히고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민의 혼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반도농민과 내지농민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 불구자인 사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래의 정신적인 불구를 청산하여, 내선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지인의 정신을 우리 정신으로, 내지의 민도와 동일선상으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내지의 농촌에서는 남녀노소가 일함으로써, 최고의 국민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조선에서는 어떻습니까. 될 수 있는대로 힘든 일을 피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 성지참배를 계기로 더 한층 느낀 것입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질 수 없다는 기백이 있음으로써, 청년의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이세신공의 옥 조약돌을 밟으면서, 숭고한 일본정신을 새삼스럽게 강하게 느낀 동시에, 우리는 철저히 황국신민이 되고, 또 일시동인의 고마운 성지를 받들어 내선일체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 것입니다.

○ **영전 단장** 평산 씨의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붙임〉 좌담회는 3시간 남짓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각자의 감상담은 끊임이 없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방안도 컴컴해졌다. 여기에서 좌담회는 일단 휴식에 들어가, 저녁식사 후 다시 열기로 했다.

제5회 좌담회

일시 11월 4일 (오후 7시부터 동 8시 30분까지)

장소 경남 동래 봉래관

○ **영전 단장** 앞에 이어서 좌담회를 다시 열겠습니다.

○ **부산 함북 강사** 저는 국어도 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지성지참배단에 가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사이 20일간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각 성지를 참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인상이었으며, 여러가지 편의를 봐 주신 각 당국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경청하였으나, 저는 전반에 걸쳐 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들 유림단이 성지를 참배하게 된 것은, 조선의 종래의 유교를 시대에 맞추어, 황도정신에 입각한 황도유학을 세우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시찰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산업시찰이나 농촌시찰과는 그 유(類)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책임도 중차대한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내지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20일간에 걸쳐서 내지를 돌아 본 인상은 필설로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오직 숭고하다고 하는 느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특히 상요선(山陽線) 연선의 옥야천리, 명산과 큰 못이 전개되는 그림과 같은 풍경은 신국 일본의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같이 땅의 이점과, 일억일심(一億一心)인 사람들의 화목과 천우신조의 하늘의 때가 아울러 존재하는 일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국은 현실적으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평화의 수립을 목표로 성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대난국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화(和) 즉 일억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일억일심은 내선일체를 제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림단의 성지참배 목표는 황도유학 수립입니다만, 이것도 요는 내선일체의 한 요소임으로 우리들 유림은 이제 한층 황국정신을 철저히, 황도유학을 연찬해 나감과 동시에, 내선일체의 존귀한 이상을 향하여 매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이번 성지참배를 계기로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 **서촌 충남 강사** 저는 이번에 단장님 덕분에 성지참배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지참배에서는 능이나 신궁·신사 혹은 사찰을 참배했습니다만, 이 일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감상을 피로하시고 또 저도 소감을 말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일에 대하여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중생활이 예상 이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에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온한 생활 중에도 정신적으로 긴장된 모습이 확실히 보여서, 우리 반도민중이 아직 전시 기분에 철저히 못하고 있는데 비해서 엄청난 차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둘째로 내지인의 근로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철도연선에서 남녀노소가 총동원이 되어 논밭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내심 부끄러운 느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유림은 일하는 것을 천시하기 쉬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정신을 고쳐나가도록 지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저는 20일 간에 걸친 내지 여행에서 2, 3가지 느낌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즉 내지는 교통기관이 조선보다 빨리 발달했으나, 이에 수반되어야 할 교통도덕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얼핏 보아서 만족스럽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전차 안에서 본 것이지만, 파마를 한 여성이 안하무인의 태도로, 자기 앞에 나이 많은 늙은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소위 신여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자들에게는 경조부박(輕佻浮薄)한 태도가 남아 있는 것을 통절하게 느꼈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저도 그 점은 통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지의 단점을 보기보다도,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가는 곳마다 전시 기분이 들었지요. 첫째, 상점도 이전과 같은 화려한 장식 없이 지고, 또 가장 전시의 색채를 나타낸 것은, 철이나 기타 금속종류의 회수인데, 마쓰에 성에서도 본 바와 같이 철로 만든 사슬을 전부 제거한 것이 특히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또 오사카의 여관에서, 옛날

같으면 밥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오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갔을 때는 아침밥을 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지났음으로 점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전시의 긴장된 정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 **영전 단장** 다음으로 오사카의 협화사업 시찰에 대해서 감상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 **가천 경기 강사** 오사카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30여 만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무의무탁이었던 조선거류민이, 이제는 완전히 직업을 갖게 되었으며, 또 처치가 편하게 된 것은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 든든하게 느낀 것입니다.

○ **강본 평남 대표** 오사카에 살고 있는 반도인의 수는 후쿠오카(福岡)시의 인구에 필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만큼 많은 조선인을 협화회에서 뒷바라지 해 준다는 것은 우리들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그들은 습관도 완전히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쩐지 마음 든든하게 느꼈습니다.

○ **영전 단장** 저도 오늘까지 몇 차례 내지여행을 해 왔으나, 이번에는 더욱 더 친밀감이 커졌습니다. 내지에 가서 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일반 조선인의 기분이 전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선일체는 양자의 친숙함이 깊어가야 할 것입니다.

○ **가천 경기 강사** 제가 이번에 내지에 갔었던 것이, 마치 우리들 태어난 고향을 시찰하고 온 느낌이었습니.

○ **강본 평남 대표** 오사카의 협화회에서 가장 감탄한 것은, 반도인 자체가 의무교육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반도 내에 사는 학령아동은 전부가 취학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에 살고 있는 반도인의 학령아동이 취학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 **산가 경북 강사** 그러나 또한 내선인 간의 생활정도에는 아직 천양지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활 레벨을 동일한 선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내선일체의 선결조건이라고 확신 하는 바입니다.

○ **가천 경기 강사** 산가 씨의 이야기는 동감입니다. 내선인이 입으로 아무리 내선일체를 부르짖어도 무모하기만 합니다. 결국 실천궁행으로써 말을 바꾸어 하면 생활에서 내선일체의 열매를 끄집어 올리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영전 단장** 다음은 이번 성지참배단이 개선해야할 점은 없습니까.

○ **가천 경기 강사** 이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후부터는 단원을 젊은 무리에서 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가 경북 강사** 단원은 될 수록 젊은 사람이 좋습니다만, 그 지방에서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면 안되겠습니다.

○ **영전 단장** 이후부터는 진무(神武)천황이 동정(東征)하셨던 성적(聖跡)이나 혹은 황종황조(皇宗皇祖)의 유적을 하나 빠짐없이 참배하고, 또 학자를 많이 배출한 곳에 가서, 학문과 강론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일 간의 일정으로는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 **산가 경북 강사**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번 일정도 짧은 느낌이 듭니다. 주마가편의 바쁜 일정이었음으로, 충분한 관찰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강본 평남 대표** 평산 씨에게 개선방법을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제 희망으로는, 전에 평산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출발 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지에 처음 가는 분에게는 간단한 내지의 예의풍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유림은 국사(國史)에 약하기 때문에, 성지고적의 유서를 간단하게 설명한 책자를 만들어 주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지참배는 관청의 위로출장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유도진흥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당국의 목적도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국은 바야흐로 멸사봉공의 열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음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경방단원(警防團圓)이 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 훈련에 나왔다고 하는 미담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맞이하여 우리 성지참배단은 안일하게 그저 여행 기분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또 당국부터 유도진흥에 이바지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영전 단장** 이것으로써 좌담회를 끝내고자 합니다.

성전은 4년 남짓이 되지만, 이제 와서 또 태평양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세는 미묘하게 맥이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 우리 1억 국민은 불명어리가 되어 난국돌파에 총진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절관계로 각종 행사는 중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림대표 9백여 명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단결을 더 한층 튼튼하게 하고, 더욱 만남을 무릅쓰고 성지참배행사를 단행한 것은, 참으로 의의가 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미나미 총독 각하 및 오노 정무총감 각하의 고마운 지도와, 상사의 뜻을 받들어 잘 처리 해 주신 마사키(眞崎) 학무국장 각하나 박택(朴澤) 대제학, 계(桂) 사회교육과장의 배려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의의 깊고 또한 중대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성지참배단임으로, 저는 단장의 임무를 재삼 사양하였음에도 할 수 없이 이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의 성의와 끊임없는 편달에 의하여, 예상 이상의 효과를 얻어서 오늘 해산하기에 이르렀음은 함께 경하하는 바입니다. 또 제가 단장으로서도 상사에게 체면이 서게 되어서, 내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 없이, 성지참배 목적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국 일본의 본연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지만, 이러한 목적은 여러분의 예리한 관찰에 의하여 또한 명사의 강연에 의하여, 충분히 체득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의 세계정세는 우리 제국을 둘러싸고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바야흐로 제국의 성쇠나 동아의 흥망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세 하에 내지동포의 시국 극복의 성의는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그때그때에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도동포인 우리들도 내지동포에 뒤지지 않는 정성을 가지고, 시국 극복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내지여행에서 가장 기뻐던 것은, 내지동포가 조선을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선 민중 또는 우리 자손도 내지동포와 마찬가지로, 혹은 남으로 혹은 북으로 진출하여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먼저 내선일체의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림은, 내선일체의 대 이상을 향하여 황도유학 확립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황도유학을 확립함과 동시에, 대동아공영권 확립에도 공헌하는 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함과 동시에, 대과 없이 단장으로서의 제 책임을 다하게 해주신 여러분의 후의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가천 경기 강사 일행의 연장자로서 한 말씀드리면서, 단장에 대한 감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불초 우리 일행이 성지참배를 한 것은 참으로 영광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의 깊은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단장님을 비롯하여 각 당국자의 후의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성지참배를 한 목적은, 단장님이 말한 것처럼, 일본의 본연의 모습을 아는 것과 동시에 황도에 입각한 유학을 확립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림을 마치 무용의 장물(長物)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림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은 노년으로서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유림을 현 세태에 맞는 유림으로 만드는 것이, 당국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국은 이와 같은 완고한 유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각성시키려고, 이번 내지의 성지참배를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지참배단 일행의 책임은 중차대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행도 단원 전원이 결코 당국이 요구하는 정세에 맞는 유익한 유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을 완전히 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력이나마 힘이 미치는 한, 유림 통합에 혹은 완고한 사상의 시정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당국에 협력하여 종래의 유교를 황도유학으로 재건하는데, 정혼(精魂)을 기울여 매진할 것을 단원 여러분과 함께 단장님 앞에서 맹서하는 바입니다. 단 하나 당국에 염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후배 중에서 유익한 인물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양성하여, 황도유학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꺾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임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1943년 2월 10일 인쇄

1943년 2월 15일 발행

편집 겸	조선총독부 학무국 연성과 내
발행자	조선유도연합회
대표자	마츠바시 키요지(松橋喜代治)
인쇄자	경성부 태평통 1-31 천산익진(天山益進)
인쇄소	경성부 태평통 1-31 매일신보사 인쇄부

발행소 조선유도연합회

<출전 : 朝鮮儒道聯合會, 『朝鮮儒林聖地巡拜記』, 1941년 10월 17일~11월 4일까지, 每日新報社, 1943년 2월 15일>

3) 우노 데쓰진(宇野哲人), 유교와 일본정신(계속)

문학박사 우노 데쓰진(宇野哲人)

3. 유교의 전래(傳來)

오우진(應神)천황 15년,¹⁹²⁾ 백제의 사신 아직기(阿直岐)가 조정에 와서 양마(良馬) 2필을 헌납했으나, 아직기는 경전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 우지노와키 이라고(菟道稚郎子)가 이를 스승으로 모셔, 또 다시 그 다음 해에 아직기의 추천에 의하여 백제박사 왕인(王仁)을 초청했으니. 왕인이 조정에 와서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을 올리며 유교는 이렇게 하여 전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왕인이 처음에 경전을 전한 것이 아니며, 경전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있는 것은, 태자가 아직기를 스승으로 삼은 것으로도 상상이 되며, 또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한토(漢土)와의 교통이 상당히 빈번했다는 것에도 상상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은 잠시 두기로 한다.

應神 20년 가을 9월에 고려의 상소에 고려왕이 일본국을 가르쳤다고 했으므로 이라고(稚郎子)가 크게 노하며, 그 무례를 나무라는 것이나, 應神천황이 서거한 후, 왕위를 형인 황태자의 닌토쿠(仁德)천황에게 양위하는 것은 이라고(稚郎子)가 천자(天資)충명함에 의한 것은 물론이나, 유교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덕(仁德)천황의 백성이 넉넉한 것은 이것 짐(朕)이 넉넉하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안연 편”에서 볼 수 있으며,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도 더불어 넉넉하며, 백성이 넉넉하지 않으면 임금도 함께 넉넉지 않다”라는 뜻인 것이다. 케이타이(繼體)천황 7년(503년)에 비로소 오경(五經)의 학(學)을 수립하고, 그때부터 춘추 중월(仲月)의 상정(上丁)¹⁹³⁾ 날에 석전(釋奠)을 올리며, 공자를 선성공선부(先聖孔宣父)라고 하며 뒤에 고쳐서 文宣王이라고 불렀다. 킨메이(欽明)천황의 대에 梁나라 사람 사마달(司馬達) 등이 불교를 전한 것은 유교의 전래에 뒤지기를 실로 2백3십7년인 것이다. 불교가 도래한 초기에는, 배불(排佛)파와 숭불(崇佛)파와의 격렬한 다툼이 있었으며, 드디어 숭불파의 승리에 돌아갔으나, 유교 도래 시에는 아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이러한 것은 불교는 종교이며, 종래의 신(神)들과의 충돌이 있었으나, 유교는 도덕으로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덕과 특별한 모순이 없었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인 것이다.

수이코(推古)천황의 대에 제정된 관위(冠位) 12계(階), 덕인예신이지(德仁禮信義智)가 각각 크고 작은 것에 나누어 진 것도, 앞에서 말한 유교의 덕목에 따른 것인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의 헌법 17조는 그 둘째에, 돈독하게 삼보(三寶)를 공경하며, 삼보란 불법승(佛法僧)이라고 되어 있는 외에, 첫째의 화(和)를 고귀하다고 한 이외 각조의, 유교경전에 따르는 것이 적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승인할 것이다. 타이카(大化)의 신정대보령(新政大寶令)의 제정 등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모방이지만, 그사이에 유교경전에 의하는 것도 적지 않다. 수당(隨唐)의 유학은 소위 훈고(訓詁)의 학문이며 유교세력이 미미해서 떨치지 못하고, 당시에는 화려했던 시문(詩文)이 유행했으므로 우리나라

192) 역주 : 5세기 전후.

193) 역주 : 첫 정날.

라에서도 시문이 성행하여 '懷風藻'의 편찬이 완성했다.

쇼토쿠(稱徳)천황의 대에 승려 도쿄오(道鏡)가 불신(不臣)의 뜻을 품었을 때, 와케노키요마로(和氣清磨呂)공(公)은 우사(宇佐)의 신칙(神勅)을 받들고 개혁이래 처음 군신(君臣)의 분수를 정했다, 천황의 계승은 반드시 황운(皇胤)으로서 하며, 간흥(姦凶)의 도배는 신속하게 쓸어 없애라고 하였으며, 도쿄오의 간을 빼앗은 것은 키요마로 공의 충절에 의한 것은 물론이나, 그 당시의 일을 '大日本史' 본전(本傳)에,

“때로는 路豊永이 있으며, 키요마로는 말하기를 알, 도쿄오, 천자 위치에 오른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것을 섬길 것인가, 나는 바로 2, 3의 아들과 함께 백이(伯夷)를 따라서 지내겠다고, 키요마로는 죽음을 맹세하며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학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송학(宋學)의 수입은, 우리나라 학풍을 일변(一變)시켰다. 켄에(玄惠)승도(僧都)¹⁹⁴)는 '사서신주(四書新注)'를 고다이코(後醍醐)천황의 어전에서 강석(講釋)을 하며, 켄부노 추우코우(建武中興)의 단초를 열었다. 키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 경(卿)의 “神皇正統記”는 춘추학의 영향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다. 전국시대에 있어서는, 오산(五山)의 중이 근근히 문학을 유지했으나, 도쿠가와(徳川) 시대에 와서, 문교(文教)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뜻이 있었으며,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의 고제(高弟) 하야시라잔(林羅山)을 등용하여, 그 자손은 대대로 대 학두(學頭)가 되며, 천하문교의 칼자루를 쥐며, 유교 특히 주자학이 徳川 15대 동안, 거의 국교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오와리(尾張)의 敬公, 미토(水戸)의 義公과 같은 소위 친번(親藩)이라도, 유교를 장려했으나, 각 번(藩)에서도 각각 학교를 일으켜서 유교를 장려했다. 쿠마모토(熊本)의 時習館, 하기(萩)의 明倫館, 카고시마(鹿兒島)의 造士館, 사가(佐賀)의 弘道館, 요네자와(米澤)의 興讓館 등은 그러한 것 중 쟁쟁한 것이었다. 그 사이에 학자를 배출하여, 오로지 주자학뿐만 아니라, 오우미(近江)의 성인(聖人) 나카에 토우주(中江藤樹), 그 문하인인 쿠마자와 반잔(熊澤蕃山) 등은 양명학을 고취하여, 그것을 江學이라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 남학(南學)의 일파는 타니 지추우(谷時中), 노나카 켄잔(野中兼山), 코쿠라 산세이(小倉三省) 등은 주자학을 주창하고,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는 이러한 일파로부터 나와서 기문(崎門)의 학(學)을 이루었다. 또 한편에서는 야마가 소코우(山鹿素行)의 고학(古學), 경학(京學)이라고 불리는 호리카와(堀川)파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및 그의 아들 토우가이(東涯)의 고의학(古義學), 物徂徠 일파의 고문사학(古文辭學)이 있으며, 내려와서는 절충파(折衷派), 고증파(考證派) 등의 여러 대가를 배출해서 학문과 문장으로써 올리거나 처사(處士)로써 인의(仁義)를 고취하였으며, 혹은 사관(仕官)을 해서 경륜을 실시하며, 우리 카모노 마부치(賀茂真淵), 히라타 아츠타네(平田篤胤) 등 국학의 대가를 배출하고, 유교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여기에서 국학자 대 한학자의 논쟁이 일어났으나, 과연 공자에 대해서는 성인인가, 공자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공자 이하를 혹평하는 것은, 그러한 혁명론의 대의명분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는 기문학(崎門學), 미토학(水戸學)과 같은 것은 소위 황도에 순화한 유학으로서 비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서양문명의 수입과 동시에, 고래(古來)의 학문, 도덕, 종교는 일시적으로 이것을 일소하는 듯한 세력이 있으며, 우리 유교도 고루하고 완고한 것으로 되돌아볼 것이 없었으나, 1890년 10월 30일에 하사된

194) 역주 : 관승.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는,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혼돈하여 나아가는 곳을 몰랐던 사상계의 지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유교는 참으로 칙어의 각주(脚注)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유교와 일본정신

우리 일본은 신국(神國)인 것이다. 상고시대는 8백만의 신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 해 왔던 것이다. 그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가 천(天)을 지고무상(至高無上)으로서, 그 아래에는 천신(天神)지지(地祇)인귀(人鬼)를 예속시키는 것과 유사(類似)하고 있다. 이것은 유교가 각별한 장애(障礙)없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신을 섬기는 것은, 액땀을 하고 심신을 청결하게 하여,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며, 제사에 위 한 분의 정치적인 중대한 임무의 하나로 아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정(祭政)일치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이다. 목욕제계하여 심신을 청정하게 하고, 경건(敬虔)으로써 신을 섬기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둘째 이유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민동조(君民同祖), 가족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다. 우리나라가 개혁의 처음부터 미래영겁에 걸쳐,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시는 것은 헌법에도 명문으로 되어 있는 대로이나, 천황은 천손(天孫)이신 것과 동시에, 외람되게도 국민의 대종(太宗)이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즉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다. 유교 특히 공자가 설명하는 군신관계에 관해서 의 논의는, 대부분 우리 국체를 설명하고,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인 것이다. 단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맹자, 순자(荀子) 이하 많은 유자(儒者)들은, 혁명 취향을 풍기는 지나 국체 때문에 우리 국체와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혁명예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맹자의 서적을 실은 배가 우리 연안에 도착하면 난파한다는 전설도 생겨나서 우리 국학자들이 활발하게 논란을 했던 것도 알맞은 것이다.

또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효행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충효 한 가닥을 설명한다. 이것이 네 번째인 것이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충을 중하게 여기고, 유교는 효를 크다고 여긴다. 이것이 그러한 상위점인 것이다. 야마토다마시이(大和魂)에는 한편 과감하고 용맹스러운 것이 있으며, 이러한 거친 것을 혼이라고 말하며, 한편으로 조용하며 부드러운 것이 있다. 이것을 화혼(和魂)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 유교적으로 말한다면 인덕(仁德)과 용덕(勇德)인 것이다. 그 이유의 다섯 번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어나간다면, 유교가 각별히 모순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래도 적지 않게 열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 번거로움을 피하여 잠시 두기로 하다.

우리나라는 언령(言靈)의 행운이 있는 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며, 많은 논의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거의 선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옛날부터의 국풍(國風)이었다. 그러나 소위 신으로서의 도(道)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도의가 실시된 나라인 것이다. 말하자면 당풍(唐風), 많은 선전이나 논의를 하는 지나풍(風)과는 거기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공자가 말을 아끼며 실행에 민첩할 것을 열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풍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 인의(仁義)도덕에 의하여 예악(禮樂)의 정치를 말하며, 예의삼백 위의(威儀)삼천으로써 국가사회를

다스리고자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유교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존중하는 신(神)으로서의 길과는, 무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것이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유교가 전래함으로서 부터, 우리나라도 애써서 인덕(仁德)도덕의 설을 고취(鼓吹)하고, 제도문물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정신은 신(神)으로서의 길을 기초로 하고, 유교의 인의(仁義)도덕으로써 이것을 수식하는 외에, 나아가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또한 심대(甚大)한 것이 있으나, 지금은 불교에 관한 논의는 잠깐 두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유교에 관해서 사건을 조금 말해 보고자 생각한다.

앞드려서 생각하건대 교육에 관한 칙어는, 우리 일본전신의 진수를 말씀하신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정신인 것이다. 이것은 칙어 중에서 “그 길은 참으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으로서 자손신민과 함께 준수해 나가야할 바”라고 말씀하시며 명백(炳焉)한 것이 해와 별(日星)과 같은 것이다.

황조황종의 나라를 건국하신지가 요원하며, 덕을 세운 것이 심후(深厚)하며, 신민은 잘 충(忠)에 잘 효(孝)에, 만민의 마음을 하나로 하고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마침으로써 국체의 정화(精華)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이것이 즉 유가사상의 극치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즉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다.

만민이 한 마음이라거나 세세(世世)제미(濟美)와 같은 성구(成句)를, 유교의 경전에서 취하게 한 것은, 사람의 장점을 채택하고 자신의 낭중(囊中)의 물건으로 삼는 사유인 것이다.

칙어에서 말씀하시는 바의 궁극의 목적은,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서 받드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보조(寶祚)가 융성해 지는 것을 천양(天壤)과 더불어 끝이 없다고 말씀하신 신칙(神勅)을 준수하는 사유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참으로 유가(儒家)의 대의명분론이 주장하는 바인 것이다.

천양무궁의 황운을 부익하고 받드는 것에는, 국민은 먼저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덕성(德性)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칙어 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가 우애로, 부부는 서로 화목하고, 봉우는 서로 믿고 스스로의 행동을 삼가하고, 박애는 여러 사람에게 미치며, 학업을 닦아서 지능을 계발하여 덕기(德器)를 성취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그러한 뜻으로 배찰(拜察)하여 받드나, 이러한 것은 참으로 유교윤리의, 본무론(本務論), 덕론(德論), 수양법(修養法)의 요지인 것이다.

공익을 넓히며 세무(世務)를 열고, 항상 국헌을 중히 여겨 국법에 따르며, 일단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의용(義勇)을 공(公)에 받드는 것처럼, 유가(儒家)의 자가 독선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서 국가사회에 공헌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상 약설(略說)한 바와 같이, 유교는 대체로 교육에 관한 칙어의 주석(註釋)이며, 또한 아마도 가장 적절한 주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가(儒家)의 소설(所說) 중에 한두 가지가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교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우리 일본국민정신과 밀접(密接)불리(不離)의 관계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끝)

〈출전 : 宇野哲人, 『儒教と日本精神』(續), 『儒道』 제4호, 朝鮮儒道聯合會, 1943년 8월 1일, 5~9쪽〉

4) 타카다 신지(高田眞治), 대동아전쟁과 유가(儒家)의 길(전회 계속)

문학박사 타카다 신지

4. 대동아건설과 사문(斯文)

대동아전쟁의 목적은, 미, 영을 격양(擊攘)하고, 미, 영 의존과 완미(頑迷)한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항일을 지속하는 重慶정권을 섬멸해서 영광 있는 대동아를 건설하며, 빛나는 공존공영의 신 동양을 수립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구미(歐美) 숭배에 빠지며, 미, 영 사상에 기우리고 있었던 일반적인 대세는, 지금 아직도 그 타락한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가장 자유주의이며 개인주의의 분위기에서 자라 온자들이, 입으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배격을 주창하며, 시대상에 맞추고 있는 것처럼 모순이 아직도 도처에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진실한 혁신을 단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는 것 같다. 구미사상에 배양되어 온자들이 어떻게 해서 급하게 동양사상을 체득하여 실현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이러한 때에 유가(儒家)의 길이 떨치지 못하는, 명치(明治)이래의 차차 능이(陵夷)¹⁹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 오늘날만큼 유가의 길을 현양(顯揚)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명치 이래의 맹목적인 구미 숭배의 세력에 압도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사이에는 동양정신에 눈을 뜬 인사들의 경세(警世)적인 언동도 있었으나, 이러한 것이 되새김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나, 대충 말하면 사학(斯學) 그 자체의 학풍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조(淸朝) 3백년의 학풍을 결정한 고증학(考證學)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표방하여, 고증을 위하여 고증을 한 것이었다는 것은, 근대 서양에서 이루어진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거나, 과학을 위한 과학이라는 정신과 서로 공통된 것을 가지며, 그 자체로서는 학문의 길에 충실한 방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거나, 과학을 위한 과학이라는 개념이, 서양의 학문이나 과학을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동양 고래의 전통인 학문의 길 개념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근세 서양에서 학문이나, 과학의 개념은 대부분 대학에서 말하는 바의 치지격물(致知格物)¹⁹⁶⁾이나, 주자(朱子)가 말하고 있는 궁리(窮理)의 의의에 가까운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 같은 것은, 이것이 격물(格物)의 학문인 것이다. 과학자가 과학으로써 최고 절대의 학문인 것처럼 생각하고 과학만능을 뽐내고 있는 것은 마치 대학의 팔조목(八條目)의 첫걸음인 격물(格物)에 시종(始終)하며 학문의 능사(能事)가 끝났다고 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과학은 물질의 분석이나 연구인 것이다. 동양의 학문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사이언스는 오히려 격물(格物)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격물은 수제(修齊)치평(治平)의 대학의 첫머리의 한 항목인 것이다. 주자의 궁리는 그 위학법(爲學法)의 한 면에 지니지 않는다. 동양학문의 의의는 치도(治道)를 근

195) 사물이 차차 망해 가는 것 : 망국의 징조.

196) 주자학에서는 후천적으로 知를 확충(致知)하여 자신과 모든 사물에 내재하는 개별의 理를 탐구하며, 궁극적으로 우주보편의 理에 도달(格物)하는 것을 지향한다.

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양(修養)의 학문이며, 실천의 학문이며, 경륜의 학문이며, 분석과 동시에 종합적인 학문이며, 성현의 길을 닦는 학문이며,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이며, 학문사관행(學問事辨行)을 포함하는 것이며, 지행(知行)을 겸하고 있는 것이며, 지행합일(知行合一)에 다다른 것이며,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은 공허한 학문이며, 입이나 귀의 학문이며, 적고 외우는 학문이며, 단순한 훈고고증(訓誥考證)의 학문인 것이다. 학(學)에도 대학과 소학이 있으며, 전자는 대학이며, 후자는 소학인 것이다. 청조(淸朝)의 고증학은 한당학(漢唐學)의 부흥이기 때문에, 소학을 위주로 하는 것이며 대학의 길의 현양(顯揚)과 실천에 있어서는 말하기에 만족한 것은 없는 것이다. 청조(淸朝)가 망하자, 한 사람의 의사(義士)도 일어나서 의(義)를 부르짖는 자도 없으며, 국난(國難)에 순직하는 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그 학문이 미친 사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청조는 중국인이 이적(夷狄)시한 만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멸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좌시(坐視)한 자가 있었다면, 견마(犬馬)일지라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알 것이다. 청조 3백년의 녹(祿)을 먹은 데 대하여, 백이(伯夷) 魯仲達이라고 하는 자는 당장에 무엇을 생각했어야 했을까. 고증을 위한 고증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학문을 하는 자는, 명도정의(明道正誼)의 학문의 실천을 잊었던 것이다.

강희(康熙)건가(乾嘉) 즈음 때,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한학이 가장 왕성했다. 한학은 경학(經學)을 주로했다. 경학은 명도정의(明道正誼)의 학문인 것이다. 그들은 이것의 규명을 기했다. 그 논저(論著)는 정확(精確)하고 심투(深透)를 끝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파악하는 근본정신은 무엇이었었느냐, 그들은 하고자 해도 공맹(孔孟) 같은 성현은, 도저히 배워서 될 것이 아니라는 자인 것이다. 나중에 학문에 뜻을 두는 자는 마땅히 유생으로서 성현의 길을 받드는 경(經)을 강론하며 경의(經義)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경(經)은 만세(萬世)의법을 기록하는 것임으로 이 이상의 길은 없는 것이다. 경의(經義)를 얻기 위해서는 옛것에서 벗어나는 가장 가까운 한유(漢儒)의 주석에 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억측으로써 함부로 사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송명(宋明)의 유자가 성인을 배워서 그것에 다다르고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며, 그 사건을 힘차게 경(經)의 본의를 어지럽힐 것을 알았다. 생각하건대 청조(淸朝)의 경학자가 경(經)을 지키며 옛것을 연습하여 징거(徵據)의 학(學)을 만든 공적은 인정해야 할 것이나, 또 그 기본정신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먼저 공맹을 배워서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공자의 소위 스스로를 굶는 것으로서, 거의가 자포자기 하는 자의 말에 가까운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천덕(天德)이 나에게 생긴다. 안연(顏淵)이 말하기를, 순(舜)이란 누구냐, 나는 누구냐고. 맹자 가라사대, 바라는 바는 즉 공자를 배우겠다고. 공맹을 배워서 이르지 말라고 한 자는, 거의가 공맹의 정신을 모르는 자의 말인 것이다. 학문에 대인(大人)의 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말하는 바인 것이다. 만약에 알고서 이 말을 한다면 호신술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청대(淸代)의 한학의 종사(宗師)로써 지목되는 학자로서, 그래도 굳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많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 원래 그 식견이 모자라는 탓일까. 더욱 괴상한 것은, 현대의 황국이 중심이 되어서 대 동아건설에 매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지나학계에 경학(經學)이나 한학 같은 것을 주로 하는 자가, 그러한 청대의 경사(經師)의 설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지키며, 다만 고증을 위해서 고증을 한다는 것만으로써 학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명륜강도(明倫講道)에 뜻을 두고 경세치용(經世致用)을 말하며 무책(務責)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을 가르쳐 불급(不急)의

학문이라고 하며, 혹은 학자의 본분을 일탈(逸脫)한다고 말하며, 또는 이름을 구하는 자라고 나무란다.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는 2백여 년 전의 외유(外儒)의 조박(糟粕)을 훑으며, 사기(士氣)의 함양, 정신양양, 사상발전을 도모할 줄 모르며, 따라서 시대의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스스로의 학문의 길은 이밖에 없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지나학은 영원히 청조의 고증학의 침을 훑는데 참을 수밖에 없으며, 말하자면 대동아건설을 맞이하여 새롭게 창조해야 할 문화건설에 기여해야 할 아무것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옛날 몽예(蒙叟)의 무리들은 교묘하게 우언(寓言)을 만들어서 유자(儒者)들을 비방했다. 장자(莊子)의 천지 편에 실고 있는 바의 포후(圃畦)를 만드는 곳의 장인(丈人)이 자공(子貢)을 나무라는 말에 가라사대, 네가 박식(博識)하다고 하여 성인을 본받고 명성을 천하에 팔고자 하는 것인가. 너는 자신의 몸마저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를 다스릴 틈이 있느냐. 이것을 현대 지나학을 주장하는 자가, 공맹을 배우서 그렇게 될 필요가 없으며, 학자는 독서하고 연구하면 족한 것이다. 명륜 경세를 논하는 것은 이름을 좋아 하는 선비가 하는 바이라고 비방하는데 비하면, 홀로 그 몸을 잘 가지며 천하를 밖으로 할 때에, 어찌 그 뜻이 가까워 질 것인가, 현대 지나학계에서 그러한 인사의 주장은, 입으로는 경학을 일컬으며, 한학(송학에 대한)을 주창하는 것도, 사실은 경학의 본뜻에 철저히 않고, 오히려 노장(老莊)의 아류(亞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논어에 가라사대, 군자는 본분에 힘을 쓴다. 본분이 세워짐으로서 길이 생긴다고. 맹자는 가라사대, 군자는 경(經)에 반대할 뿐이다. 경이 올바르게 서민에게 일어날 때, 경(經)은 만세불역(萬世不易)의 길을 신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서에 쓰여 있는 것은 빠짐없이 틀림이 절대 없는 진리라고 맹신하는 것은, 기둥에 ○하는 견해인 것이다. 삼대(三代)의 제작이 각각 손익을 내는 데가 있으며, 공맹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전부가 절대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토지를 엄습하여 교(教)를 달리고, 고금과 내외를 취사를 잘 하며, 실시하는 것을 잡는 것이 공맹의 길인 것이다. 이것을 경(經)에 쓰여 있는 바는 전부 쉽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배에 표시를 하여 검(劍)을 구하는 따위인 것이다. 말하자면 한주(漢注)가 옛날을 지남 것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경의(經義)를 얻는데 가장 증거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은 확실히 이치에 맞으나, 단순히 이것만으로써 한주(漢注)만 맹종하는 것은, 이것 역시 나무 뿌리를 지키는 것을 본 것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에게는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으며, 힘에도 강약이 있는 것처럼, 지(智)에도 역시 심천고하(深淺高下)가 있다. 장님 무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코끼리를 박힌다고 해도, 눈 뜬 자가 한 번 보는 데와 같지 않다. 한당(漢唐)의 注蔬人의 취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은 원래 많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정곡(正鵠)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송명(宋明)의 유자(儒者)인 해(解)는 단순히 경구(經句)를 빙거(憑據)할 뿐으로, 사실은 시대적인 진전에 따라서 새로운 표현방식으로써 자기주장을 설명하는 것이 많음으로, 때로는 옛 뜻과 동떨어진 것이 있으나, 공맹의 참 정신을 받아 들이는 데는, 程朱 陸王 등의 여러 철명(哲明)한 인물이나 식견이라는 것은, 훨씬 한당(漢唐)의 注蔬家 위에 있는 것이다. 阮元은,

竊謂士人讀書，當從經學始，經學當從注蔬，空蔬之士高明之徒，讀注蔬不終卷而思馱者，是不能潛心平素，終身不知聖賢諸儒經典之學矣.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물론 반성해야 할 것이나, 대체로 말하건대 注蔬 설에도 우론(愚論)벽설(僻說)이 적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注蔬는 원래 존경해야 할

것이나, 그는 건강부회(牽強附會)하는 점이 많고, 식견이 모자라는 것을 간파(看破)할 수가 없다면, 아직도 더불어 경(經) 및 경학(經學)을 논하기에는 모자라는 것이다.

내 자신은 결코 고증학(考證學)을 비방하는 자는 아닌 것이다. 소위 한학(漢學)적인 고거(考據)도 송학(宋學)적인 의리도 모두 그 필요를 인정하는 자인 것이다. 다만 학계 전반을 통하여 도도(滔滔)한 고증학의 여류(餘流)에 타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학문적인 태도에서 한송(漢宋)양학(兩學)의 다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동서 양 문화의 종합융회(融會) 위에 서서 대동아건설을 기도(企圖)하는 현대에서는, 그러한 하찮은 문제는 이미 과거의 일로서 지양(止揚)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지나학계를 통하여, 거의 오늘날은 아직도 청조(淸朝)의 고증학의 여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인 것은 어찌된 일일까. 청조 고증학의 업적에는 귀한 것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이것을 구사(驅使)하여, 보다 고차적인 신문화의 창조에 매진해야 할 시대인 것이다.

공자는 세상이 쇠퇴하고 도(道)가 희미할 때에 태어났으며, 인간의 대도(大道)인 인(仁)을 제창하여, 제세구민을 위하여 분주(奔走)하고, 바쁘게 목탁을 천하에 두들기며 자리가 따뜻할 틈도 없이 동서남북을 주류(周流)했으나, 끝내 뜻을 얻지 못하고, 공언(空言)을 유경(遺經)에 남기며, 홀로 만세인류의 스승이 된 것이다. 공자는 단순한 상고(尙古)주의자가 아니며, 또 경박한 진보주의자도 아니며 대도(大道)에 따라서, 중정(中正)을 이끌며, 문무가 나누지 않고, 지인용(智仁勇)을 겸하며, 존왕(尊王)애국, 가장 일반적인 정신에 일치하는 것을 지니고 있다. 그 덕교(德敎)는 가장 좋은 우리 황도에 순화(醇化)하여 오래도록 황도를 부익(扶翼)하고 있는 것이다. 공맹의 유축(遺躅)인 山東이, 이제야 우리 황군의 치하(治下)에 있으며, 그 자손이 황군의 비호(庇護) 아래에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성현의 길이 황국에 실천되고, 나아가서 이후 대동아건설의 중추(中樞)가 되어 천업(天業)을 익찬하여 받들 것이라고 믿는다. 오호라 성천자(聖天子)가 위에 계시며 공맹을 하여금 영(靈)이 있으시다면, 그 필세(畢世)의 경륜을 들어서, 곧바로 바다에 뜨며 국곡(蠶穀) 아래에 뛰어 왔을 것이다. 옛날 지나 송배의 풍조가 심했던 도쿠가와(德川)시대에,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는 문하인에게 문기를, 만약에 공맹이 대군을 이끌고 일본에 쳐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써 이에 대처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 문하인들은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안자이는 소리를 사납게 하며, 그때는 갑옷을 입고 칼을 잡으며, 곧바로 공맹의 목을 베는 것이 즉 공맹의 길인 것이라고 말했다. 余〇으로써 볼 때는 공맹이 일본에 쳐들어온다는 것은 단연코 없는 것이다, 공맹은 그 이상이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쁘기는 해도 쳐들어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공맹인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당장에 붙잡아서 목을 날려서 좋을 것이다. 공자의 존왕(尊王)의 정신, 인정덕치(仁政德治)의 이상, 맹자의 도의설(道義說), 왕도론, 모두 전부 다 우리나라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맹의 탄생 국에 잔존하는 지나 重慶 정권은, 잘 못된 민족주의를 고집하고 자멸적인 항일정책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괴멸의 늪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자계사신(牝鷄司晨)¹⁹⁷⁾의 화(禍)도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의 재현(再現)이 중국인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오호라 4억의 창생의 고통을 어찌할 것인가. 지사인인(志士仁人)은 마땅히 일어서서 백성의 도탄의 고통을 구하며, 천일(天日)의 은혜를 입혀야 할 것이다.

197) 암탉이 새벽을 다스린다 : 암탉이 운다.

5. 신유교의 제창과 공부자 탄생 2천5백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사상은 혼란 저미(低迷)하고, 문학은 저조(低調)비속(卑俗)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데모크라시와 유물사관에 화를 입은 20세기의 세계가 더듬어야 할 운명이었는지 모른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의 전반에서부터 유럽의 물질문명의 막힘을 개탄하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정신문화로써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자도 있을 정도였다.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자가 되어 세계제패를 하고 드디어 영, 미의 자의(恣意)에 의한 발호(跋扈)와 소련의 가공할 적화(赤禍)의 불꽃이 아울러서 세계는 물질적이 되며, 사회사상은 공산사상이 만연 해 온 것이었다. 사상의 혼란과 문학의 비속(卑俗)이란,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한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것의 반동으로서 일어난 것이 이태리의 파시스트이며 독일의 나치스이고, 미, 영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전체주의를 채택하고, 국가사회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단독으로 개인적이고 자유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진실로 국가적이고 전체적인 존재라고 보며, 국가적 공익은 항상 개인적인 이익에 우선 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본가적인 착취를 배제하고, 국민의 통합을 꾀하며 국가전체의 약진을 기도한다. 우리나라가 황도정신에 돌아가고 조국(肇國)의 홍모(鴻謨)를 들어서 신세계에 임하고 있는 것은, 원래 독일과 이태리의 모방에 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독일과 이태리야말로 황국에 배우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구미사상을 탈피하여 황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정신에 환원함으로써 장래 세계를 지도해야 할 신문화의 창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명치 이래의 구미문화의 수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유도 없었으며, 모든 점에서 구미를 좋은 것으로 여겨서 이러한 수입에 힘썼었음으로서, 무척이나 그 폐단도 아울러 받아들인 느낌이 있었으나, 이제야 우리나라 사람의 독자적인 안목으로써 그 장단점을 아울러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져 왔기 때문에, 이후는 잘 취사선택의 태도로써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선인들이 지나사상, 인도사상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섭취하고 우리 국민의 혈육 속에 넣어 들인 전례가 있음으로, 서양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것을 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종래에는 학문이라고 하면 모든 방면에서 서양학문을 주로 한 것은, 커다란 폐단이었기 때문에, 이후는 서양학문을 닦은 사람들도 애써 동양학의 정수(精髓)를 알고자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동시에 동양학을 수학하는 자도, 고루(固陋)독선에 빠지지 말고, 서양학문이나 과학의 장점을 취해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비로소 세계를 지도하는데 충분한 신문화가 일본인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

민국이 되고 난 이래의 지나에 관해서 보면, 삼민주의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해두었으나, 重慶 정권의 잘 못된 민족주의나 위만(僞慢)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천주(天誅)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완미(頑迷)는 진무(神武) 천황이 동정(東征)을 할 즈음의 나가수네히코(長髓彦)에 비교할 것이 있으며, 이를 격멸하지 않으면 명량한 신동양은 기대되지 않는다. 단지 그들처럼 위만(僞慢)과 포학(暴虐)으로써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조만간에 멸망의 늪에 가라앉는 것은 천리(天理)의 필연인 것이다. 그들이 아직 그 비행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 완우(頑愚)함이나 불쌍히 여기며 그 오학(傲虐)을

미워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華北의 신민회(新民會)의 활동이나 南京 국민정부의 신 국민운동이 착실하게 신생중국의 발전을 향하여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축 해 마지않는 바인 것이다. 신생중국은 순진한 중국청년에 의하여 건설 될 것이다. 본인은 중국청년의 빛나는 장래성을 기대하여 마지않는 자인 것이다. 그들이 숭고하고 청순한 일본정신을 이해하고, 더불어 제휴하여 대동아의 건설에 매진할 때, 비로소 위대한 신문화의 창조가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삼민주의는 이러한 커다란 창조에 이르러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4천년의 오랜 문화를 가지며, 5백년 이래의 동서사상의 교섭과정을 거쳐, 만방(萬放)무비(無比)의 국체를 갖는 일본의 지도 아래에서, 비로소 빛나는 세계의 최고 종합적인 신문화의 출현이 기대되는 것이다. 본인은 일본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며 동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이 태어나고자 하는 대동아의 장래를 향하여 그와 같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민국 이래의 문학혁명이나 백화(白話)운동이, 구태에 침태(沈頹)하는 지나문학의 앞길에 향하여 일말의 신선한 화제를 찾아낸 것과 같은 움직임은 나타낸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는 아직도 저조한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찬란한 빛나는 과거의 지나문학의 정화(精華)에 비추어 보면, 민국 이래의 그것은 오히려 침퇴 타락의 꼴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서구문학이나 우리 명치문학에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백화(白話)문학은 일본에서는 어문학(語文學)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인의 견해로 말한다면, 구어(口語)나 백화(白話)는 물론 그 발생이유는 인정되며, 소설이나 잡화(雜話)의 서술에는 적합하다고 해도, 장중(莊重)하고 전아(典雅)하거나 웅혼(雄渾)정대(正大) 등의 문장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이며, 데모크라시 적인 평이(平易)하고 비속(卑俗)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지나문학의 정통은 이디까지나 문어문(文語文)에 있으며, 논자(論者)가 말하는 것처럼 백화문(白話文)의 회곡소설이나 어록류(語錄類)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요는 사상적으로 보아도, 민국 이래의 것은 세계수준에 비추어서 저조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신양양과 문학 정화(精華)의 인식, 이때에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요는 동양 고래(古來)의 대도(大道)에 따라서, 그 문화(文華)의 정영(精英)을 식득(識得) 현현(顯現)하는데 있다.

일본은 이제야 아세아대륙의 지도자가 되며, 남방공영권을 형성해서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대동아 건설은, 세계 신질서를 제패하는 것이 되며, 일, 독, 이 추축(樞軸)국 측의 승리는 굳이 움직일 수 없는 형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후방의 문화전사는 전선의 용사에 뒤지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양에서 신문화의 창조는, 동양의 특수성을 가짐과 함께 세계에 대한 보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천명(天命)신의(神意)에 순응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동양도덕은 서양과학으로서의 유신 이래의 표어였었던 것이었다. 대륙을 경륜(經綸)하고 남양을 약취(略取)해야 한다는 것은, 막부(幕府)말기와 유신의 선각자가 이미 주장하는 바였다. 외람되게도 명치천황은 1886년 가을 동경 제국대학에 가신 후, 시강(侍講)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를 초치하여, 원래 대학은 일본 고등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고등인재를 성취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과를 하여금 정치치요(政治治要)의 길을 강습해야 할 인재를 구하고자 하나 결코 얻지 말지어다. 가령 이화이과(理化醫科)의 졸업을 하여금 그 인물이 되었을지라도, 들어와서 대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당세(當世)의 복고(復古)의 공신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더라도 영원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잇는 상재(相材)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학의 교과가 화한(和漢)의 수신(修身)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며, 국학(國學)과 한유(漢儒)의 고루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고루함은 그 사람의 과오인 것이다. 그 길의 본체는 원래 이것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토다 토오노(元田東野)선생이 적었던 성유기(聖諭記)에 보이는 바이다. 사문(斯文)의 무리는 참으로 감격 참괴(慙愧)하여 성명(聖明)에 봉답하는 바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사문(斯文)이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사문회도 역시 그 전신인 사문학회에서 회의 기록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다.

사문회는 1880년 6월 6일의 창립에 관계되며, 당시 조야(朝野)가 구미문명에 심취하여,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덕교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에 감안하여, 당시의 좌대신(左大臣)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가 이것을 깊이 개탄하여, 타니 타테키(谷干城)와 시게노 야스즈그(重野安繹) 등의 여러 사람을 종용하여, 주로 당시 유명했던 한학자를 망라하여 조직한 것으로서, 그것이 성사가 되자, 외람되게도 명치천황으로부터 내탕금(內帑金) ○○엔을 하사받고, 또 회장은 아리스가와노미야 타루히토(有栖川宮熾仁) 전하를 받들며, 코아지마치(麴町)구 寶田 수사관(修史館) 자리를 무상으로 빌려 받고 허가를 받아서 교사로 삼으며, 생도를 교양하고, 궁내성(宮內省)으로부터 매년 2천4백 엔 씩 하사를 받았다. 그 후에 위 아래로 국수(國粹)보존이 필요한 것에 눈을 떠서, 사문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한학을 닦고 사문(斯文)에 종사하는 자는,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어, 배움의 본령을 분별하고, 그 대도(大道)를 명백히 함으로써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고, 현대에 공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야 더욱 외람되게도 작년 가을 본회가 흥아사업에 힘쓰는 것을 들으시고 내탕금을 하사하시는 영광을 입은 사문회가, 전력을 다하여 유교진작에 매진하며, 성지에 봉답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경하 해 마지않는 바인 것이다.

이 가을을 맞이하여 공부자 탄생 2천5백년이 바로 7년 뒤에 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공자의 길은 고금(古今)을 통해서 덕은 천지를 지배하고, 오래도록 만세의 스승이 되며, 특히 우리 일본에서 그 이상의 실현을 본다. 우리는 2년 전 자운(紫雲)이 자옥한 大內山 앞에서 기원2천6백년 봉축의 감격을 가지며, 보조(寶祚) 무궁(無窮)과 국체의 존엄과를 여실히 우러러 본 것이었으나, 이것에 이어서 곧 동양유교의 대종사(大宗師) 공부자의 생탄 2천5백년을 기념하는 다행을, 이러한 대동아건설이 한참일 때 맞이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일만화(日滿華)삼국을 통하는 도의적인 결성의 뉴대는, 참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두고는 다른 곳에 없을 것이다. 덕으로써 다스리는 자는 왕이며, 힘으로 다스리는 자는 패(霸)인 것이다. 우리 황도의 정화(精華)는 왕도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주(周)나라 공(孔)의 도(道), 추로(鄒魯)의 가르침은 우리 황도에서 그 정수(精髓)를 발휘하고 있다. 도(道)로써 맺고 덕(德)으로써 교류하는 것은, 나라의 안팎을 불문하고, 지역의 원근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본인은 세 번 태산에 올라가서 세 번 曲阜의 성묘(聖廟)를 배알(拜謁)하고, 또 다시 鄒縣의 아성묘(亞聖廟)를 배알하는 기회를 얻어서, 공안맹(孔顔孟)의 성예(聖裔)현손(賢孫)과 맞이하는 영광을 가졌다. 성현의 길의 참다움은 세계에 빛이 널리 퍼질 것, 오늘날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의 건설기운(機運)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본인은 성예현손(聖裔賢孫)이 잘 그 명석함을 유지하고 선성(先聖)선현(先賢)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라건대 대성(大聖) 성탄 2천5백년을 기하여, 일만화(日滿華)친선의 사도(斯道)대회를 개최하여, 이것으로서 대동아의 문호건설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대동아의 영원한 태평(泰平)의 길을 열고, 세계 신질서를 확립하며, 이것을 목표로 삼아 지나사변의 처리와 대동아전의 완수와를 기하는 것이, 우리 사문(斯文)의 무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제야 모든 현상은, 세계적인 관련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성대(聖代)에 생을 향유한 사학(斯學)의 무리는, 남김없이 눈빛을 크게 하고 세계의 추세를 대관(大觀)하며, 황국민인 자각을 근본으로 하고, 성현의 길의 진수를 발휘하며, 경학을 근거로 하는 것과 동시에 잘 시대의 진운(進運)에 따르는 신사상의 창조에 참가하고,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천지의 대도에 준하며, 우주의 절대성과 순수성(純正)에 합일하는 사도(斯道)의 길의 현양(顯揚)을 익찬함으로써 세계의 최고 종합문화의 건설에 정신(挺身)할 각오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高田眞治, 「大東亞戰爭と斯文」(前回繼續), 『儒道』 제4호, 朝鮮儒道聯合會, 1943년 8월 1일, 10~19쪽〉

Ⅲ. 신문·잡지 게재
친일시문



1. 문명기(文明琦)

1) 만주절(滿洲節)

경북도평의원 문명기 씨가 일전에 다음의 노래를 지어서 관동군 사령관 앞으로 송부, 사기를 고무하는 것과 함께 코다마(兒玉) 군참모장과 야스이(安井) 비서관에게도 이것을 제시하여 재차 DK에서 방송하도록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1. 滿蒙의 삭풍 차가운 눈오는 아침
위풍당당한 일본군
錦州城으로 진입하니
아침햇살에 다시 빛나는 일장기
2. 산산이 흩어지는 大和櫻의 용맹함이어
廟行鎮의 세 용사
세계에 떨친 공훈은
죽어서도 천추에 이름을 남긴다

〈출전 : 文明琦, 「土氣鼓舞の歌—慶北の文氏が, 滿洲節」, 『京城日報』, 1932년 3월 19일〉

2) 부여신궁 참가 근로봉사 소감

부여 성역에서 신궁을 건축하니
같은 조상 같은 뿌리 하나로 보는구나
천 년 백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날 우리 모두 가서 봉사하니
백마강가 봄 풀은 싱그럽고
낙화암 물가 석양은 붉구나
순환하는 자연에 천황의 은혜 크니
덕정과 인화는 만세의 공이로구나

扶餘聖域築神宮
同祖同根一視同
千年百濟今安在
此日皆吾行更奉公
白馬江頭春草綠
落花岩畔夕陽紅
循環天地皇恩大
德政人和萬世功

〈출전 : 文明琦一郎, 「扶餘神宮 參加 勤勞奉仕 所感」, 『國民總力』 제3권 제8호, 1941년 8월, 95쪽〉

3) 축 징병제도 발표

팔도는 천황이 한 집처럼 여겨서
어진 정치로 백성을 두루 다스리시니
바다 같은 성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징병에 기쁘게 복종하며 한 몸 바치길 원하네

八道皇紘一字春
就治仁政普偏民
聖恩如海何爲報
悅服徵兵願以身

반도의 남아가 뜻을 얻으니
모두 황민이 되어 간성임을 비로소 깨달았네
요기 서린 변경에 완고한 적이 많으니
나라 위해 출정하여 한 몸을 바치리라

半島男兒得意春
干城始覺總皇民
邊境氛祲多頑敵
爲國出征獻一身

〈출전 : 文明琦一郎, 「祝徵兵制度發表 雲岩詩少」, 『國民總力』 제4권 7호, 1942년 7월, 29쪽〉

4) 필승 격시사율(檄詩四律) 한 편

미국과 영국 곳곳에서 침략을 자행하니
동아시아 백성들 분노와 유감이 깊구나
세상의 판세를 보니 이익과 권력을 훔치는 것
선교한다는 허명에 사람 마음을 사네
윤리를 없앤 죄가 천지를 가득 채우니
풍속과 모습이 짐승과 비슷하네
우리 천황 군대 명령을 받들어
충무를 드날려 음흉한 이를 정벌하네

米英無處不相侵
東亞群黎憤感深
暴利偷權探世局
虛名宣教買人心
蔑倫罪惡盈天地
該俗形容較獸禽
惟我皇軍親奉命
直揚忠武伐凶淫

〈출전 : 雲岩 文明琦一郎, 「必勝檄詩四律一首」, 『國民總力』 제4권 5호, 1942년 5월, 100쪽〉

5) 명치절 송사

백곡이 익는 때에 성군이 탄생하시니
해마다 이 날은 날씨가 화사하구나
일시동인하여 한 집안이 되었구나
천황의 은혜 어찌 글로 마음을 표현할까

百穀登時誕聖君
年年此日氣和薰
一視同仁紘一字
鴻恩那心五條文

명치천황의 감화는 옛날부터 이어온 것
 암석에 낀 이끼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영원히 성왕의 탄생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니
 남자는 아관 쓰고 여자는 박대 둘렀네

明治皇化八千代
 巖石苔生今昔態
 無彊聖節同歡祝
 男若峩冠女博帶

〈출전 : 文明琦一郎, 『明治節頌詞』, 『國民總力』 제4권 11호, 1942년 11월, 27쪽〉

2. 박영철(朴榮喆)

1) 『다산시고(多山詩稿)』(1939)¹⁾ 발췌

일본유학(遊學日本)

대장부 일생의 뜻은
 서책에만 있지 않았다네
 임포의 학이 보내는 소식만을 전하리오
 마판을 떠나 천리를 달리려고 한다네
 문장과, 제도를 하나로 하며
 천하를 경영하고자 하였다네
 짧은 노를 저어 창명을 건너니
 부상엔 밝은 해가 떠오르네

庚子
 丈夫一生志
 固不在書檠
 肯作林鶴息²⁾
 思馳歷驥程³⁾
 軌文同制度⁴⁾
 弧矢有經營⁵⁾
 短棹滄溟去
 扶桑旭日明

1) 박영철, 『多山詩稿』, 1939년 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2) 임학은 곧 송(宋) 나라 때 은군자(隱君子)로 불리던 임포(林逋)의 학을 이른다. 임포가 고산(孤山)에 은거하면서 항상 두 마리의 학을 길렀는데, 임포가 항상 작은 배를 타고 서호(西湖)에서 노닐었으므로, 혹 손이 임포를 찾아올 경우, 동자(童子)가 학의 우리를 열어 주면 학들이 나가서 날므로 임포가 그것을 보고서 손이 온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宋史』 卷四.

3) 조조(曹操)의 시에 “늙은 준마는 마판에 얹드려 있어도 뜻은 천 리 밖에 있고, 열사는 늘그막에도 장대한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 『중용(中庸)』 28장에 “지금 천하가 궤철을 같게 하고 글은 같은 문자를 쓴다.” 한 데서 온 말이다.

5) 호시성(弧矢星)으로 일명 천궁(天弓)이라고도 한다. 모두 아홉 개의 별 가운데 여덟은 궁형(弓形)을 이루고 바깥의 한 별이 화살 모양을 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7년 계묘(1783, 건륭 48) 9월 7일(을미) 「구홀에 관한 윤음을 내리다」에 보면 ‘…… 호시(弧矢)를 두는 것은 옛적부터 하던 것으로써, 남자는 온 사방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의의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원자에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바는 단지 온 사방에 뜻을 두어야 함에 있을 뿐만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로서 보건대 弧矢는 남자가 천하에 뜻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일리전쟁에 종군하여(從軍日露戰役)

甲辰

풍운이 감도는 일로(日露)의 전장터
동아시아의 안위는 여기에 있다네
머나먼 전장으로 떠나려 붓을 던지고 일어서니
누가 정주 땅에 서생이 올 것을 알았으리오

風雲日露兩交兵
東亞安危在此行
萬里從征投筆起
誰知定遠是書生⁶⁾

정주에서의 첫 전투(定州初捷)

대포는 연기가 자욱하게, 총알은 비처럼 날리며 산이고 바다고 울리는데
보이는 곳마다 시체는 가로로 세로로 쌓여있네
천 여 명의 철기군이 놀라 후퇴하니
욱일기 정주성에 높이 게양되네

砲烟丸雨海山轟
當面堆屍縱復橫
鐵騎千群驚膽退
旭旗高揭定州城

압록강에서의 두 번째 전투(鴨綠江再捷)

압록강 좌우로 큰 하천이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과감한 전략에 있다네
대포 소리 우레처럼 울리고 천지는 암흑과 같으며
검의 광채 눈처럼 나부끼고 귀신은 시름에 잠기네
곧장 호랑이 굴로 달려가듯 하니 어찌 위험하다고 사양하리오
뺏고 빼앗기는 방법을 서로 주고 받네
갑옷을 벗은 교만한 우두머리 싸울 마음을 잃고
기세는 파죽지세여서 만류하기가 힘드네

鴨江左右夾鴻溝
進退戎機在決籌
砲響轟雷天地暗
劍光翻雪鬼神愁
直探虎穴寧驕險
爭奪龍韜各效酬⁷⁾
卷甲驕酋都喪氣⁸⁾
勢同破竹自難留

봉황성⁹⁾에서 도태¹⁰⁾의 환영회를 받아들이며(鳳凰城受道台歡迎會)

봉황성 밖에 주둔한 군대 구름처럼 빗겨있는데

鳳凰城外陣雲橫

6) 定遠은 定遠城이니 곧 정주(定州)이다.
7) 龍韜 : 병법(兵法)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을 말한다. 주(周) 나라 여상(呂尙)이 지은 『육도(六韜)』라는 병서(兵書) 속에 용도(龍韜)와 호도(虎韜)의 편명이 들어 있다.
8) 왕양명(王陽明 양명학(陽明學)의 시조 왕수인(王守仁)이 15세 때 꿈속에서 절구(絕句) 한 수를 짓기를, “갑옷 벗고 전장에서 돌아온 마 복파, 젊어서 병법 익혀 어느새 머리 희어졌네. 우레 속에 떨어져 나간 흙먼지 구리 기둥, 여섯 글자 지은 시는 지워지지 않았어라.(卷甲歸來馬伏波 早年兵法鬢毛 雲靈銅柱雷轟拆 六字題詩尚不磨)”라고 하였다.
9) 단동 북쪽에 위치한 오골성(봉황성鳳凰城)이라고 한다.
10) 도태는 지사보다 높은 관리이다.

적의 보루는 위풍만 보고도 각각 살려고 숨어 버렸네
환영회는 성대하게 열리니
삼군은 개선가를 제창하네

敵壘望風各竄生¹¹⁾
一境歡迎開盛會
三軍齊唱凱歌聲

수암성에서 승첩하다(岫巖城奏捷)

안장 끈 분수령에 달은 휘영청
칼 씻은 수암성엔 샘이 솟는다
적개심에 찬 모두가 노력한 것이니
진기한 행동은 거기장군이 선우를 격파하고 공적비를 세운 일과 같다네

解鞍分水嶺頭月
洗劍岫巖城下泉¹²⁾
敵懷諸人咸努力
奇動何似勒燕然¹³⁾

전쟁 후에 감상을 적다(戰役後述懷)

한나라와 조나라가 순치의 관계인 것은 의지함이 있어서이니
월인이 진나라 사람 肥瘠한 것을 보는 것처럼 어찌 무관하리오
지금 북방의 요상한 기운이 멈추었으니
우리 동아시아 잠시라도 평화롭게 되길 바라네

韓趙齒脣原有賴
越秦肥瘠豈無關¹⁴⁾
而今北塞妖氛歇
庶使吾東得暫閒

총군정에 올라(登統軍亭)

산하의 안팎이 요새인 곳
총군정에 오른 고금의 영웅은 몇 이던가
허리에 찬 보검엔 신룡의 울음소리 들리고
술 마신 후 노래 소리 길게 뽑자 호방한 기는 무지개를 뿜네

表裏山河關防地
登臨今古幾英雄
腰間寶劍神龍吼
酒後長歌氣貫虹

일본 시바리큐의 국화연에 참석하다(日本芝離宮觀菊陪宴)

깨끗하게 구름사이로 어로는 길게 뻗어 있고

清蹕雲間御路長¹⁵⁾

11) 望風은 멀리서 위세를 바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12) 『시경』의 下泉은 조(曹) 나라 사람들이 포박한 공공(共公)을 미워하고 명왕(明王)과 현백(賢伯)을 사모하여 지은 시이다.
13) 후한 화제(後漢和帝) 때 거기장군(車騎將軍) 두헌(竇憲)과 집금오(執金吾) 경병(耿秉)이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북선우(北單于)를 공격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크게 격파하고 연연산에 공적비를 세우고 돌아왔다. 『後漢書』卷27 竇憲傳.
14) 한유(韓愈)가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陽城)을 비판하며 지은 쟁신론(爭臣論)에 “그는 일찍이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발언한 일이 없으니, 이는 그가 정치의 잘잘못을 보는 것이 마치 남쪽의 월 나라 사람이 북쪽 진 나라 사람의 살지고 여윈 것을 보는 것처럼 무관심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슬픈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이다.(未嘗一言及於政 視政之得失 若越人視秦人之肥瘠 忽焉不加喜戚於其心)”라는 말이 나온다.
15) 淸蹕은 임금이 거동할 때 도로를 깨끗이 쓸고 통행인을 물러서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별궁에 행차하시어 가을 국화를 감상하시네	別宮駕幸賞秋芳
귀족, 관리들 달려와 배열하니	千官趨列公侯伯
일 만 가지의 꽃은 일제히 붉고, 희고, 노랗게도 피었네	萬朵齊開紫白黃
그림자는 어른거리고 바람은 선듯 불어와 허리에 찬 검을 휘감는데	密影引風侵劍佩
담백한 향기를 내뿜는 이슬에 적은 국화 꽃잎을 잔에 띄우네	淡香和露泛壺觴 ⁶⁾
두 나라는 이미 우호조약을 맺었기에	兩邦固已修隣好
외람되어 오늘 잔치에 참석하여 영광을 갑절로 누리네	是日叨筵倍有光

동양협회 환영회 석상에서(東洋協會歡迎會席上)

동양협회의 명성은 높고 훌륭하며 뜻은 진실되어	大社隆隆旨義真
동아시아가 서로 친해지도록 힘써 노력하였네	力張東勢密相親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과 하나의 해가 천지를 밝히듯	一天日月光華裏
동양협회는 원래 내외의 구분이 없다네	團協元無內外人

대만을 시찰하며(視察臺灣)

만 리 먼 길을 배 한척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니	壬戌(임술년 1922)
대만은 春色으로 四時가 동일하구나	萬里孤篷入海中
하늘은 치우쳐 편애하지 않고	臺灣春色四時同
세상을 기르심에 골고루 우로를 적셔주시네	天公自是無偏覆
	化育均沾雨露功

대만에서 아카시총독 묘에 바칩니다¹⁷⁾(臺灣上明石總督墓)

산마루 지는 해는 忠碑를 조문하는 듯	峴山落日弔忠碑
한양에서 사령관 하시던 때를 추억하네	回憶漢陽司令時
해마다 봄이 오듯 그 남은 한도 끝도 없으니	春色年年無限恨

16) 당대(唐代)의 문신 고섬(高瞻)의 낙제시(落第詩)에 “하늘 위의 벽도는 이슬에 적시어 심고, 태양 곁의 홍행은 구름 의지해 심겨니와, 연꽃은 가을 물 위에 나서 자라는 것이라, 봄바람을 향해 못 피는 걸 원망치 않는다 오.(天上碧桃和露種 日邊紅杏倚雲栽 芙蓉生在秋江上 不向東風怨未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7) 明石元二郎(1864~1923)는 1883년 歩兵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에 들어가 여러 번 승진하여 때로는 독일에서 때로는 프랑스에서 주재 무관으로 있었으며, 1908년에 한국주둔군 參謀長 겸 헌병대장으로 조선에 왔다. 1910년 7월에 이르러 統監府 警務總長이 되어 조선 전국의 警務를 총괄하여 그 호령에 조선이 기침 소리 하나 없는 듯 했다. 1912년 12월 中將으로 승진하고 1914년 4월 參謀次長으로 영전하여 조선을 떠났으며, 이어서 제6師團長이 되고, 다시 臺灣總督이 되고 大將으로 승진하였으며, 1918년부터 1923년까지 名總督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사망하였다. 러일전쟁 때에는 수훈을 세워 功3級 金鷄勳章을 수여받았으며, 조선에 부임과 동시에 勳2等에서 勳1等으로 승급되었다.

아카시 장군께서 옹호한 지략을 완전히 펼쳐보지 못하신 것이라네

將軍雄略未全施

이쓰쿠시마¹⁸⁾에서 미즈노 정무총감¹⁹⁾의 시에 차운하며(嚴島次水野香堂總監韻)

단풍이 든 산하는 절정에 달하였고
이곳에 온 사람들 옷차림도 정결하네
고금 간에 나라를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
평범한 시어에서도 그 마음 보이네

楓溪山水最多情
到此遊人中履清
多少古今憂國事
尋常詩語見丹誠

가고시마 나에시로가와²⁰⁾의 조선촌을 방문하다(鹿兒島苗代川訪朝鮮村)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이 많이 바다를 건너와²¹⁾
도예촌을 만들어 10대토록 자손에게 전했네
만나보니 동족의 피붙이
이별입해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리네

壬役鮮民多渡海
一邨密業十傳孫
相逢自有同邦誼
悵悵臨歧帶淚痕

뤼순전적지(旅順戰蹟)

지관산과 얼링산²²⁾은
철벽금성으로 험한 요새였네
우습구나, 러시아 황제의 극동책이여!
어찌 기를 거두고 돌아갈 걸 기대했겠는가

鷄冠山與爾靈山
鐵壁金城是險關
可笑露王極東策
那期當日捲旗還

백골이 성안 가득 쌓인 (지금은)백옥산은
지혜로 알아채고 용감히 돌격하여 견고한 요새를 돌파하였네
충성을 새긴 높은 탑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말가죽에 쌓인 송장이 되어 돌아간대도 어찌 원망하겠는가

萬骨堆城白玉山²³⁾
推知勇敢破重關
表忠高塔令人式
何恨當年裹革還

18) 嚴島, 일본 히로시마만에 있는 섬.
19) 水野鍊太郎(1868~) 1892년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03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19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 임명되었다.
20) 임진왜란 때 강제 연행된 조선인 기술자와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나에시로강(苗代川)을 중심으로 4개 지역에 흩어져 저마다 특색있는 도자기를 생산했을 뿐 아니라, 대대로 가업으로 물려받아 뛰어난 기술을 이어오고 있다.
21) 일본이 조선의 도공을 강제로 끌고 온 것을 자발적으로 '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묘사하였다.
22) 뤼순(旅順)에 있다.
23) 뤼순커우완(旅順口灣)의 북쪽에 있는 산.

설날 어제 曉山雲에 화답하며(元朝謹和 御題曉山雲)

癸亥(계해 1923)

푸른 산 위로 빛을 내뿜으며 해는 떠오르고
만가닥의 구름엔 상서로운 기가 엉겨있네
조각마다 비를 머금고
천하 모두 풍년이 들게 하네

蒼山方曙日將昇
萬朵浮雲瑞氣凝
片片俱含作霖意
能令環海樂年豐

미즈노 정무 내상(內相)의 시에 차운하다(次香堂內相韻)

靑邱에 변동이 일던 때²⁴⁾
교화를 3년간 베풀어 백성들을 진휼하였네
베개를 높이 베고 멀리 계신 香堂박사를 생각하노니
꿈에라도 영혼이 무궁화가 만발한 조선에 찾아오시길

靑邱時事際艱辛
宣化三年在養民
遙想香堂高枕夜
夢魂來問槿花春

모리야 에이후를 구미 각국에 보내며(送守屋榮夫²⁵⁾君送歐美各國)

명성은 이미 해동에 가득한데
봉새의 뜻을 지닌 모리야군은 멀리까지 날아오르길 바라네
구주 삼 만리를 두루 밟고
문명을 손에 담아 오시길

令名已滿海東洲
此日鵬圖賦遠遊
踏遍歐洲三萬里
文明風物掌中收

臯水 총독²⁶⁾이 작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賀臯水總督陞爵)

나라를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靑邱를 진정시켜 조선의 산하를 깨끗하게 하였네
특별한 공훈을 세워 작위에 올랐으니
빛나는 황은의 말씀 영광 더욱 새롭게 하시네

一心爲國秉公平
坐鎮靑邱海嶽清
建得殊勳陞爵位
煌煌恩誥荷新榮

24) 3·1운동과 그 후 연이은 독립운동을 말한다.

25) 모리야 에이후(守屋 榮夫)는 1884년 11월 8일에 태어나 1973년 2월 1일 사망하였다. 그는 宮城県에서 守屋德郎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宮城三中과 二高를 다녔고 1910년에 東京帝國大學法科大学 獨法科를 졸업하였다. 內務省에 들어가 千葉, 愛知各縣理事官, 內務參事官, 朝鮮總督府秘書課長, 同庶務課長, 社會局社會部長等 등을 역임하다가 1928에 퇴직하였다. 이후 6차례에 걸쳐 衆議院 議員에 당선 되었다. 1942년 3월 3일부터 1946년 5월 1일까지 塩竈市長에 재직하였다.

26) 사이토 총독.

오오즈카 內府翰長の 승진을 축하하며(賀大塚內府翰長榮陞)

뛰어난 영재로 업적도 많이 쌓으시며	英才超邁績優良
조선에서 현명한 정책을 수고로이 펼치며 17년을 보냈네	權域賢勞十七霜
한림원의 측근으로 발탁되는 은총을 입었으니	密邇金門承寵擢 ²⁷⁾
기린과 같고 천리마와 같은 大塚 內府翰長은 먼 길에 발을 내딛으셨네	展蹄麒麟駉路程長

유아사 政務總監을 일본으로 전송하며(送湯淺政務總監歸東)

	戊辰(무진, 1928)
우뚝하신 숙망은 세상에서 보기 드물었고	宿望崑然一代稀
몇 년 동안 정무총감으로 중추원을 담당하셨네	幾年政務攬樞機
명석하고 재주 있는 이를 중추원에 등용하시니	明待材負巖廊中 ²⁸⁾
변방이라고 어찌 귀의하지 않았겠는가	遐土那能挽不歸
나라를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니	一心爲國秉忠誠
심부름하는 하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이름을 칭송하네	走卒兒童誦姓名 ²⁹⁾
일본으로 가시는 만 리의 머나먼 길	萬里東溟歸路遠
하늘 저 멀리라 너무나 슬퍼 그 마음 억제할 수가 없네	天涯招悵不禁情

야마나시 총독의 잔치에 가며(赴山梨總督宴)

버들가지 날리고 벚꽃이 은 저녁 바람에 나부끼는데	柳絮櫻花帶晚風
주가의 붉은 기는 높이 달려있구나	酒旗高處綺羅紅
상춘의 멋진 일은 모두들 즐기는 법	賞春勝事人同樂
담소는 화기애애하네	和氣融融笑語中

평톈에서 장쥘린³⁰⁾을 애도하며(奉天弔張督軍作林)

중국에서 제왕의 자리를 다투는 것에 온 세상이 놀랐고	逐鹿中原一世驚 ³¹⁾
-------------------------------	------------------------

27) 금문(金門)은 금마문(金馬門)의 준말이다. 여기서는 한림원을 가리킨다. 한 무제(漢武帝)로 하여금 금마문(金馬門)에서 조서(詔書)를 기다리게 한 데서 기인하였다

28) 옛날 '의정부(議政府)'의 다른 이름이다.

29) 走卒은 심부름하는 하인을 말한다.

30) 張作霖 (1873~1928)은 랴오닝성(遼寧省) 출생이다. 마적단 출신으로 러·일전쟁 때 장징후이(張景惠) 등과 함께 일본군의 별동대로 비밀리에 활약하였고, 그 후 동산성(東三省) 총독의 지배하에 들어가 순방(巡防)대장이 되었다. 중화민국 수립 후 평톈(奉天 :현재의 瀋陽)에 들어가 1919년경 평톈 독군(督軍) 겸 성장(省長)으로서 전(全) 동북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920년 화북에서 즈리파(直隸派)와 안후이파(安徽派)의 군벌전쟁에

수년간의 전쟁에 백성들은 고통 받았네
웅장한 지략과 뛰어난 업적은 물과 같이 흘렀으나
평토편에서 굳게 성을 지키지 못한 것 한스럽네

多年戰伐惱蒼生
雄圖伯業同流水
悔不奉天堅守城

이루국구역(伊婁局口驛)

극동도독이 옛날 거쳐하던 곳
축조했던 보루는 쓸쓸히 터만 남아 있구나
짜르가 만주와 조선을 삼키려던 정책은
봉천의 전투에서 헛일이 되었네

極東都督舊時居
營壘蕭蕭尚有墟
嗟爾滿韓吞併策³²⁾
奉天一戰總歸虛

러시아 황제를 조문하며(弔露帝)

우랄산위 검은 구름 떠있는데
황제의 영화는 한낱 꿈이었구나
소녀는 천년의 한을 알고 못하고
언제나처럼 풀밭을 헤치며 꽃을 따고 있다네

烏拉山³³⁾上黑雲浮
大帝榮華一夢休
少女不知千載恨
摘花鬪草尋常遊

모스크바³⁴⁾ 정치 상황(莫斯科政情)

억지로 빈부를 고르게 하니
노동하지 않고 빈둥대는 백성을 도리어 만들어내네
공산주의는 원래 좋은 정책이 아니니
다만 약소국으로 강한 나라를 따르게 할 따름이라네

強要貧富賦平均
還作不勞遊惰民
共產元來非勝算
但令弱國聽強隣

옛날 전횡했던 제정시대엔
부호가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을 증오했네

憶昔專橫帝政時
最憎豪富不慈悲

서 프리파를 지지하고 중앙정계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러허(熱河)·차하르(察哈爾) 등을 세력범위에 넣은 뒤 프리파의 우페이푸(吳佩孚)와 화북쟁탈전을 여러 차례 벌여 장쑤(江蘇)에까지 세력을 뻗었다. 한때 형세가 불리하게 되어 북동으로 후퇴한 다음, 1926년 프리파 군벌과 합세하여 다시 베이징(北京)에 진출, 민국혁명군 북벌저지에 임하였다. 1927년 열강의 묵인하에 베이징의 공사관 구역으로 군사를 투입하고 소련대사관의 수사 등 탄압을 가하여 리다자오(李大釗) 등 20명을 처형하였다. 그 해 6월 대원수라 칭하고 일본을 배경으로 베이징정부를 장악하였으나, 북벌군에게 패배하여 베이징으로부터 철수·퇴각하던 중 1928년 6월 그가 탄 열차가 평토편 부근에 이르렀을 때 폭파되어 사망하였다.

31) 사슴(鹿)은 즉 천하제위(天下帝位)를 비유한 것이다. '정대창속연번로(程大昌續演繁露)'에 "진(秦)이 사슴을 잃었는데 천하가 다 같이 쫓는다.(秦失其鹿天下共逐之)" 하였다.

32) 嗟爾는 짜르 즉 러시아 황제를 가리킨다.

33) 烏拉山은 우랄산을 지칭한다.

34) 莫斯科는 모스크바를 말한다.

가련하다! 혁명의 진정한 하늘의 뜻이어야 하니
어찌 일찍 재앙이 여기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可憐革命眞天意
何不先知災在茲

퇴위한 독일 황제궁(獨逸退帝宮)

貝關에 길게 무지개 뻗어 있는데
지금 주인은 어디 있는지
웅혼한 지략으로 천하를 驚動시켰으나
애석하구나! 전쟁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였구나

貝關連雲百丈虹
而今安在主人公³⁵⁾
一時雄略驚天下
可惜戰爭功未終

독일 국민성(獨逸國民性)

남녀노소, 관민 할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하니
농업, 상업, 공업, 예술에 있어서까지 세계의 중심이 되네
부흥을 도모하니 얼마나 훌륭한가
모진 시련도 두루 겪고 많은 고통도 받았지

老少官民皆努力
農商工藝亦中心
指期興復何其壯
閱歷風塵積苦深

영국에 대한 소감(英國所感)

泰西 문화의 중심지
누대에 훌륭한 군주와 재상들 있었지
국민의 정도는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이라네
템즈 강가에 의사당 높이 서있네

泰西文化中心地
歷代君主老大家
國民正道多權力
議事堂高聳水河

네덜란드 올림픽 경기대회³⁶⁾(和蘭萬國競技大會)

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국기는 높이 게양되고
남자 선수들 기상도 씩씩하지
15만 명은 갈채를 다투며
네덜란드 성 위로 국위를 빛내네

國歌聲裏國旗揚
選手男兒意氣強
十五萬人爭喝采
和蘭城上國威光

35) 1888년에 즉위한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와 대립하여 1890년에 그를 은퇴시킨다. 비스마르크가 실각하자마자 친정을 실시한 빌헬름 2세는 적극적으로 3B 정책이라는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그 이후로는 3C 정책을 내세워 영국 및 러시아 등과의 대립을 낳아, 최종적으로 비스마르크 체제가 파탄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1918년 11월 9일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과 함께 독일 11월 혁명이 일어나 제국은 붕괴되고, 다음날 빌헬름 2세가 망명한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공화제가 세워졌다.

36) 1928년 5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린 제9회 암스테르담올림픽을 말한다.

위터루전장(烏達古戰場)

나폴레옹은 일대의 영웅으로
30세에 천군만마를 거느렸네
해하 전투의 항우처럼, 패한 나폴레옹은
외로운 섬에서 죽었으니, 한스럽기도 하네

奈翁一世大英雄
三十登壇萬馬中
垓下秋風輸一戰³⁷⁾
終身孤島恨無窮

나폴레옹묘(奈翁墓)

나폴레옹묘 근처의 펠릭이는 전쟁기
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네
러시아 황제가 새로운 석곽을 보내니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던 것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서였네

奈翁墓畔戰贏旗
百歲而今萬口碑
露帝贈遺新石槨
不嫌苦鬪在當時

파리 미인(巴里美人)

초저녁 홍등가에 서니
섬섬옥수의 미인이 나를 구애하는 듯
교태로운 몸짓으로 사람을 끌기에 몇 발자국 같이 가보니
파안대소하며 樓臺에 오를 것을 으름하네

紅燈初夜立街頭
玉手輕輕若訴求
嬌態引人聯數步
破顏一笑脅登樓

素無古 전장(素無古戰場)

영국과 독일의 사나이들은 국가의 위난을 위해 죽었고
아무도 없는 무덤가 비석엔 꽃만이 꽃혀있네
아녀자들은 당시의 일을 모르는지
무리지어 쇠구슬 잡는 놀이만 한다네

英獨男兒死國難
空留片石插花殘
兒娘不識當時事
遊戲成群採鐵丸

말로는 평화를 말하더니 갑자기 전쟁이 터져
창칼로 서로를 죽이네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하는 것은 인도주의가 아니니
어찌 다시 총알을 만들게 하리오

口說平和輒起難
干戈鋒鏑動相殘
損傷人命非人道
安得教無更製丸

37) 한 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초패왕(楚霸王)인 항우(項羽)와 여러 해를 두고 싸우다가, 최후에 해하(垓下)라는 곳에서 항우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 항우는 오강 나룻가에서 자살하였다.

스위스(瑞西)³⁸⁾

눈 덮인 봉우리 하늘 밖으로 반쯤은 꽃혀있고
케이블카 덕분에 곧장 산꼭대기로 올라가네
천년의 민국을 마치 천하를 바둑판 놓듯 다투니
역력히 전쟁의 포화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하구나

雪嶽峻嶒半挿天
齒車³⁹⁾直上最高巔
千年民國如棊局
歷歷風烟來眼前

스위스의 산수는 조선과 같아
호수가의 누대 위세가 우뚝하구나
사방 풍경 둘러보니
금강산의 절경이 이에 비견되네

瑞西山水似朝鮮
湖上樓臺勢屹然
看盡東南多少景
金剛絕勝次比肩

부레이수향(夫例二水鄉)

하늘에 가득 찬 달과 별들 물결위로 비추고
호수 위 시인의 흥취를 끌어내네
바람이 문득 불어오니 노래 소리 어디서 들려오는가
멋진 배를 탄 여인은 남량을 나왔나보네

滿天星月照波光
海上詩人引興長
風便歌聲何處至
畫船遊女納新涼

로마회고(羅馬懷古)

기원전 2000년 풍우에
로마왕궁은 발두령이 되었네
백대토록 기독교를 이어왔으니
공자, 석가와 더불어 賢者라 하겠네

紀元風雨二千年
羅馬王宮化陌阡
百世相傳基督教
並參孔釋共推賢

폼페이(寶音夫而)

10만 인이 살던 도회지가
2000년 전에 화산재에 매몰되었네
발굴해낸 모든 것이 정교하니
(이렇게 해서) 고대 문명이 비로소 전해지는구나

十萬人居都會地
噴灰埋沒二千年
掘來物物多精巧
古代文明始可傳

이집트(埃及)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이집트 행 배를 타고

坡上停船埃及行

38) 瑞西는 스위스를 말한다.

39) 齒車는 톱니바퀴를 말한다.

열풍이 휘도는 사막의 도성에 도착하네
낙타의 등에 올라 유적을 탐방하니
금탑 층층이 저녁 노을 비추네

炎風沙漠一都城
駱駝背上探遺蹟
金塔層層夕照月

수에즈운하(蘇士運河)

수에즈운하가 불통되었다면
하늘 끝 희망봉으로 우회했으리
지중해가 홍해와 연결되니
예절과 운하를 뚫은 공적은 수나라 양제와 같구나

蘇士運河若不通
迂回天末喜望峯
地中海水連紅海
禮節夫功煬帝同⁴⁰⁾

白山丸 선상에서(白山丸船中)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평지를 가는 듯하고
오층의 선박은 산보다 크네
표연히 羽化登仙하는 것 같아
忙中閑을 우연히 얻은 듯하네

航海猶羸平地還
五層船閣大於山
飄然羽化如仙子⁴¹⁾
偶得忙中一日閒

인도(印度)

석가모니가 탄생하신 신령한 땅
룸비니 청정한 땅, 함지의 동쪽에서 목욕하듯 해는 떠오르네

靈地誕生釋迦佛
尼園清淨浴池⁴²⁾東⁴³⁾

40) 隋煬帝(569~618). 3대로 끝난 중국 수(隋)나라의 제2대 황제로 이름은 양광(楊廣)·양영(楊英)이고 시호는 양제이다. 아버지인 문제(文帝) 양견(楊堅)과 황태자인 형 양용(楊勇)을 죽이고, 604년 제위에 올랐다. 그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토목 및 정복 사업을 벌였다. 608년 남쪽의 쌀 산지와 북쪽의 베이징(北京) 지역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610년 이러한 수송체계를 더욱 확대했다. 이것은 후에 남쪽의 식량을 수도권과 북쪽 변방의 군대에 공급하는 데 이용된 대운하망의 시초가 되었다. 또한 내륙 아시아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장성을 수축했다. 더욱이 공궤를 짓고 장식하는 데 국고를 낭비함으로써 위축되어가는 재정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는 특별히 제작한 수레로 멀리 떨어진 숲에서 잘 자란 나무들을 실어다 정원을 꾸몄다. 후에는 몇 차례의 대외원정을 단행하여 제국의 영토를 남쪽으로는 지금의 베트남, 북쪽으로는 내륙 아시아까지 확장했다. 그러나 612~614년 3차례에 걸쳐 벌인 대(對)고구려 원정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자,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전국은 반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양제는 강도江都(지금의 양저우(揚州))의 이궁(離宮)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우문화급(宇文化及)에게 살해되었다. 수의 관료였던 이연(李淵)이 전국을 재통일하고 당(唐 : 618~907)을 세웠다.

41) 소동파(蘇東坡)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나오는 말이다.
42) 浴池의 池 는 咸池로 함지는 동방에 있다는 큰 못의 이름이다. 『淮南子』 天文의 “해가 양곡(陽谷)에서 나와 함지에서 목욕한다.”에서 나온 것이다.
43) 藍毘尼園로 룸비니(藍毘尼)라고도 한다. 이곳은 고대 중인도 가비라위성(迦毘羅衛城)에 있었던 숲의 이름인데 석가모니가 탄생한 장소로서 성지(聖地)이다. 현재 네팔의 남부 타라이 지방에 있다. 남비니(藍毘尼), 남비니원(藍毘尼園), 유비니(流毘尼), 유미니(留彌尼), 가애(可愛), 화향(花香), 해탈처(解脫處)라고도 한다.

근심이 없는 나무 밑에 자비의 비가 내리니
만겁중의 창생들을 널리 구제하셨네

無憂樹下慈悲雨
普渡蒼生萬劫中

홍콩(香港)

전국시대엔 오월의 땅
지금은 홍콩이 되어 영국에 속하네
동양과 서양의 배들이 숲처럼 들어서있고
만국의 수출입 물건들로 가득하네

戰國當時吳越地
今爲香港屬英蕃
東西船舶如林立
萬國通輸物物繁

난징 국민당에 대해 듣고서는(聞南京國民黨)

난징 국민당이
평화통일하자는 것이 진심인가 묻고 싶네
한집안에서 창 들고 싸운다면 응당 이익 되는 것은 없으리니
남북이 대동맹을 맺는 것만 못하네

借問南方國民黨
平和統一果真情
一室操戈應不利
莫如南北大同盟

세계대세(世界大勢)

백인종과 황인종은 동서로 각각 나뉘어져
문자나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네
길이 평화롭기를 구하니
부디 그보다 먼저 아시아 전체가 단결을 해야하네

白黃人種各西東
文字方言互不通
欲究平和長久策
先須全亞結心同

이시모토 남작에게 드리다(贈石本男爵)⁴⁴⁾

六大洲의 문물은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뽕나무와(일본과) 무궁화(조선은) 원래 봄을 같이 한다네
강토가 현해탄을 사이에 두었다고 말하지마오
마음을 같이하는 이웃이라네

六洲文物日趨新
桑槿元來共一春
疆土⁴⁵⁾休言玄海隔
同情便是比隣人

사이토 총독 초대연(齋藤總督招宴)

녹천정에서 한가로이 읊조리는데
마침 피꼬리 날아오자 골짜기는 더욱 그윽해지네

綠泉亭上得閒吟
黃鳥時來谷又深

44) 石本新六(1854-1912)는 일본 육군 대신으로 러·일 전쟁 때 육군차관을 지냈다.

45) 疆土의 誤記인 듯하다.

늙은 재상의 풍류는 더욱 멋있어지시니
반나절간 신선과의 인연에 옷깃을 여미네

老相風流今益壯
仙緣半日整盡襟

니노미야 손토쿠 옹 신사(二宮尊德翁神社)

근검을 몸소 실천하시고도 즐거움 남음이 있어
더벅머리, 이미 배울 나이가 지난 자도 모두 책을 들고 모여들었네
후인들의 흠모의 정은 끝이 없어
지금도 시의 역전에서 모두 下馬하네

勤儉躬行樂有餘
髻齡已學手持書
後人感慕終無極
今市驛前皆下馬

와다 박사를 전별하며(別和田天民博士)

오늘까지 21년
우국우민에 잠시도 쉬지를 못하셨네
재무를 담당했으나 문학적 재능도 풍부하셨지
공이 귀국하시는 걸 누가 애석해하지 않은가

此來二十一年間
憂國憂民暫未閒
財賦身兼文學富
如今誰不惜公還

국경경비(國境警備)

나라를 위해 간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공적인데
어지러이 봉화는 올라가도 경비도 없고 말만 교만하게 울어대네
출정한 사나이는 원망에 연연해하지 말지니
나라가 편안해지고 소란이 잠잠해지는 것은 그대에게 달렸으니

爲國干城功最高
狼烽無警馬嘶驕
莫言戀戀征夫怨
百堵皆安斷繹騷

국경의 분위기(國境情調)

강가에서 많이들 이별을 하는데
넋을 잃은 듯 반쯤 취해 기대있네
가지마다 축축 늘어진 수양버들
아침마다 가지를 꺾어 몇 사람에게 이별의 선물 되는가

江頭留別綺羅群
却爲消魂倚半醺
楊柳絲絲垂不得
朝朝折贈幾人分

또 다시(又)

아침에 자성을 출발하여 저녁에 초산에 도착하니
돌아가는 배 무탈하게 용만에 도착했네
한 줄기 피리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지
중국 상인들도 정녕 노를 돌아가는 노를 내려놓고 있구나

朝發慈城暮楚山
歸帆無恙下龍灣
一聲長笛知何處
定有胡商放櫂還

동행한 아베 선생께 드리며(贈同行阿部無佛先生)

아베선생의 儀表는 산과 같고	先生儀表重如山
權域에서 동분서주 하시며 수고로우셨네	杖屨頻勞權域間
천리 먼 곳을 오신 것은 유람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네	千里來遊非攬勝
크게 보호해주려는 뜻 지니셨으니 만주의 모든 이들 환영하네	志存大庇摠歡顏

만주의 시사(滿洲時事)

만주는 통군정을 사이해 있거늘	滿洲隔在統軍亭
편지 교환도 잠시 멈춰졌구나	玉帛交歡 ⁴⁶⁾ 暫滯停
변방을 나옴에 먼지가 자욱하고 머리는 봉두난발의 백발인데	出塞前塵蓬鬢白
성경의 소식 들리길 포연이 자욱하다하네	盛京消息砲烟青
연맹은 전쟁을 중단하려하나	聯盟要緩休兵革
조정은 장성들에게 강한 군대를 양성하라고 하네	廟議持強讓將星
평화가 지금엔 응당 마땅하지만	平和而今應有道
누가 정책을 펴서 일깨워줄까?	誰能展策可提醒 ⁴⁷⁾

관동군을 위문하며(慰問關東軍)

봉천성밖엔 찬바람도 되게 불어오는데	奉天城外朔風多
노련한 천황의 군사는 차가운 창을 베고 잠드네	老將王師枕凍戈
다만 거류민의 안전을 위한 방책이지	只爲居民安定策
분명 만주를 침략해 이웃과의 교린을 해칠려는 것은 아니라네	判非掠地失隣和

코가 연대장을 애도하며(弔古賀聯隊長⁴⁸⁾)

장군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라	將軍一死死猶榮
천년토록 칭사에 길이 훌륭한 이름 남기게 되었네	竹帛千秋有盛名
충성의 혼령 응결되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也是忠魂凝不散
위엄으로 금서성을 진압하시리라	儼然來鎮錦西城 ⁴⁹⁾

46) 歡은 換의 誤字인 듯 하다.

47) 提醒은 남이 일깨워준다는 뜻이다

48) 古賀 伝太郎(1880년 3월 1일~1932년 1월 9일)은 日本陸軍의 軍人으로 최종계급은 陸軍大佐였으며 「古賀聯隊長」이라고도 불렸다. 佐賀中學校을 거쳐 1901년에 사관후보생(15期)이 되어 騎兵3連隊에 입대하였고 1904년에 騎兵少尉로 任官하였다. 러일전쟁에 출정하여 공을 세웠다. 1931년 滿州事變에 混成第三十八旅團에 배속되어 출동했다. 그곳의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49) 錦西城은 古賀연대장이 사망한 곳이다.

요다 장군에게 드리다(贈依田將軍)

금주성에 옥일기 높이 게양하고
단칼에 만병을 퇴각시키셨네
부디 개선의 축하일이 빨리 와서
기린각에 이름을 새기길 기다리네

旭旗高揭錦州城
一刃猶能却萬兵
爲祝凱還須及早
麒麟閣高閣待君名⁵⁰⁾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며(祝滿洲新建國)

9월의 만주에 천황의 군대가
簞食瓢飲으로 진군하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환영하네
구정부를 혁파하고 새 나라를 세우니
3천만 민중 다시 소생한 듯하네

滿洲九月下天兵
一境簞壺老幼迎
革舊而今新政好
三千萬衆得蘇生

종군시의 감상을 회고하며(憶從軍時有感)

이미 3년 전에 종군하였는데
추억해보니 감정이 새록새록
금석처럼 중중한 목숨 아끼지 않고
난에 임해 깃털처럼 가벼이 여기네
용병술엔 용감한 것이 최고
적을 막는데 만리장성은 필요하지 않다네
기린각에 이름 걸리는 것은 본래 뜻이 아니니
다만 보고 기억난 것을 모아 한편의 글을 완성해 보려 한다네

從軍已過歲三庚
回憶偏多感舊情
惜命縱如金石重
臨難視若羽毛輕
用兵宜有兼人勇
防敵無要萬里城
麟閣題名非素志
祗⁵¹⁾將記覽一篇成

마츠다 七十自述에 화운하다(和松田學鷗七十自述韻)

인간의 시비에서 벗어나니
오늘 맺은 신선의 인연 세속의 더러움이 없구나
불함산의 눈과 두만강의 비를 맞으니
옛날 봉새가 만 리를 날았던 것과 같네
오랫동안 쌓은 문장은 정화를 다하였고
은혜와 혜택은 넘쳐 멀고 가까운 모든 곳에 두루 미치네
한줄기 문의 근원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肯向人間管是非
仙緣今日俗塵稀
不咸山雪豆江雨
伊昔鵬程萬里飛
多年詞壘盡精華
流澤洋洋及邇遐
一脈文源猶不絕

50) 한(漢) 나라 선제(宣帝) 때에 곽광(霍光) 등 11인의 공신(功臣) 초상화를 기린각(麒麟閣)에 걸어두고 기념하였던 고사를 말한다. 『漢書』蘇武傳.

51) 祗의 오기인듯하다.

성중에서 때때로 (마츠다 선생의 시를) 읊고 노래하네

城中時有誦絃家

갑술년 봄에 북관경비대를 위문하며(甲戌春作北關警備壯士慰問之行)

두만강과 압록강 이어진 곳

豆滿江連鴨綠江

북풍은 불고 눈 내리는 변방의 추위는 두려울 정도네

朔風塞雪冷威懼

변방 천리 백성조차 안도하니

邊關千里民安堵

천황의 군대가 우리나라 보호해주어서라네

爲是王師護我邦

백두산 아래 사람들 보기 드무니

白頭山下見人稀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느라 돌아가지 않아서라네

邊戍多年未解歸

간혹 한밤중에 봉화가 일어날까봐

或恐烽烟中夜起

전군은 잠시도 갑옷을 벗지 않고 있다네

全軍暫不卸戎衣

무산을 노래하다

右茂山⁵²⁾

옛날 누가 육진을 세웠나

往昔誰營六鎮城

거주민들 아직까지 절재 김중서

居人尙誦節齋名⁵³⁾

남이장군과 윤관원수의 이름을 칭송하네

南將軍⁵⁴⁾與尹元帥⁵⁵⁾

두만상 물결에 이미 출정했었지

豆萬江波已洗兵⁵⁶⁾

-
- 52) 무산은 함경북도(咸鏡北道) 무산군의 군청(郡廳) 소재지(所在地)로 두만강(豆滿江)을 사이로 중국(中國)의 간도(間島) 지방(地方)과 접하여 있는 국경(國境) 요충(要衝)이다.
 - 53) 절재(節齋)는 김중서(金宗瑞, 1383~1453)의 호이다. 본관 순천(順天)이고 자 국경(國卿)이며 시호 충익(忠翼)이다.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 1419년(세종 1) 사간원우정언(司諫院右正言)으로 등용되고, 이어서 지평(持平)·집의(執義)·우부대언(右副代言)을 지냈다. 1433년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가 되어 야인(野人)들의 침입을 격퇴하고 6진(鎭)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1435년 함길도병마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를 겸직하면서 야인들의 정세를 탐지·보고하고, 그 대비책을 건의하였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자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우의정 정분(鄭栻)과 함께 좌의정으로, 유명(遺命)을 받아 12세의 단종(端宗)을 보필하였다. 대호(大虎)라는 별호까지 붙은 지용(智勇)을 겸비한 명신(名臣)이었으나,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首陽大君 : 후의 世祖)에 의하여 1453년(단종 1)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격살(擊殺)되고 대역모반죄(大逆謀叛罪)라는 누명까지 쓰고 효시(梟示)됨으로써 계유정난(癸酉靖難)의 첫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1746년(영조 22) 복관(復官)되었으며, 시조 2수가 전해지고 있다. 저서에 『제승방략(制勝方略)』이 있다.
 - 54) 남이(南怡, 1441~1468)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1433년 야인들의 침입을 격퇴하고 6진을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수양대군에 의하여 1453년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격살되고 대역모반죄라는 누명까지 쓰고 효시됨으로써 계유정난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 55) 윤관(尹瓘, ?~1111)은 여진을 정벌하다 실패해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대를 양성, 여진 정벌군의 원수로 9성을 쌓아 침범하는 여진을 평정했다. 그 뒤 여진은 9성의 환부와 강화를 요청했고 조정은 9성을 지키기 어렵다 하여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 56) 군대(軍隊)를 씻게 한다는 것은 곧 대장(大將)이 출정(出征)하는 것을 뜻한다. 위 무제(魏武帝)의 『병요(兵要)』

회령을 노래하다

右會寧

백설과 황사 차갑게 섞이어 어지러이 날리고
황량한 성곽위로 떠오른 달은 사람을 슬프게 하네
봉화가 일어나지 않은 변방의 밤은 적막한데
한곡의 징치고 부르는 노래(군인들의 노래) 소리 수루에 들리네

白雪黃沙冷不收
荒城片月向人愁
烽烟不起邊宵寂
一曲鐃歌在戍樓

중성에서 노래하다

右鍾城

단단한 얼음위로 한자의 눈이 쌓인 두만강
북풍이 세차게 천리 밖에서 불어오네
적막한 고성에 추위는 살을 에는데
羌笛소리 사람들 슬프게 하네

堅氷尺雪滿江堆
浙瀝胡風千里來⁵⁷⁾
寂寞古城寒欲裂
一聲羌笛使人哀⁵⁸⁾

경원을 노래하다

右慶源

변방엔 예전에 호랑이가 횡횡하여
해가 지고 뒤숭숭해지면 나타나서 사람들 놀래켰다지
지금 국경엔 피비린내 가셨으니
집집마다 절구공이 두드리며 태평을 노래하네

關塞曾年豹虎橫
紛紛日夕使人驚⁵⁹⁾
如今一境腥塵斷
亂杵家家搗太平

갑산을 노래하다

右甲山⁶⁰⁾

강가의 수루에서 밤에 점호를 하는데

戍樓連江夜點呼

에 의하면 “대장이 출정하려고 할 때 비가 내려서 의관(衣冠)을 적시는 것을 세병(洗兵)이라 한다.”고 하였다.
57) 浙瀝은 바람부는 소리이다.
58) 羌笛은 고대 羌族의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吹管 악기의 일종으로 강관(羌管)이라고도 한다. 그 역사는 유구해 漢代 이래 역사문헌에서 그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다.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漢武帝時에 丘仲이 笛을 작하니 그 후에 또 강적(羌笛)이 있었다”고 했다. 陳暘의 『樂書』에는 또 이르기를 “羌笛은 구멍이 다섯이다. 馬融이 賦笛에서 이르기를 羌中에서 왔으며 舊制에는 구멍이 4개였을 뿐이다. 京房에서는 구멍 하나를 더하니 그리하여 五音을 갖춘다”고 했다. 隋·唐에서 宋·元·明 各代에 이르기까지 강적은 文人の 詩文에서 자주 보인다. 王之渙의 『涼州詞』에 이르기를 “羌笛何須怨楊柳, 春風不度玉門關”라고 했으며, 範仲淹은 『漁家傲』에서 읊기를 “羌管悠悠霜滿地, 人不寐, 將軍白發征夫淚”라고 했다. 羌笛은 油竹으로 制成하니, 雙管은 並連在一起하며, 장식에는 竹簧口哨이 있으며, 豎吹한다.
59) 紛紛 : ① 떠들썩하고 뒤숭숭함 ② 흩날리는 모양(模樣)이 뒤섞이어 어수선했음 ③ 의견(意見) 등(等)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많고 어수선했음.
60) 함경남도 갑산군에 있는 면이다. 개마고원의 중심부로, 교통이 불편하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특유의 풍토병(風土病)이 있다. 갑산군의 군청 소재지이다.

북풍은 뼈속을 쭈시고 눈은 살 속을 헤집네
세상사람들이 征夫의 고통을 말하지말게나
나라를 위하는 남아는 원대한 뜻 가지고 있다네

朔風砭骨雪侵膚
世人莫道征夫苦
爲國男兒有遠圖

산수를 노래하다

右三水⁶¹⁾

이즈모다이샤⁶²⁾를 참예하며(參詣出雲大社)

이즈모다이샤 세워진지 몇 천 년 되었나
커다란 나무들이 가득하니 경내 더욱 그윽하다
씨족이 원래 신앙으로 하는 것이 많으니
부상은 신주라 불리는 게 맞구나

出雲大社幾千秋
喬木森嚴境轉幽
氏族元來多信念
扶桑端合號神州

荻市를 거닐며 요시다 쇼인 선생⁶³⁾을 추억하다(遊荻市憶吉田松陰先生)

쇼인 선생은 진정한 碩儒이셨네
쇼슈의 호걸들 모두가 선생의 문도였다네
메이지유신이 없었다면
동아시아는 누굴 의지하였을까

松陰先生真碩儒
長州豪傑總文徒⁶⁴⁾
若非明治維新業
東亞山河孰竟扶

만주국 정샤오쉬⁶⁵⁾ 총리대신에게 바치다(呈滿洲國鄭總理大臣孝胥)

당하의 3정승, 그림자 물결에 비추고

堂下三槐影碧沉⁶⁶⁾

- 1) 함경남도(咸鏡南道) 삼수군의 군청(郡廳) 소재지(所在地)이다. 압록강(鴨綠江) 지류(支流)에 임하여 있고 곡식(穀食), 목재(木材)의 산지이다. 갑산과 같이 교통(交通)이 불편(不便)하고 다른 지방(地方)과 풍속(風俗), 습관(習慣)이 다르다.
- 2) 이즈모다이샤(出雲大社)는 일본 건국신화와 연관된 오쿠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를 모신 신사다. 오쿠니누시노미코토는 행복·결혼의 신으로 신사 내부에는 사랑을 기원하는 아기자기한 축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마네현 동부 히카와군 다이샤마치에 위치한 이 신사의 본전은 일본 국보로 8세기 이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건축법인 다이샤 양식(大社)으로 건축됐다.
- 3) 吉田松陰(1830~1859)는 ·長州藩士였으며 思想家이자 教育者, 兵學者이다. 一般的으로 明治維新의 事實上에 있어 精神的指導者이자 ·理論家로 불리운다.
- 4) 사쓰마(薩摩), 도사(土佐), 쇼슈(長州)등 3개 번은 막부를 타파하고 메이지유신을 주동적으로 이루어냈다.
- 5) 정샤오쉬(鄭孝胥 ?~1938)는 清末의 官僚이며 滿洲國의 政治家이자 書家이다. 字는 太夷, 호는 蘇戡, ·蘇齋등이다.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되자 初代國務院總理(首相)을 지냈다. 1938년 사망하자 만주국 국장으로 치러졌다.
- 6) 삼괴구극(三槐九棘)의 준말로 세 그루 해나무와 아홉 그루 멧대추나무라는 뜻인데, 주(周) 나라 때 조정의 뜰에 해나무 세 그루와 멧대추나무 아홉 그루를 심고 공경 대부와 삼공(三公)들이 그 아래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맑은 바람 불어오니 가슴이 상쾌해지네	淸風一席爽胸襟
처음 만나보니 정사오쉬 총리대신의 의기는 산과 같이 중후하고	初逢意氣如山重
환영하는 마음은 바다처럼 깊네	及話歡情似海深
난리 후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노력도 많이 하시어	亂後多艱須努力
여유가 생겨 고상하게 읊조리기까지 하시네	公餘有暇且高吟
공의 충성심은 일찍이 휘호하신 곳에서 읽었는데	丹衷曾認揮毫處
만년까지 철석같은 마음을 간직하셨네	晚歲猶存鐵石心 ⁶⁷⁾
정효서(鄭孝胥) 씨가 '晚歲猶存鐵石心' 7자로 글을 써서	鄭孝胥氏以晚歲猶存鐵石心七字
족자를 만드시어 주셨기 때문에 절구로 삼았다	自題立幀以贈故結句及之

신경(新京)⁶⁸⁾

팔월의 신경에 이슬이 내리는데	八月新京玉露天
계림에서 온 객 이곳에 며칠 머무네	鷄林行客此留連
도성에서 먼지 일으키며 수레바퀴는 닳도록 달리고	香塵九陌磨車轍
천문에 밝은 달은 뜨고 악기 소리 시끌거리네	明月千門沸管絃
사녀들 다투어 요임금 시대왔다고 돌아오나	士女爭歸堯日月
판도는 아직 우임금의 산천까지 들어가지 못하였네	版圖不入禹山川
구방에 다시 유신의 업을 이루었으니	舊邦再造維新業
국운은 천년만년 길이 드리우리라	寶祚應垂萬萬年

쑨원의 추도회에 참석하다(參孫中山追悼會)

명성은 팔방에 유명하며	大名傾八域
삼민주의에 뜻을 두었네	主義在三民
4억 중국인 중에	四億群叢裡
쑨원은 독보적이었네	中山獨一人
아! 공이 가신 후	嗚呼公去後
10여년이 지났구나	十載閱星霜
모든 사람들 추모하며	萬姓猶追慕
집집마다 향을 드리네	家家盡供香

67) 백거이가 일찍이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치사하고 나서 향산의 스님 여만(如滿)과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결성하고 서로 중유하였으므로, 소식(蘇軾)의 식이거세춘하시립이영운운(軾以去歲春夏侍立邇英云云) 시에 "하찮은 인생이 우연히 풍파의 땅을 벗어나, 만년까지 철석같은 마음을 간직했으니, 정히 흡사 향산의 늙은 거사와 똑같이, 속세 인연은 옅고 도의 뿌리는 깊기 때문일세.(微生偶脫風波地 晚歲猶存鐵石心 定似香山老居士 世緣終淺道根深)"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8) 일본이 만들었던 만주국의 수도로 현재 중국 지린 성(吉林省) 창춘 시(長春市)이다.

내 이미 그 명성 예전에 들어
 마음속 깊이 우러러 사모하였네
 오늘 참배해보니
 머리가 절로 숙여지네

余已聞名久
 中心仰慕深
 今當參拜席
 稽首自難禁

늦봄 도쿄를 여행하며(暮春東京行十八韻)

한성의 강에서 3천리 떨어진 곳
 기차로 이틀, 배로 하루 밤을 가야한다네
 동풍에 의지해 일엽편주로 현해탄을 건너니
 해가 三竿 높이 떠오르고 赤關에 도착했네
 가고시마 단군사에 참배하고
 죠슈의 고려촌을 가 보았네
 두 곳은 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길이 이어져
 천년의 역사가 조선과 서로 이어진 곳이네
 광활한 비와호 바다로 흘러들고
 후지산은 하늘위로 높이 솟아있네
 부상과 근역은 가지가 이어진 하나의 지역
 晉秦의 맺은 수호처럼 전대부터 계속 이어지네
 농원은 비옥하여 춘색을 머금은듯하고
 공장은 들쭉날쭉 뿜어내 검은 연기를 토해내네
 극장이 열리자 온갖 재주 자랑하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샤미센 연주소리 들리네
 도로는 평평하고 매끈한 것이 솟돌같고
 경지는 고른 것이 마치 정전제한 것 같구나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보검을 소장하고
 명승지 곳곳에선 온천이 나오네
 아리따운 여인네들 홍도화같은 도로 위를 천천히 걷고
 어부들은 시로이가와에서 낚시대를 던지네
 사람마다 신심이 있어 모두 염불을 하며

漢城江戶路三千
 二日汽車一夜船
 一葦東風玄海上
 三竿紅日赤關前
 進參鹿島檀君社
 散見長州高麗阡
 兩地文華長不絕
 千年歷史久相連
 琵琶湖闊來全海⁶⁹⁾
 富士山高出半天
 桑槿連枝通一域
 晉秦修好續前緣⁷⁰⁾
 農園肥沃含春色
 工竈參差吐黑烟
 演劇開時呈百技
 歌聲高處奏三絃
 行途平滑如砥石
 耕地均齊似井田
 士族家家藏寶劍
 名區處處出溫泉
 佳姬緩步紅桃路
 漁子投竿白石川
 人有信心皆念佛

69) 琵琶湖(비와호)는 혼슈(本州) 중서부 시가 현(滋賀縣)에 있다

70) 정목공(鄭穆公 기원전 649~기원전 606)이 처음 즉위했을 때 진목공(秦穆公)이 병사를 일으켜 침공했다. 정나라의 상인 현고(弦高)가 진나라 군대를 지치게 만 든 뒤 급보를 아뢰자 경계와 대비를 엄중하게 하니 진나라 군대가 물러났다. 3년 진(晉)나라를 도와 진(秦)나라를 공격했지만 왕(汪)에서 패했다. 이후 상황에 맞춰 진·진(晉秦) 두 나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18년 진영공(晉靈公)이 다시 호(虜)에서 제후들을 불러 모았지만 목공을 거부한 채 만나주지 않았다. 정나라 대부 자가(子家)가 조선자(趙宣子)에게 글을 보내 강대국 사이에 낀 정나라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여 비로소 진나라의 양해를 얻을 수 있었다.

열도 대부분이 신령스런 땅이라 따로 신신되길 구하지 않네
 가벼운 수레는 벚꽃 속을 질주하며
 준마는 버드나무 가에서 길게 울음을 빼네
 백종의 온갖 서적엔 온갖 지식이 실려 있고
 신문의 광고는 선전하기에 좋다네
 군인이건 일반인이건 모두 근왕의 사무라이
 사회엔 애국의 현자 아닌 이 없네
 경제 기관이 가장 발달하였고
 정신 단체는 중견이 되네
 이웃나라를 부식해주었고 외적을 물리쳐주었으며
 가장 솔선해서 연맹에서 이탈하였네
 협력 공영을 누가 감히 업신여기리오
 동양은 이로부터 안전을 얻을 것이네

地多靈境不求仙
 輕車疾走櫻花裡
 駿馬長嘶楊柳邊
 百種諸書多博識
 新聞廣告好宣傳
 軍民皆是勤王士
 社會無非愛國賢
 經濟機關先發達
 精神團體是中堅
 扶存隣國能攘外
 離脫聯盟最率先
 協力共榮誰敢侮
 東洋從此得安全

만주국기행(滿洲國紀行)

강덕황제폐하를 알현하고⁷¹⁾(康德皇帝陛下謁見)

복숭아꽃 만발한 구중궁궐의 봄
 지척에서 성인을 알현하였네
 관제는 중국식으로 정비되고 의식도 회복되니
 황제(천황?)께서 중국에 유신을 명하셨기 때문이라네
 한 집안으로 보고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차별 없으시니
 육부가 먼저 은혜스럽고 어진 은혜 실천했네
 특히 조선과 만주는 친밀하여야 할 것이니
 노둔한 제계 거류민 보호를 명 하셨다네⁷²⁾

仙桃爛熳九重春
 咫尺龍樓拜 聖人
 官備漢廷儀復見
 帝懷周室命維新
 一家同視無遐邇
 六府先修惠盡仁
 特念滿鮮親誼密
 權差驚質護留民⁷³⁾

71) 康德皇帝는 푸이(溥儀 1906.2.7~1967.10.17)를 말한다. 光緒帝의 동생 醇親王의 아들로 청조(淸朝)의 제 12대 마지막 황제인 宣統帝(宣統帝)이며 퇴위 후 청(淸)의 멸망 후 일본이 만주침략을 위해 세운 만주국의 왕이 되었다. 1908년 3세의 나이로 황제가 되었으나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퇴위하였고 만주사변 때 일본군에 의해 1932년 만주국 집정(執政), 1934년 강덕황제(康德皇帝 : 재위 1934~1945)가 되었으나 1945년 만주국이 붕괴됨으로써 퇴위되고 공산정권하의 중국에서 수감되었다가 특사로 풀려 나와 1964년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이 되었다. 저서로는 『나의前半生(前半生)』을 출간하였으며, 1967년 10월 16일 사망 후 북경의 팔보산(八宝山)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가 1980년 5월 팔보산 혁명공묘(革命公墓)로 옮겨졌고, 1995년 1월 26일 북경 남서쪽 하북성(河北省) 이현(易縣)에 있는 청(淸)의 황릉(皇陵)으로 이장됨으로써 사망한 지 28년 만에 청조의 황제로 복권되었다.

72) 박영철은 1936년 鮮滿拓植會社 설립위원회에 임명되었다.

73) 權差는 여기서 허용하다는 뜻이다.

장징후이 총리가 조선에 오는 것을 삼가 감사하며(奉謝張總理景惠來鮮)⁷⁴⁾

길게 흐르는 강위로 다리는 빗겨있는데	長江如帶一橋橫
조선과 만주는 원래 형제의 국가였다네	鮮滿由來是弟兄
승상의 지금 행차는 용이한 일이 아니오	丞相今行非易事
통상의 호혜조약은 특별한 일이라네	通商互約特殊情
처음 대면부터 이미 감복하여 마음을 다해 말씀하시니	初筵已服傾心話
가시는 곳마다 다투어 손을 들어 환영하네	到處爭看舉手迎
외람되이 같은 조정에 의탁하는 것 매우 기쁘나	猥托同朝雖甚喜
바람같이 달려가 미천한 제 정성을 어찌 바치리오?	趨風何以效微誠 ⁷⁵⁾

지린성에서 吉興 장군을 방문하다(吉林訪吉興將軍)

장군이 진압하여 지키시는 지린과 선양	將軍鎮守吉瀋營
누차 軍門을 방문하여 태평성세를 하례드렸네	歷訪轅門賀太平 ⁷⁶⁾

74) 정사오위의 뒤를 이은 장징후이(張景惠)는 만주국이 몰락할 때까지 10년간 총리직을 유지했다. 관동군의 눈 밖에 날 때마다 각 부서 장관이 빈번히 교체됐지만 장징후이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만주 토박이로 청년 시절 두부 장수였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두부관을 뒤집어 엮고 자위단을 결성해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던 중 마적 두목 장취린(張作霖)을 만나 인생이 바뀐 난세형 인물이었다. 원래 이름은 장징후이가 아니었다. 장취린이 본명이었다. 그리고 현재 장취린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의 본명이 장징후이었다. 이들은 의형제를 맺으며 서로 이름을 바꿨다. 장취린이 장징후이가 되고, 장징후이는 장취린이 됐다. 술 취한 김에 형님, 동생 하며 의형제를 맺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군벌로 성장한 장취린이 동북 3성 보안 총사령관을 거쳐 베이징 정부의 대원수로서 중국의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활동할 시절 장징후이는 육군부 총장과 실업부 총장이었다. 동북으로 돌아오던 장취린이 일본군에 의해 폭사할 때 그도 부상을 당했지만 긴장한 체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 장취린의 아들 장쉐량(張學良)을 거들어 만주의 친일세력을 제거했고, 장쉐량이 동북 3성을 장제스(蔣介石)의 중앙정부에 편입시킬 때도 조카의 결정이라며 지지했다. 장제스가 그를 통일정부의 군사 참의원 원장에 임명했던 것만 보아도 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만주사변이 발발했을 때 장징후이는 친구의 문상차 선양(瀋陽)에 와 있었다. 장쉐량은 장제스의 지시로 일본군과의 충돌을 피했고, 군대를 동북에서 철수시켰다. 장징후이는 외톨이가 됐지만 정계의 원로며 만주 제일의 명망가였다. 그를 주시하던 일본이 합작을 요청하자 수락했고 국무총리와 협화회 회장, 건국대학 총장 등을 겸했다. 총리가 된 뒤부터 그의 활약은 관동군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였다. 관동군이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했고 원하는 것이라면 양식·석탄·철강 등 뭐든지 달라는 것보다 더 줘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었다. 10년간 관동군과 단 한차례의 충돌도 없었다. 일본군의 공급부장으로 자처하며, 총리 집무실 손잡이까지 떼 군수물자로 바꿨다. 그에게는 7명의 부인이 있었다. 희극배우 출신인 일곱째 부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장사오지(張紹紀)를 부처님 모시듯이 했다. 이 아들은 일본 와세다대에 유학하며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진보적 조직인 '독서회'에 가입했고, 귀국 후엔 항일단체인 '동북청년구명회'에 가입했다. 총리 관저가 비밀집회 장소가 됐지만 장징후이는 알 턱이 없었다. 일본 패망 후 푸이와 함께 소련에 끌려갔고, 중공 정권 수립 후 중국 측에 인도됐다. 푸순(撫順)의 전범수용소에서 염불을 외며, 하루에 한 번씩 장제스 욕을 퍼붓다가 59년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일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장사오지는 베이징국제관계대학(北京國際關係大學) 교수로 있다가 은퇴했다.

75) 趨風은 귀인을 공경하여 그 앞을 바람처럼 빨리 달려간다는 뜻이다.

76) 轅門 : 옛날 중국(中國)에서 전렵(田獵)할 때나 전진(戰陣)을 베풀 때에 수레로써 우리처럼 만들고, 그 드나드는 곳에는 수레를 뒤집어 놓아 수레의 끝채를 서로 향하게 하여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군영(軍營)', '진영'

간척민을 보호 하시니 푸른 들판이 개간되고
 비적을 소탕하시니 푸른 숲은 깨끗해졌네
 구방에 다시 춘추의 정의를 실현하시니
 후세에 청사에 이름 드리우리다
 허리 띠 느슨히 하고 가벼운 털옷 입고 잔치에 가니
 송화 날리는 강가의 달은 환영하는 이들 비추네

撫護墾民青野闢
 掃除匪客⁷⁷⁾綠林清
 舊邦復見春秋義
 後世能垂竹帛名
 緩帶輕裘臨夜宴
 松花江月照歡情

신경(新京)

기틀을 세우고 국가를 건국하여 막 다스려지는 초기니
 이 땅은 주나라의 幽, 한나라의 沛와 같구나
 돌아가는 곳에서 시작하고 근원에서 마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니
 사방이 와서 만년도록 무궁할 것을 하례하네
 나라는 오래되었지만 유신을 명하니
 정치는 요순의 도의를 본받아 따르네
 아! 국기가 회복되니 나라 다스리는 것이 마치 손을 뒤집듯 쉽네
 태평성세 황제의 덕에 백성들 편안하네

肇基洪業順治初
 此地周幽漢沛如
 會始歸終原有理
 四方來賀萬年居
 邦雖舊矣命維新
 治效唐虞道義遵
 欵器復安如反手
 春臺⁷⁸⁾玉燭⁷⁹⁾皞如民

봉천에서의 감회(奉天感懷)

천황의 군대 선양의 강적을 꺾은
 30년 전 이곳 전쟁터에서
 의사는 금의환향하여 개선한 뒤이지만
 산하는 지금 더욱 생기가 도는구나
 소년병은 종군했던 것을 추억하며 부른 노래엔
 웅대한 마음 품은 채 칼을 잡고 만 리를 떠나
 아직도 얼음 얼고 포연 감돌던 보루와
 징소리 북소리가 귀가에 맴도네

天兵摧拉瀋陽強
 三十年前此戰場
 義士錦衣凱旋後
 山河今日倍生光
 從軍回憶少年行
 一劍雄心萬里程
 尚記冰壕烟壘際
 依依鉦鼓耳邊聲

(陣營)의 문, 영문(營門)을 말한다.

77) 匪客은 匪賊을 말한다.

78) 춘대는 『노자(老子)』 제12장에 “세속의 중인들은 화락하여 마치 푸짐한 잔칫상을 받은 듯, 다스운 봄날 높은 누대에 올라 사방을 조망한 듯 즐거워한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 한 데서 온 말로, 태평성대의 화려한 기상을 말한다.

79) 옥촉(玉燭)은 임금의 덕이 옥처럼 아름답고 촛불처럼 밝다는 뜻이다. 『爾雅』釋天.

황군을 위로하다(慰勞皇軍)

같은 동아시아에, 같은 황인종, 같은 언어의
일본과 만주는 마땅히 친하게 지내야지 소원해지는 것은 옳지 않네
경제와 국방은 순치보거의 형세라
관동 만 리 까지 와서 황군이 주둔하네
사나운 바람과 눈은 남쪽 일본과는 다르니
우리 천왕의 군대가 얼마나 견딜까 고민되네
위무를 선양할 책임이 있으니
나라에 보답하려는 한결같은 마음이 양어깨에 무겁네

同洲同種又同文
日滿宜親不可分
經濟國防脣齒勢
關東萬里駐皇軍
獯風虐雪異南天
悶我王師耐幾年
分內宣威揚武責
一心報國重雙肩

러시아군 정세(露國軍情)

만주의 머리 부분은 러시아의 꼬리와 서로 이어져
각자 침략을 대비해 그 기세 굳건하네
개미구멍이 독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
적들로 하여금 어지러이 활시위를 울리지 못하게 하라
호랑이처럼 바라보며 극동을 경영하며
군대를 늘리고 책문을 수선하여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네
몰래 국경을 넘은 보초병은 새와 같이 날아
하늘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네

滿頭露尾境相連
各備侵凌勢固然
蟻穴壤堤容易事
莫教游騎亂鳴弦⁸⁰⁾
眈虎經營駐極東
增兵修柵歲無空
潛越哨軍飛鳥似
徘徊碧落岷機中

이민을 권유하다(勸諭移民)

눈앞의 광야는 좋은 자원
백만의 동포 중 몇이나 사나
보습 메고 국경을 나갈 때 알아야 할 것은
경작지를 개간하는 것은 천황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
인생의 최고로 귀한 것은 天彝
근검하고 온량하며 분수에 만족할 것
화복은 자기에게서 구해야하니
천황의 가르침을 정성껏 한다면 누가 우리를 속이라

眼前曠野好資源
百萬同胞幾處村
負耜出疆⁸¹⁾知有意
須將耕墾答天恩
人生最貴是天彝
勤儉溫良乃分宜
禍福由來求自己
丁寧聖訓豈余欺

80) 游騎는 적을 말한다.

81) 疆은 疆의 오자인듯하다.

만선일여(鮮滿一如)

조정의 사신, 상선들이 자주 왕래하는	官車商舶往來頻
한줄기 강을 좌우로 한 이웃이네	一帶江分左右鄰
모욕을 막아주고 위난에는 급히 와 구해주는 서로 사랑하는 두 나라	禦侮急難相愛地
형제와 같은 정이 있다네	兩情視若弟兄倫
동양 패권을 점하였다고 명성이 났으나	聲世東洋占霸權
(일본의) 관심은 풍우가 사방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네	關心風雨暗西天
황인종과 백인종이 제후하는 평화책을 시행한다면	提携黃白平和策
떠오르는 해가 사방을 빛으로 깨끗이 하리라	旭日光明淨四邊

北支의 川岸 중장에게 드리다(呈北支川岸中將)

철기로 고북평을 중흥하더니	鐵騎縱橫古北平 ⁸²⁾
위무도 당당하게 개선가를 부르시네	堂堂威武凱歌聲
언젠가 기린각에 이름이 새겨지고	從知他日麒麟閣
청사에 천년토록 위대한 명성 빛나리라	青史千秋耀偉名
북지를 干戈로 동탕시키시고	北支一幅動干戈
내홍이 분분하니 망할 날이 멀지 않았네	內訌紛紛日索多
지금 황군의 위의로 견제하시니	今人皇威牽制裡
천하가 평화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겠네	從知八域盡平和

북지출정황군 위문가(北支出征皇軍慰問歌)

베이징에서 승리하고 다시 난징	北京戰捷又南京
만리의 산하를 해가 뜨는 하루 만에 돌파했네	萬里山河旭日程
(만리의 산하는 육일기가 지나간 길이네)	
赫赫한 황군의 위엄은 사방을 비추고	赫赫皇威光四表
동양은 이로부터 평화를 보존하게 되리라	東洋從此保和平

82) 영평부(永平府)는 서쪽으로 연경이 500리 떨어져 있다. 요(遼) 나라는 요흥군(遼興軍)을 두었고, 금(金) 나라는 남경(南京)으로 삼았고, 원(元) 나라 때는 흥평(興平) 또는 평란(平瀾)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니, 상(商) 나라의 고죽(孤竹), 진(秦) 나라의 요(遼), 서한(西漢)의 우북평(右北平), 위(魏) 나라의 노룡(盧龍) 땅이다. 후위(後魏)는 평주(平州)를 두었고 또 북평관(北平館), 노룡현(盧龍縣)을 두었다. 성의 둘레는 9리 남짓인데, 남문으로 해서 들어가 비스듬히 동쪽으로 향해가면 영평부의 관아가 있다. 바깥문 현관은 '고북평(古北平)'이라 하였고, 안문은 보리(保釐)라고 했다.

전몰장군을 애도하며(弔戰歿將兵)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려 멀리까지 참전하여
파죽지세의 위의로 청사에 이름을 남겼네
다수의 충혼은 흩어지지 않고 응결되어
길이 太原城을 지키리라

一身許國遠從征
破竹威成汗竹名
多數忠魂凝不散
永年留護太原城

鄭孝胥를 애도하며(輓鄭總理孝胥)

왕을 보좌하는 재주에 유학의 전아한 자질을 겸하시고
명성은 사방에 넘쳐나셨네
무장도 당세에 진정 대적할 이 없었고
공훈도 새로 건국된 만주국에선 누가 다시 있을까
대신으로 3년간 있다 이미 물러나시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 운명을 어찌 바꾸리오?
만 리 먼 곳에서 장례를 지내 가지 못하고 만사만 짓네
눈물을 거두며 상자 속의 시를 어루만지고 있을 뿐이네

王佐才兼儒雅資
聲名藹溢四方知
文章當世真無敵
勳業新邦更有誰
秉軸三年身已退⁸³⁾
騎箕一夕命奚醫⁸⁴⁾
素車萬里違含紼⁸⁵⁾
收涕摩挲篋裡詩

정주 충혼비(定州忠魂碑)

정주성 밖에 세워진 충혼비를 읽어보니
예전 종군하여 승전했던 때가 생각나네
전쟁은 또 발발 했지만 지금은 모두 그때의 전우들 없으니
충혼비 가를 배회하며 홀로 슬퍼하네

定州城外讀忠魂
憶昔從軍勝捷時
戰又而今皆不在
徘徊使我獨傷悲

장고봉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다(張鼓峰日露交兵)

붉은 러시아 왕이 장고봉을 침략하니
천황의 군대 일격에 선봉을 대파했네
적은 불리함을 알아 정전하지만
다시 온다면 모두 섬멸시킬 것을 맹세한다네

赤露王侵張鼓峰
皇軍一擊破先鋒
敵知不利雖停戰
若有重來誓滅凶

83) 秉軸은 요로(要路)의 대신(大臣)이다

84)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한다. 부열(傳說)이 죽은 뒤 그 정신이 기성(箕星)과 미성(尾星) 사이에 응결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莊子 大宗師』.

85) 紼은 만사를 말한다.

博文寺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시에 차운하다(博文寺次伊藤博文公遺韻)

광염처럼 시를 토해내시고 노을처럼 붓을 휘둘러	詩吐光炎筆落烟
한편을 써 낼 때마다 천황을 위한 한결 된 마음이셨네	一篇寫出一心天
읽어보면 저절로 처연한 감정이 일어나네	讀來自起悽然感
고개 돌려보니 공께서 돌아가신지 어언 30년이네	回首公歸三十年

한커우 함락(漢口陷落)

가을하늘에 벽력이 쳐 천황의 군대를 도와주어	秋空霹靂助天兵
강남의 무한성을 격파하였네	擊破江南武漢城
잔인한 적은 정신을 잃고 저항할 뜻도 없으니	殘敵失魂無抗意
중원의 대부분이 평정되어가는 것이 대세로구나	中原大勢九分平

1938년 11월 고 육군대장 코다마 겐타로 씨를 신사에서 제사하는 데 도쿄의 유지자들이 와서 장군의 생전 공적을 기억하고 시를 바치고자 하였다. 그래서 한편 지어 바친다(昭和十三年十一月 即故陸軍大將 兒玉源太郎氏 神社祭也 東京有志者 欲記將軍之生前功績獻詠歌詩故構呈)

赫赫하신 공훈 별처럼 반짝이고	赫赫功勳炳日星
아름다운 명성 없어지지 않고 단청에서 빛나네	芳名不泯耀丹青
그때의 장엄한 기는 아직도 응축되어 있어	當年壯氣凝猶在
오래도록 호국령이 되시리라	長作千秋護國靈
한강은 넘실대고 북악은 높은데	漢似湯湯嶽似嵩
위무를 선양하여 우리 동아시아를 안정시키셨네	宣揚威武奠吾東
오늘날 성전의 몰아치는 기세	如今聖戰長駟勢
다 훈련하고 도야시키신 공 덕분이라네	盡是將軍鍊冶功

청주신사(淸州神社)

와우산의 산색 우뚝한데	臥牛山色碧崢嶸 ⁸⁶⁾
새로 지어진 신사 눈 앞에 나타났네	神社新成眼忽明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 모두 여기에 달렸으니	護國安民皆賴此
만인이 한결 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한다네	一心信仰萬人誠

86) 와우산은 충북 보은에 위치하였다.

도쿠토호 소호 선생의 희수를 축하하며(祝德富蘇峯先生喜壽)

문장은 세상을 독단할 정도로 이름이 났고
신문사에서 다년동안 활동하시니 명성도 뛰어난네
만수무강하시는 것 지금부터니
어진 사람은 반드시 장수한다고 하네

文章獨擅世間名
報館多年筆有聲
黃耆無疆從此始
仁人必壽理分明

〈출전 : 朴榮喆 『多山詩稿』, 朱白印刷所, 1939년 2월 2일〉

3. 심형진(沈衡鎭)

1) 축 징병제실시

京畿道 京城府 花洞町

扶桑⁸⁷⁾이 온통 봄이니 槿花⁸⁸⁾에도 꽃이 피네
恩雨 내리시는 어진 하늘은 一視同仁하시는데도다
정의를 행하고자 군대의 行伍에 들어가
사심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 봉공하리라
이같은 황은 어찌 보답하리오
신하의 도리 다른 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것뿐
청년들은 훈련일 기다리고
이천만 백성들 기세등등하도다

扶桑春遍槿花叢
雨露仁天一視同
仗義身編行伍裏
滅私心罄奉公中
皇恩如此那由報
臣道無他在盡忠
待到青年精鍊日
二千萬衆是巖熊

〈출전 : 沈衡鎭 「祝徵兵制實施」, 『國民總力』 제4권 11호, 1942년 11월, 76쪽〉

2) 축 싱가포르 함락

玉蘇 沈衡鎭

위엄무쌍한 황군께서 멀리 출정을 나가시어

威武皇軍遠出征

87) 일본.

88) 조선.

칼 앞에 미국을 무찌르고 또 영국을 무찌르셨네
 정의는 원래 약탈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며
 간사스런 영욕을 없애고 평화를 보전하는데 있네
 매가 날아오르니 꿩들이 마침내 숨기가 어려우며
 虎吼에 양떼들이 감히 싸우지를 못하네
 낭연히 獅港에 천하가 맑게 개니
 세계에 옥일(승천)기가 더욱 빛나는구나

劍前屠米又屠英
 正義元非存略奪
 除奸永欲保和平
 鷹揚雉子終難匿
 虎吼羊群莫敢爭
 朗然獅港晴天下
 世界光輝旭日旌

〈출전 : 沈衡鎭 「祝新嘉坡陷落」, 『半島之光』 제53호, 조선금용조합연합회, 1942년 4월, 23쪽〉

3) 감사황군

황군이 도처에 위명을 떨치시니
 宇內腥膻을 깨끗이 치우시네
 鯨鯢의 힘이 커 江河가 움직이고
 虎豹소리가 높으니 초목이 놀라네
 국난 전쟁을 도우고저 양 口이 중하니
 군의 은혜 보답코저 이 몸을 가벼이 여기네
 正으로 잔당을 제거하고 세상을 구하시니
 동양민족이 함께 기뻐함이라

皇軍到處振威名
 宇內腥膻盡掃清
 鯨鯢力大江河動
 虎豹聲高草木驚
 國難爭扶兩口重
 君恩欲報一身輕
 正是除殘兼濟世
 東洋民族共歡情

〈출전 : 沈衡鎭 「感謝皇軍」, 『半島之光』 제43호, 1941년 5월, 43쪽〉

4) 도(悼) 야마모토 원수

함대를 태평양에 띄워
 혁혁한 皇威를 사방에 떨치며
 용감함으로써 백승하고 敵窟을 찌르니
 의로운 장수가 一死하여 군왕께 보답하네

艦艘泛駕太平洋
 赫赫皇威躍四方
 勇以百勝衝敵窟
 義將一死報君王

남아가 이미 영웅의 일을 다하고
 우주에 길이 머무르며 일월보다 빛나니
 원수정령이 어둠에서도 우리를 도우사

男兒已畢英雄事
 宇宙長留日月光
 元帥精靈冥裡助

英米를 섬멸함이 探囊과 같구나

屠英殲美似探囊

〈출전 : 沈衡鎭, 「悼山本元帥」, 『半島の光』 제67호,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3년 7월, 42쪽〉

4. 장지연(張志淵)

1) 병합 후의 조선민족(사설)

조선민족은 종전의 권리를 잃음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문명한 법률 아래에서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안전히 하고 인선(仁善)한 정치 하에서 지식과 산업의 증진을 계도(計圖)하게 되었으니 무릇 병합의 실질은 이전 한국의 악정(惡政) 하에 있던 국민의 통치권을 인성(仁聖)한 일본천황께 위임함에 불과한 즉 실은 망국의 유민됨이 아니라 일약(一躍)하여 세계의 일등국민의 열(列)에 참가함에 이른 것이 오…… 조선민족은 인선한 정치 하에서 충애심을 함양하여 일등국민되는 지위를 공고하게 하고 법치국민이 되는 권리를 획득하여 총독의 고심(苦心)하는 바를 고부(孤負)치 아니함이 가하지 아니한가.

〈출전 : 「朝鮮民族觀(10)-併合後의 朝鮮民族(社説)」, 『매일신보』, 1914년 12월 6일〉

2) 조선풍속의 변천

총독부에서 신정(新政)을 시설했던 이래로는 □□히 구폐(舊弊)를 개혁하고 신화(新化)를 선포함에 있어 조선 구습(舊習)의 풍속도 점차 개량되어 변천하는 경우에 이르렀다.

그 한두 가지를 시험 삼아 말해 보건대, 첫째는 조선의 관습상 별열계급(閥閥階級)의 풍습을 타파하여 평등의 사상을 유치(誘致)하고, 그 다음 양반 부녀가 규방에서 갇혀 있던 것을 개방하여 자유로이 문 밖으로 나가 다닐 수 있게 하였으며, 또 일반 부녀자들이 출입할 때 장옷으로 얼굴을 가려 하늘의 해를 볼 수 없게 하던 폐습을 고쳐 얼굴을 가리는 풍습을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출입하여 하늘의 해를 다시 보게 하고, 묘지령(墓地令)을 발표(發布)하여 투장(偷葬) 남점(濫占)의 악폐를 제거하며, 산송(山訟)이란 풍습을 간단히 소송이 없게 변화시켰으며, 그 밖의 혼인상제(婚姻喪祭)의 일체의 번문복례(繁文複禮)도 점차 변개(變改)하여 간이(簡易)한 데 이르게 하였으니, 공자가 이른바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게 할 것이요, 상(喪)은 슬픔이 없고 예만 지키는 것보다는 슬퍼하고 예가 부족하게 하는 것이 낫다.”(禮與奢也寧儉, 喪與其易也寧哀)라 하신 것이 꼭 신정(新政)과 서로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출전 : 嵩陽山人, 「朝鮮風俗의 變遷」, 『매일신보』, 1915년 1월 1일〉

3) 본사의 시회 발기

오는 16일(토요일) 하오 3시에 본사 내청각(來靑閣)에서 시회(詩會) 발기인회를 개최하는 터인즉, 발기인 되시는 이는 그 시간에 맞추어 오실 것을 바랍니다. 발기인은 본사에서 임의로 추천하였으며, 그 성명은(無順) 박제민(朴齊斌)·장지연(張志淵)·유근(柳謹)·여규형(呂圭亨)·심중무(沈鍾舞)·이기(李琦)·안왕거(安往居)·유맹(劉猛)·정봉시(鄭鳳時)·정만조(鄭萬朝)입니다.

〈출전 : 嵩陽山人 「本社の詩會發起」, 『매일신보』, 1915년 1월 15일〉

4) 만필쇄어(漫筆瑣語) 중 이천오백년제, 신무천황제, 신구학

이천오백년제

황조(皇祖)의 위대하신 제업(帝業)을 제국(帝國) 신민(臣民)의 일제히 추사(追思)하는 바이오, 우리들이 가장 감격함을 이기지 못함은 해내(海內)를 통일하심과 동시에 만고(萬古)에 변하지 않는 국체(國體)를 건정(建定)하신 일이라. 황통(皇統)이 2천5백여 년 연면히 이어져 국세(國勢) 더욱 융성하고 황위(皇威) 더욱 혁양(赫揚)하니 이러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 진실로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된 자 특히 우리 새로 국민된 자(我新府國民)는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어찌 행복이라 이르지 아니할까? 이러한 나라를 창조하심은 곧 황조(皇祖) 신무천황(神武天皇)이 아니신가.

신무천황제

신무(神武)는 영웅(英雄)의神明(神明)한 자질로 동정서벌(東征西伐)하여 해내(海內)를 평정하고 나라를 세워 자손에게 전해 주었으니, 지금에 이르도록 2천 5백 765년간을 1백 23대 동안 황통(皇統)이 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만세일계(萬歲一系)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찌 세계 만국에 없는 바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곧 신무천황(神武天皇)의 제일(祭日)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기술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노라.

신구학

명치유신 때 맨 먼저 교린수호(交隣修好)하는 일로 사절(使節)을 파견하여 교섭이 빈번했으나 시종 일관 굳게 거절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구미(歐美) 제국의 군함과 상선이 누차 호의를 가지고 왔음에도 일체 배척하여 하늘이 낸 좋은 기회를 앗아서 놓쳐버리고, 캄캄한 동굴 속의 생활을 감내하였으니, 이것은 조선이 야매(野昧)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종내 자포자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이유다. 아아! 만약 일본과 함께 나란히 구미(歐美)의 언덕으로 가서 실업(實業)의 학문을 강습하고 교육술(教育

術)을 일으켰더라면 지금에 이르러 그 부강과 문명의 발달이 일본을 능가하고 중원에서 사슴을 다투게 되었을지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식자들이 부심하면서 통한해 하는 것이다.

〈출전 : 嵩陽山人, 『漫筆瑣語』 「二千五百年祭」·「神武天皇祭」·「新舊學」, 『매일신보』, 1915년 4월 3일〉

5) 송제만필(9)

일찍이 들으니 이토 히로부미 공이 말하기를, “한인(韓人)은 단체성(團體性)이 없다.”라고 하였다. 대개 공이 오랫동안 한국에 있어 한국인의 습성에 아주 익숙한 까닭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어찌 한국인의 병통을 깊이 맞춘 것이 아니라.

근일 우리 조선인의 집회 결사는 오직 종교계 약간만 있을 뿐이오, 그 밖의 집회는 일체 불허하니, 만약 집정자(執政者)로 하여금 허락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집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시험 삼아 근래 각 종교의 집회를 보자. 이 종교 저 종교를 논할 것 없이 처음에는 열심히 쫓아다니지 아니함이 없어, 단체를 조직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영원히 준수할 것처럼 하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 서로 창을 꼬나들고 드잡이질을 하여, 파당(派黨)이 나누어지면 힘을 겨루어 충돌하다가 마침내는 분열이 되고 서로 적이 지다가 각기 원수가 되고야 만다.

지난날 스스로 반석처럼 공고하다고 하던 단체가 전진, 발달할 희망이 없고, 도리어 토붕와해(土崩瓦解)의 형세를 이루어 큰 단체 중에 분리된 작은 단체가 있고, 작은 단체 안에 또 분리되어 더 작은 단체가 있어 단체의 단체됨이 실로 단체를 이룬 것이 아니다. 다만 각자 명호(名號)를 표방하여 허장성세할 따름이오, 그 실상은 모두 손으로 모래를 움켜쥔 것 같고, 봄날의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아 장구하게 지속될 모습이 아니니, 슬프도다.

또 집단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각 상점과 회사, 그리고 문예(文藝)나 한묵(翰墨)이라도 불과 몇 명이 모인 곳이면, 곧 서로 경알(傾軋)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어 남을 밀치고 배제하는 것이 능사가 되어 상점과 회사의 흥체(興替)를 생각하지 않고, 동업의 발전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당파를 만들고 엮는 데 종사한다. ……

오호라, 동종동족(同種同族)이 서로 원한을 맺어 서로 원수가 되어 망국(亡國)의 지경이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으니, 어찌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전 조선인의 습관이 되어 마침내는 단체성이 없는 인종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니며,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라. 아아! 슬프도다.

〈출전 : 嵩陽山人, 『松齋漫筆(9)』, 『매일신보』, 1915년 12월 26일〉

6) 만록(漫錄) - 지리관계(5)

“일대성국(一大盛國)하여 세계열강 가운데 웅비(雄飛)함을 들으니 …… 그러한즉 일본이 실로 동양의 패왕(霸王)이라” 그러므로 “우리 동양 사람은 서로 제휴(提携)하여 장벽을 철거하고 한 가지로 모두 함께 의지하여 참으로 동양의 대체의 국면을 잘 보전할 것을 밝힌다.”라고 주장하였다.

〈출전 : 嵩陽山人, 「漫錄-地理關係(5)」, 『매일신보』, 1916년 9월 16일〉

7) 낙성 중건에 대한 축사

본사는 지난 해 겨울에 화재를 당해 건물의 절반이 불에 타버렸으니, 그 당시 경색(景色)이 참담한지라 불행이라 이르겠거니와 만 1년이 되어서는 중건(重建) 개축(改築)하여 공사가 다 이루어졌음을 알리니, 이에 동우(棟宇)가 고운 빛을 더하고 금벽(金碧)이 갑절이나 휘황하다. 건물의 제도는 전날에 비해 줄어든 것이 없으나, 견고한 처마와 기둥은 옛날에 비해 더욱 새로워졌으니, 이것은 대개 사장 이하 일반 임원이 마음 속으로 조용히 헤아리고 계산하여 정신과 힘을 쏟은 결과다.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이에 『매일신보』를 애독하는 일시의 진신명사(縉紳名士)들이 분연(紛然) 답지(踏至)하여 축하하는 글을 서술하여 낙성을 찬송하는 노래가 지면을 채우고 흘러넘치니,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되었음이 실로 회록(回祿)의 보응이니, 감히 찬송하여 축하하지 않을 수 있으랴.

〈출전 : 嵩陽山人, 「重建落成祝辭」, 『매일신보』, 1916년 10월 4일〉

8) 대정육년시사(大正六年詩史)

여러 사업들 활발히 일어나니
다투어 자본 투자함은 예전에 없던 일
신청하는 것이 많아 사회를 새롭게 하니,
일일이 그 이름 기록하기도 어렵네

諸般事業勃然興
資本爭投昔未曾
申請仍多新社會
果難一一記名稱
(「諸事業績續勃興」, 二月)

기자국(箕子國) 팔정(八政)은 먹는 것이 우선이라
농산물 품평 위해 진열을 하고서는
등수 나눠 우수한 것 상을 주니
장려함에 감격하여 모두들 기뻐한다

箕疇八政食爲先
農產品評陳列邊
分等優良褒賞典
感深獎勵舉欣然
(「各地農產品評會」, 十二月)

이왕(李王) 전하(殿下) 동해를 건너시니
관민(官民)이 길을 쓸고 전송했네
오늘같은 성대한 일은 예전에 드물던 바
일선융화(日鮮融化)의 서광(曙光)이 빛나리라

李王殿下渡東溟
清路官民陪餞
盛事如今曾罕有
日鮮融化曙光熒
(「李王東上」, 六月)

한 소리 폭음에 불꽃 일어나더니
거함(巨艦)이 정박(定泊) 중에 침몰하였다
위문하는 무관(武官)이 성지(聖旨)를 전하니
조원(組員)들 높은 은총에 사례하였네

一聲爆響焰烟紅
巨艦傾沈碇泊中
慰問武官傳聖旨
組員拜辭寵光隆
(「軍艦筑波沈沒」, 一月)

전에 없던 호우(豪雨) 폭풍 많아
홍수 지나가자 곳곳에 재해 입었네
하사금 내리심은 구휼하는 은전이라
조선 인민 한 가지로 파도 같은 그 은혜에 젖었네

無前豪雨爆風多
各地罹災洪水過
御下賜金恤典
鮮民一體浴恩波
(「內地大水」, 十月)

〈출전 : 「大正六年詩史」, 『매일신보』, 1918년 1월 1일〉

9) 화근의 영절(사설)

그 이후 4여년의 세월에 일(日)·한(韓) 양국 정부가 예의(銳意)로 시정(施政)의 개선에 노력함이 광대(廣大)하고 그 효과가 또한 적지 아니하였으나, 본래 복잡한 보호정치(保護政治)의 제도는 아직 한국 민중의 행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함이 충분치 못하여 비도초적(匪徒草賊)의 자취가 끊이지 않고 불령(不逞)한 무리가 또한 발호하여 민중을 사주, 선동하여 누(累)가 정치에 미쳤으니, 이러한 상태는 명치(明治) 41년 3월에 구한국(舊韓國) 외교고문 수지분(須知分) 씨를 미국 상항(桑港)에서 암살함보다 심하고 명치 42년 10월 26일 북만주(北滿洲) 여행 중에 있던 이등공작(伊藤公爵)이 하얼빈 역두(驛頭)에서 흥한(兗漢)의 독수(毒手)에 죽고 같은 해 12월에 이수상(李首相)이 불의의 변을 맞은 것보다 심하다.

〈출전 : 嵩陽山人, 「共進會觀覽者觀(2) 禍根의 永絶」(社說), 『매일신보』, 1915년 9월 7일〉

10) 환영 하세가와 총독

채찍이며 모자 그림자에 수레 먼지 가득한데	鞭紳帽影攏車塵
문관과 무관들 분분히 새로 악수 나누네	文武紛紛握手新
한수(漢水)의 풍연(風煙) 원래 낮이 익으니	漢水風煙元慣面
매화도 예전처럼 기뻐 웃는 듯	寒梅依舊笑欣欣

〈출전 : 韋庵, 「歡迎長谷川總督」(現代詩壇), 『매일신보』, 1916년 12월 10일〉

5. 정병조(鄭丙朝)

1) 『녹어산관집(瀟魚山館集)』(1941) 발췌

도요토미 히데요시 묘에서(豊臣秀吉墓)

장수가 우매한 제후를 공격하는 것은 상정이지만	將家兼弱是常情 ⁸⁹⁾
어찌 무명한 이가 망령되어 출병을 하였던가	豈以無名妄出兵
반드시 영령들은 후회하였으리니	定有英靈應後悔
온산 가득한 소나무, 왜나무도 소리가 없구나	滿山松檜噤無聲

이토 태사의 운에 화답하여 바칩니다(步公爵伊藤太師韻却呈)

무력을 가지고 지난 날 짓누르지 않으셨기에	不必干戈撫昔年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싱글벙글 기뻐하네	洞無疑點也懽然
진작에 풍모를 보니 오나라 계찰과 같이 외교 수완이 있으시어	早把觀風吳季想 ⁹⁰⁾
배를 타고나가 일본의 인연을 넓혔네	一帆要博宿桑緣
문서를 가지고 서로 만년 갈 것을 축원하며	玉帛相將祝萬年
순치보거의 형성이니 어찌 그렇게 하지 않으리오	輔車唇齒豈非然
형제는 위급할 때 서로 구원하여주는 것이니	爲報弟兄急難意
척령이 날아와 물가에 다다른는 도다	鶴鶴飛有到沙緣 ¹⁾

89) 유약(柔弱)하면 겸병(兼併)하고 혼암(昏暗)하면 치는 것(兼弱攻昧)은 『서경(書經)』 중웨이고(仲虺之誥)에 나오는 말이다.

90) 고매한 인품으로 중국의 훌륭한 사대부와 교분을 맺고 외교적 사명을 완수하리라는 뜻이다. 계찰은 춘추시대 오왕(吳王) 수몽(壽夢)의 넷째 아들로써, 왕위를 전해 주려 함에도 받지 않고 연릉(延陵)에 봉해진 뒤 상국(上國)을 역빙(歷聘)하며 당시의 현인들과 교유하였다. 『史記』 卷31.

조선으로 귀국하려 하는데 이토 공작이 三河館에서 전별식을 열어주었다. 이에 지어 바친다
(將歸鮮春畝公爵宴餞三河館席上限韻)

오늘 공과 이별하고 차마 돌아가지 못하나니	此日辭公未忍歸
공의 가르침을 받아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쳤다네	自承公誨悟前非
공 노년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衰年但祝加餐飯 ⁹²⁾
창생을 위하시기에 살찐 날도 없을 것입니다	尙爲蒼生貌不肥

히가키(檜垣直右)⁹³⁾ 경기도장관이 사임하고 귀국하는 것을 전별하며 감회를 읊다(檜垣京畿長官直右辭官東歸以詩寄懷)

바라보고 있으면 숙연하고 두려워져	望之肅然畏
함부로 할 수가 없었네	若不可犯者
이미 꺾어보니 관용과 온후함을 지녔고	卽之寬而溫
그 말은 파사로왔네	其言藹如也
오직 공자의 학문만을 배웠고	學惟宗尼聖
역학에 더욱 깊었네	尤邃於易理
정치에 있어선 仁愛로 하였고	爲政仁愛至
(천황에 대해) 충성의 마음으로 자식처럼 섬겼네	赤心保赤子
위대하도다 공같이 어진 이는	臚哉如公賢
옛날 사람과는 같지 않네	古之人也非
지우를 입은 것에 감동하여	偏余知遇感
蛩蛩驅虛처럼 서로 의지하였네	蛩蛩永相依 ⁹⁴⁾
병 나았단 소리 들리지 않더니	无妄勿藥喜
어찌 갑자기 물러나시는가	胡遽急流退
아득히 강가에서 이별하니	迢迢江海別
아쉬운 마음 병드는 것같이 아프네	忽忽情如痲
공은 수양도 잘 하시고 구휼도 좋아하셨는데	公自頤養好
경기도내 백성들을 (이젠) 누가 진휼할 것인가	畿黎誰賑貸

91) 척령은 새 이름으로 형제의 급난(急難)함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 상채장(常棣章)에, “척령이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난하도다.(鶉鶉在原 兄弟急難)”에서 나온 말이다.
 92) 찬반(餐飯)을 더하여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환영전(桓榮傳)에 “태자가 편지로 아뢰기를 ‘願君慎疾加餐 重愛玉體’라고 하였다.” 하였고, 고시(古詩)에 “上有加餐飯 下有長相憶”이라 하였다.
 93) 檜垣直右는 후지야마현의 지사였다가 ‘병합’ 후에 경기도장관이 되었다.
 94) 짐승의 이름으로 공공거허(蛩蛩驅虛)를 말하는데, 서로 의지하는 것을 비유한다. 『여람(呂覽)』 불광(不廣)에, “궤(騃)이라는 짐승이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서 앞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달아나질 못한다. 늘 공공거허를 위하여 감초(甘草)를 먹여 주는데 위험이 닥치면 공공거허가 그를 업고 달아난다.”라고 하였다.

유임을 바랬으나 소원 이루지 못하였는데	寇借未遂願 ⁹⁵⁾
소공이 선정을 펴다 쉬셨다는 감당나무의 노래 이미 전파 되었네	召愬已播謠 ⁹⁶⁾
내가 어찌 사적인 것을 말하리오	我豈敢言私
쾌차하기를 바랐지만 瓊瑤로 보답하지 못하였네	投爪罔報瑤 ⁹⁷⁾
단약이 완성되어 신선되어	但期丹成日
적송자, 왕자교처럼 장수하시길 바라네	壽餘松喬比 ⁹⁸⁾
백성들의 바램에 부응하시어	用副蒼生望
동산위로 부디 일찍 떠오르시길	東山須早起
거듭하여 저녁에는 남쪽 역으로 마중 나가	重迓南郵夕
악수하며 서로 맞이하길	握手笑相視
노래 끝나 고개를 들어보니	吟罷更回首
해는 만 리 밖 구름 너머로 저무네	日莫雲萬里

요양을 지나며(過遼陽)

문득 하루살이가 망망대해에 사는 것처럼	忽覺蜉蝣寄渺茫
바람을 타고 만 리의 요양으로 나왔네	天風萬里出遼陽
바다를 바라보니 광활하고	一望如海呈軒割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 없으니 방향을 모르겠네	四拓無山失方向
땅을 헤아려보니 어디가 고구려이지 발해인지 알 수 없고	按地難徵句渤史
중국이 여진과 몽고 침입, 막지 못 한 이유 알겠네	窺華不阻女蒙王
지금에 더욱 슬픈 것은 정령위는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고	今來悲更令威甚 ⁹⁹⁾
성곽도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라네	城郭人民並已亡

봉천성 유감(奉天城有感)

선양관 밖에 잠시 멈춘 수레에	瀋陽館外暫停輶
------------------	---------

- 95) 寇借는 지방관의 유임(留任)을 열망하는 데 비유한 말이다. 차구는 곧 구순(寇恂)을 빈다는 뜻으로, 후한(後漢) 때 구순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서 선정을 베풀고 기한이 차서 그곳을 떠나게 되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말하기를 “구군(寇君)을 1년만 더 빌기를 바란다.”며 섭섭해했다는 고사이다. 『後漢書』寇恂列傳.
- 96) 선정(善政)을 베풀 수령을 위해 베지 않고 남겨 놓은 나무로, 송덕비(頌德碑)와 같은 뜻이다. 주(周) 나라 소공(召公)이 감당 나무 아래에서 정사를 행하였는데 백성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나무를 보호하면서 감당(甘棠) 시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史記』燕召公世家.
- 97) 옛날 무왕이 병을 앓을 때 / 武王昔不豫 손톱과 발톱을 깎아 하수 가에 던졌다 / 剪爪投河湄
- 98) 적송자(赤松子)와 왕자교(王子喬) 두 사람을 가리킨다. 모두 옛날의 신선이다
- 99) 정영위(丁令威)는 한(漢) 나라 요동(遼東) 사람인데, 도술(道術)을 배워 학(鶴)으로 화신하여 요동에 돌아와 화표주에 앉아 이르기, “새여 새여 정영위여, 집을 떠난 천 년만에 이제 돌아왔네(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하였다.

사막의 바람 불어오고 해도 근심에 잠긴 듯 부영네
 총독부 虎帳을 새로 하라 엄명하시니
 소릉 오래된 이무기 머리에서 포연이 멈추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감동이 되어 누대에 오르니
 逸史에선 자못 완성되지 못한 곳도 많았지
 어찌 유독 유망민을 안집시키길 좋아하여
 땅을 개간하며 만주에 살게 하였겠나

漠漠風沙白日愁
 督府令嚴新虎帳
 昭陵姻歇古螭頭
 羽懷易感無從樓
 逸史偏多未遽收
 豈獨流亡安集好
 廣開阡陌在滿洲

다이렌만에서(大連灣)

봄 물결 일렁이고 바람은 고요한 다이렌성
 가장 높은 누대에서 한가하게 있네
 기와집은 거울처럼 빛나고 누령고 푸른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많은 선박 문채 나는 구름사이 너머에 정박해 있네
 토산물의 경매는 매년 증가했지만
 (대두유가 해마다 수출이 늘어나 현재 200만 원의
 이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웃나라 대비가 무너지자 손 씻고 돌아갔네
 머나먼 연경의 상인들 우리를 위로하여 말하길
 이 길이 동아시아의 관문이라오

春波風定大連灣
 得最高樓放鬪閒
 萬瓦鏡搖金碧影
 百帆人隔彩雲間
 土宜競買年增售
 (大豆油年增輸出今收二百萬圓利益云)
 隣備隳都手洗還
 遞燕官商勞我語
 是行東亞有關

러일전쟁터 뤼쑤를 순시하며 즉석에서 쓰다(旅順口巡視日露戰役處走筆口號)

뤼쑤 산마루에 신사를 참배함에
 바람은 맑고 햇별은 따뜻하건만 처량하고 슬프네
 열렬하고 굉굉한 전쟁, 천하에 이런 일 없었으니
 의사는 삼 만이요 충혼을 받친 이는 천 여 명이였다네
 오래된 역에 가을 열매가 떨어지고
 잘 보존된 밭은 은하수가 늘어선 것 같다
 전장에서 무너뜨리던 상황 얘기하니
 수리는 깎깎 거리며 기뻐 눈을 크게 뜨고 본다네
 손무, 오자서, 한신, 팽월은 진정한 남자로

旅順山頂參神祠
 清和風日爲淒悲
 烈烈轟轟天下無
 此義三萬忠魂千
 秋實有辭驛長久
 保田舌有懸河辯¹⁰⁰⁾
 便說戰時狀摧倒
 鸞鸞喜張看噫嘻
 孫吳韓彭真兒戲¹⁰¹⁾

100) 懸河는 은하수이다.

101) 韓彭 : 한신은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여 장량(張良)·소하(蕭何)와 함께 삼걸(三傑)로 칭해졌는데, 뒤에 여후(呂后)와 태자(太子)를 습격하려다 오히려 여후의 속임수에 떨어져 목이 잘렸다. 『史記』卷93 팽월은 항우(項羽)를 섬기다 한(漢) 나라에 귀순하여 기공(奇功)을 세우고 양왕(梁王)에 봉해졌는데, 한

장군과 졸병이 하나가 되어 훈련을 하였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지만
 나는 동양을 위한 일이었다 말하고 싶네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들을지니 진실로 천황폐하의 위엄이 아니겠는가
 위엄을 빛내시고 한번 성내시어 오랑캐를 쓸어버리셨다네
 조정에선 황인종이 화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지만
 (그러나) 흑룡의 재앙이 마침내 아시아에 미치었네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편안하지 못해지니
 진실로 잘 아는 사람은 기미를 잘 아는 이라네
 원수들 은혜를 뒤집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더니
 지금은 병력을 몰아 전쟁을 일으켰었네
 (이제) 이 땅 한 구석진 곳에서 발을 닦아 말리고
 천황을 믿어 내 남은 생을 편안히 하고자 하네
 천황은 덕이 하늘처럼 우뚝하여 무능한 이를 쓸어버리시고
 명군으로서 동서를 보시길 鷄冠으로 하셨네
 二龍山처럼, 열 겹의 청동으로 만든 담장같이 견고하였지만
 쇠벽을 가루내어 버리는 건 일순간이었네
 인화가 결국 지리보다 나은 전술이었으니
 나카무라 장군 시원하게 관문을 열어버렸네

並將卒一副鍊成
 死國之心奇更奇
 我試具陳爲東洋
 人須靜聽苟非皇
 威赫然一怒掃虜
 庭無乃黃人重罹
 黑龍禍遂致亞洲
 乾坤震電不令寧
 誠知能者審機明
 讐反恩時求同聲
 而今全歐兵塵遍
 此地一片乾淨足
 以安吾生方信帝
 德如天巍蕩無能
 名君看東西鷄冠
 二龍山十重銅牆¹⁰²
 鍊壁粉碎一瞥間
 地利終爲人和勝
 中村將軍洞開關

하얼빈(哈爾濱)

남만에서 곧장 북만으로 가면서
 러시아의 평평한 평원이 3천리인가 물어보았네
 문득 하얼빈 광활하게 펼쳐지니
 상전벽해의 형상이 아니던가
 황폐한 성 외곽에 자리했던 조그만 마을이
 지금은 만호의 도시가 되었네

南滿直向北滿行
 問露三千一掌平
 却來哈爾濱逾濶
 是否桑田海變成
 荒落濱城一小邨
 而今萬戶又千門

신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병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다가 고조(高祖)의 노여움을 사 마침내 효수(梟首)되었다. 『史記』 卷90.

102) 二龍山 : 무송(武松 : 1090~1169)은 양산박 108두령 중 한 사람으로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그는 보병 도두(步兵都頭 : 포도대장)로 지목되었고 형 무식(武植)이 서문경(西文慶 : 1087~1116)과 반금련(潘金蓮 : 1092~1116)에게 독살당하자 이에 분개하여 그들을 죽이고 맹주(猛州)로 유배당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릴 적에 다뤘던 장죽산(蔣竹山 : 1090~1128)의 형 장충(蔣忠)과 장몽방(張蒙方)이 목숨을 노리자 이에 반격하여 그들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이룡산(二龍山)으로 도망쳐 세력을 확보한 뒤 양산박(梁山泊)에 입단하였고 방랍 토벌 때 포도을에게 팔을 잃은 뒤 육화사에 은거하여 송나라 조정에서부터 청충조사(淸忠祖師)라는 칭호를 얻었다.

정치도 훌륭하니 마침내 백성도 물자도 풍부해지고	形勝竟招民物盛
하늘 높이 국기가 펄럭이고 있네	三竿高揭國旗翻
문자를 같이한다면 의당 국경도 같이 지켜야하리니	同文宜合守邊疆
金城湯池를 빌려 강한 적을 막아야 하리라	寧借金湯助敵強
패자가 나와 동아시아의 힘을 갖지 못한다면	不有霸持東亞力
진나라와 같은 적국의 요구 끊임없이 나오리니 누가 막으리오	秦求無己竟誰防 ¹⁰³⁾
복잡한 하얼빈 시내로 나와 보니	對出三條五劇邊 ¹⁰⁴⁾
유리처럼 금빛과 푸른 빛이 멀리까지 비치네	玻璃金碧迥超然
새의 발자국 같고 계가 기어간 것 같은 글씨의 액자가 있고	鳥跡蟹行金字額
관공서, 상점도 늘어서 있네	也除官署也商廛
삼월인데도 꽃도 아직 피지 않고 찬바람이 살을 에이는데	三月無花冷撲人
얼음 낀 송화에서 봄이 되었음을 아네	松花冰伴始知春
길을 가득 메운 말과 마차	滿街白馬香車跡
바람 부는 어두운 거리의 풍량계 위로 먼지가 길게 날리네	五兩風昏十丈塵 ¹⁰⁵⁾
희극에, 노래 다양하고	戲劇絃歌異派多
등불 켜 거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네	燈天人海競繁華
망사로 얼굴을 가린 꽃 같은 여인은	網紗遮護花容女
깊은 눈가 가득히 파도를 보내네	眼角摳深尙送波
(이날 밤에 러시아 극장에 치장하고 놀러온 러시아 여인들이 많았다) 是夜設露國演劇台遊女露娘爲多	會堂招慰旅行勞
끊임없이 진귀한 음식 상위에 가득하다네	絡繹珍齋一桌高
나를 후하게 대접하는 많은 거류민에게 감사하며	待吾厚認居留旺
더욱 관민의 오랜 우의에 고마울 뿐이네	愈謝官民古義操
이날 관민이 공동으로 단원들을 공회당 연회에 초청하여 (是日官民共同招團員于公會堂宴待甚盛)	
매우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출전 : 鄭丙朝, 『瀧魚山館集』 卷之三, 1941년 3월 30일〉

103) 전국 시대(戰國時代)에 6국이 진(秦) 나라의 요구에 수응하다 못해 이런 말이 나왔음.

104) 복잡한 시가를 표현한 말이다. 당(唐) 나라 노조린(盧照隣)의 장안 고의(長安古意) 시에 “남쪽의 언덕 북쪽의 당(堂)이 북쪽 마을에 연하고 다섯 극(劇)과 세 조(條)가 세 저자를 끼었다.” 하였다

105) 닭털을 장대 끝에 매어 풍향을 알아보는 계구로, 본래는 초(楚) 지방의 방언이었다.

6. 한준석(韓準錫)

1) 환영 하세가와 총독 각하

고매하고 안연(晏然)히 저 멀리서 오시네
환영하여 곳곳에 성이 가득차 누를 정도구나
백성의 살림살이를 살피시네
정치를 베풀고 인덕을 베푸사 즐거운 세상을 평하노니
일본의 편안한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네
사직(社稷)에 심성을 다하여 일월이 밝게 비추네
취각을 불고 기를 세워 마땅히 명을 받드사
北鮮¹⁰⁶⁾산수가 더욱 맑아지는구나

小坡 韓準錫
高駕晏然自遠程
歡迎處處壓入城
省畊省斂與民產
施政施仁樂世平
扶桑休連風雲會
社稷深誠日月明
吹角建牙宜勅命
北鮮山水倍澄清

〈출전 : 韓準錫 「歡迎長谷川總督閣下」, 『매일신보』, 1917년 5월 12일〉

2) 봉도(奉悼) 다이쇼(大正)천황

흠명하신 우리 천황계선
 홍륭하신 덕으로 동아시아를 굴복시키셨네
선대 왕들의 공덕 크게 밝혔고
 神聖의 智謀를 공경히 받드셨다네
舊域으로부터 일본은 전하여지고
 社稷은 새로운 도읍에서도 보존되었네
나라를 안정시키기를 마치 반석과 같이 하셨고
 백성들 교화시키는데 북채를 잡으셨다네
文을 숭상하여 孔孟을 스승으로 삼으셨고
 武를 도야함에 孫吳를 講磨하셨네
전쟁에서 대승하시어 4부를 설치하셨고
 한번 용의를 걸치시어 북쪽을 평정하셨네
행복의 샘이 막 샘솟으려는 때에

小坡 韓準錫
欽明大行帝
 峻德服東區
丕闡祖宗烈
 祇承神聖謨
扶桑傳舊域
 社稷保新都
安國喻磐石
 化民應鼓桴
崇文師孔孟
 鍊武講孫吳
三捷置四府
 一戎定北樞
福祥泉始達

106) 함경남도 함흥.

장수의 바다는 마르려하였다네
 彭虫의 악행을 누가 야단을 칠 수 있을까
 천리마처럼 내달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네
 남겨진 화살은 천황께서 계시던 곳에서 우는데
 신발벗듯이 瑤□를 향해 가셨네
 鸞輅¹⁰⁷⁾는 장지로 떠나
 龍髯¹⁰⁸⁾께서는 □湖로 아득히 멀어져 가시네
 스산한 바람 赤□를 부르며
 시름은 蒼梧에 잠기네
 온 천하 끝없이 한탄하며
 장강도 함께 오열하네

壽考海將枯
 誰罵彭虫惡
 莫禁□驍趨
 遺弓鳴玉几
 脫履向瑤□
 鸞輅歸喬岳
 龍髯渺□湖
 悽風號赤□
 愁一沒蒼梧
 牽普無窮恨
 長江共咽鳴

〈출전 : 韓準錫 「奉悼 大正天皇」, 『同民』 제29호, 1927년 2월, 1쪽〉

3) 축 동민(同民)

일본제국대영동에
 풍요로이 사는 백성의 和氣가 융화하니
 海內가 모두 형제라 萬類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로 같이 돌보시네

小坡 韓準錫
 扶桑帝國大瀛東
 富庶生民和氣融
 要知海內皆兄弟
 萬類雖殊一視同

〈출전 : 韓準錫 「祝同民」, 『同民』 제33호, 1927년 6월, 3쪽〉

4) 조춘술회(早春述懷)

聖德이 하늘의 은혜와 같아
 일본과 조선이 一家로 봄을 맞으니
 깊은 은혜 미미하나마 갚고자 하니
 힘껏 정성을 다하여 이 몸을 잊고자 하노라

小坡 韓準錫
 聖德如天雨露均
 扶桑槿域一家春
 洪恩將欲溷埃報
 庶竭衰誠忘此身

〈출전 : 韓準錫 「早春述懷」, 『同民』 제34호, 1927년 7월, 3쪽〉

107) 천황의 수레.

108) 천황.

5) 축사이토전권귀조(祝齋藤全權歸朝)

泰西사절로 天朝에 돌아오시어
알현하고저 집무실에 열을 지어 늘어서 있으니
엄숙하고 위엄한 儀容에 모두가 悅服하며
서로 응한 의석은 소리없이 고요하구나

小坡 韓準錫
泰西使節返天朝
報謁楓宸幾列條
儼偉儀容皆悅服
想應議席寂無罍

〈출전 : 「祝齋藤全權歸朝」, 『同民』 제37호, 1927년 10월, 1쪽〉

6) 봉답(奉答) 고수노자(臯水老子)¹⁰⁹⁾

두 번의 자리에 이르시어 나라를 지키신 대공이여
文工筆法이 영웅호걸과 같아
煌煌四字가 마음에 그림을 그리니
감동이 평생에 사모하며 극진히 높이는 마음으로 머무르네

小坡 韓準錫
再莅權邦執大公
文工筆法峙豪雄
煌煌四字出心畫
感佩平生萬慕隆

〈출전 : 「奉答 臯水老子」, 『동민』 제81호, 1931년 6월, 5쪽〉

7) 『삼노우모시선(三老寓慕詩選)』(1937) 발췌

三老寓慕詩選序

小坡 韓準錫 군은 溫厚篤實하며 名利에 있어서는 담박하다. 文化를 補益하고 社會에 공헌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 至誠으로 일관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해이해지지 않았다. 그의 인격은 세상에서 보기 힘들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으며 몸가짐이 매우 근엄하고 검속하였다. 오직 시를 즐기는 것만을 운명처럼 여겨 사람을 만나고, 사물들과 접촉할 때 만약 마음에 감흥하는 것이 있으면 곧장 읊어냈다. 또는 '시는 뜻이 가는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 뜻이 되고 말로 나온 것이 시가 되는 것'이기에 성정의 바르고 순정함을 따라 한꺼번에 읊어 내기도 하였으며 (이런 시들은) 자구 사이에 진실 된 기가 충만하였다. 내가 매년 군의 시를 볼 때마다 짝고 새기는 수식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시의 기세가 하늘

109) 사이토 총독.

이 만들어 낸 듯 하여 시인의 충후한 뜻을 얻었음을 깊이 알 수 있었다. 근일에 군이 나에게 『三老寓慕詩選』을 갖고 와 부탁하길 자신이 편집한 것인데 寺內·齋藤·南 三總督에게 (수창한) 시를 지어 받치고자 한권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활자로 만들어 세상에 공개하고자함에 그 간절하고 정성된 행동이 어찌 평범한 사람들이 미칠 바이겠는가? 더욱 이 책을 엮음에라. 세 총독의 풍모와 恩威한 자품을 경모할 뿐만 아니라 조선통치 이 십 여년의 과거와 현재의 영향을 엿보아 얻음이 있어서이다. 완전히 詩史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반드시 그렇거니와)그 간행의 공이 매우 위대하여 文化를 보익하고 사회에 공헌이 아주 큼을 알겠다. 진실로 이것은 출판계에서 만나기 드문 일이다.

1937년 學鷗 松田甲이 敬성 皆夢軒에서 쓰다

三老寓慕詩選序

小坡 韓準錫 군은 관북지방의 일류시인이다. 그 사람됨이 순정하고 공손하며 소박하다. 그의 시는 성정에 근본하여 꾸밈이 없고 조탁에만 치중한 시어도 없다. 그 여운이 길어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아 말렸다 펼쳐지는 것이 자유자재였다. 어느 날 君이 우연히 敬성에 왔다가 나와 여관에서 만났다. 군이 나에게 말하길 “저는 변방에 거처하며 학문을 하는 데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小坡 제가 魯庵, 齋藤 두 총독과 알게 되어 누차 시로 칭찬을(아니면 시로 칭찬하는 것) 받았습니다. 지금 시를 지어 풍산 南총독에게 바치니 은혜와 사랑하심이 더욱 보태졌으나 도리어 (자신의 시를) 천박하고 보잘 것 없다고 여기고 삼노의 문하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었으나 영광으로 생각지 않고 이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내가 줄고 중에서 골라서 三老에게 바치는 시편만을 모아 한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쇄할 때 삼노공과 여러 동지들은 아마도 그 감상을 써주실 것입니다 만 그대가 서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 하였다. 내가 “아! 강호의 뜻을 얻지 못한 선비 중에 시명에 기대 이름난 벼슬아치에게 예우 받은 적은 일찍이 많지 않았다. 또한 지위와 명망이 최고이면서 재야의 선비를 사랑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맹헌자가 자신의 집안을 잇은 것처럼 하게 하는 것은 더욱 고금지간에 힘든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내가 감히 서문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소화 정축년 초봄 동래 정병조 서문을 쓰다

三老寓慕詩選自序

보잘 것 없는 제가 역대 조선 총독에게서 知遇를 입었으니 일생동안 마음을 향해 경모한 분은 魯庵 皐水 豊山 세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삼노의 시 약간을 받들어 수창하였는데 근간에 모아서 한권을 만들고는 『三老寓慕詩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득 供覽해보니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됩니다. 삼노께서는 우리 제국의 거성이며 동양의 위인이셨는데 지금 노암 고수 두 분께서는 이미 작고 하셨습니다

니다. 다듬고 만져 한편의 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찌 산이 무너진 듯한 슬픔을 이기겠습니까? 이에 기록합니다.

소화 정축년 정월 10일 小坡 韓準錫

테라우치(寺內) 총독을 삼가 맞이하며(奉迎寺內總督)

1913년 7월 3일 함남 순찰 시에 서호진¹¹⁰⁾에서 접견하였다

하늘 맑은 함남 서호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치	日晏關河淑景嘉
지방 시찰하시는 높은 수레 하늘 끝 변방까지 두루 하셨네	旬宜高駕遍天涯 ¹¹¹⁾
청구의 바람 깃발을 흔들지만	青邱風煖揚旗脚
번화한 거리 먼지는 깃발아래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네	紫陌塵晴整纛下 ¹¹²⁾
큰 기틀 편안히 자리한 천년의 왕국(일본을 지칭)	洪基鞏奠千年國
은혜는 만성을 일가로 고루 적셔주시네	恩渥均沾萬姓家
조야가 모두 태평성세를 증거하며(사실이라고 말하며)	朝野升平從可驗
성안의 모든 이들 환영의 웃음 지으며 생황 켜고 노래하는 소리 뒤섞여 들리는구나	滿城歡笑雜笙歌

동방의 구 정치는 유신으로 회복되었고 ¹¹³⁾	東方舊政復維新
순무하는 높은 수레 이르는 곳마다 봄이로구나	巡撫高車到處春
천황의 은혜를 받들어 오모를 쓰고	承恩丹闕戴烏帽
청구에 천자의 윤음을 선포하시네	諭旨青邱宣鳳綸 ¹¹⁴⁾
하늘은 천년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준엄하게 명을 내리시니	天降峻命基千世
교화의 바람 크고 아름답게 일어 四隣을 뒤덮네	風動弘休被四隣
온 천하 태평한 세상 노래하며	率普謳歌太平像
길가에서 환영하며 (공이 남기고 가신) 먼지를 바라보네	歡迎徃路望餘塵

110) 함경남도 흥남의 외항.

111) 관원이 한 도를 순찰하여 왕의 정사를 선포하는 데에 쓰는 말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강한(江漢)에 “王命召虎 乃旬乃宣”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총독의 지방시찰을 가리킨다.

112) 현도는 당(唐) 나라 때 장안(長安)에 있던 관(觀) 이름인데,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낭주 사마(朗州司馬)로 좌천되었다가 10년 만에 풀려 경사에 돌아와 보니, 현도관에 이전에 없던 복숭아나무를 한 도사(道士)가 새로 많이 심어 놓았으므로, 그 복숭아나무를 당시의 권신(權臣)들에 비유하여 풍자하는 뜻으로 시를 지었다. 그 시에 “서울 거리 뿌연 먼지가 얼굴을 스치는데, 사람들이 모두 꽃구경 갔다 온다 말하네. 현도관 안에 있는 천 그루 복숭아나무는, 모두가 이 유랑이 떠난 뒤에 심은 거라오 紫陌紅塵拂面來 無人道看花回 玄都觀裏桃千樹 盡是劉郎去後栽”라는 구절이 있다. ‘紫陌紅塵’에서 紅을 빼고 인용하였다.

113) 조선이 일본에 식민지화 된 것을 의미한다.

114) 천자(天子)의 조서를 일컫는다.

삼가 魯庵¹¹⁵ 총독에게 바치나이다(恭呈魯庵總督)

1914년 3월 1일

보잘 것 없는 저는 포의의 곤궁함 면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홀로 淮橋을 탄식하였나이다
부끄럽게도 지우를 입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서쪽으로 멀리 쳐다보며 마음에 아로새기나이다

鯁生未免布衣寒
壹鬱孤懷淮橋嘆¹¹⁶
謬蒙知遇是何幸
西望長旻只鏤肝

테라우치 총독이 은혜로이 손수 써주신 시를 읽고 느낌이 있어 삼가 바치나이다(奉讀寺內總督惠贈手題詩有感)

1916년 11월 20일

우리 천황의 성덕이 조선을 적심에
백성들 기뻐 복종한 것이 오늘까지 7년이라네
만 리 부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근역은 옛날 그대로의 산천이네
동포라고 보시어 기쁘게 여기시며
이역이라고 하여 어찌 사신 길을 꺼리셨겠는가
각하의 충훈 전해지니
한 집안으로 여기는 기상 실로 편애가 없으셨도다

吾皇聖德洽于鮮
悅服民情今七年
萬里扶桑新日月
四望槿域舊山川
同胞可見怡如也
異域何嫌習使然
閣下忠勳播章句
一家氣像實無偏

테라우치 총독이 총리대신으로 영전하심을 삼가 축하드리나이다(謹祝寺內總督榮轉內閣總理大臣)

1916년

우리 테라우치 공의 덕망은 우러러 보건데 마치 산과 같다네
근역에서 10년간 큰 책무를 맡으시다
지금 갑자기 천황께서 내리신 은혜로운 명령 받드니
오색의 구름 낀 깊은 곳에서 천황의 얼굴 가까이 하시리

我公德望仰如山
大任槿邦十載間
今日忽承 恩命降
五雲深處近 天顏

사이토 총독을 알현하다(謁齊藤實總督)

1919년 9월 24일

넓고 큰 한성부 모퉁이에 사는

潭潭大府漢城陬

115) 테라우치 마사다케 총독.

116) 남쪽에서 자라는 굴나무를 회수 북쪽에 심으면 탕자로 변한다고 한다.

한미한 저를 부르시어 바쁜 중에 가을 속을 같이 걸으셨다네	被召寒蹤忙踏秋
총독의 깃발을 보니 마치 扶桑을 대면한 듯 기쁘나	白旄喜對扶桑面 ¹¹⁷⁾
총독의 마음은 사직을 걱정하시느라 수고로우시네	丹慊應勞社稷憂
(총독은) 천황의 성덕에 종사하여 도와드리는 직위이며	配天聖德贊襄職
온 천하 백성들을 순무하시는 직책이시네	率土民情巡撫猷
지금 다행히 얼굴 직접 뵈고 예로서 접대해주시니	今日幸承容接禮
동방에 복성이 흘렀음을 보겠도다	仰瞻東域福星流 ¹¹⁸⁾

사이토 총독의 고유를 읽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讀齋藤總督諭告有感)

1919년

객사 창가에서 오늘 아침 총독의 반포문을 읽어보니	旅窓朝日讀頒文
한 폭의 아름다운 말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주네	一幅徽言意十分
이로부터 민심은 마땅히 그만두어야 하리니 ¹¹⁹⁾	從此民心應自戢
상서로운 바람은 하늘에 가득한 구름을 쓸어버리네	祥風掃盡滿空雲

테라우치 백작의 죽음을 애도하다(哭魯庵伯)

1919년 11월 3일

서호진에서 얼굴을 뵈고 말씀도 들었던	西湖容接聽諮諏
그 한마디가 아직 귀가에 울리는데 시간은 벌써 7년이 지났다네	一話琅然經七秋
정승의 책무를 마음에 담으시고	塩梅責任抱丹慊 ¹²⁰⁾
사직을 위한 근로로 머리가 하얘지셨네	社稷勤勞餘白頭
천당이라면 응당 속세의 일에 감화되어서 일 것이고	天堂應感化龕夢
명부라면 아마도 죽음을 애도해서이겠지	潭府常疑木稼 ¹²¹⁾ 憂 ¹²²⁾

- 117) 천자(天子)의 정벌(征伐)에 쓰인 것으로 『서경(書經)』 주서(周書) 목서(牧誓)에 “왼손으로는 황월을, 오른손으로는 백모(白旄)를 잡고 지휘하였다.”라 하였다. 여기서는 총독을 상징한다.
- 118) 복을 내려 주는 신(神)이라는 뜻으로 한 지방의 일을 총괄하는 관원을 말한다. 송(宋) 나라 선우신(鮮于侁)이 절동 전운사(浙東轉運使)로 떠날 때, 사마광(司馬光)이 “지금 동쪽 지역의 폐해를 구제하기 위해선 자준(子駿 선우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니, 그야말로 일로(一路)의 복성이라 할 만하다.”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山堂肆考』.
- 119) 사이토(齋藤實) 총독이 1919년 8월부임하면서 독립운동을 진정 시키려 발포한 반포문인 듯하다. 여기서의 민심은 독립운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120) 은(殷) 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얻어 정승을 삼고 나서 “내가 술을 만들면 그대가 누룩이 되고, 내가 국을 끓이면 그대가 소금과 식초 역할을 하라.(若作酒醴 爾惟麴蘖 若作和羹 爾惟鹽梅)”고 말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書經 說命下』 국정(國政)을 담당할 만한 정승의 재목을 뜻한다.
- 121) 현인(賢人)의 죽음을 가리킨다. 목가(木稼)는 상설(霜雪)이 내려 나무에 붙어 있다가 추운 날씨에 응결되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송(宋) 나라 신종(神宗) 때에 초목이 모두 목가의 현상을 보인 뒤 며칠이

공사 간에 통곡하며 애도의 글을 지움에
조선은 서글픈 바람이 불고 근심의 해가 비추는구나

哭以公私略書誄¹²³⁾
悽風愁日海東邱

꿈에 魯庵 백작을 뵈고 깨어나서 감동을 읊다(夢見魯庵伯覺而感吟)

1921년 2월 15일 밤

모습이 그대로인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여
기쁘게 무릎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누었네
분명히 근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고상한 자리에서 모시니 담소하며 온화하게 웃고 계시네

彷彿儀形降帝闈
怡然促膝敘寒暄¹²⁴⁾
分明說道近時事
侍坐高筵談笑溫

사이토 총독을 환영하다(歡迎齋藤總督)

1921년 2월 함남 순시 시에

변방도 복이 있어 우리 공께서 오시니
엄동설한 뒤 그늘진 벼랑에도 봄이 비로소 돌아온 듯하네
교화를 베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막중한 일을 맡으시니
大東은 이로부터 태평성세가 열리리니

遐藩有福我公來
寒後陰崖春始回
宣化安民任自重
大東從此太平開

臯水¹²⁵⁾ 총독께서 함흥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聞臯水總督來咸興)

병인년 가을

서풍이 어젯밤 성을 휩쓸더니
臯水 노옹께서 먼 곳에서 수레타고 오시네
궁벽한 함흥을 가차이 여기시고 순시를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너무나 기쁠 뿐만 아니라 온갖 미물까지도 우뢰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듯 하네

西風昨夜沛城隍
臯水老爺遠駕來
何幸僻陬巡察近
喜眉不啻蟄聽雷¹²⁶⁾

지나지 않아서 한기(韓琦)가 죽었던 고사가 있다. 『靑箱雜記』.

122) 한유(韓愈)의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 시에 “한 사람은 말 앞의 줄개가 되어, 채찍 맞은 등에 구더기가 생기
고, 한 사람은 공이나 재상이 되어, 깊고 그윽한 부중에 거처하네.(一爲馬前卒 鞭背生蟲蛆 一爲公與相 潭潭
府中居)”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3) 誄의 오자인듯하다.

124) 寒暄 : 안부를 말한다.

125) 사이토 마코토 총독.

126) 宋 王安石 『寄贈胡先生』 중에 “高冠大帶滿門下, 奮如百蛰乘雲雷”라는 시가 있다.

사이토 총독이 전권대사가 되어 일본 조정으로 귀임하는 것을 축하하며(祝齋藤全權大使歸朝)

정묘 가을

태서로 사신을 갔다가 천황의 조정으로 돌아와
여러 조목을 천황께 보고 올렸네
엄숙하고 위대한 모습에 모두가 열복하였고
상응하던 의석엔 시끌거리는 사람 하나 없었네

泰西使節返天朝
報謁楓宸幾列條
儼偉儀容皆悅服
相應議席寂無譁

사이토 총독의 재임을 환영하며(再迎齋藤總督赴任)

1929년 가을

시원한 바람 불어오니 흑염은 떠나가는데
軒裳(높은 벼슬아치)께서 다시 오시어 덕을 베푸시네
온 성의 아이들 웃으며 서로 말하길
“노옹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

微涼颯動酷炎歸
再到軒裳宣德威
滿城兒女笑相語
想是老爺知我扉

삼가 臯水 총독께서 내려주신 물품에 답을 하며(恭答臯水總督惠賜品)

1930년 1월

상공께서 제게 이렇듯 진귀한 물품 주시어
서재에서 절하고 받고나니 너무 기뻐 미칠 것 같았네
복숭아를 던져주시니 정성된 마음으로 경옥으로 보답하리니
(주신 물건을) 출입 시에도 가슴에 품고 다니며 어찌 잊으리오

相公惠我此珍品
拜受芸窓¹²⁷喜欲狂
投桃¹²⁸報玖¹²⁹慇懃意
出入懷中豈敢忘

臯水 어른이 조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聞臯水老子來鮮)

신미년 가을

청량한 가을에 한양을 다시 방문하시니
초목 산천 모두 감읍하는 정이 있네

清秋更訪漢陽城
草木山川感遇情

127) 서실(書室)에 앉아 받았다는 뜻이다. 운창(芸窓)의 운(芸)은 즉 다년생인 운향(芸香)이라는 풀인데, 즙을 물리치는 향기를 지녔으므로 장서실(藏書室)을 운각(芸閣), 또는 운창이라고 한다. 표상(縹緗)의 표(縹)는 담청색(淡青色)의 비단이고, 상(緗)은 천황색(淺黃色)의 비단인데, 옛사람이 이것을 책의 표지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책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128) 『시경(詩經)』 대아(大雅) 억(抑)편에, “나에게 복숭아를 던져 주면 나는 그에게 오얏으로 보답한다(投我以桃報之以李)”란 데서 인용된 것으로 올바른 덕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129) 報玖: 『시경(詩經)』 시경·衛風·木瓜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匪報也, 永以為好也! 投我以木桃, 報之以瓊瑤。匪報也, 永以為好也!’가 있다.

조선의 백성들 아직도 치적을 칭송하니
언젠가는 청사에 길이 이름 얻으시리

鮮民尚頌至治績
合得他年青史名

사이토 자작이 수상이 되시어 친임하는 것을 축하하며(祝齋藤子首相親任)

1932년

扶桑을 한번 바라보니 천기는 맑고
구름을 끊고 나온 달은 비로소 빛을 드날리네
위대한 齋藤 옹의 명성과 덕망이 태산복두보다도 훌륭하니
황조에서 등용하시어 태평성세를 기대하시네

一望扶桑天氣晶
劈雲卿月始揚明
大爺聲望斗山重
徵用皇朝期太平

삼가 臯水 수상에게 바치다(謹呈臯水首相 并序)

1934년 4월 20일 아들 한창수가 내지견학을 갔다가 臯水 수상 각하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때 상공께서는 약간 편찮으시어 방문객을 사절하셨는데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2시간 정도를 접견하시고 근래 조선의 사정 등을 하문하신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러날 것을 고하려고 하는데 또한 귀중한 기념품을 은혜롭게도 내려주시었습니다. 때마침 비가 오자 상공께서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우산을 친히 주시며 '비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건대 이처럼 북쪽 변방에 사는 한미한 우리가 외람되게 존귀하신 일국의 총리로부터 특별 은혜의 혜택 을 입은 것은 그 영광을 애초에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하물며 그 부형된 처지에 있으며 어찌 그 황송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념품과 우산은 정중히 간직하고 아끼어 보호하며 우리 집안 대대로 보물로 삼았으며 시 한수를 엮어 보잘 것 없는 저의 정성을 모두 기록합니다.

동도의 소식 우리 아이가 편에 들으니
臯水 어른을 뵈었다 하네
萬頃의 은파 바다와 같이 넘실대기에
정성된 마음으로 태산복두 같은 어른께 잔을 올립니다

東都消息聽兒來
得謁臯翁壯眼開
恩波萬頃潤如海
把獻微忱斗山杯

미나미 지로 대장께서 친히 은혜로이 써주신 것에 감사하며(謹謝南次郎大將親筆惠賜)

갑술 7월 既望에

우러러 뵈길 태산복두와 같이 한 것 이미 수 년
공경스레 휘호를 받잡으며 기뻐 잠도 오지 않네
졸저의 첫머리에 넣으니 (내 책의)광채가 배가 되는 듯
특별한 은혜 깊이 느끼며 대대로 보물로 전해주리라

仰如山斗已多年
祇奉揮毫喜不眠
首題拙集倍增彩
竊感殊恩世寶傳

병자년 신춘에 삼가 사이토 대신에게 바치다(丙子新春謹呈齋藤內大臣)

昭和의 시대, 천지는 봄을 맞이하네	昭和天地迓新春
어른께서는 보필하는 신하로 계시어	老子方居輔弼臣
오색 구름 서린 깊은 곳에서 천황을 가까이 모시며	五雲深處 天顏近
머리는 백발이지만 뜨거운 충정으로 내각에 계시네	白髮丹忱在協寅

皁水 어른을 애도하며(哭皁水老子)

(1936년 2월 26일 薨去하셨다)

동양의 인물이라 칭해진 이분께서	東洋人物稱斯翁
무슨 일로 갑자기 돌아가셨나	何事奄然不考終
가만히 지난번 말씀드리지 못한 걸 생각해보니	靜憶曩時欲無語
눈물이 날리는 눈과 하나 되어 차가운 바람에 흩어지네	淚和飛雪灑寒風

홍보에 세상사람 모두 놀라니	凶音一出世皆驚
나만 통탄하며 실성한 것이 아니구나	非直惟吾慟失聲
공처럼 공훈과 업적을 쌓은 이를 다시 어찌 얻으리오	如公勳業更何得
불후의 명성 청사에 길이 전해지리	青史長傳不朽名

빛나는 편지 연이어 쉬지 주셨으니	赫蹄陸續無虛月 ¹³⁰⁾
천리의 교분이 나보다 더한 이는 없으리라	千里神交莫我加 ¹³¹⁾
이미 남은 여생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니	已矣餘生難再合
유묵을 만지며 눈물을 삼대처럼 주룩주룩 흘리네	摩挲遺墨淚如麻

공과 함께 서리가 내리는 것을 즐겼고	與公一識甘霜餘
깊이 은혜를 입은 것이 바다와 같네	深荷恩光河海如
근역도 내지의 州域과 하나로 보시고	槿鄉把視并州域
영혼이라고 찾아오시길 바라나이다	庶幾英魂訪我居

130) 얇고 작은 종이. 편지. 여기서는 寺內총독이 준 詩 또는 휘호를 지칭하는 듯하다.
 131) 속세를 떠나 자연에 동화된 상태의 차원 높은 교분을 나누자는 뜻이다. 『장자(莊子)』 추수(秋水)에 초왕(楚王)의 사신을 물리치고 복수에서 낚시를 했던 장자의 고사와, 친구 혜시(惠施)와 함께 호량(濠梁) 위에서 물고기의 뛰노는 것을 즐겼던 장자의 고사가 실려 있다.

미나미 지로 대장이 조선총독으로 친임하는 것을 축하하며(祝南次郎大將朝鮮總督親任)

1936년 11년 8월

조선에 총독으로 다시 오시는 걸 환영하니	鰈域再迎熊軾來 ¹³²⁾
그늘진 벼랑의 초목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되리라	陰崖草木發榮回
바다와 같고 산과 같은 은혜를 특별히 받았으니	曾荷殊恩如海嶽
미천한 제가 미력이라도 보태어 보답하려는 정성 더욱 간절하나이다	淺誠尤切報涓埃 ¹³³⁾

미나미 총독을 알현하고 감회를 쓰노라(謁南總督述感)

병자년 9월 8일

초가을에 총독께서 조선에 부임하시니	總督新秋拜舊緣
접대해주시는 온화한 기운에 문득 따뜻해졌네	接人和氣覺溫然
華美함을 거두어 質實함을 취하며 言外之意를 드러내시니	歛華就實露言表 ¹³⁴⁾
어찌 이리 늦으셨냐는 노래 소리 강토 내에 연이어 올리네	來暮歌聲疆內連 ¹³⁵⁾

갱생부락 시찰 감상을 미나미 총독에게 써서 바치다(更生部落視察感想書呈南總督¹³⁶⁾)

농촌과 어촌에 오늘 날 갱생부락이 늘었지만	農漁今日更生積
태반은 내용이 허식이라네	太半內容虛飾爲
형식적인 것은 근본책이 아니니	形式此非根本策
실천하여 통치에 들어맞게해야 한다고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不言踐實適當治

1936년 11월 1일 미나미 총독이 북선시찰에 올랐다가 귀임하시던 도중에 前津驛¹³⁷⁾에서 잠시 하차를 하셨다. 특별히 접견하시며 휘호도 주셨기에 시 한편을 지어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昭和十一年十一月一日 南總督 北鮮視察歸任途中 於前津驛 暫時下車 而特爲接見 兼贈揮毫 卽賦一絕 以表感謝之微衷焉)

삼가 총독을 환영하며 금과 같이 고귀한 말씀에 절하노니	奉迎玉節拜金言 ¹³⁸⁾
--------------------------------	-------------------------

132) 수레의 식(軾)을 곰의 형상으로 꾸민 화려한 수레를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여복지 상(輿服志上)에 “삼공(三公)과 열후(列侯)는 녹교(鹿較)·웅식(熊軾)에 검은 깃발을 단 수레를 탑승한다.”고 하였다

133) 한 방울의 물로 바다에 보태고, 한 티끌로 태산에 보탠다는 뜻이다

134) 『논어(論語)』 헌문(憲問)의 제37장 대주에 나오는 정자(程子)의 주설(註說)인 ‘下學上達·意在言表’에서 나왔다.

135) 한(漢) 나라 염숙도(廉叔度)가 촉군 태수(蜀郡太守)가 되어 선정(善政)을 베푸니 백성이 노래 부르기를, “염숙도는 왜 늦게 왔는가.(廉叔度 來何暮)” 하였다.

136)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 진행될 때 7만여 개를 전후한 촌락을 대상으로 갱생부락(更生部落)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1910년의 동리 수 6만 3천여 개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137) 함남 홍원에 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 같은 은혜를 입었나요
공과 같은 자애와 덕망은 고금지간에도 드무니
깊이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겠나이다

我是何人荷此恩
如公德愛稀今古
深鏤靈臺不敢諼¹³⁹⁾

미나미 총독이 조선의 고령자 초대연을 개최한다는 것을 듣고(聞南總督全鮮高齡者招待宴開催)

1936년 11월 9일

옛날 태평성세에는 기영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오늘, 용산에서 경로연이 열렸네
총독의 온정에 모두들 감동의 눈물 흘리니
위로의 마음과 성대한 잔치 실은 이전에는 없었네

昔聞昭代耆英會
今有龍山敬老宴
總督溫情皆感泣
慰安盛典實空前

三老寓慕詩選을 편집하고 난 후 감상(三老寓慕詩選編輯有感)

근역 팔도 모두 은혜의 빛을 입었으며
세 어른의 영명한 풍모는 백세보다도 더 길이 남으리
받은 것은 산과 같으나 갚을 길이 없어
三老寓慕詩選 한 권을 지어 양모의 정을 표하네

槿花八域摠恩光
三老英風百世長
受賜如山報無述
選詩一卷是羹牆

〈출전 : 韓準錫 『三老寓慕詩選』, 井上清方, 1937년 6월 5일〉

7. 『경남일보』 게재 친일시문(1909~1913)¹⁴⁰⁾

1) 이등공조화상보(伊藤公遭禍詳報)

고(故) 태자 태사공작(太師公爵) 이등박문(伊藤博文) 씨가 이번에 북만주 여행 중에서 불행히 암살을 입음은 오인(吾人)의 이미 아는 바이거니와 지금 그 상보를 기재하노니

138) 옥으로 만든 부절(符節)인데, 천자의 사신을 옥절사(玉節使) 혹은 옥절랑(玉節郎)이라고 한다. 여기서 미나미 총독의 행차를 지칭한다.

139) 靈臺는 마음이다.

140) 『경남일보』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경남 진주에서 창간되어 한일합병 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함께 발행 허가된 유일한 지방일간지로서, 1909년부터 1913년 사이에 위암 장지연이 주필을 지냈다. 장지

이등공이 지난 10월 18일에 철령환(鐵嶺丸)을 탑승하고 대련만에서 상륙하여 여순(旅順)·봉천(奉天)·장춘(長春) 등 각지를 유력(遊歷)한 후 지난 26일 오전 9시에 다수의 수행원과 함께 하얼빈(哈爾濱) [중국 길림성에 있으며, 반은 러시아령이다(在淸國吉林省半是俄領)] 정거장에 도착하니 러시아와 일본 양국 관민이 다수 출영(出迎)하고 우리 병사들이 좌우에 파렬(擺列)하였는데 아국(俄國) 대장대신(大藏大臣) 고고소오아우 씨가 열차 내에 내방함에 따라 약 20분간을 담화한 후에 동지(同地) 주재 일본영사 천상(川上) 씨의 선도로 일동 하차하여 각국 외교단과 청·러시아 군대와 문무 관리와 기타 환영 제단체가 정렬(整列)한 앞으로 보행하면서 순차 악수를 행한 후 다시 돌아서려할 때에 아국(俄國) 군대의 정렬한 측에서 돌연히 굉폭(轟爆)의 성(聲)이 발하면서 수명의 양장(洋裝)자가 군중을 밀치고 전면(前)에 도출(挑出)하여 3개의 탄환이 우복배부(右腹背部)를 적중하여 이내 곧 쓰러져 혼절(昏絶)한지라 만철(滿鐵)¹⁴¹⁾ 총재 중촌(中村) 씨가 공(公)을 둘러싸고 아국 관헌이 일동 구호(救護)하여 기차 내로 환입(還入)함에 일본 의사 2명이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한 발은 폐부(肺部)를 관통하고 두 발은 복부에 들어가 30분간에 드디어 절명하였는데 일본영사 천상 씨와 비서관 삼괴남(森槐南) 씨와 만철이사 전중(田中) 씨도 또한 모두 탄환을 맞아 급히 치료하는 중이라더라.

이등공의 유해는 동일 오전 10시에 기차로 발귀(發歸)하여 다음 날 아침 8시에 대련에 도착하였는데 군함 추진주(秋津洲)에 탑재하여 본월 2일 신교역(新橋驛)에 도착한 후 군대로써 호위하고 4일 오전 9시에 영남관관저(靈南阪官邸)에서 출구(出柩)하여 대삼은사관(大森恩賜館)부근에 국장례(國葬禮)를 행하였고 상주는 그 사자(嗣子) 박방(博邦) 씨가 현재 프랑스의 수도 파리(巴里)에 있으므로 차자(次子) 문길(文吉) 씨로 대주(代主)한다는데 일본 황실에서 국장비로 4만 5천 원을 하사하시고 종 1위를 가증(加贈)하였다더라.

행흉자(行兇者) 포박 이등공을 암살한 자는 즉시 아국(俄國)관헌이 포박하여 일본 영사에게 압교(押交)하였는데 아국(我國)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사람 안응칠(安應七)이라 불리는 자이니, 현재 나이 31 세오. 천주교도로서 3~4년 전에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로 왕왕하던 자라 포박할 당시에 또한 그 도당 6~7명 수포(搜捕)하였고 그 외에 혐의 연계자로 피포(被捕)한 자 수십 인인데 그 예심지(豫審地)는 관동(關東) 도독부 고등법원에서 할 터인 고로, 지난 달 31일에 이 수범(首犯)을 여순으로 압송하였다더라.

〈출전 : 『伊藤公遭禍詳報』, 『慶南日報』, 1909년 11월 5일〉

연이 주필을 지내는 동안 『경남일보』는 처음에는 실업장려와 민지개발 등을 표명했으나 의병진압에 대한 관찰사와 일본군 수비대의 동정을 게재하는 등 일제 통감정치에 부응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일합병 후 1910년 10월 11일자에 매천 황현의 절명시를 게재하여 정간을 당한 후 같은 달 25일 다시 재발행되면서 신문의 논조가 노골적인 친일협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즉 일본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마다 제호에 일장기를 게재하고 특집호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는 보도내용으로 신문을 꾸몄는데, 이 시기 위암 장지연이 주필로 있었다. 이번 사료집에 실은 글들은 장지연이 주필로 있던 1909년부터 1913년 시기에 게재된 친일시문을 뽑아놓은 것이다. 이후 장지연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필을 그만두고 마산으로 이주하면서 『경남일보』는 1915년 경영난으로 폐간되었다.

141)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러일전쟁 후 획득한 중국 동북지역의 침략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회사.

2) 황상폐하우례은전(皇上陛下優禮恩典)

황상폐하께서 이등박문(伊藤) 태사(太師)의 변보(變報)를 접하시고 □□(□□)하심을 불기(不己)하셔서 27일에 즉시 시종원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을 명하셔서 대련(大連)으로 전왕(前往) 위문하게 하시고 덕수궁에서도 승녕부(承寧府) 총관 조민희(趙民熙)를 명하여 위무하게 하셨는데 윤, 조 양(兩)칙사와 이총상(李總相)¹⁴²⁾은 당일 광제호(光濟号)를 탑승하고 대련으로 발향(發向) 도착하자 태사 영구(靈柩)가 이미 떠났으므로 전속력으로서 해중(海中)에 추지(追至)하여 다만 조례(吊禮)만 요시(遙施)하였고

다음날 28일에는 관보 호의로써 태사의 홍서(薨逝)함을 반포(班布)하였고 동(同) 오후 3시에는 황상폐하께서 친히 통감부(統監府)에 훈가(勳駕)하셔서 조위례(吊慰禮)를 행하시고 3일간 정 조시(朝市) 정 음악의 명(命)을 내리시며

우약(優渥)¹⁴³⁾하신 조칙(詔勅)을 특별히 내리시어 관내부로 장수(葬需) 십만 원을 하사케 하시고 절혜지전(節惠之典)을 특거(特舉)하사 문충공(文忠公)의 익호(諡號)를 하사하시니라(道德博文曰文慮國忘家曰忠) 다음 29일에 황태자 폐하께서 이등태사의 상(喪)에 사제(師弟)의 예로 3월 심상(心喪)의 복제(服制)를 반시(頒示)하셨고

궁내부 대신 민병식(閔丙奭)을 명하사 일본국에 전왕(前往)하여 이등태사의 장례에 참렬(參列) 치제(致祭)케 하시고 승녕부(承寧府) 부총관 박제빈(朴齊斌)은 태황제 폐하의 칙명을 봉승(奉承)하여 장례 참석차 같은 날 발정(發程)하였다더라.

○ 각 대표 조위(吊慰)

이등태사 장의(葬儀)에 참여하기 위하여 추밀원 의장 김윤식(金允植) 씨는 원로대표로 농상(農相) 조중응(趙重應) 씨는 내각대표로, 유길준(俞吉濬) 씨는 한성부민 대표로, 고희준(高羲駿) 씨는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 대표로, 조진태(趙鎭泰) 씨는 실업단 대표로, 정병조(鄭丙朝) 씨는 종교단 대표로 홍공섭(洪肯燮) 씨는 일진회 대표로 함께 도일(渡日)하였다더라.

○ 연루(連累)자 피포설(被捕說)

이번 이등태사 암살사건에 대하여 행흉자(行兇者)의 거주지의 관계로 모모(某某) 저명자(著名者)들도 혐의로 피체(被逮)한 자 많고 또 기타 각지에 하류 인민 간에도 왕왕(往往)히 언어를 불신하다가 피착(被捉)한 자 많다더라.

吊
伊藤公輓詞
天性英傑與時酬

142) 총리대신 이완용을 뜻함.

143) 은혜가 매우 넓고 두터움을 뜻함.

壯歲功名到白頭
堪恨白山埋骨意
西風吹送吉林秋

1.

身佩安危五十霜
家家爭誦姓名香
不但經綸完事業
文學風流亦擅傷

2.

忘身憂國鬢成華
宇內場各政治家
玉笛聲中懷舊感
可憐寒月照黃花

3.

〈출전 : 「皇上陛下優禮恩典」, 『慶南日報』, 1909년 11월 5일〉

3) 관찰사의 면유민인(面諭民人)(1~3)

관찰사의 면유민인¹⁴⁴⁾

본월(本月) 10일에 본도(本道) 관찰사(觀察使) 황철(黃鐵) 씨가 주사(主事) 조명진(趙明晉) 씨를 대동하고 진주(晉州) 수비대장과 산청지(山淸地) 덕산(德山) 수비대에 출왕(出往)하여 산청(山淸) 하동(河洞) 단성(丹城) 삼군 인민 600여 명을 취집(聚集)하고 폭도 귀순에 관한 의미로 훈유(訓諭)하였는데 그 대요는 여좌(如左)하니

본사(本使)가 이번 수비대장과 내차(來此)함은 오로지 폭도 귀순 권유에 관함이라. 그러나 대소(大小) 인민은 농무번망(農務繁忙)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이 취집함은 실로 감사함이라. 본사가 작년에 하동(河東)으로 내차할 때에 하동군에는 귀순한 폭도가 96명 내에 90명은 전비(前非)를 회개하여 영원히 선량한 인민이 되고 6명은 전비를 복도(復蹈)하여 필경 5명은 피살되고 1명은 종적이 불명하며, 산청군(山淸郡)에는 76명 내에 74명은 전비를 회개하여 역시 선량한 사람이 되고 2명은 종적이 불명하니 하동 6명과 산청 2명으로 하여금 모두 선량한 사람이 못되게 함은 본사의 실로 유감 된 바라. 금번 전

144) 첫 번째 글의 제목에만 '民人'이 아닌 '人民'으로 되어 있다. 연속되는 글이어서 통합했다.

남(全南) 폭도 대토벌한 결과로 이학증(李學曾), 이백인(李伯仁) 서(徐)모 등이 자칭 대장이라 하고 부하 7-80여 명을 영솔(領率)하고 전남으로부터 경남지방으로 도월(逃越)하여 지리산을 근거지로 삼고 하동, 단성, 삼가(三嘉), 함안(咸安), 사천(泗川), 삼천포(三千浦), 안마산(安馬山) 등지로 출몰이 무성하며 잔민(殘民)을 협박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우민(愚民)을 권유하여 입당(入黨)을 위협함에 우민은 곧 피해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 재산약탈을 당하여도 감히 일언(一言)을 발하지 못하고 은닉(隱匿)으로만 위주(爲主)하니 이는 멸망(滅亡)을 자초하는 것이다.

내가 작년에 내차할 때에 간절히 혼유하였거니와 대저 인민의 중요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 식(食)이 곧 민천(民天)이니, 민의 부는 곧 국가의 부라. 폭도무리가 인민의 재산에 해함은 즉, 국가의 부를 해함 인즉, 민과 국가가 부유하지 않고 천하에 독립국이 어찌 있으리오. 그러나 저 무리가 상이충군(常以忠君)이니 애국이니 하면서 우민을 광혹(誑惑) 선동(煽動)하여 지금까지 수 3년에 우리나라 인민의 성명 재산(姓名財産)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悲境)에 빠졌는고. 이는 본사(本使)가 말하지 않아도 일반 인민들이 모두 아는 바라. 그러나 저 이학증(李學曾), 이백인(李伯仁), 서모(徐某)등이 지금이라도 전의 죄를 뉘우치고 개심하여 귀화하면 역시 일반 양민으로 인정하여 미래의 행복을 함께 누릴게 할 것이니 인민 등은 아무쪼록 본사의 이와 같은 성의를 저 무리에게 전달하여 후회가 없게 함을 절망(切望)하노라. (미완)

항 관찰 귀인. 본도 관찰사 황철(黃鐵) 씨는 산청 하동 단성 등 군인민에게 폭도귀순에 관한 일을 면유(面諭)¹⁴⁵⁾하고 그저께 환임(還任)하였더라.

(이상 1)

관청취보(官廳彙報) - 관찰사(觀察使)의 면유민인(面諭民人) (속)

이번 수비대의 방침으로 말하면 소수의 폭도가 촌락을 침입하면 해촌(該村)의 민력(民力)이 능히 폭도를 포박할만 하되 후환을 생각하여 도리어 선대은닉(善待隱匿)하는 일이 혹 있으면 해당 촌은 폭도의 간련(干連)¹⁴⁶⁾으로 인정(認定)하여 필경 오살(鑿殺)¹⁴⁷⁾을 면키 어려울 것이니 일반인민은 이 말을 체청(諦聽)¹⁴⁸⁾하여 후회 없이하고 또한 각각 귀가 후에 대소 촌민에게 일체 애절히 전론(傳諭)하되 그 전론 여부는 차후 수비대장이 촌촌 순회하면서 인민에게 탐방할 터이니 일개 촌민이라도 불문부지(不聞不知)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책벌(責罰)은 여기 내참(來參)한 각 면 동장이 난면할 것이니 삼가 유념할지이다.

또한 금일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반 인민에게 특별히 훈론(訓諭)할 사(事)가 있으니 대저 오인(吾人)이 발달(發達)을 계도(計圖)고자 할진대 혹은 살육을 먼저 한다 하며 혹은 식산(殖産)을 먼저 한다 하여

145) 면전에서 말로 잘 타이름.

146) 남의 범죄에 관련이 있음.

147) 죄다 무찔러 죽임.

148) 주의하여 자세히 들음.

중중 고론(高論) 탁설(卓說)이 비등(沸騰)하나 오직 본사(本使)는 도로(道路)라 하노니 무엇인가 하면 가량(假量) 진주(晉州)에서 조(租) 일석 시가(市價)가 4원이면 여기는 조 1석 시가가 2원 이내라. 진주보다 2원이 혈함은 다름이 아니라 도로의 불통한 결과로 운임이 고등함이니 (미완)

(이상 2)

관찰사의 면유민인 (속)

그 손해(損害)는 즉 이곳 인민의 손해요. 또 수입의 물건은 이에 의하여 등귀(騰貴)한즉 수출의 물건은 혈(歇)하고 수입의 물건은 고(高)하여 양자의 수손(受損)이 어찌 크지 않으랴. 만고(萬苦) 도로가 평탄하여 우마차가 무난 통행하면 매차에 조 5백석은 능히 실을 터이니 여기에서 진주(晉州)에 이르기까지 겨우 8리가량인즉 임전(賃錢)이 매석에 10전내외인즉 불과하리니, 그러한 즉 조 1석에 대하여 1원 90전 가량이 생리(生利)가 된 즉 이는 즉 이곳 인민의 소득이라. 수입의 물건도 역시 이에 의하여 혈할 것이니 양자의 소득이 어찌 크지 않으랴. 그런 즉 일거양득의 이윤이라. 이와 같은 상황을 확지(確知)하면 여기 인민이 반드시 이의가 없을지니 내년 춘절에는 속히 진주 단성간과 진주 산청간과 진주 산동간에 진주 덕산간에 민력(民力) 부담으로 착수 할 터이니 일반민중은 진력(盡力)을 다함을 절망(切望)하노라. 또 폭도에 관한 자세한 세유(說諭)는 수비대장이 설명할 터이오. 본사(本使)는 약간 박주박효(薄酒薄肴)¹⁴⁹⁾로 미정(微情)을 표하노니 대소민인은 만족하기를 바라노라. (歛)

(이상 3)

〈출전 : 「觀察使의 面諭民人」, 『慶南日報』, 1909년 11월 16일~18일〉

4) 경절휴업(慶節休業)

본 군수 박정규(朴鼎奎) 씨는 작일(昨日) 각 면장에게 유고문(諭告文)을 발함이 여좌(如左)하니 내월(來月) 3일은 천황폐하 탄생일 천장절(天長節)이라 국민이 전체 휴업하고 축의(祝意)를 표하는 날인 고로, 전일(全日) 개시(開市)를 다음 4일로 연기(延期)할 사(事)로 정한지라 이 취지(趣旨)를 일반 인민에게 무유(無遺) 시달(示達)하여 국기(日章旗)를 문 밖에 게양하고 성절(聖節)의 의(意)를 표하라 하였다더라.

〈출전 : 「慶節休業」, 『慶南日報』, 1910년 10월 27일〉

149) 소박한 술과 소박한 안주.

5) 천장절 축하의식

본사의 주최로 오는 11월 3일 천장절의 축하의절은 당지(當地) 성내(城內), 대안(大安), 봉곡(鳳谷), 옥봉(玉峰), 각 면·동장과 유지(有志), 신사(紳士)와 협의하여 좌(左)와 같이 정함.

- 당일 오후 당지(當地) 수정봉상(水晶峰上)에 '축천장절(祝天長節)' 4대자(四大字)의 의식으로 천지(千枝)의 등화(燈火)를 괘장(掛張)함
- 당야(當夜)에 각 면·동 신사(紳士) 등은 동(同)장소에서 경축회(慶祝會)를 개최함.
- 당야에 경축 여흥(餘興)은 각 그 기예를 연장(演張)함.
- 당야 12시에 개최함.

〈출전 : 「天長節祝賀儀式」, 『慶南日報』, 1911년 10월 31일〉

6) 축 천장절

동쪽 바다 일본에서 해가 떠오르니 태양이 빛나는구나	日出扶桑 赫赫太陽
무지개와 북두성이 정기를 길러 우리 천황께서 나셨다	虹斗毓精 誕我天皇
보위에 오르신지 44년 동안 성수무강하셨네	踐阼四四 聖壽無疆
덕과 은혜가 두루 미치고 위엄이 널리 빛나는구나	德惠被溥 威嚴宣光
못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니 우리 동양의 기초를 세우셨네	撫恤羣黎 奠我東洋
오호라 이러한 해가 만년이 되어 영원하리라	於萬斯年 地久天長

〈출전 : 「祝天長節」, 『慶南日報』, 1911년 11월 2일〉

7) 천장절 축하 성황

예보와 같이 그저께 상오(上午) 9시 30분으로 시작하여 천황폐하 어진배하식(御眞拜賀式)을 거행하고 동(同) 11시 도청(道廳) 정전(庭前)에서 일선인이 합동하여 취집(聚集)한 후 향천(香川)장관이 축사한 후 이어 만세를 삼창(三唱)하고 원유회(園遊會)를 열었는데 과자, 다주(茶酒), 고기 등의 모의점(模擬店)에서 다수 환락을 함께하고 일본 예기(藝妓)의 수용(手踊)¹⁵⁰⁾과 조선 기생의 가무로써 일대 희락을 정(呈)하였고 동(同) 하오 6시에는 망월루(望月樓)에서 일선인의 대간친회(大懇親會) 겸 축하식을 설행(設行)하여 경무부장 전전승(前田昇) 씨가 축배를 수연(首演)하고 진주(晉州) 만세(萬歲)를 삼창한 후 식탁에 취(就)하여 일본기생의 수용, 조선기생의 가곡 중으로 일장(一場)에 굉주(觥籌) 교착(交着)하여 한전

150) 手踊り : 사미센(三味線)에 맞추어 추는 춤. 앉아서 손으로만 추는 춤.

(罕前)의 성황(盛況)을 정(呈)하였더라.

〈출전 : 「天長節祝賀盛況」, 『慶南日報』, 1910년 11월 5일〉

8. 기타

1) 『대동사문회보』 창간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읊을 하고서 묻기를,
“대동사문회보는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하기에, 내가 응답하기를,
“대동사문회가 이행한 사업을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자, 또 묻기를,
“대동사문회는 무엇을 위하여 설립한 것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우리 사문(斯文)이 시들시들해져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묻기를,
“무슨 이유로 사문이 시들시들하여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물었으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의 사문으로 말하면, 울연히 일어났다가 찬연히 이루어졌는바, 아주 아름다워서 주(周)나라와 노(魯)나라의 풍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00년이 지나는 사이에 문운(文運)이 점차 쇠해져 왕도(王道)가 크게 쇠미해졌습니다. 이에 시골에서 글을 읽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히 성인의 글을 읽으면서도 능히 성인의 일을 행하지 못하여, 재주를 감추고 자취를 숨긴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특한 설이 더욱더 치성해지고, 퇴폐한 풍속이 점점 더 불어나, 마치 홍수가 하늘에 닿는 것과 같아 이미 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된다면 마침내는 서로 간에 함께 물에 빠져 죽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사문이 점차 시들시들해져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사문이 쇠약해진 것이 과연 그와 같습니까? 제가 일찍이 듣건대, ‘한 사람이 인(仁)에 흥기하면 한 나라가 인에 흥기하고, 한 사람이 양(讓)에 흥기하면 한 나라가 양에 흥기한다.’ 하였습니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펴본다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공부가 능히 그 자신의 한 몸만을 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히 천하의 사람들을 착하게 할 수 있는바, 때에 따라서 잘 행한다면, 한 사람만 있어도 역시 그 도를

강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여러 사람을 끌어 모은 이후에 능히 성인의 도를 강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여서 임금의 스승이 되는 자리에 있으며, 어질어서 은택을 끼칠 수 있는 직임을 맡고 있다면,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시대를 걱정하고 세상을 구하는 방도는 참으로 한 사람의 지혜로써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식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뜻을 달리 하는 사람은 떼어버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모으는 의리로써 동지들을 규합하여 서로 제휴하고, 시골에 숨어사는 선비들의 마음을 일깨워 정신을 가다듬게 한 다음, 기질을 변화시켜 후학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방도로 길러 영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륜이 거둬 밝혀지고 예의를 다시 행해지게 해, 하늘이 준 착한 성품을 되돌리고 양의 기운이 다시 오게 해, 도가 쇠퇴해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이 거꾸로 되고, 새와 짐승과 뒤섞여 사는 것을 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이 대동사문회를 설립한 것이 세도를 만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조선사문회라고 하지 않고 대동사문회라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현재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 천하가 문명(文明)하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문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데, 그것을 일러 우세한 자가 이기고 열세한 자가 지는 것이라고 하며, 계명(鷄鳴)¹⁵¹으로써 이익을 삼고, 학주(壑舟)¹⁵²로써 욕심을 삼는데, 그것을 일러 살아 남기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창과 칼로 서로 해쳐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는데, 까마득히 먼 왕도(王道)는 논할 것이 못된다고 할지라도, 패도(霸道)를 가지고 인(仁)과 의(義)인 척 하는 것마저 오히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풍기(風氣)가 점차 실추되고, 도의(道義)가 함께 상실되어, 우리 사문(斯文)이 미치는 범위 안의 5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깜깜한 밤에 부는 비바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범의 꼬리를 밟으며 사람을 무는 시대¹⁵³에는 우리 사문을 부흥시켜서 대동(大東)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역시 옳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지금 자그마한 지역에 한 모임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 대동의 천지로 하여금 능히 환하게

151) 계명(鷄鳴) : 계명구도(鷄鳴拘盜)와 같은 말로, 비열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시대 때 진 소왕(秦昭王)이 맹상군(孟嘗君)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 하자, 맹상군은 그의 문객 중에서 개 도둑질 잘하는 사람을 뽑아 진나라 궁중에 있는 호백구(狐白裘)를 훔쳐 내게 하여 진 소왕에게 바치고 풀려난 다음, 또 문객 중에서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내게 하여 관문이 열리게 해 국경을 탈출했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史記』 孟嘗君傳

152) 학주(壑舟) : 『장자(莊子)』에 “구렁(壑)에다 배(舟)를 숨겨 놓으면 견고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등에 지고 달아나 버리면, 우매한 자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 말은 흔히 모든 사물이 끝까지 안전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큰 것을 훔치는 뜻으로 쓰이었다. 『莊子』 大宗師.

153) 범의……시대 : 강자가 약자를 해치는 위태로운 시대라는 뜻이다. 『주역(周易)』 이괘(履卦) 육삼효(六三爻)에 이르기를, “범의 꼬리를 밟아 범에게 물리니 흉하다.(履虎尾 咥人 凶)”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다시 밝아지게 하는 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성인(聖人)의 도는 해와 달의 광명과 같아, 해와 달이 한쪽 방면에서 떠오르면 천하가 밝아질 것임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란하게 다시 밝히는 공을 이룰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다시 또 묻기를,

“이미 사문이 시들시들해져 떨치고 일어나지 못함이 과연 오늘날과 같다면, 이처럼 한창 위급한 시기에 어느 누가 성인의 도를 강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강구하고자 하더라도 어느 겨를에 밝은 공효가 크게 징험되겠습니까. 저로서는 기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 가운데 배 안에서도 『대학(大學)』을 강론한 자가 있었던 것¹⁵⁴⁾은, 짧은 사이에서도 마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과연 학문을 강론하여 그 실재를 구하고 그 실재를 실천하면서 오늘 한 가지 나쁜 점을 고치고 내일 한 가지 착함을 행하여,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간다면, 7년 묵은 병에 3년 된 썩을 구한 것¹⁵⁵⁾을 증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에 대한 공효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또 묻기를,

“그렇다면 이 사문회를 설립하였다면 온힘을 다해 행해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또 회보를 만든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어째서 그런 것을 물어십니까? 성인이 오늘날에 나와서 비록 각자에게 귀에 대고 고해주고 얼굴을 대고 명해 주더라도 오히려 집집마다 가서 깨우쳐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성인의 문호(門戶)를 설립하고 성인의 경전(經傳)을 강구하고, 형이상학(形而上學)의 도(道)와 형이하학(形而下學)이 기(器)를 구하면서, 크게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부터 작게는 일용사물(日用事物)에 이르기까지를 해박하게 되었을 경우, 요행히 한 경의 장구(章句)를 사숙(私淑)하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 나아가 질정(質正)을 해야 하고, 다행히 한 선비가 경행양지(景行仰止)¹⁵⁶⁾함을 얻게 되었으면,

154) 옛사람……것 : 송나라의 육수부(陸秀夫)가 배 안에서 『대학』을 강론한 것을 말한다. 육수부는 남송(南宋) 말년에 원(元)나라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장세걸(張世傑) 등과 함께 익왕(益王)을 세우고 피신하였으며, 익왕이 죽자 다시 위왕(衛王)을 세워 쓰러져가는 송나라를 안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였는데, 피난하느라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날마다 『대학장구(大學章句)』를 써서 강론하였다. 그 뒤 원 나라 군대가 애산(厓山)을 격파하자 처자를 장검으로 위협해 바다에 몰아넣고 자신은 위왕을 등에 업은 채 바다에 빠져 죽었다. 『宋史』 卷451.

155) 7년……것 : 오래 된 병통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을 얻은 것을 뜻한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지금 천하에 왕을 하려는 것은 마치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약썩을 구하기와 같으니, 이제부터라도 미리 약썩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종신토록 얻지 못할 것이다(今之欲王者 猶七年之病求三年之艾也 苟爲不畜 終身不得)”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56) 경행양지(景行仰止) : 고상한 덕행(德行)을 말한다. 『시경』 「소아(小雅)」 거할(車轡)에 이르기를, “높은 산처럼 우러러 보며, 큰 길을 행하도록다.(高山仰止 景行行止)”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이 세상에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권과 한 질의 서책을 얻었으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야 하고, 한 장(章)과 한 편(編)을 저술하였으면 이 세상에 두루 퍼뜨려야만 합니다.

옛날의 일에 대해서는 두루 알면서 오늘날의 세상에는 통하지 못하는 것은 도(道)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에 빠져서 옛날을 스승으로 삼지 못하는 것도 역시 도가 아닙니다. 『주역(周易)』에서 “물건을 구비하여 쓰임을 지극히 하고, 기물을 이루어 천하의 이로움을 삼음은 성인보다 더 큰 것이 없다.(備物致用 立成器 以爲天下利 莫大乎聖人)” 하였습니다. 그러니 부득불 시무(時務)를 연구하고 사리(事理)를 통달하여, 잘 이용할 만한 한 가지 물건을 얻었거나 우리의 삶을 두텁게 해 줄만한 한 가지 일을 얻었을 경우, 또한 세상에 널리 배포하여야 합니다.

그 나머지 문첩(文牒)이 오가는 것이나 비용(費用)이 출납(出納) 되는 것이나 집회(集會)의 의안(議案) 등은 일일이 세상에 공표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회보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보가 만약 널리 배포되고 두루 유포된다면, 비단 본회의 동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동(大東)의 동포들이 모두 흥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보가 어찌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묻기를,

“회보 사이에 시사(詩詞)를 끼워 넣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시(詩)라는 것은 성정(性情)을 바르게 하고, 풍화(風化)를 고무시키는바, 시 역시 한 가지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풍(風)에는 채빈(采蘋)과 채번(采芣)이 있고, 아(雅)에는 행위(行葦)와 형작(洞酌)이 있는데, 이는 충신(忠信)을 밝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시가 인심과 풍속에 관계됨이 이와 같이 큼니다. 그러니 고급의 시사(詩詞)를 넣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문체(文體)에 각각 같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기에, 답하기를,

“순전히 한문(漢文)으로만 쓴 것은 훈고(訓誥)의 체(體)를 써서 노성(老成)한 숙덕(宿德)에게 강론하기 위한 것이며, 언문(諺文)을 섞어서 쓴 것은 언문으로 뜻을 해석하여 몽매한 사람들을 권장하기 편하게 한 것이며, 혹 순전히 언문으로만 쓴 것은 부인네나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한번만 보고서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각자의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감화시킴에 있어서 같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객이 그 말을 듣고 환히 깨닫고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장차 이 대동사문회보를 가지고 목탁(木鐸)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서로 간에 문답한 내용을 가지고서 첫머리에 실어 서문으로 삼는 바이다.

〈출전 : 大東斯文會, 「大東斯文會報創刊文」, 『大東斯文會報』 1호, 1920년 4월 30일〉

2) 모로하시 데쓰지(諸橋轍次), 일본정신과 유교

문학박사 모로하시 데쓰지 선생 강술

제1강 양자의 관계

본 강의의 목적

일본정신과 유교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본 강론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2강 이하는 전부 유교에 관한 것이지만, 그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으로부터 이것을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 일본정신의 해부

내용에 들어가서, 지금 가령 일본정신을 해부한다고 제목을 붙여 보았으나, 제 자신은 일본정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 물어 보았습니다. 입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간단하며, 그 극의(極意)를 전부 다 들을 수가 없지만, 그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좋은 서책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더니, 몇 가지의 책을 그러한 사람들로 부터 제시받았으므로, 자신의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 보았으나, 역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일본정신론의 결정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정신론을 하고 왔던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제가 추정한 것이지만, 대체로 본질론과 역사론과의 두 가지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감의 씨나 가지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에서도 감나무가 되거나 가지 나무가 되어서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일본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본정신의 본질을 천명(闡明)하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러한 특수한 것은 없어도,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발 가운데 들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며, 그 외부를 둘러싼 사정에 따라서 양성된 것을 일본정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과 조금이야기가 달라진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발달의 변천에 의하여 배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내려 온 국학자 중에는 이 본질론을 취하는 사람이 많으며, 역사가 중에는 역사론을 주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A. 본질론

본질론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 관찰하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국민성격론입니다. 그 둘째는 국민풍격론이며, 그 셋째는 국민이 대외문화에 대한 태도론입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는 본질론이라고 말해도 역사를 머리에 넣어서 말하는 것임으로, 다분히 역사론의 요소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격론

성격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독특한 것이 있으며, 그러한 것이 바로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독특한 국민성이라는 것에는 옛날부터 들고 있었던 것에 국학자들이 자주 말하는 바의,

명(明)·정(淨)·정(正)·직(直)

(1) 밝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곧은 마음이라는 것, (2) 사물의 불쌍함을 안다는 것, (3) 진심이라는 것, 등이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1)의 밝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곧은 마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우리나라의 조칙(詔勅) 등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확실히 국민성의 하나일 것입니다. 밝게 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 없는 요즘 말로 한다면 명랑한 것이겠지요, 깨끗함이란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표리(表裏)가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는 것일 것이며, 나아가서 곧은 것은 치우치지 않는, 무엇을 생각해봐도 순박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무어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성의 한 가지 특색일 것입니다.

사물의 불쌍함

또 (2)의 사물의 불쌍함을 아는 마음이란, 자연에 대해서도 자연에 친숙해지는 마음도 될 것이며, 인간계의 도(道)로서는 자비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단풍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때에도 우리 국민은 자연을 상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좁은 뒷골목 연립주택에도 반드시 1평이나 2평의 뜰이 갖추어져 있고, 마루(床)에는 분재(盆栽) 같은 것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강하다는 것, 반대로 말한다면 잔인성이 없다는 것, 이것은 확실히 다른 국민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불쌍함을 마음으로써 우리 국민성의 한 특질을 이루는 것은 이의(異議)가 없습니다.

진심

다음에 (3) 진심이라는 것, 이것은 인생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이며, 또한 신불(神佛)에 대해서는 경건한 숭경(崇敬)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그것이 동시에 그 사람의 성격에 엄숙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히 우리 국민성의 한 특색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것으로써 곧바로 이것으로 일본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학자의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심이 존재한다. 그것이 선천적인가 경험적인가 하는 것은 별도문제라고 해도, 양심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다. 만약에 양심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면, 어느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을 완전히 발달시킬 때에, 그 도달점은 반드시 말고 깨끗하고 곧은 성실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것 역시 반드시 우리나라 유일의 일본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물의 불쌍함을 아는 것, 진심에이라는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격론(風格論)

아무튼 이상은 주로 국민성격에서 일본정신을 논하는 것이지만, 또 일면 풍격 상으로 일본정신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격과 풍격과는 다른, 성격은 질을 수반하지만, 풍격은 질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맛인 것입니다.

소쇄담백(瀟灑淡泊)

이 풍격 상에서 일본정신을 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시키면,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똑 같이 일본국민은 말쑥하고 소쇄(瀟灑: 때를 벗고 말쑥함)하며 담백한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茶)와 같은 것의 취미는 세계 어디에도 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이쿠(俳句)와 같은 풍정(風情)도 세계의 어떤 곳에도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상당히 일본국민의 풍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일본의 하나의 국민성인 것입니다.

낙천(樂天)

또 어떤 점에서 말하면, 우리 국민은 원래 낙천주의 국민인 것입니다. 쾌활한 국민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요오슈(萬葉集)와 시경(詩經)

이러한 것도 아무튼 그대로, 일본의 상고(上古)시대와 극히 가까운 지나의 상고 때를 비교하는 재료로서, 예를 들면 일본의 마요오슈(萬葉集)와 지나의 시경(詩經)을 읽어보면, 그 사이에 매우 상위(相違)한 것이 있습니다. 시경의 시(詩)는 여러 남녀의 관계도 있고, 또는 보통문학적인 취미의 것도 있으나, 태반은 시대를 원망하고 시대에 대하여 분개하거나, 비관하고 있는 시가 많다. 그러나 같은 상태에 있고 나라로서는 비슷한 나이를 가지는 시대에 생긴 우리나라의 마요오슈(萬葉集)를 보면, 모든 곳에 얼마나 낙천적이며 유쾌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항상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땅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가 많은 것입니다. 빈궁(貧窮)문답(問答)이라는 노래와 같은 것이 마요오슈(萬葉集) 안에 있다.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인간의 시이지만, 그 가난 사이에 어딘가 모르게 해학(諧謔)의 맛을 갖고 있으

며, 또 낙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경의 시가 되면, 심각한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을 보았댔자 북두칠성의 상을 보고, 그것이 국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칠성, 그것이 백성의 고혈(膏血)을 떠내는 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필(畢)이라고 하는 성좌가 있습니다만, 필(畢)이란 마치 라켓과 같은 모양으로, 새를 잡는 그물과 같은 것이나, 그 별을 본 시인은 이것도 제목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그때의 군주는 우리를 그물 치는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경의 시는 조금 뒤틀린 것에도 시대를 분개(憤慨)하고 강개(慷慨)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국민은 낙천적인 풍격을 갖고 있는 가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일일이 들어 봤자, 그것이 과연 일본정신일까 어떨까, 혹은 그러한 것을 일일이 탐색하지 않아도, 다른 국민이 일본인과 같은 풍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는가, 담백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말쑥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낙천·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또다시 여기에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대외문화 태도론

다음으로 또, 본질론을 논하는 방법에, 지금까지 논하는 방법과 조금 달리, 전체로서는 본질론이지만, 본질 속의 하나의 역사 쪽을 가미(加味)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뭣이나 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래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에, 어떠한 문화가 들어와도 우리 국민은 이것을 포용해 나가는 포용성을 가지며 그리고 그 문화를 포용해 가는 모습 사이에도 시종(始終) 기초를 우리나라에 둔다고 하는 하나의 자주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점까지 확실합니다. 원래 일본은 섬나라에 나라를 향유(享有)하고 있는 관계로, 자국 내에 발달하는 문화요소의 숫자는 비교적 적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외래 문화는 밀어닥치는 파도와 같이 엄습해 왔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외래문화 쪽이 자국문화보다 항상 큰 힘을 갖고 있었다. 옛날에는 지나문화라는 것이 들어오고, 이어서 인도의 불교문화라는 것이 들어오며,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구미(歐美)의 사조(思潮)라는 것이 들어왔다. 어느 것이나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큰 것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든 이것을 잘 포용하고, 또한 저작(咀嚼)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오면 유교를 포괄(包括)한다. 불교가 들어오면 자신의 화로 속에 넣어서 이것을 도야(陶冶)하고, 구미의 문화가 들어오면 이것을 또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녹이며, 또한 그 사이에 언제라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입장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포용성이 있으며, 또한 자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같은 지나문화가 조선에도 들어오고, 일본에도 들어와 있다. 그러나 조선에 받아들여진 지나문화와, 일본에 들어온 지나문화와는 그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이 되어 왔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에 하나의 자주독립성이 있는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은 과연 우리나라만의 것일까요. 예를 들면 한 예를 지나라는 나라의 포용성은 아마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몇 배나 큰 포용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의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나에서는 시종(始終) 외래 사상이 들어오며, 바깥과의 접촉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육지로 이어졌으므로 그 만큼 관계도 밀

접하며, 대륙문화가 시종 들어와 있으나 어떤 문화가 들어와도 한 번 이것이 한(漢)민족 속에 들어와 버리면, 얼마 안가서 완전히 그것이 한(漢) 민족화 해 버리는 것은 지나의 5천년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나만큼 포용력이 큰 것은 없으며, 한(漢) 민족만큼 동화력이 강한 민족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든 20 몇 대 사이에 왕조의 변천은 있었으며 이것은 변화가 매우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많은 것으로서 아무리 20 몇 대의 왕조가 변천해도, 국민성에 관한 한, 아무런 변화 없이 도야(陶冶)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자주력이 있는 위대한 국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곡예(曲藝)인 것이다.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러한 포용성이 많은 것과 자주독립성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일본 정신만의 특색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창성

마찬가지로 외래문화에 접촉할 경우에, 이번에는 반대로 단점(短點) 쪽에 대해서 어떤 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정신에는 모방성이 많아서 독창적인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의 결점이다, 라고. 역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새롭게 발명한 것은 비교적 적다. 지나에 유교가 있으며, 인도에 불교가 있고, 서양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과 같은 큰 것이 일본에 있느냐, 신도(神道)는 있지만 그것은 과연 세계적인 다른 3교(教)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것은 혹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역시 생각하기에 따르는 것으로, 조금 일본을 편드는 논의에 빠지는 경향은 있으나, 대체로 진정한 의미의 독창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근세에서는 독일국민이 아무튼 독창성이 많다고 일컬어져 있으나, 그것의 가장 독창성이 많다고 말하는 독일의 철학이거나 문예 등이, 희랍·로마의 철학, 문예라는 것을 빼고 과연 얼마만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다운 의미의 독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많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인만이 독창력이 없다고 말하는 부정은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질론의 연구를 하고 일본정신을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본질적으로 그다지 성공하지 않은 관찰 방법으로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B. 역사론

그렇다면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역사적으로 가 보기로 합시다. 이와 같은 입론(立論)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말하건대 과거 3천 년간의 역사를 더듬어 온 길을 탐구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옛날부터 항상 통일된 역사를 갖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 거기에 일본정신의 나타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역사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희랍사라고 하고 해도, 사실은 라틴사이며, 스파르타사이며, 마케도니아사이며 그 복합물로서 결코 그 사이에 통일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나의 5호(胡)16국의 시대가 되면, 하나의 지나 사(史)가 수십개의 작은 역사로 분할되어 아무런 통일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성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다르다. 상고(上古)때부터 오늘날까지, 3천년의 역사가 완전히 통일성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나라역사 그 자체가 둘로 갈라진 일이 반드시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남북조(南北朝)와 같은 것이 조금 그것에 가깝다. 남조(南朝)의 역사와 북조(北朝)의 역사라는 것이 잠깐(纔) 대립했다. 그리고는 무가(武家)정치가 실시되어, 특히 도쿠가와(德川)의 전성시대를 보게 되어서는 공무(公武)(조정과 무가)라는 두개의 역사가 약간 대립하는 형태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긴 역사 가운데 극히 짧은 시대로, 대체적인 시대에서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통일성을 유지한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한 역사의 흔적을 미루어 보아서, 일본정신에 통일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관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원성

또 역사관의 제2의 주장은, 우리나라 국사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논의가 없으며, 어떤 나라에서라도 3천년의 역사를 일관한 상(相)이 있다는 것은 다른 데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극히 얇고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18세기 말이나, 19세기경으로부터 겨우 국가를 형성한 나라들로, 정도가 꽤 한 것이다. 기껏해야 2백년, 3백년의 역사 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그것이 3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나는 놀랍게도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이것은 단속적인 역사로서 결코 일관되지 않고 영원성은 없다. 그 사이에 주마등과 같이 왕실이 변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 생각할 경우에는 단속적이거나 많은 것의 복합사(複合史)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결코 한 국가의 영원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진성(純眞性)

더욱 역사관의 주장자 제3의 논점은, 우리나라국사만큼 순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풀이 하는 것입니다. 바깥나라에서는, 쟁탈 전란(戰亂)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있음으로서 힘을 써서, 무력을 써서 서로 빼앗는다는 역사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순진한 모습의 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긍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국민성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도대체 세계 가운데서 우리 국민만큼 인정이 두텁고 동정심이 깊은 국민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평화스런 경우에는 백성들의 밥 짓는 연기에 마음 아파하는 진토쿠(仁德)천황의 일이나, 추운 밤에 옷을 벗어 던진 다이고(醍醐)천황의 일 같은 것이 전해지며, 전란(戰亂)의 경우에도 쇼난코(小楠公)가 적병사가 물에 빠진 것을 살린 이야기, 켄신(謙信)이 적에게 소금을 보낸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다. 나스노 요이치(那須與一)의 부채과녁 등은 주군의 생명을 존중하는 무사들의 마음의 아름다움과 함께 한 폭의 두루마리 그림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모여져서 국사에 순진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국민성과도 서로 관련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보는 것 같은 잔인성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상에서도 순진한 상(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즉 통일성이 있다는 것, 영원성이 있다는 것, 혹은 순진성이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은 역사관에서 주장하는 바의 우리나라 특성으로서, 동시에 그것이 일본정신의 발로(發露)라고 하는 결론에 이끌자 하는 것은, 이것 역시 무리가 아닌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이상과 같은 일만으로써 일본정신이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다시 한 번 일본정신이라는 것을 고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체이며 하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탐색하는 데에, 우리는 그것을 현실사실 만에 대해서 관찰하느냐. 혹은 그 사람이 희망하는 이상, 이념도 고려하여서 관찰하느냐. 만약에 역사사실만으로 본다면 지금 이 세 가지의 역사관으로 설명이 될지 모른다. 불완전해도 아직까지 그것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라고 하는 것만으로 일본정신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잠깐 우리들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도 이미 50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50년의 자신의 과거역사만으로 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다지 훌륭한 모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일면에 있어서, 이래저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의 이념을 갖고 있다. 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한의 이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이 역시 諸橋 같으면 諸橋라고 하는 모습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과거 역사만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맞지 않는 것이다.

건국의 대 이상에 귀의(歸依)하는 무상신앙(無上信仰)

나라로서는 하나의 이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그 나라의 건국역사에 대한 하나의 신앙으로부터 생겨 나온다. 나라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국민이 가짐으로서 생겨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 신앙은 종래의 역사와 관계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얼마간의 부분이나 단속(斷續)적이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고 있으면,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서 살아지고 공상에 끝나는 것임으로, 한편에서 역사와 관계하나, 결코 단순한 역사만이 아닙니다. 건국이래의 대 정신·대 이상·대 이념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잊어버려서는 일본정신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관점은 한 바탕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관점(觀點)

이상과 같이 생각해 오면, 일본정신의 관측 방법으로, 저는 대체로 세 가지 방면에서 관찰하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치 개인의 집안 격식이라는 것에 개인의 혼(정신)이 통일된 것과 같이, 나라의 격식이라는 것에 관해서 관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그 나라의 격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건국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 집 안의 구조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집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을까, 즉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조직의 근본에서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인의 성격이 본인의 정신을 만드는 것과 같이, 국민성격, 풍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관찰해 나간다면, 이래저래 일본정신이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황실중심

그래서 그중의 첫째, 건국의 특수사정, 및 변천에서 관찰하면, 어떤 결론을 낳는가 하면, 결국 그것은 당연히 황실중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데 귀착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조(神祖)의 조칙(詔勅)에도 “토요아시하라노 치이호아키노 미즈호노쿠니(豊葦原の千五百秋の瑞穂國……)”라고 하는 것으로, 황실의 자손이 영구하게 지배하신다는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건국의 정신, 그러한 건국의 사정, 그것은 국민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이념이며, 신념인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아도 종래에 얼마만큼 큰 개혁을 만나서도,

이 근본은 단한 번도 변화하거나 동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이카(大化)의 개신(改新), 혹은 명치유신 등은 고금(古今)에 유례없는 일대변화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피를 볼 정도로 참극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사이에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에 돌아간다는 데 귀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에 돌아가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당연히 황실중심이라는 곳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카노카이신(大化의 改新) 등은 역사가에게 말하게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씨족제도였던 것이 차차 붕괴되어 가서, 씨족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의 봉건제도가 붕괴해 온다. 그러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실은 각 방면에 매우 커다란 변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매우 커다란 변혁을 해서, 지금까지 씨족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통째로 황실에 돌려드린다고 해서 극히 간단히 처리가 되었다. 또 그것과 버금가는 명치유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또한 그 원인에 대해서나 경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으나, 요는 결국 결정된 것은 정권을 무가(武家)의 손에서 빼앗아서 황실에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동의 결말은 끝내 황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없는 일본정신의 표출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제도변화의 면뿐만 아니라, 민심의 느슨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 변혁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무로마치(室町)에서 아시카가(足利) 뒤에 걸쳐서는 우리나라 국민성은 가장 쇠퇴해 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쇠퇴해 진 마지막이 어디에 귀착했는가 하면, 어딘지 모르는 그들 사람들의 마음은 역시 교토(京都)가 그리워져 왔던 것이다. 그때의 무장(武將)들은 아무래도 교토에 가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그 전란을 구할 수가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에스기 켄신(上杉謙信)같은 사람이 그 생각이 일어나서, 오다(織田)·도요토미(豊臣)로부터 차차 시대를 경과해서, 도쿠가와(德川) 여러분도 역시 황실 중심의 기치(旗幟)를 올려서 세상의 난리를 구하고자 돌아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제도를 파괴한 자는 황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민심의 이완(弛緩)한 자들도 역시 황실 중심으로 라고 하면서 돌아감으로 비로소 그 해결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정신의 표출은 황실 중심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념상뿐만 아니라, 본질적

으로 생각해도 역사적으로 생각해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사유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풍존중

둘째는 집안의 구조, 즉 국가로서의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오는 일본정신이란 뭇인가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가풍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씨족제도의 발달에서 나라를 이루고 왔으므로, 그것은 커다란 가족주의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가족이 앞에서 말한 사정과 관계를 유지하여, 황실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설명을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본질론으로 말해도, 또 역사론으로 말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특색의 하나이며, 일본정신은 거기부터 벗어나, 그기에 표출되어 왔다는 것도 틀림이 없는 점인 것입니다.

경신숭조(敬神崇祖)

셋째는 경신숭조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첫째의 건국사정과 둘째의 나라조직에서 일어난 황실 중심사상과, 가풍존중사상과의 복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국(神國)인 것입니다. 천황은 아키투미카미(現人神)이십니다. 또 우리들 조상은 누구나 임금나라에 목숨을 바쳐, 죽어서는 신(神)으로 받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이미 첫째 둘째의 일본사상이 헤아려 진다면, 셋째의 이 경신숭조의 사상이 일본사상에 속에 헤아려지는 것에 하등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또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아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신숭조의 사상과 사실은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저는 (1) 황실중심사상 (2) 가풍존중사상 (3) 경신숭조사상의 세 가지로써 일본정신의 정수(精髓)라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골라낸 논거(論據)는, 첫째 본질론으로부터, 둘째는 역사론으로부터, 셋째는 이념 론으로부터이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추론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자가 일본정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나라 도덕의 꽃이라고 말하는 무사도(武士道)에 대해서 이 일을 관찰해 봅시다.

무사도정신으로부터의 관찰

무사도는 물론 헤이안초(平安朝)의 말경, 무사계급에서 태어나서, 카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센고쿠(戰國)·도쿠가와(德川)의 몇 시대를 거쳐서 점점 발달한 것이지만, 그 무사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건국초기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 상하(上下) 일관(一貫)된 일본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사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덕목이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사에게는 용기가 있다든지, 혹은 청렴하며 절제가 있다든지 예의가 바르다든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으나, 그런데 그 용기라는 것이 발휘되고, 청렴이라는 것이 발휘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점에서인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는 공(公)에 봉사한다는 생각과 이름을 아낀다는 생각이 기본이 되어, 그 때문에 충실의 덕(德)도 발휘하고, 용감의 덕도 발휘하며, 검소(儉素)강건(剛健)의 덕도 발휘하고 결백청렴의 덕도 발휘하고, 극기심·절제심(節制心)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이름을 아낀다는 것은 가명

(家名)을 아낀다는 것이 기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가풍존중이라는 것에 귀착하고, 공(公)에 봉사한다는 일은 처음에는 봉건시대의 주종(主從)의 정의(情誼)라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으나, 국체의 본질상 드디어는 반드시 앞에서 말한 황실중심이라는 곳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 외에 또 하나 무사도에는 신을 공경하는 사상이 매우 많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가(武家)의 가장 전형적인 법률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오조 야스토키(北條泰時)가 만든 조에이시키후쿠(貞永式目 : 1232년에 정치·법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찬한 51개조의 법전) 등의 제1조에서도 경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경신숭조(敬神崇祖)사상은 첫째 둘째의 사상과 인연을 함께하며 무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정신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사도의 모습에서 관찰해도, 역시 일본정신은 위에서 말한 세 사상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는 일본정신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황실중심사상, 가풍존중사상, 경신숭조사상이라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론으로 보아도, 본질론에서 보아도, 또한 건국당초의 이념으로 보아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의 清原 씨나, 국학원의 河野 씨나 다른 사람들의 의론(議論)을 참고로 해서 입론(立論)한 것임으로, 논한 바에 오류도 있을 것이고, 불충분한 점도 많을 것이지만, 그것은 더욱 더 여러분들의 비판을 받거나 또 식자(識者)의 가르침을 받고서 고쳐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의 의무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오늘날 일본학자의 연구가 아직 불충분해서 참다운 일본정신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직도 교육가나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따로 있을 수 있다. 의사이야기 같은 것을 들어보면, 의사 쪽에는 병원균(病原菌)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이 있다. 티푸스 같으면 티푸스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일본정신이란 뭇이냐고 하는 연구는 조금 그러한 종류일지 모른다. 티푸스균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만, 병원체를 아무리 해도 모르는 병이 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리면 열이 어떤 식으로 나오며, 몸에 어떤 쇠약을 가져온다는 병의 증상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은 진단 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러한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영양분을 취하며,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하는 학문도 있다. 그 연구는 약학이며, 영양학인 것이다. 오늘날 일본정신이라는 실체는 아직 연구 중으로, 어렵듯이 알 수 있으나 정체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시대인지 모른다. 가령 그렇다고 해서 일본정신이 어떠한 점에서 나타나며, 어떤 경로를 더듬어 왔는지는 역사로 알 수 있다. 그 역사의 흔적을 더듬어서 이것이 정신함양에 가장 사정이 좋다는 영양분과 약을 주는 것이, 우리들 교육가의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2장 이후는, 제가 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생각합니다. 마치 약학사·영양학사가 약이나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해야 할 것은 취하고, 쓰야할 것을 쓰면서 일본정신의 함양에 도움 주는 것은 오로지 교육계 일선에 선 여러분의 중대한 임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2. 유교의 장단점과 그 일본화

일본정신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 다음은 소위 유교라는 것과 이 일본정신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일본정신의 함양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바깥으로부터 온 교로서는 가장 좋은 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상(倫常)¹⁵⁷⁾의 교(教)

첫째는 황실중심사상을 배양하는데 대한 유교의 기능입니다. 유교본질론은 나중 강의에 차차 나오게 됩니다만, 적어도 유교는 윤상(倫常)을 주로 설파한 도덕교인 것입니다. 오륜(五倫) 오상(五常)의 가르침 중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충(忠)과 효(孝)인 것입니다. 이 윤상을 중히 여기는 유교이기 때문에, 황실중심사상을 배양하는 교로서는 가장 합당한 교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제도

다음으로 가풍존중사상과 유교와의 관계입니다만, 가풍존중의 사상은 우리나라 조식이 고족제도라는 것에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는 다행히도 대 가족제도로써 성립하고 있는 지나국에서 발달한 교로서, 전체가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가장 사정이 잘 되고 있는 교이며, 따라서 가풍존중사상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에 답하는 유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보본반시(報本反始)¹⁵⁸⁾

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신숭조라고 하는 일본정신에 대해서는, 유교는 보본반시를 강조하는 교인 것입니다. 그 보본반시사상의 근본을 삼는 것은, 임종을 삼가여기고 먼 것을 추종한다는 교로서, 경신이라는 것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만, 조상을 존중한다고 하는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교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당연히 경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오면, 유교는 일본정신의 세 가지 특성에 가장 알맞은 덕교(德教)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료(史料)를 탐색한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유교는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나라 국제연구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치카후사(親房) 경(卿)의 “神皇正統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치카후사(親房) 경(卿)의 “神皇正統記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자(朱子)의 강목(綱目)학문으로부터 다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7) 오륜, 오상.

158) 조상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

미토학(水戶學)

다음으로 국제(國體)연구가 활발하게 된 것은 명치유신 전, 바쿠마즈(幕末)부터인데,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미토학이라는 것은 어떤가하고 말씀드리면, 역시 유교의 영향을 다분히 입고 있습니다. 미토(水戶)의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齋)의 “신론(新論)과 같이, 혹은 후지타 토오코(藤田東湖)의 “세이키노우타(正氣の歌 : 五言古詩로서 당시의 사기를 고무하고 尊王의 기분을 배양하는 힘이 있었다.” 등과 같이, 이와 같은 정신은 유교가 위주가 되었으며, 앞에 말한 강목(綱目)의 학문이 한편에 들어옴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춘추(春秋)의 호전학(胡傳學) 등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느낌인 것입니다. 물론 명치유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혹시 국학의 부흥이 있다든지, 신도(神道)의 부활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었겠으나, 적어도 유교라는 것이 일본정신을 융성하게 하는데 중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림으로 유교는 본질적으로도 일본정신에 가장 많은 약을 주었으며 영양분을 준 것이며, 역사적으로 관찰해도 가장 많은 약을 주며 영양분을 준 학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덕교(德敎)로서 중요한 위치를 주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유교의 결합, 역성(易姓) 혁명

다만 마지막으로 유교에도 한 가지 결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즉 역성혁명사상이 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교 안에 그러한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황실중심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일본사상에 대하여 유교는 근본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유교는 가장 황실중심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제로서 서로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국가와도 서로 허용하지 못하며, 그리고 또 일본정신과도 서로 수용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무방벌론(湯武放伐論)

아무래도 위에 말한 것은 유교 안에 절대 없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선 누구나 드는 것은 맹자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전에 맹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은(殷)의 주왕(紂王) 같은 난폭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周)의 무왕(武王)이 쳤다, 이것은 윤상(倫常)의 문제로서 이것은 어떠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인군(人君)이 인신(人臣)을 보는 것이 토개(土芥)¹⁵⁹⁾와 같이 본다면, 인신은 인군을 원수처럼 볼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 때문에 주(周)의 무왕은 굳이 은(殷)의 주왕을 쳤으나, 그때의 주왕은 이미 인군임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었으므로, “필부(匹夫)인 주(紂)를 죽였다고 듣고 있다, 여태껏 임금을 죽였다고 듣지 못했다.” 하며, 무왕이 주를 주륙(誅戮)한 것은 필부로서의 주(紂)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아무리해도 이러한 논의는 변명할 수가 없다.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유교라고 하는 것의 단 하나의 예외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은 인군(人君)에게 말씀드리는 맹자의 말로서 인신(人臣)에게 가르치는 상도(常道)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159) 흙과 찌꺼기. 가치 없는 것의 비유.

맹자가 인군을 향하여 직접 교(敎)를 설명한 것으로, 인신에게 설명한 말이 아닙니다. 그 점도 얼마간 생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선현(先賢)은, 만약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주의를 주었으며, 옛날부터 맹자가 배에 태어질 때에는 배가 뒤집어지다고 할 만큼이었으므로,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맹자가 우리나라의 덕교(德敎)를 해친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삼혁(三革)사상

다음으로 삼혁이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지나에서는 갑자(甲子)의 해를 혁령(革命)이라고 하며, 무진(戊辰)의 해를 혁운(革運)이라고 하며, 신유(辛酉) 해를 혁명(革命)이라고 하며, 이것을 삼혁(三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제도를 고치는 것이며, 혁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기운(機運)이 하나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왕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혁사상은 상당히 지나의 상고시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유교의 정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유교로서는 매우 곤혹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유교의 경전에는 이러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위(易緯)나 시위(詩緯)라고 말하며, 위서(緯書) 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서(緯書)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만, 대체로 한(漢)시대 쯤까지에 여러 가지 술사(術師)라고 하는 것과 같은 무리들이 만든 것이겠지요. 삼혁 설은 그중의 하나의 말로서, 유교 쪽에서 그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 말이 쓰였습니다. 진무(神武)천황이 즉위한 기원원년이 신유(辛酉) 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으로서는 하나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神武천황 4년에 영사(靈祠), 즉 제사 마당이라는 것을 鳥見山 속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갑자(甲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혁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한 사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키(延喜) 연간(年間)의 革曆勘文에 의하면, 神武천황의 기원원년이 신유(辛酉)였었다고 하는 말이 가끔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은 즉 나의 개원(開元)

그런데 여기에 또 다행인 것은 원래 지나의 혁명이라는 것은, 천자의 덕이 쇠약해져서 그 왕조를 전복한다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삼혁 중의 혁명이라는 말뜻도 크게 변화해 온 것입니다. 三善淸之가 쓴 상주문(上奏文)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혁명이라는 말을 차차 의미가 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끝내 개원(開元)하는 것이 즉 하나의 혁명이라고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유(辛酉)혁명이라는 말은 쓰도, 소위 피를 보는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예상되지 않고, 오로지 신유(辛酉)의 해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太宰春臺가 “자지원만필(紫芝園漫筆)”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으나, 그 속에 무슨무슨 신유년에 개원하고 무슨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더욱이 옛날의 혁명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개원의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일본학자로 유교를 공격하고자 하여, 유교사상에는 혁명사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가 받아들

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유교를 공격하는 데는 과녁을 벗어나는 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위에서 말한 위서(緯書) 등에 이러한 혁명이라는 말이 있어도, 우리나라 과거역사는 다행히 이 뜻도 바뀌어, 단지 하나 개원을 하는 원인을 삼도록 했으므로, 이것에 의하여 혁명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러한 점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양학(公羊學)은 혁명사상을 갖고 있나?

또 하나 이것에 관계하여, 유교의 가르침 속의 하나인 공양전(公羊傳) 안에 혁명사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3백년 계속한 청조(淸朝)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 청조를 전복시킨 동기의 학리적 설명에는 이 공양학의 혁명을 시인하는 사상이 숨어 있다고 논의를 편 것입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 들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춘추(春秋)학문 속에 혁명사상이 있으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라고 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하게 날조된 설인 것입니다. 역시 지나의 후대(後代)의 공양학 안에는 약간 혁명사상을 건드린 것이나, 공자가 편찬한 춘추, 거기에서 나온 공양학 그 자체에는 혁명사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양학을 해석한 무슨 휴(休)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에, 약간 그에 가까운 것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설이 말하는 바는, 공자시대는 주(周)나라이다. 공자에게는 주실(周室)을 전복해서 노국(魯國)의 임금을 천자로 삼겠다, 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송신주(古宋新周)

그것은 무슨 휴(休)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註釋)의 문구, “고송신주(古宋新周)”라고 하는 것이 그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조금 설명하기가 구차하지만, 지나의 혁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혁명도덕이 만들어져 있으며, 즉 하나의 나라가 일어나면, 그것보다 이전의 두 시대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것들을 제후(諸侯)로 삼지도 않는다. 역시 임금으로서 그대로 둔다. 그것을 두 왕으로서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하(夏)의 임금으로서, 은(殷)의 임금으로서 두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은(殷)이 망해 버리면, 이것을 송(宋)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고, 그 임금으로서 있게 한다. 그것보다 조금 더 앞의 하(夏)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것을 기(杞)라고 하는 임금으로 두어 둔다. 그래서 주(周)나라 시대에는 송(宋)이라는 임금과 기(杞)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왕(二王)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무슨 휴(休)의 공양전 안에 “고송신주(古宋新周)”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나라시대에는 그 이왕(二王)은 기(杞)와 송(宋)인 것이다. 기(杞)가 선임 임금으로, 송(宋)이 신참 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송(宋)을 오래된 임금으로 하자, 즉 은(殷)을 오래된 임금으로 하자, 주(周)를 새로운 임금으로 삼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히 주(周)나라 다음시대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송신주(古宋新周)”라는 말이 있으면, 주(周)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혁명을 시인하고 있는 논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슨 휴(休)의 논의에서 본다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휴의 설은 아무튼 공양전의 참 뜻은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자의 참 뜻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공자가 노(魯)나라의 임금을 천자로 삼고자 하는, 혁명사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은, 공자의 다른 말로부터 판단해서 곧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조(淸朝)가 망할 때에, 무슨 휴의 말을 인용하여 혁명을 일으킨 것은, 당시의 사람들을 위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3백년 계속한 청조(淸朝)도 말년에 가서는 상당히 학정(虐政)도 많았었다. 폭정도 많았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혁명사상을 고취할 필요상 무슨 일이든 고전에 근거를 구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는 지나의 민족성을 역이용하여, 무슨 휴의 이러한 말을 갖고 와서 혁명을 고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프랑스 혁명이라는 세계의 일대 돌발사건과 동서가 서로 호응하여, 여기에서 3백년의 청조(淸朝)를 전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르기 위해서 하는 한때의 벽론(僻論)으로써 유교 전체가 혁명을 고취하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틀린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 오면 유교의 교 중, 단하나의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사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등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교라고 해도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유교문화의 한 예(一例)

문학방면의 것이 되면 여러 가지 것을 마음대로 말하기 때문에, 임금을 원망하는 말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다행히도 남김없이 이러한 것도 소화시켜서 일본화 해 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 타이라노 시게모리(平重盛)가 부친을 간언(諫言)할 때의 말에, 보천(普天)¹⁶⁰ 아래에 솔토(率土)¹⁶¹ 의 바닷가, 왕토(王土), 왕신(王臣)이 아닌 것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나라 국체와 꼭 맞는 말이라고 해서 존중받고 있습니다. 보천(普天) 아래에 솔토(率土)의 빈(濱), 어디에 가도 우리 왕토(王土)가 아닌 토지는 없고, 우리 왕신(王臣)이 아닌 부하는 없다고 했으므로, 충신의 충의(忠義)를 지키는 말로서 극히 걸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원래의 시경(詩經)의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뜻이었습니다. 보천(普天) 아래, 솔토(率土)의 빈(濱), 왕토(王土), 왕신(王臣)이 아닌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두 편하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만이 이렇게도 힘이 들어서, 고통 받고 있는가 하고, 그가 섬기고 있는 성주(城主)를 원망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 와 버리면 완전히 거꾸로 쓰여서, 보천(普天) 아래, 솔토(率土)의 빈(濱), 왕토(王土), 왕신(王臣)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해서 키요모리(淸盛)를 간언(諫言)함으로써 국체의 위기를 구한다고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교의 일본화의 극단적인 한 예가 됩니다.

이상 여러 논의로써 유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아도,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장 우리 일본 정신 배양에 사정이 좋은, 또한 힘이 있는 교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전 : 諸橋轍次, 『日本精神と儒教』, 『日本精神の解剖』, 帝國漢字普及會, 1934년, 1~39쪽〉

160) 하늘이 모든 지상을 덮고 있는 한. 천하.

161) 땅이 계속하는 한. 나라의 끝 변토(邊土).

3) 다카하시, 왕도유도에서 황도유도로

1.

유교와 불교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학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해져서 오래도록 잘 우리나라 고유의 국도(國道)와 국교(國教)에 융합하며, 오래도록 우리나라의 국민정신·국민도덕의 함양과 계발에 공헌해 왔던 것이다. 불교에 관한 것은 한동안 이것을 미루어 두고 유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왕도이상(理想)으로부터 황도이상으로 진행되었는지의 개략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이 일은 우리 국사에 밝혀진 사적(史績)이며, 일본유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한 인사는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조선에서 유교단체가 그 결속을 새롭게 하여 일어나서, 종래에 이곳의 지도계급인 자들의 자각아래에 동아신질서 건립의 대업에 한 역할을 하겠다는 정신운동이 구체화하는 때를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일본유도의 제1의제를 밝혀서 이 운동의 목표해야 할 곳에 대하여 사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화룡점침(畫龍点睛)에 비교해야 할 것이다. 청(晴)에 점을 치지 않는 것은 죽은 용과 같이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지 않는 조선유교운동은 활동을 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유도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온 것은 한적(漢籍)학습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자의 전래는 먼 옛날일지라도, 應神 천황조에 백제의 문신(文臣) 왕인(王仁)이 천자문과 논어를 갖고 와서 먼저 이것을 왕자에게 전수했음을 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천자문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혹시 의의(疑義)가 있지만 논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의심하는 자가 없다. 유교는 공자가 지나 고대의 교학을 집대성해서 편집한 것으로서, 그 공자의 말을 가장 믿게 하는 것은 즉 논어임으로, 논어에 의하여 유교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그것이 전해져 온 가장 바른 줄거리를 잡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논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진 유교는 곧바로 잘 우리나라의 상하 인사에게 받아 들여져 우리나라 정무(政務)상에 대단한 세력을 갖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기에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교의 전래와 불교 또는 기독교전래와는 그 성질을 반드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논어에 의한 유교는 물론 유교철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필경은 인륜오상(五常)과 공사(公私)의 도를 공자라고 하는 가장 원만한 인격자의 입으로부터 가장 간결하고도 가장 온건하게 또 가장 문장을 우아하게 설파한 것으로서, 거기에다가 충효(忠孝)인의(仁義)라거나 유신(有信)유별(有別)이라거나 예악(禮樂)중용(中庸)라고 하는 덕목은 오로지 이 인생의 각각 관계의 선(善)을 나타나게 하는 명칭으로서, 그 하나하나의 그 구체적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국가사회의 체제를 갖추며 대략 그 실마리를 풀고 있었던 당시의 일본에서 보면, 인륜도덕의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또 다른 아직도 없었던 신기한 교에 접했다기보다, 오히려 종래의 우리나라 도덕을 시인하여 그 재래의 도덕에 훌륭한 이름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것이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주옥보배를 귀하게 여겨 달고 왔던 부인들이, 그 주옥보배의 명칭이나 성질 등을 광물학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한층 더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알며 기뻐해서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라이 산요우(賴山陽)¹⁶²⁾의 의견이 매우 알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라이

산요우는 일본정기(政記) 應神 천황 16년(5세기) 을사 봄 2월 왕인이 논어 10권을 헌상했다는 것을 논찬(論贊)함에 있어서,

道一而已矣. 道之在天下也猶日月也. 日月者天下之日月也, 非一國所私 有也. 道亦然. 父子君臣夫婦無國無之, 而慈孝忠義有別不雜皆在於自然 非有待於人作也. 我邦列聖保民如子, 不讓堯舜禹湯其風俗尊君親上相 愛相養, 又有 過 唐虞三代之民 則雖 無 經籍 其道固有在. 特未 有 名 而教 之曰 仁曰 義者而. 라고 도파(道破)한 것이다. 즉 종래에 이미 당우(唐虞) 3대에도 우수했던 실제의 풍속이 아름다웠던 우리나라는, 다만 유적(儒籍)이 전해오고 학습함으로써 이들 덕목의 이름을 가르침 받고 이것을 채택하며 그 표현을 편리하게 한 것뿐이다. 이러한 관계임으로, 유교는 손쉽게 우리나라에 받아들임으로서 그 사이 불교·기독교가 전해져 올 때 일어나기 쉬운 사상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완전히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배불(排佛) 배 예수의 사상 및 운동은 여러 차례 일어났으나, 배유(排儒) 사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도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논어에 의하여 유교의 씨가 우리나라에 뿌려진 이후, 케이타이(繼體)천황의 조정에는 백제로부터 오경(五更)박사 段楊爾를 보내서 오경을 전하며, 계속해서 유서(儒書)와 한적(漢籍)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수나라와 당나라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지나문화의 숭배와 함께 유교의 교화의 힘은 대(代)를 쫓으며 문장박사·명경(明經)박사가 조정에 두어지고 우리나라의 학문문장이라고 말하면 즉 한학과 한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유서와 한적이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감에 따라서, 천천히 유교의 중요 사상 즉 유도(儒道) 속에 직접 채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즉 나라와 평안시대이며, 요로(養老)령에 정해진 학령(學令)에는 맹자는 대학과 국학에서는 교과서로 삼지 않게 되고, 끝내는 맹자의 한 책은 시행하지 않는 책으로 끝났다. 때문에 지나에도 일본은 맹자를 기피하는 나라라고 전해졌다. 오잡조(五雜俎)에도 맹자를 실은 상선은 난파(難破)하여 우리나라에는 도착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다. 또 管公유계(遺誠)라는 데는 화혼한재(和魂漢才)라는 설과 신국일세(神國一世)가 무궁의 국체의 도리나 기예가 유현(幽玄)하고 미묘해서 멀리 요순(堯舜)이나 주공(周公) 공자의 지혜를 초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체로 유교가 단순한 모양새의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설명하고, 중국서적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동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교(風教)와 동격이라고까지는 이르지 못하나, 그 도가 즉시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되어, 끝내 그 점은 단순히 지나사상으로서 취급되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감화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치가 된 것이다.

때문에 삼선(三善)청행(淸行)이 혁명의 주문(主文)에 올라가도 혁명을 하는데 단순히 우의정을 좌천 하는데 그치고 황실의 혁명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나라와 평안 양 조정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식으로 실시된 소위 정태(正態)정치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태평생활이 오래 계속되어서 문인은 침착하며 부인은 화합하고, 외척(外戚)의 권세가 이제 오래되어 섭정(攝政)과 천황을 보좌하며 대권 하에 옮기는 희생을 하며, 무인들의 세상이 되어서는 드디어 토지와 인민과 병마(兵馬)의 권세를 올

162) 1780~1832 江戸 후기의 유학자, 시문에 능하고 일본외사 등의 저서가 있음.

려서 지위가 낮은 무사에게 맡기게 되었다. 무사들의 집권이 계속하기를 백6십여 년, 우리나라는 변태적인 정치가 실시되어, 아무리 황위(皇位)에 대한 인민의 관념에는 추호도 동요가 없어도 하극상의 사태는 만인지상(萬人之上)인 한 분으로부터 아래에 조정의 신하 및 마음이 있는 무신(武臣)과 함께 통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니 남송(南宋)의 영종(寧宗) 경원(慶元) 6년에 서거한 주자학은 개희(開禧) 3년 권간(權奸) 韓侂胄가 형벌을 순순히 받아 들어서 죽음으로서 그 금기가 풀려서 부활하여 소위 신학(新學)으로서 남송에 유행하고, 일본의 유학 스님 俊菴 법사가 1197년 일본에 돌아오자 그가 신고 온 한문서적 중에 주자의 저술(著述)도 섞여 있었다. 일본 승려 계에 뿌려진 주자학의 씨앗은 그 후 잘 성장하여 고다이교(後醍醐)천황(1288~1339 재위)의 대에는 유명한 玄惠 법사가 그 학문의 대 강사로서, 구학(舊學) 박사라는 경쟁을 하며 문전성시(門前成市)가 되어, 드디어 조정의 준재(俊才)인 쿠게(公卿)를 통하여 궁궐에 도달하고, 그의 강석(講席)에는 여러 번 천황의 임석도 있어서, 생각지도 않게 주자사상이 조정군신의 정치사상의 지도 원리가 되게 되었다. 주자의 정치사상은 공자의 춘추에 나타난 대의명분론을 골자로 하여 이름으로 실(實)을 구하며, 또 어디까지나 호(胡)와 한(漢)의 구별을 바로하며 양(攘夷)¹⁶³을 국책으로 세운 것이다. 켄무(建武)중흥(1333년 고다이교 천황이 카마쿠라 막부를 넘어 떨치고 교토에 환도)의 대사업의 밀모의(密謀議)에 참가한 쿠게(公卿)는 모두 玄惠가 하는 주자학의 청강생이었다. 기타바타케 치카후사·日野資朝·동 俊基¹⁶⁴·藤原師賢, 四條隆資 등은 그의 수제자였다. 그런데 켄무(建武)중흥 사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하며 세상은 또다시 무가(武家)정치가 되며, 특히 문교는 치도(繼徒)¹⁶⁵에 맡겨지고, 동서오산(五山)의 승도에 학자가 배출되어, 선학(禪學)과 겹쳐서 주자학을 이수했다. 그러나 오산 승은 아시카가(足利) 씨의 비호를 받았음으로써 주자학을 이수하면서도 주자의 대의명분론의 참 값의 모습은 높은 선반에 올려놓고 오로지 주자학의 철학적 측면인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만 강독하며 유불(儒佛)일치의 현묘(玄妙)를 음미하는데 그쳤다. 전국시대도 지나고 도요토미(豊臣) 씨도 멸망하고, 도쿠가와(徳川) 막부의 태평시대의 기초를 세운 이에야스(家康)는 민간 유자(儒者)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를 예우해서 객 스승으로 삼고, 내밀 리에 교토 박사 가(家)에 대항하여, 드디어 그 제자 林羅山을 에도(江戸)에 맞이하여 학정(學政)의 주석(主席)으로 삼고, 여기에 주자학으로써 막부(幕府)와 제후들의 정학(正學)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마상(馬上)에서 천하를 잡은 家康은 문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였으며, 유학은 존중되고 유자들은 등용되어, 안팎을 통틀어 유교를 정치학의 원리로서 정치가 시행되어 소위 부(富)를 백성에게 소장하는 경제, 즉 백성을 사랑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자원을 배양하는 시설이 이루어지며, 문교의 보급과 아울러 우리 국력이 크게 약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부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유학자들은 林家를 필두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이든, 무로 큐소우(室鳩巢)이든, 寬政 3 박사라도, 그 학파의 주자학이든 비주자학임을 불문하고, 막부정치를 집행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변태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게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만족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호걸 유학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와 같은 이도 또한 이 범주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켄무(建武)중흥에서 한번 힘차게 부활한 국민의 대의명분사상

163) 오랑캐를 쫓는 것,

164) 日野俊基.

165) 승려의 도당.

은 국내에 평화를 가져오기 하고 문교가 일어나서 유식자가 국가사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조용히 사색하는 여유를 갖는 세태가 되어서는,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국민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상문제 즉 국체에 따른 정치의 변태에 대한 의문, 나아가서 이에 대한 불만족은 반드시 잠재의식으로부터 뛰어올라서 국가의 가장 큰 사상문제가 될 것이다. 과연 그것은 林家의 문하생의 한 사람인 야마가 소코우(山鹿素行)를 이어서 주자학의 일파인 남학(南學)의 계통을 이은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에 의하여 대의명분론으로서 주창되어 일파만파를 일으킨 미토가쿠하(水戶學派)가 되고, 사학(史學)파가 되었으며, 신도(神道)파가되어, 또 한편에서는 국학의 힘찬 일어남과 아울러 힘차게 변혁의 기운이 뻗어 천동 지변하는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 결국은 수많은 지사를 태어나게 하고, 마침내는 유신의 대업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때문에 사기들은 명치유신을 왕정복고(王政復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應神천황 16년(5세기 전후)에 왕인(王仁)이 논어를 현상한지 명치 원년까지 실로 천5백8십여 년, 대체로 유학이 그 간 우리나라의 학문으로서 상하가 배워서, 또한 학문마저 단순한 지식으로 이를 이해함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매우 성실하게 그 사상마저도 실천 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성격으로 볼 때, 유교의 길은 우리나라 공사(公私)의 실제생활의 규범으로서 준수되어 왔으며, 특히 정치경제는 유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으로, 조정정치에 대 방침이 유도를 채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것은 헌법 17조를 비롯하여 역대 조칙(詔勅)에 나타나서 명백함이 해와 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유도 사상 중에서 특이한 우리나라의 국민정신과 국민도덕에 아무래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곳은 이미 먼 옛날에 우리가 국민 사상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사상적인 세력을 잃어 버렸을 것이다. 그것의 제일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역성(易姓)혁명(중국 옛날 정치사상으로 천자는 천명을 받고 천하를 통치하나 만약 그 성(姓) 씨 안에 부덕한 자가 나오게 되면 다른 유덕(有德)자가 천명을 받고 새로운 왕조를 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상으로서, 거기에다가 이것은 이미 나라·헤이안(平安)조정 시대의 맹자 취급과 화혼한재(和魂漢才)의 훈계(訓誡)에 의하여 해결 된 것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역이 되었으며, 맹자를 강론하며 사기(史記)를 강론하는 누구일지라도 이것을 단순한 한토(漢土)의 정치사상으로 설명하는데 불과한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지나를 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를 동이(東夷)라고 하는 사상인데, 이것은 석의재자국(惜矣哉自國)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나라 지식계급에도 마치 칼의 녹과 같이 굳게 녹이 슬어 붙어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에도(江戸)시대의 유학자들의 견식(見識)이 얇은 것을 통석(痛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맨 먼저 이러한 누습(陋習)을 타파하여 우리나라를 중조(中朝)라고 말한 야마가 소코우(山鹿素行)도 역시 유학자인 것이다. 그러한 것은 어쨌든 오늘날에 와서는 지나를 숭배하고 일본을 비하(卑下)하는 사상도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현실문제로 로서 논의해야 할 것은, 영문을 배우는 사람들의 영국숭배,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프랑스 숭배라는 도를 넘은 누태(陋態)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천5백년을 통하여 유교에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제외할 것은 빼고 혼연(渾然)히 우리 국민의 교화와 동화함으로써 이러한 구체적인 일본국민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으로, 우리는 오히려 유교의 진수는 우리나라에 와서 비로소 실행 된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최근에 와서 지나 정치당국의 좁은 소견으로 극동의 형세에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변화가 생겨 만주 제국이 우리나라의 원조로 세우지고, 왕도국가를 표방하며, 이어서 우리나라 공전(空前)의 대사업인 지나사변이 돌발하여, 유형무형의 국력 총동원을 하게 하였으며, 당당하게 이 사태에 직면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 몇 백 년의 대계(大計)를 확립해야할 중대한 시기를 만났다. 그리하여 우리 조선은 일본에 부속 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그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과 그 물질 인적 자원이 풍부함으로써 이러한 비상시에 일본에게는 자진해서 빛나는 한 역할을 담당하는 화려한 사태에 서게 된 것이다. 이때를 맞이하여 조선의 유교단체가 경향을 통틀어 총동원해서 일치단결 이러한 운동에 참가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것이다. 동시에 옛날부터 있었던 지나와 조선의 유교와 일본 유교가 그 정치사상의 근본 요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내선의 식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조선의 유교는 말할 것도 없이 지나의 유교 그대로인 채로 단순히 지나의 각각 시대사상이 항상 한 시대 늦게 조선에 나타나는 관계였었다. 그래서 원나라 조정의 종속국이 되면서 주자학으로 일정하게 되었다.

3.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자의 정치사상의 근본은 공자의 춘추에 따른 대의명분론인 것이다. 즉 주자는 송나라의 왕실로써 유일한 왕가를 삼으며, 국민은 통틀어 송나라 왕실을 위하여 진충보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공자의 춘추에서 표시한 대의명분이라는 것은 역시 주나라의 왕실로써 정통 천위(天位)의 소재라고 인정하며 그때의 주왕(周王)을 유일한 군주로 삼으며, 힘의 강약에 불구하고 제후(諸侯)들은 모두 주왕에게 신하가 되기로 하고, 어디까지나 주실(周室)에 왕실인 이름으로 주고, 그 이름으로 왕이라는 책임을 물으며, 주의 왕실에 의하여 천하의 재 통치를 기대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 췌부(建武)중흥의 사상적인 원동력이 된 쿠계공경(公卿) 사이의 유학도 역시 주자학으로 그 골자는 대의명분론이었던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공자의 정치사상을 상세하게 연구하면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이다. 즉 한 면은 공자가 현재의 국가 상태에 맞는 실제적인 정치의견으로서, 다른 한 면은 시대를 초월한 공자가 갖는 종교철학의 근본에서 오는 이상적인 정치사상인 것이다. 공자는 당대의 모든 학문을 이수하고 깊이 고대 정치역사를 연구하며, 지나의 정치적 이상으로 천명한 결과, 지나민족이 수많은 대가족주의의 가족으로 구성되고, 그 전체의 평화와 안녕진보를 위하여 특별히 유덕한 사람을 민의에 의하여 임금으로 삼고, 그 아래에 정부가 조직되어 정치가 실시되고, 이것을 천명(天命)의 군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아울러 그 이상적 정치가 요순(堯舜)시대에 실현 된 것도 믿게 했다. 바꾸어 말하면 요순시대가 옛날부터 지나인들의 정치이상이었음과 동시에 고자의 정치이상이었었다. 따라서 공자의 정치적 이상에는 도덕과 정치와는 일치하고, 대정치는 대도덕가로서 국가는 덕으로써 다스리는 것으로 하고, 또 임금 자리는 사람에게 따르는 것으로 집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임금 자리의 주고받음도 민심을 통한 천명으로 선양(禪讓)형식이 가장 선미(善美)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정치적 이상은 서경(書經) 및 논어에 보이는 공자의 언론에 나타나 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역의 혁괘상(革卦象)에 혁(革)을 찬미하여,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大矣哉.

라고 있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의 당대에는 정치가 이미 쇠퇴하고 왕의 명령이 위엄이 없으며 제후가 서로 침입하여 민생이 곤란에 빠지고 있었으나, 아직 천명이 내려서 임금 자리에 오를만한 대덕(大德)은 나오지 않고, 또 문무(文武) 주공(周公) 이래의 주실(周室)의 존엄과 덕화(德化)는 아직도 민심에 남아 있었다. 때문에 이때의 경국(經國)제민(濟民)의 방책은 어디까지나 군신의 명분을 바르게 하고 주왕을 존경하고 제후를 하여금 시의 예의를 하게하고, 겨우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서 주실(周室)의 통일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정교(政教)를 주나라 초기의 융성함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혁명을 인정하여 주실이 왕가임을 부인하여 다른 집안이 이에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함부로 천하가 문란해지고 백성을 도탄에 빠트리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공자의 당대에 직면한 정치사상인 것이다. 때문에 천명론(天命論)이나 선양(禪讓)설은 공자정치론의 이상이며, 대의명분론은 공자의 실제적인 정치론인 것이다. 그러하니 맹자시대가 되어서는 시대양상이 한층 내려가서, 주실은 이미 숨이 차서 죽기 일보 전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서, 제후들은 더욱 더 강대해져서 각각 왕을 자칭하는데 사양치 않으며, 아무리 봐도 주실에 의한 왕위 부흥은 바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민(濟民) 쪽은 식견이 탁월한 유력한 제후를 하여금 선정을 베풀고 그 국력이 왕성해짐으로써 다른 제후들을 복종시켜 마침내 천하통일의 대업을 진행시킬 도리 밖에는 없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의 제후 중에서 천명이 내릴 수 있는 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맹자가 혁명을 고취하여 탕무(湯武)의 사업으로써 선미(善美)를 다한다는 연유인 것이다. 즉 맹자는 공자의 시대에 맞는 실제적인 정치사상을 이어 받지 않고, 곧바로 공자의 정치이상(理想)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제한(齊桓)·진문(晉文)을 폄하(貶下)하여 패도(霸道)라고 말하며, 스스로 주장하는 바를 왕도라고 말하고, 왕자는 인의(仁義)로써 천하민심을 얻고 천명은 이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맹자의 사상에 관하는 한은 패도(霸道)와 왕도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찌면 오직 인의로써 여러 적국을 복종하게 하고 함으로써 잘 천하를 통일시킨 예는 영원히 지나에는 없기 때문이다.

공자가 그 정치사상의 이상에서 혁명 역성(易姓)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漢)민족의 국가조직의 근본 즉 국체로부터 온 것으로서 이에 우리나라 정치사상과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것은 세계 유일한 특별 국가로 만국에 비교할 수 없는 국체를 갖추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누구일지라도 머릿속에 그려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헌법의 근본에 가로놓여 있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응용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것은 즉 앞에서 말한 관공(管公)의 유계(遺誡)라고 말한 것에,

凡神國一世無窮之玄妙者, 不可敢而窺知. 雖學漢土三代周孔之聖經, 革明之國風深加思慮也.

라고 되어 있는 사유인 것이다. 아무리 요순(堯舜) 우탕(禹湯) 문무(文武) 주공(周公) 공자(孔子)의 성인됨이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체는 이러한 것을 사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사상은 곧바로 정치이상이며 또 그것은 잘 국사에 실현되고, 지선(至善) 지미(至美) 참으로 오로지 현묘(玄妙)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도파(道破)한 정치이상은 이것을 왕도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이것을 황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성립 경로를 상상적으로 그려보기로 한다. 태곳적 아득한 옛날, 우리 큐슈(九州) 한 구석에 옮겨 온 한 민족이 있었다. 이 민족은 유력하고 유덕(有德)한 종가장(宗家長)에게 이끌려

온 대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의 전원은 우리집안의 천지의 대신(大神)의 정예(正裔)로 우리 종가장은 즉 대신(大神)의 지금 세상에 있어서 현현(顯現)이라고 하는 언전(言傳)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 민족은 그 개인의 단체력으로 점점 사방을 경략(經略)하여 드디어 본토의 중앙에 진출하여 여기에 일본국의 국기를 세웠었다. 물론 영역이 넓혀지고 인민의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종족도 우리 국내에 들어 왔다. 그러하니 이 대가족의 종가장을 비롯하여 전원은 이들 새로 들어오는 이(異)민족 사람들을 처음부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소외(疎外)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용하여 그 재능에 따라 각각 요직에 등용하여 환영하면서 한 집안의 의(誼)를 맺었다. 드디어 초대(初代)의 천황의 성업(聖業)이 대략 이루어지고 도읍을 정하자, 조종(祖宗)이래의 우리 민족의 사명을 높이 부르짖으며, 천지와 사방(리쿠고우 : 六合)의 수도를 열고, 팔굉(八紘)을 휩쓸어서 우(宇)로 한다고 대 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 대조(大詔)야 말로 우리나라의 국시를 결정한 것으로, 역대(歷代)에 여러 가지가 실행되어 드디어 본토도 귀순하여 삼한(三韓)까지도 조공(朝貢)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잘 통치되어 사민(四民)이 태평을 즐기며 또 기후와 풍토가 천혜(天惠)에 풍족하기 때문에, 지나나 조선반도로부터 이러한 것을 듣고 옮겨 오는 자가 역대(歷代)로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를 환영하여 그 기능을 쓰고, 또 이것을 겸허하게 배움으로써 문화를 진보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소위 야마토(大和)민족 외에 여러 가지 종족 및 귀화인이 잡거하고, 이들이 여러 씨족에 나누어져서 그 장(長)들이 통치하며, 나라의 총가(總家)에 천황을 받들었다. 그리하여 때는 흘러 세상은 바뀌며 씨족은 더욱 더 번성하여 가지가 가지를 치고, 지나나 조선과 같은 종법(宗法)제도가 없음으로 드디어 씨족 간의 연락은 느슨해져 서로가 잇게 되고, 오로지 총가인 황실에 대한 종지(宗支)관계만이 단단히 명기(銘記)되어, 이미 야마토족(大和族)·이즈모족(出雲族)·쿠마소(熊襲)·에조(蝦夷)·츠치구모(土蜘蛛)·귀화인 등이라는 종족상의 차별 관념마저도 없어지게 되어 모두가 모두 야마토민족이 되어 황실을 종가(宗家)로 받들어 모시며, 일생에 한 번 이세(伊勢)신궁에 참배하지 않으면 고향사람들에게 뜨뜻치 못하고, 태묘(太廟) 앞에서 이마를 갖다 대면 다만 고마움에 눈물이 흐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완전히 우리 대군(大君)이 군림하고 계시는 우리 국토에 알맞은 국민적인 정서로서, 시대에 따른 정치형태의 변화에 의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었다.

4.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한토(漢土)와는 그 국가조직의 근본에서, 바꾸어 말하면 양쪽의 국체가 다르므로 그 정치사상이나 정치이상에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즉시 양국민의 도덕적 사상에도 나타나서, 한토의 가르침이 설명하는 바의 도덕으로서는 우리 국민도덕을 설파하게에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토의 황제라는 것은, 나라를 조직하는 수많은 대가족의 안녕과 행복 즉 외적에 대하거나 내란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최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총의로서 이러한 것을 택하고 받들게 된 것이었다. 때문에 한토는 가족단위의 민본주의 국민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족의 총화가 즉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 가족은 애국을 잘 알고 있으나, 임금을 사랑한다는 심정은 일차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나는 민국이 되면서 애국이라는 가르침이 세우 졌으나, 충군(忠君)이라는 가르침은 세울 수가 없다. 지금의 지나인들에게는 드디어 충군이라는 도덕은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민본주의국가의 성립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임금의 항상 인민을 보육하고 옹호하여 민정을 관리 해 줄 의무를 갖고 민에 의하여 세우지게 된 것은 말하자면 가장 큰 관리인 것이다. 백성은 임금을 존경하고 또 임금을 두려워하나 이를 사랑하고 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받든다는 정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충군과 애국은 완전히 별도의 도덕으로, 만약에 임금이 임금답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서 없이 그 임금을 그만 두게 해도 상관없이 되는 것이다. 수나라의 문제(文帝)가, 의(諷)는 군신이고 정(情)은 부자(父子)라고 말한 것은 천고(千古)의 명언이나, 그것은 단순히 지나의 군민(君民)의 이상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지나에서는 아직 한 번도 실현이 안 되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유라쿠(雄略)천황의 조칙(詔勅)이 되어서 우리나라 군민(君民)의 심정을 사실과 같이 표현해서 품위 있게 국사에 빛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은 끊어져도 나라는 있으며, 우리 가족이익을 위하여 임금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애국은 있고 충군은 없고 경군(敬君)은 있으나 애군은 없고, 충효는 반드시 서로 일치 할 수가 없으며, 만약에 충효가 서로 대립할 때는 효를 위하여 충을 버리는 것이 지나의 신민의 도덕인 것이다. 특히 지나에서 신과 민과는 그 뜻을 달리하며, 신은 군을 받들어서 관리가 되는 것이며, 민은 오직 창생(蒼生)으로 통치되어 임금이나 신을 양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은 관수(官守)가 있는 한 임금과 일체가 되어 그 직책에 순직할 의무도 있으나, 민은 임금이 누구인지 몰라도 상관없이, 천하가 태평하면 태평할수록 조정의 일을 잇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신도 임금에 대하여 너무 분명히 의견을 내세우면서 간언(諫言)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만약에 할 수 없이 간언을 해도 세 번 간언을 해도 듣지 않으면 신(臣)을 그만 두고 가버린다. 가 버리면 신의 의무는 없어진다. 말하자면 군신관계는 오늘날 상사와 부하 같은 것이다. 일군만민이라는 사상은 끝내 한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을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의 정치이상에서는 군주된 자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 지위에 있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적임자에게 내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이 군주다운 최상의 도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유일한 예로 전해 온 것은 즉 요(堯)가 나이가 많아져서 깨끗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순(舜)에게 물려준 사적(事蹟)인 것이다. 즉 인민 쪽으로부터 군주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으나, 군주 쪽으로부터도 자리를 그만 둘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송구한 이야기지만 명치대제가 이토(伊藤) 공을 향하여 경(卿)을 사직하게 할 수가 있어도 짐(朕)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듣는 것과 같이 황위(皇位)는 나라와 일체 불가분인 것과 동시에 위 한분과 화위와도 일체 불가분인 것이다. 또 지나의 군주는 하늘을 무한한 존귀한 것으로 세우며 제천(祭天)이 국가 제일의 대사(大祀)인 것이다. 왜냐하면 군주의 자리는 천명(天命)으로 이를 주었으며, 천명이 계속하는 한 이것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이라거나 땅이라거나 하는 천황의 지위에 대하여 권력을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천황이 제사를 지내는 제일 큰 대사(大祀)는 아마테라스오오미키미(天照大神)이다. 천조(天祖)야말로 영원한 황위(皇位)의 수호이며 영원히 국토를 지키는 무상(無上)절대의 신령이신 것이다. 지나에서는 신분에 따라 제사지내는 대상을 달리하여, 하늘을 제사지낼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천자 만이다. 제후라고 해도 오직 경내의 산과 강을 제사지내며, 서민은 성황신(城隍神)과 우리 조상을 제사지낼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천조(天祖)대신이 전 국민의 종사(宗祀)이며 집집마다 이를 제사지내며 받들어서 가장을 비롯하여 가족이 매일 아침 이른 때에

청명심(淸明心)으로 카시와데(柏手)¹⁶⁶를 쳐서 군국(君國)의 대길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종교를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며 국민은 그것이 무슨 연유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일본국민으로서는 해야 할 일로 태어날 적부터의 예속(禮俗)으로 마음 속 깊이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매일의 행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무심하게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나, 한 번 지나의 예속에 생각이 미쳐, 하늘은 오직 황제만이 이것을 제사 지낼 수 있는 사실을 알 때, 참으로 고마움에 울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사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양국의 국체의 구별이 명명백백하게 붙을 보는 것보다 명백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제사는 사람의 성심성의 가장 순진한 사회적 구현인 것이다.

지나에서는 천하와 중국과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중국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중국이외에도 사방에 사람이 살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인정해도, 그들은 변이(蕃夷), 자세하게는 동이(東夷) 서융(西戎) 북적(北狄) 남만(南蠻)이라고 부르며 중국 민과는 별종으로 속해서 왕권이 미치지 않는 자들로 두어야 할 자들이다. 사이(四夷)에 대한 지나국의방책은 이러한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을 품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것을 유원(柔遠)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이 잘 다스려지면 자연히 사이(四夷)도 그 성교(聲敎)를 느껴서 따르게 되며 조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재는 공물(貢物)보다도 하사품 쪽이 값에 있어서 훨씬 컸었다. 만약 이러한 유원(柔遠)의 정책을 한 걸음 넘어서 그들을 무력으로써 복종시키고자 했더라면 그것은 이미 전통적인 정책에 위배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먼저 독무(瀆武)¹⁶⁷가 되어 오히려 중국을 피로하게 하고 재앙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은감(殷鑑)¹⁶⁸에 명백하게 한무제(漢武帝)·당태종에 나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원조(元朝)와 청조(清朝)와는 북호(北胡)인 몽고인 만주인이 세운 조정으로 한(漢)인종의 나라는 아닌 것이다. 왜 지나인이 옛날부터 중국 이외에 정치를 추진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아무튼 지나는 자진해서 정치를 사이(四夷)에 펼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와서 나에게 조공을 받치는 예의를 갖추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외적인 국시였었다. 그리하여 오히려 사이(四夷)로 보아서는 그들이 강성(強盛)할 때 마다 침략을 당해서 커다란 국환(國患)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지나의 왕도라는 것은 덕치(德治)주의이며 문치(文治)주의로 그 이상인 치세(治世)도 중국내의 선치(善治)로 끝났으며, 이것을 사해(四海)에 미쳐서 동이(東夷), 서융(西戎), 북적(北狄), 남만(南蠻)을 포용하는 대 제국을 세워서 이러한 정치를 편다는 생각은 실제적으로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라를 창건하자마자 바다 속의 한 고도(孤島)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군주는 물론 그 신료(臣僚)들까지, 마음의 넓기가 팔굉(八紘)을 압도하고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싫어하고 항상 생각이 황화(皇化)의 사방(四方)선포를 도모했던 것이다. 神武천황 동정(東征)의 성업은 대략 이루어져서 도성을 정하고 황성(皇城)을 경영하고자 하자,

兼六合以開都。掩八紘而爲宇。不亦可乎。(『일본서기』)

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이것은 천황의 입을 통하여 천조(天祖)이래의 구가통치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국당초부터 대외적인 이상을 발표한 것으로, 여기에도 지나의 왕도와 근본적으로 그 사상을

166) 신을 참배할 때 치는 손바닥이 마주 치게 하는 것.

167) 무 나라를 더럽히는 일.

168) 은나라는 전대의 하 나라가 멸망한 것을 거울삼아 경계하라.

달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천황은 이러한 웅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내(畿內)를 평정하자 앞서 항병하고 대들었던 자들 마저 그대로 의심치 않고 썼으며, 그중에 강용(強勇)한 자는 발탁하여 친위대장까지 등용한 것이다. 이러한 포용정신은 이미 조선병합당시 명치대제가 명령한 일시동인의 성지(聖旨)가 선례가 되는 것으로 참으로 팔굉일우의 이상에 따르는 것으로, 후세에 와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그 장점을 채택하고, 조금도 지나와 같이 자국문화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는 흔적이 없는 것도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국민성인 것이다. 지(智)·인(仁)·용(勇)의 삼달덕(三達德)을 표상하는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를 천손(天孫)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더 천황의 마음이 심원(深遠)현묘(玄妙)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금 불행히도 우리나라와 지나의 장정권과는 서로 싸우는 사이가 되었으나, 원래 이러한 험악한 형세가 된 당초부터 지나에서는 일본인 박해가 잔인했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지나인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불쾌한 취급을 당한 자는 없으며 완전히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 역시 이것은 양 국민이 갖고 있는 대 외국관념의 근본적인 수용태세에 있는 것으로, 위나라와 같이 팔굉일우의 대 이상을 건국 이래 계속 마음 밑바닥 깊이 품고 있는 국민으로서 지금과 같은 지나인에 대한 태도는 오직 당연한 것으로, 그러나 자부심과 배외(排外)심이 굳어 있는 그 나라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5.

이와 같이 지나의 왕도정치와 우리나라의 황도정치와는 그 사상적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서 베풀어 진 국민적 이상·국민도덕 상에도 서로 커다란 홈이 그어져서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유교교화를 진흥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일익(一翼)이 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예부터 내려오는 지나와 조선 그대로인 채로 유교를 널리 설파하고 선포해도 그것으로 즉시 조선 민중의 국민정신을 눈 뜨게 하며 국민도덕을 내선일체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물론 유교가 가르치는 바는 일반인간으로서 필요한 도덕실천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대에도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며, 또 이러한 것을 가르치면 그 만큼 교화적인 효과는 올릴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조선에서 크게 진흥해야 할 유교교화는 그런 미지근한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며, 충분하게 일본에 국수(國粹)에 동화한 국민정신과 국민도덕을 계발과 배양 및 함양해 온 황도적인 유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나 유교의 정치사상인 역성(易姓)혁명, 선양(禪讓)방벌(放伐)을 배제하고, 충효불일치, 효를 충보다 중시하는 도덕사상을 부인하고, 그리하여 우리 국체에 따른 대의명분으로써 정치사상의 근본을 세우, 충효일체로써 도덕의 골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지나를 중화로서 숭배하는 것을 폐지하고 우리나라를 중조(中朝)로 삼고, 우리 국사의 정화(精華)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참으로 우리 일본유교도가 품고 있는 정치도덕사상으로서, 그리고 이제부터의 조선 유교도도 이렇게 하여 세태에 기여하며 스스로를 살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조선의 유교단체는 황도유도를 선포하고 발양(發揚)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 왕도유도로부터 황도유도에로의 소견을 대략 설명했으나, 이러한 것은 요는 그것이 틀리는 바는 공자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유도의 결점으로 공자를 문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우리 일본인이 유교의 대의명분

론을 그러한 우리 국체에 맞추어 본다는 것이 공자사상의 조리에 위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은 추호도 공자사상의 조리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자는 그 정치사상의 이상으로서는 천위(天位)천명(天命)설을 취하며 따라서 역성(易姓)혁명 선양(禪讓)을 승인하고 있으나, 주(周)나라에서 태어난 현실의 공자자신으로서는 주왕(周王)으로써 대일통(大一統)의 정천자(正天子)로 세워서, 대의명분은 주실(周室)을 옹호하고 여기에 신절(臣節)을 다 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것은 춘추에 표출된 정치사상의 근본이며 명백하게 백대(百代)에 빛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즉 이 대의명분을 세운 공자로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떠한 정치사상을 세우고, 대의명분이 향하는 바를 어디에 두었을 것인가를 생각할 것까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유교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정치사상을 왕도로부터 황도로 진전시켜야 할 것은 공자 그 사람의 사상의 당연한 조리로서 명명백백하게 추호의 의혹을 곱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선철(先哲)총담(叢談)이 전하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의 한 일화를 적어면서 이 소편(小篇)을 끝내고자 한다.

안사이가 이전에 못 제자에게 물어보며 가라사대, 방금 그 나라(지나를 말함)에서 공자를 하여금 대장을 삼고, 맹자를 부대장으로 삼으며, 수 만기(數萬騎)를 거느리며 우리나라를 쳐들어 올 때는, 우리 당인 공맹의 길을 배우는 자들은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제자들이 모두 답하지 못했었다. 안사이가 곧 가라사대, 불행하게도 이러한 횡역(橫厄)을 만난다면, 우리당은 몸을 굳게 지키며, 수완을 발휘하여 이들과 한판 싸워서 공맹을 사로잡음으로써 나라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이것이 곧 공맹의 도인 것이다.

(끝)

1939년 11월 18일

〈출전 : 高橋亨,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 『朝鮮』 제295호, 1939년, 10~28쪽〉

4) 안인식(安寅植), 황도유학의 본령(本領)

安寅植(명륜전문학교 교수)

황도유학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황도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동양도덕의 근원인 유교도덕의 진수를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국체를 명확하게 하고, 인도(人道)를 올바르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국체를 중심으로 인륜의 길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며, 또 인륜의 길이 올바르게 되는데 따라서 국체는 더욱 익명(益明)하게 되는 까닭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국체와 인도와는 서로 순환작용을 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 것과 함께, 양자가 완전히 융합순화(醇化)되어 최고지선(至善)의 국민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종래에 유교의 설득방법은 인도를 올바르게 하는 점에 거의 점부를 소진하고 있었으나, 국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있던 것이 결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는 불행하게도 상고시대부터 국체가 가끔 변형해 온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

서 공자의 참다운 이상이라고 한 대동(大同)태평의 세계는, 한꺼번에 실현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춘추의 대의명분 같은 것도 실제로는 완전히 실시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것은 종래에 지나에서도 조선에서도 같은 궤도를 밟고 온 것이었다. 이제야 다행스럽게도 3천년의 빛나는 역사를 중심으로, 동양도덕의 근원인 유도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국체와 인도와를 완전히 맺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황도유학의 특질을 표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황도유학의 이상이야말로 참다운 국민도덕의 최고 지선의 길을 완성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세계진운(進運)에 공헌하는 것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 국체를 명확하게 할 것

황도란 황국고유의 길로, 나라를 세운이래 천신(天神)의 길과, 역대 천황의 어우(御宇)의 길을 가리키는 말로서, 혹은 신도(神道)라고 말하며 혹은 황도라고 말한다, 사실은 황도 즉 신도, 신도 즉 황도로서 같은 황국고유의 길인 것이다. 따라서 황도의 근본 뜻을 설명하는 데는, 국체의 존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대체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지구상에 국가를 건설하는 자가 몹시 많으나, 건국이래 한 성(姓)이 전해 내려오는 것은 세계 각국 어느 역사를 보아도 발견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3천년의 빛나는 역사를 가지며 만세(萬世)일계(一系)의 황통을 받드는 일본국체 같은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구한 역사를 갖는 것은 혹시 우연히 기적이었다고 해도 그래도 존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특수한 원인이 있음으로서 비로소 특수한 결과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결코 우연도 아니며 기적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각국의 예를 보면 권력만으로써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때문에 그 권력이 쇠약해 졌을 때나 또는 권력이 더 강한 자가 나왔을 때는 취약하게도 붕괴되는 것이다. 저 유명한 진(秦)의 시황제 같은 이는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하여, 1세, 2세로부터 만세에 이르기까지의 야망을 품었으나, 권력만을 믿고 군림했기 때문에 결국 2세에서 망하고, 40년의 짧은 운명에 끝난 것은 가장 현저한 사실(史實)로서, 그 외 어떠한 나라들도 길고 짧음은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부류였던 것이며, 홀로 신국(神國) 일본은 나라를 세울 당시 도의를 근본으로 하고 국가를 건설하여, 역대 이러한 도의를 신조로 하고 덕화(德化)를 홍포(弘布)했기 때문에, 외람되게도 교육칙어에 “건국신(建國神)과 역대 천황이 나라를 세운 것은 평원(宏遠)하며 덕으로서 세운 것은 심후(深厚)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의입국의 대 정신을 명확하게 납득시킨 것이다. 이러한 도의정신이 국가의 운명을 영원하고 유구하게 한 까닭인 것으로, 국민은 황실을 중심으로 도의를 지키며, 황실은 도의를 중심으로 하고 신통(神統)을 계승하며, 이러한 것이 일본국체가 만방에 유례없는 이유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에는 인애(仁愛)의 화신(化身)으로써 아래에 미치며, 아래는 충의의 도로써 위를 받들며, 군민일체의 국가가 되어서 역대 천황께서는 지인(至仁)지자민(至慈民)을 하는 것이 자식과 같이 사랑해 주시며, 국민은 충효도의를 다 하여 나라를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하여 죽겠다는 국민이 된다.

이러한 국체가 있음으로써 이러한 국민성이 있으며, 이러한 국체와 이러한 국민성이 혼연일체가 되

어 세계에 유례없는 신국일본이 출현한 것이며, 이것을 사람신체에 비유해서 말하면 천군(天君)(두뇌) 태연해서 백체(百體)가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한 몸의 주재(主宰)인 명석한 천군과 장건(壯健)활발한 사지(四肢)나 백체(百體)가 합치하여 건강한 몸을 조성(組成)하고, 발끝의 사소한 아픔일지라도 천군이 이것을 직각(直覺)해서 이목(耳目)수족의 기관에 명령하여 이것을 구호하게 하고, 만약에 천군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라도 있을 경우에는, 백체가 총동원하여 혹시 일부분의 희생을 돌보지 않고 천군을 위하여 방위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인체의 천연적인 조직이 원래 그와 같은 것이다.

요컨대 신국일본은 도의입국의 이상적인 발전에 의하여, 만방에 유례가 없는 국체와 세계에서 독특한 국민성이 혼연일체를 이루며, 현재 3천년의 역사를 빛나게 함과 동시에, 미래영원에 걸쳐서 천양(天壤)과 함께 끝이 없는 것은 확신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국체의 본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황도유학의 본령(本領)의 시작인 것이다.

2. 인도(人道)를 바로잡을 것

대체로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으며, 땅에는 땅의 길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길을 설파한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설이 엄청 많으나, 특히 수천 년간 동양도덕의 근원이 되고 인류가 잠시도 떠날 수 없는大本(大本)의 길로서는, 통틀어 유도에 앞서는 것은 없으며, 원래 유도의 근원은 멀리 요순(堯舜)부터 시작된 것이나, 공자에 이르러서 집대성된 것으로서, 그 성덕(盛德)대업(大業)은 생민 이래 여태까지 없었던 대 성인으로서, 그 이륜(彝倫)의 가르침과 인의도덕의 설은 만세의 부자(夫子)로 존중 받고 오늘날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유(儒)란 원래 주(周)의 초풍교(初風敎)의 지도관의 직무 명이었으나, 공자의 가르침이 잘 천하 풍교의 책임을 받음으로써 그 교를 신봉하는 자를 가리켜 유(儒)라고 부르며, 전국시대에서도 구류(九流)¹⁶⁹⁾백가(百家)의 중용 가를 수위에 헤아리며, 그 후 2천수 백년간에 걸쳐 동양도덕의 중심이 되어서 정치도 교육도 모두 이것을 기본으로 삼은 것으로, 이러한 도를 유도라고 말하며 이러한 교를 유교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학문을 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길이야 말로 인간일상에서 당연하게 닦아야 할 도로서, 군신(君臣)부자(父子)의 대륜을 비롯하여 부부, 장유, 붕우에 이르기까지 오륜의 길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대체로 인간이 인간다운 사연이 먼저 이것에 따라서 관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으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실행해야 할 지극히 하기에 간단한 길로서 결코 고원난행(高遠難行)의 것은 아닌 것이다. 또 대학의 명덕(明德)신민(新民)의 강령과 수제(修齊)치평(治平)의 조목은, 수기치인(修己治人)에 관한 근본의 도가 남김없이 포괄되어, 이 수기(修己)에 관한 사항은 소위 도덕학이 되고, 이 치인에 관한 것은 소위 정치학이 되어서 모두 지선(至善)에 그침으로써 목표로 삼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매우 평실(平實)의 학문으로서 은벽(隱僻)괴이(怪異)한 학문과 다른 사유인 것이다. 그리하여 인(仁)의 안택(安宅)에 있으면서 의(義)의 정로(正路)를 하며 충신, 효제, 예양(禮讓), 염치 등의 미덕을 구비하고, 모두 이것이 실천궁행(實踐躬行)을 내용으로 공리공론(空理空論)을 갖고 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는 이 길은 대중지정(大中至正)하여 평범 속에 진리가 있으며, 가장 인정에 맞고 사회실정에

169) 전국시대 이후의 9개 학파.

적절함과 동시에 특히 가족주의국가윤리에서 동양정신의 문화특색을 갖고 만고에 불역(不易)한 대도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영욕(榮辱)화복(禍福)과 국가의 치란(治亂)흥망(興亡)과는, 모두 이 길을 잘 마치 하느냐 않느냐에 의해서 판단됨으로,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이 길을 떠나서는 행복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인 것이다. 특히 공자의 손을 거친 춘추의 존왕(尊王)의 대의(大義) 같은 것은, 만세(萬世)군신(君臣)의 대방(大防)을 엄밀히 하고 천하후세의 큰 법을 정한 것은, 우리 국체를 배양하는데 유일한 보전(寶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공부자의 이상이라고 한 대동(大同)태평(太平)의 세계관은 오늘날 대동아공영의 이념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하며, 유도의 본령이라고 말해야 할 인(仁)의 길은, 천지만물을 일체로 하고 사해(四海)는 동포이며, 천하는 한 집이라는 이상은, 원래부터 팔괘(八絃)일우(一宇)의 대 정신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그렇게 보면 현재 시국에서 가장 필요불가결한 길인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오랫동안 구미 물질문명이 수입되고부터, 물질편중의 해독은 심한 것으로서, 유물만능주의 아래에서는 정신도덕은 거의 파괴되고, 자가(自家)전래(傳來)의 유보(遺寶)를 버리고 되돌아보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성인의 대훈(大訓)이며 인도의 근본인 충효의 길마저도 이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옛 낱새가 나는 진부(陳腐)설”이라고 나무라며, 이러한 것에 순치(馴致)되어 모든 악질을 띠는 외래사상은 존귀한 국체를 잇는 것과 같은 마음씨 나쁜 자마저도 전연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만주사변 이전의 시대상의 검은 그림자였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이웃인 지나 같은 것은 4천년의 오랜 문화를 가지며, 공맹의 가르침의 본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국과는, 전통적인 군신의 대의를 파괴하고 민국성립 이래 30여 년간의 정치라는 것은, 오로지 미영의 모방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동양도덕의 극단적으로 퇴폐된 것은 지나만큼 심한 것은 다시 없을 것이다. 1, 2의 예를 든다면 “한가(漢家) 4백년의 기업(基業)은 태뢰(太宰 : 중국에서 천자가 사직을 제사지낼 때 올리는 제수용 소, 돼지, 양의 희생물)로서 공자를 제사 지내는데 있다”라고 하는 고유의 역사를 무시하고, 민국 성립 직후 먼저 공자를 제사지내는 전례(典禮)를 철폐하고 선성(先聖)에 대한 무례를 감행하고 또한 “예의염치는 나라의 사유(四維)¹⁷⁰⁾이며 사유를 펴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관중(管仲)의 말이었으나, 이것이 동양고유의 사상인 것이다. 그런데 민국의 사람들은 예의염치를 말하는 것은 동양이 떨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하며, 민국 10년에는 상해에서 200 남짓의 청년여자에게 파렴치운동을 권고하여 나체행렬을 만들어서, 백주에 큰 도시 속을 행진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외래의 나쁜 사상에 감화되어 인도(人道)를 무시한 것이 지나사변을 일으키게 된 자업자득의 화였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흥아성업은, 우리 동양인 전체에 신 생명력과 신활기를 주었던 것과 동시에, 동양고유의 정신문화를 부흥하고 인도(人道)의 큰 깃발을 흔들며 전 동아에 호소하여, 공통의 신념하에 도의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오늘날 문교보국의 사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 반도는 종래에 오랫동안 유교를 신봉 해 왔던 관계로 풍속과 습관이 남김없이 유교문화에 침윤(浸潤)되어, 이제 도한 인심이 이것에 흠뻑 젖어서 견고하여 빼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다만 말엽에 와서

170) 복서, 남서, 북동, 남동의 네 귀퉁이 : 관중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네 가지 대강(大綱). 예·의·염·치의 4덕.

폐습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나, 이것은 정치의 부패에 의한 인심의 타락이었으며 결코 유교의 죄인 것은 아닌 것이며,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로 만고불역(萬古不易)의 인도인 것은 더 이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도를 말하는 데는 종래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할 까닭은 물론 아니며, 또한 지나 류(支那流)를 그대로 통째로 삼킬 것은 결코 아닌 것이고, 반듯이 단호한 혁신을 더하여 인도의 대본을 천명하고, 반석과 같은 국체 위에 새로운 정신문화를 건설하고 흥아성업에 공헌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유도진흥의 목표인 것이며, 이것이 황도유학의 본령의 끝인 것이다.

3. 교육칙어를 익찬하며 받들 것

황도유학의 본령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국체를 명확하게 하고 인도를 올바르게 하는데 있으며, 때문에 여기에 황도유학실시방법으로서, 그 법이 머지않으며 교육칙어의 성지를 익찬하고 받드는 것이 가장 요긴한 것이다. 성지의 내용에 관해서는 더욱이 가설(架設)을 필요할 것 까지 없으나, 고유의 황도정신을 명확하게 하고 유도의 진수를 채택하여, 최고지선(至善)의 표준도덕으로서 국민이 모두 준봉(遵奉)해야 할 금과옥조(金科玉條)의 성전인 것은 이것 역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황도유학을 논의하는 자로서는 여기에 가까이 모범서를 잡고, 각 개인의 수양에 진력하는 것은 물론이며, 또 나아가서 국가사회를 위하여 이러한 성지의 선양(宣揚)을 유일한 신조로서 펼쳐 일어나야 되는 때인 것이다. 그래서 동경의 유시마(湯島)성당에 있는 재단법인 사문회(斯文會)의 취지서의 한 구절을 빌려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손하게 생각하건대, 명치천황의 교육칙어에 제시하신 바는, 즉 우리나라 고유의 도덕으로서, 천조대신(天照大神)을 비롯하여 천황역대의 조상의 유훈(遺訓)에 연원(淵源)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거의가 유도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 같은 것이며, 성현들이 일찍이 유도를 채택하고 수제(修齊)의 도구, 치평(治平)의 법으로서 다스렸다면, 그것이 우리 덕교와 융합하고 혼화(渾和)하게 된 것은 물론 그것이 이루는 바이며, 이것으로써 교육칙어의 성지(聖旨)는 유도를 빌어서 더욱 천명되었으며, 유도의 본의는 교육칙어에 인하여 더욱 더 권위를 더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우리 동지가 서로 도모하고 동우(同憂)상회(相會)하며, 크게 유도를 펼쳐 일어나게 함으로써 교육칙어의 성지를 선양하고자 하는 까닭인 것이다”라고, 이것은 참으로 우리 뜻에 맞는 것으로서, 크게 공명하고 우리 진로(進路)의 목표를 확실히 여기에 정해 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성칙(聖勅)이 가르침을 주신 바와 같이, 고금에 통하고 안팎에 실시하여 어그러지지 않는 진리로서, 당시 기초(起草)에 관계한 元田東野의 말과 같이 “저 불마(不磨)의 헌법도 세태에 따라서 수정되는 일이 있으나, 이 성칙의 큰 내용에 있어서는 宣於萬歲而不可復易一字인 것이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만세 후에도 한 자도 바꿀 수 없는 국민도덕의 기준인 것이다. 때문에 교육에 관한 가르침이나 결코 학생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신민(臣民)인 자로서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종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전인 것이다. 또 거식 날에 축사와 같이 봉독(奉讀)식만으로써 건봉(虔奉)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반듯이 일상생활에서 그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실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유교의 경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을 한 조건으로서 추가해야 할 것이다. 清水廣治 씨의 교육칙어성지실행방법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하면, 어쩐지 칙어의 성지가 충분히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즉 학문의 표준이 정해 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근원은 무엇인가 하고 말하면 즉 유학을 폐지했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이 말은 확실히 궁경(肯綮)¹⁷¹⁾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대체로 유도의 근원지인 지나에서는 공자 이후는 오랫동안 완전히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역대의 혁명이 무상해서 국체가 정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며, 저 청나라 말기의 학자 沈子培¹⁷²⁾와 같은 이는 “공자의 도는 일본과 같은 국체를 갖고 비로소 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강유위(호 南浦)는 지나 장래를 위하여 훌륭한 입헌군주국의 명안을 만들었으나 막상 군주다운 적임자를 정하기 어려웠음으로 붓을 던지고 “일본 같은 것은 참으로 천혜의 나라이다”라고 한탄했을 정도다. 1928년 즉위의 대전을 할 때 당시 지나공사 汪榮寶은 그 위풍이 장엄해서 화기에애한 것을 보고 “공교(孔敎)의 진수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보았노라”라고 선망(羨望)하였다고 한다. 존엄한 국체를 중심으로 도덕의 모범국가가 되고, 세계문화에 공헌하는 것은 일본국민의 독특한 자랑스러운 자랑으로서 후방에 있어서 유럽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여기에서 시험 삼아 생각해 보면, 공자의 교가 아무리 대본의 길일지라도 지나와 같이 혁명이 무상한 국체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고, 또 아무리 존귀한 신국(神國)국체일지라도 개인이 기주의 및 잘 못된 자유평등사상을 그대로 통째로 삼켜서는 위험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공자의 도는 충효도의를 근본적인 본의로 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체를 얻음으로서 이상대로 실현되는 것이며, 일본국체는 어떠한 교보다도 오류오상의 도를 얻고서 더욱 더 건전하게 배양되는 까닭인 것이다.

생각하건대 세계만국 중에서 만세일계의 황통을 받들고 3천년의 빛나는 역사를 갖는 것은 신국일본을 두고서는 더욱이 없으며, 동양 수천 년이래 지나혁명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2천5백년을 통하여 인류의 존양(尊仰)을 받는 것은 공자 외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방에 유례가 없는 국체에 만세인도의 대본을 채택하고, 잘 순화 융합하여 혼영일체를 이루고, 국체는 더욱 더 천양(闡揚)되어,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지선의 새로운 도덕을 건설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동아공영권의 지도 원리로 삼고 나아가서는 세계 신질서의 건설에도 커다란 공헌을 바침으로써, 대동태평의 이상세계를 동아의 신천지에 건설하고 싶은 것이, 이것 또한 황도유학의 본령의 완성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출전 : 安寅植 「皇道儒學の本領」, 『朝鮮』 제347호, 1944년 4월호, 26~36쪽〉

171) 사물의 가장 요긴한 곳이나 일의 가장 중요한 대목.

172) 이름 曾顧.



찾아보기

【ㄱ】

- 가나카와(金川) 352
 가네무라(金村) 344
 가네코(金子) 345
 가즈야마(和山) 345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359
 강문찬(姜文贊) 126
 강본봉훈(康本鳳薰) 349, 355, 360, 367, 375, 378, 400, 402, 404, 416, 420, 421, 422, 423, 426, 427, 432, 433, 434, 436, 438, 441, 442
 강석규(姜錫圭) 80
 강원도유도천명회(江原道儒道闡明會) 196
 강위기(姜渭耆) 116
 강유위 555
 강윤선(姜閏善) 117
 강형민(姜炯敏) 129
 강훈(姜堧) 122
 경학원(經學院) 15, 16, 18, 19, 21, 22, 24, 25, 33, 34, 36, 37, 38, 39, 41, 42, 43, 44, 45, 46, 48, 49, 50, 51, 54, 56, 58, 59, 61, 62, 63, 64, 65, 66, 67, 69, 70, 71, 74, 75, 76, 78, 79, 80, 81, 82, 196, 197, 202, 207, 208, 209, 210, 214, 232, 253, 254, 262, 263, 267, 268, 269, 321, 338, 340, 341, 349
 계광순(桂珖淳) 338, 339, 352, 354, 443
 계지영(桂芝泳) 167
 고고스오아우 515
 고다이코(後醍醐)천황 275, 446, 542
 고미즈노오(後水尾)천황 397
 고범규(高範圭) 175
 고산경식(高山景植) 349, 375, 403, 406, 412
 고성주(高性柱) 114
 고시라카와(後白河) 365
 고요(阜陶) 249
 고장강(顧長康) 222
 고코마츠(後小松)천황 394
 고향수(高恒秀) 117
 고희준(高羲駿) 516
 곤산세영(壺山世榮) 341
 공성초(檜原聖初) 305
 공성학(孔聖學) 79, 304, 341
 공자(孔子) 25, 27, 60, 196, 198, 202, 212, 221, 223, 226, 228, 230, 235, 241, 249, 322, 324, 383, 385, 386, 423, 446, 450, 452, 455, 471, 539, 540, 544, 545, 550, 553, 555
 관동대진재 429
 광촌술부(廣村述夫) 293, 304
 구연창(具然彰) 99
 구주회(具珠會) 128
 국방애국부인회 362
 국본세훈(國本世薰) 318
 국본안언(國本安彦) 339
 군우회(軍友會) 362
 권순구(權純九) 75
 권영세(權寧世) 120
 권영일(權寧一) 85
 권재중(權在重) 119
 권전근(權詮斤) 125
 금본금례(金本今禮) 343

금본기홍(金本基弘) 343
 금본영환(金本英煥) 361, 404
 금산춘정(金山椿政) 314
 금산호성(金山豪成) 341
 금성무길(金城武吉) 341
 금전정구(金田庭龜) 341
 금천기팔(金川基八) 341
 금촌길수(金村吉穗) 339
 금학주(琴鶴柱) 90
 금해정수(金海正洙) 341
 기(夔) 249
 기동방공자치정부(冀東防共自治政府) 191
 기영회(耆英會) 228
 기찰정무위원회(冀察政務委員會) 191
 기코우(義公) 389, 393, 395, 396
 길본영부(吉本榮夫) 339
 김건식(金健植) 167
 김경서(金敬瑞) 178
 김관구(金鎰九) 166
 김광현(金光鉉) 50, 66
 김권수(金權洙) 117
 김규옥(金奎昱) 90
 김근수(金根秀) 145
 김기중(金基宗) 168
 김기하(金基河) 167
 김기협(金基協) 183
 김낙관(金洛觀) 106
 김대붕(金大鵬) 148
 김대우(金大羽) 190, 428
 김도오(金道五) 118
 김돈하(金墩河) 164
 김동명(金東溟) 232
 김동식(金東軾) 103
 김동진(金東振) 44, 64
 김동흥(金東興) 141
 김동희(金東嘻) 185
 김만성(金萬聲) 180
 김만희(金萬熙) 89
 김명직(金命稷) 152, 155
 김문수(金文洙) 114
 김병규(金炳奎) 102
 김병석(金秉錫) 135
 김병욱(金秉旭, 永田種秀) 348, 354, 359, 368,
 372, 374, 378, 381,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7, 408, 410, 420, 421, 422, 423, 425, 426,
 427,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40, 442, 443
 김병주(金秉柱) 113
 김병호(金炳浩) 134
 김병희(金柄熙) 115
 김병희(金秉熙) 171
 김보건(金輔鍵) 149
 김봉관(金奉瑄) 118
 김봉오(金鳳梧) 135
 김봉일(金奉日) 105
 김상권(金尙權) 111
 김상기(金相基) 109
 김상률(金尙律) 117
 김상린(金祥麟) 163
 김상은(金相殷) 164
 김상인(金相印) 106
 김석철(金錫喆) 104
 김석하(金錫夏) 151
 김선중(金善仲) 106
 김성렬(金聖烈) 77
 김성숙(金聲淑) 146
 김성진(金誠鎭) 288, 300, 310
 김세림(金世濂) 232
 김수철(金壽喆) 105
 김숙현(金淑鉉) 168

김시윤(金時潤)	127	김정호(金正浩)	316
김양한(金亮漢)	294, 303	김제횡(金濟鎭)	143
김영두(金榮斗)	130	김종락(金宗洛)	173
김영목(金泳穆)	179	김종섭(金鍾燮)	103
김영보(金永溥)	139	김종은(金鍾殷)	163
김영수(金英洙)	148	김중철(金鍾喆)	84
김영환(金永煥)	108	김주민(金周敏)	187
김옥철(金玉喆)	105	김준기(金駿基)	84
김완진(金完鎭)	17, 24, 26, 196, 206, 207	김지형(金枝亨)	345
김용규(金容圭)	112	김진중(金振鍾)	119
김용규(金瑢圭)	112	김진태	342
김용석(金庸錫)	144	김진효(金鎭孝)	128
김용우(金龍祐)	125	김찬희(金璨熙)	134
김용제(金瑢濟)	131	김창수(金昌洙)	170
김용주(金龍珠)	123	김창숙	30
김용철(金容喆)	113	김창환(金昌煥)	173
김용호(金容鎬)	187	김창훈(金昌煥)	156
김용휘(金溶徽)	178	김태수(金台洙)	96
김우곤(金禹坤)	123	김태욱(金泰郁)	172
김우화(金友和)	166	김태운(金兌潤)	132
김웅(金熊)	124	김태진(金泰鎭)	90
김원곤(金元坤)	122	김택동(金澤東)	348, 349
김원묵(金元默)	160	김필계(金秘濟)	177
김위윤(金渭允)	119	김한경(金漢經)	83
김유용(金有用)	152	김항규(金恒圭)	143
김유탍(金有鐸)	147	김해현(金海鉉)	149
김윤구(金倫求)	294	김현규(金顯奎)	176
김윤기(金潤起)	144	김현하(金現河)	164
김윤식(金允植)	16, 17, 58, 516	김형수(金炯洙)	109
김의희(金宜熙)	163	김형철(金炯哲)	101
김익로(金益老)	170	김호우(金浩宇)	119
김인술(金仁述)	104	김화현(金華鉉)	170
김작(金焯)	125	김황진(金璜鎭)	17
김재원(金載元)	141	김훈경(金勛卿)	81
김정목(金鼎穆)	165	김흥제(金興濟)	185

김희은(金熙殷) 93

【ㄴ】

나가오(長眉一夫) 416

나석기(羅錫璣) 81

나스노 요이치(那須與一) 530

나일봉(羅一鳳) 17, 21, 74, 307

나카에 토우주(中江藤樹) 446

나카타(中田章) 425

나폴레옹 470

남상익(南相翊) 316, 349, 355, 360, 371, 373, 378

남석우(南錫祐) 291, 305

노구교(蘆溝橋)사건 21, 148

노구치(野口俊一) 380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363

노나카 켄잔(野中兼山) 446

노득주(盧得柱) 150

노사카(野坂禰宜) 356

노승훈(盧承勛) 101

노중달(魯仲達) 450

닌토쿠(仁德)천황 445

【ㄷ】

다나카(田中莊次郎) 413, 437

다이고(醍醐)천황 530

다이낭코오(大楠公) 275

다이쇼(大正)천황 19, 502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24, 26, 343

다케우치(竹內善之助) 434

단원 429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 198, 251, 292

『대동사문회보』 521

대산용부(大山勇夫) 192

대산청의(大山淸毅) 303

대산춘강(大山春岡) 293, 302, 320

대야번(大野繁) 339

대원국영(大原國永) 339

대일본국방부인회(大日本國防婦人會) 194

대전일부(大田一夫) 339

대정박람회(大正博覽會) 227

대정박람회시찰단(大正博覽會視察團) 218

덕산재화(德山在和) 302

덕산조광(德山朝光) 341

덕종(德宗) 333

덕촌응렬(德村應烈) 302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魯庵) 21, 505, 506, 507, 509

도요타 텐코(豐田天功) 395, 396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364, 365, 379, 406, 532, 542

도주공(陶朱公) 257

도쿄오(道鏡) 446

도쿠가와 나리아키(德川齊昭) 389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頼房) 393

도쿠가와 요시나오(德川義直) 383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378, 397

도쿠토히 소호(德富蘇峯) 489

동경 사문회(斯文會) 25

동양협회 464

동촌중희(東村中熙) 317

동호(董狐) 331

등원사현(藤原師賢) 542

【ㄹ】

라이 산요우(賴山陽) 281, 540

루즈벨트 336, 337

【ㅁ】

마계장(馬季長) 223

마쓰에(松江素雲) 416

마쓰에나 이즈모 413
 마쓰오카(松岡恕菴) 280
 마자키 나가토시(眞崎長年) 270
 마츠다이라 나오마사 413
 마츠하시 키요시(松橋喜代) 340
 마호메트 325
 만주사변 29, 184, 246, 328
 매진하응흙(梅津何應欽)협정 191, 192
 맹자(孟子) 196, 202, 212, 228, 244, 259, 383, 447,
 450, 452, 536, 545
 메이지(明治)천황 363, 366, 368, 380, 387, 388,
 391, 399, 403, 422, 437, 461
 명륜당(明倫堂) 215, 339, 340, 345
 명륜회(明倫會) 211
 모리야 에이후 466
 모리타 슈조우(森田修造) 356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437, 454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279
 목촌로택(木村魯澤) 339
 무라타 키요카제(村田清風) 276
 무로 큐소우(室鳩巢) 542
 무영(武永) 344
 무왕(武王) 393
 무제(武帝) 221
 무종(武宗) 225
 문공(文公) 329
 문명기(文明琦) 459
 문선왕(文宣王) 445
 문천상(文天祥) 331
 미나모토노 나리아키(源齊昭) 391
 미나모토노 미츠클니(源光圀) 391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 357, 379, 397
 미나모토노 타메토모(源爲朝) 359
 미나미 지로(南次郎, 豊山) 20, 21, 195, 266, 267,
 268, 285, 382, 410, 420, 426, 443, 513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384

미토학(水戸學) 354

민건식(閔原健植) 292, 306

민병석(閔丙奭) 516

민영근(閔泳根) 137

민영은(閔泳殷) 81

민영의(閔泳義) 303

민찬식(閔燦植) 105

【ㅂ】

박경석(朴京碩) 108

박규원(朴圭元) 139

박규철(朴奎喆) 95

박기석(朴基錫) 104

박기석(朴箕錫) 142

박기양(朴箕陽) 17

박기양(朴璣陽) 176

박남휘(朴南徽) 121

박래양(朴來陽) 80

박만찬(朴晩璨) 124

박병준(朴秉濬) 122

박상준(朴相駿, 朴澤相駿) 17, 18, 216, 268, 269,
 275, 285, 297, 309, 335, 338, 352, 353, 340, 343,
 344, 345, 346, 352, 354, 443

박성휴(朴性休) 143

박승동(朴昇東) 46, 65

박시양(朴始陽) 318

박영철(朴榮喆) 18

박용원(朴容元) 100

박임수(朴林洙) 183

박장홍(朴長鴻) 54, 70

박정규(朴晶奎) 519

박정기(朴鼎基) 138

박제봉(竹城濟鳳) 289, 304, 348, 398, 399, 403,
 412

- 박제민(朴齊斌) 30, 37, 59, 217, 233, 492, 516
 박제순(朴齊純) 16, 34
 박준인(朴準寅) 133
 박찬우(朴贊雨) 107
 박창림(朴昌林) 168
 박창화(朴昌和) 93
 박채식(朴採植) 124
 박초양(朴初陽) 82
 박충호(朴忠鎬) 136
 박치상(朴稚祥) 16, 19, 20, 39, 60
 박하인(朴夏寅) 127
 박희근(朴晦根) 161
 박희병(朴禧炳) 151
 박희삼(朴希三) 140
 방명훈(方明勳) 160
 배종학(裴鍾學) 133
 백경제(白景濟) 156
 백낙부(白樂富) 159
 백낙준(白樂俊) 101
 백낙하(白樂夏) 159
 백남중(白南鍾) 102
 백세욱(白世煜) 157
 백원제(白元濟) 153
 백이(伯夷) 393, 446, 450
 백창욱(白昌煜) 158
 백천훈영(白川燾榮) 349, 375, 403, 422, 427
 부견(符堅) 324
 부산삼(富山森) 349, 355, 360, 367, 371, 373, 376,
 382, 392, 406, 416, 420, 422
 부열(傅說) 249
- 【ㄱ】**
- 사련(師練) 275
 사마달(司馬達) 445
 사마온(司馬溫) 275
- 사마준(司馬峻) 359
 사마천(司馬遷) 394
 사문회(斯文會) 197, 354, 383, 387, 424, 437, 455,
 554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皐水老子) 21, 384, 466,
 473, 504, 505, 509
 사조용자(四條隆資) 542
 사카이 타다카즈(酒井忠勝) 397
 산가운(山佳澗) 349, 377, 399, 400, 402, 403, 404,
 420, 421, 423, 425, 426, 429, 430,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41, 442
 삼선청지(三善淸之) 537
 서광훈(徐光勳) 140
 서논언(徐論瀕) 341
 서대규(徐大圭) 136
 서문숙(徐文淑) 130
 서병연(徐秉淵) 137
 서용수(徐龍洙) 88
 서원제규(瑞源濟奎) 341
 서전상주(西田上柱) 343
 서재극(徐載克, 徐村載克) 349, 376, 401, 402,
 416, 422, 423, 429, 434, 436, 441
 서하영채(西河瑛采) 293, 302, 318
 석가모니 324, 471, 472
 석영주(石榮柱) 154
 석진형(石鎭衡) 321
 석창연(石昌璉) 161
 석창호(石昌瑚) 161
 석호련(石鎬鍊) 189
 선우상(鮮于瑑) 142
 선우인여(鮮于仁汝) 150
 성낙현(成樂賢) 44, 63
 성덕왕(聖德王) 322
 성두식(成斗植) 94
 성명왕(聖明王) 402

성중호(成重鎬) 130
 성진영(成璉永) 131
 세종 225
 소공(召公) 33, 249
 소무(蘇武) 332
 소수림왕(小獸林王) 324
 소진덕(蘇鎭德) 110
 소하주(蘇夏疇) 147
 손무 499
 송강세규(松岡世奎) 316
 송금화(宋金華) 249
 송달헌(宋達憲) 91
 송산영태(松山永泰) 320
 송산중렬(松山仲烈) 313
 송상석(宋相壘) 124
 송석만(宋錫萬) 139
 송시헌(宋始憲) 78
 송원(松原) 412
 송원이정(松原利貞) 349
 송이홍본(松而洪本) 341
 송재수(宋載秀) 145
 손전갑(松田甲) 505
 송정기(宋正奇) 118
 송종면(宋鍾冕) 99
 송창현(宋昌鉉) 138
 송철원(宋哲元) 191
 송헌숙(宋憲淑) 97
 쇼난코(小楠公) 530
 쇼와천황(昭和天皇) 20
 쇼켄(昭憲)황태후 363, 366, 380
 쇼토쿠(稱徳)천황 446
 수옥(水屋) 383
 수원(水原) 83
 수원익제(水原翼齊) 297, 308
 수이코(推古)천황 445

수지분(須知分) 495
 숙제 393
 순자(荀子) 447
 스기우라(杉浦重剛) 280, 281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 413
 스즈카와(鈴川壽男) 274
 스테셀 363
 시게노 야스즈그(重野安繹) 455
 시라가미 히사요시(白神壽吉) 340
 시라카미(白神壽吉) 277
 시모히라(下平末藏) 425
 시미즈(清水正健) 395, 396
 신경식(申經植) 91
 신동식(辛東植) 133
 신민회 454
 신본태신(新本泰信) 341
 신세호(辛世浩) 135
 신천재기(信川在機) 341
 신태악(申泰岳) 263
 신현수(申鉉壽) 83
 신흥식(申弘湜) 180
 신흥욱(申鴻旭) 169
 심선택(沈璿澤) 17, 76, 202, 233
 심중무(沈鍾舞) 492
 심형진(沈衡鎭) 20, 288, 300, 312, 489
 쑨원(孫中山) 480

【ㅇ】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542
 아리수가와노미야(有栖川宮) 358
 아리스가와노미야 타루히토(有栖川宮熾仁) 455
 아사미 케이사이(淺見綱齊) 275
 아사카 단파쿠(安積澹泊) 395
 아오키(青木寅雄) 379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齊) 395

아이자와(會澤泊民) 396
 아직기(阿直岐) 324, 445
 안강정독(安岡正篤) 341
 안녹산(安祿山) 332
 안덕원(安惠遠) 341
 안도환(安道煥) 176
 안동정회(安東正會) 349, 360, 368, 377, 389
 안명원(安銘遠) 339
 안병흡(安秉洽) 157
 안봉빈(安鳳彬) 162
 안연(顔淵) 219, 450
 안왕거(安往居) 492
 안원 340
 안응칠(安應七) 515
 안인식(安寅植) 27, 28, 29, 75, 237, 287, 300, 339, 346, 550
 안자(顔子) 383
 안촌병순(安村炳珣) 341
 안향(安珦) 322, 323
 애국부인회 194
 야마가 소코우(山鹿素行) 446, 543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343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276, 345, 446, 452, 550
 야마코시(山越道三) 380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 379
 양봉제(梁鳳濟) 51, 67
 양석환(梁錫煥) 165
 양성하(梁聖夏) 113
 양천철주(梁川徹主) 341
 양회철(梁會喆) 317
 엄기승(嚴基昇) 160
 엄기훈(嚴基薰) 89
 엄달환(嚴達煥) 78, 174
 엄안(嚴顔) 332
 엄윤섭(嚴允燮) 89
 엄창섭(嚴昌燮) 160
 엄하현(嚴夏鉉) 175
 여규형(呂圭亨) 41, 61, 492
 여요(餘姚) 396
 여중하(呂鍾夏) 189
 연소(衍紹) 332
 염유(冉有) 236
 영소(英昭)황태후 366
 영왕(寧王) 277
 영왕(靈王) 324
 옌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20, 297, 338, 345, 346, 374, 382, 408, 443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379, 406, 532
 오대규(吳大奎) 116
 오복아(吳福兒) 117, 22
 오봉영(吳鳳泳) 77
 오상필(吳相弼) 185
 오승천(吳承千) 116
 오오쓰카 타이야(大塚退野) 437
 오우진(應神)천황 324, 445, 543
 오우토모오우지 396
 오유완(吳維完) 115
 오인성(吳仁聖) 114
 오인수(吳仁壽) 115
 오자서 499
 오창식(吳昌植) 131
 오천의수(烏川義秀) 339
 오충식(吳忠植) 92
 오태옥(吳泰玉) 144
 오한식(吳翰植) 92
 오행중(吳行鍾) 115
 오현영(吳憲泳) 48, 66
 옥강신길(玉岡新吉) 339
 옥강홍기(玉岡洪基) 342

완원(阮元) 451
 왕신건 225
 왕양명(王陽明) 196, 277, 396
 왕영빈(汪榮賓) 555
 왕인(王仁) 445, 543
 왕정식(王廷植) 85
 요시다 데이지(吉田貞治) 36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276, 331, 479
 요시마츠(吉松吉樹) 416
 우경량(禹慶亮) 123
 우노 데쓰진(宇野哲人) 383, 384, 436, 437, 445
 우메다 운핀(梅田雲濱) 276
 우지노와키 이라코(菟道稚郎子) 445
 우창명(禹昌命) 187
 월금형진(月金亨鎭) 315
 위대원(魏大源) 78
 유근(柳謹) 492
 유기철(柳基哲) 110
 유길준(俞吉濬) 516
 유도연합회 237, 271, 374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198, 251
 유도창명회(儒道彰明會) 198, 251
 유도천명회(儒道闡明會) 198, 251
 유도회 340
 유림회(儒林會) 198, 251
 유만겸량(俞萬兼兩) 338
 유만형(柳萬馨) 90
 유맹(劉猛) 492
 유비(劉備) 332
 유우라쿠(雄略)천황 372
 유인규(劉麟奎) 171
 유인석(柳麟錫) 25
 유장영(柳長榮) 295
 유중규(劉鍾奎) 168
 유준흥(柳俊興) 181
 유진찬(俞鎭贊) 21, 71, 74, 286, 298
 유창준(俞昌濬) 85
 유창호(柳昌浩) 140
 유천광위문(柳川光衛門) 341
 유하준(俞夏濬) 82
 유희진(柳熙晉) 346
 육상산 196
 육왕 228
 윤덕영(尹德榮) 17, 267, 338, 408, 516
 윤병오(尹炳皓, 尹城炳皓) 17, 287, 299, 310
 윤병철(尹秉哲) 292, 306, 319
 윤상룡(尹相龍) 86
 윤상철(尹相喆) 100
 윤상호(尹相浩) 76
 윤석홍(尹錫洪) 99
 윤성룡(尹成龍) 107
 윤정현(尹定鉉) 307, 349
 윤주영(尹周永) 112
 윤치오(尹致昨, 伊東致昨) 288, 299
 의병 23
 의천이삼차(衣川利三次) 361
 이강원(李康元) 76
 이경구(木子鏡龜) 308
 이경구(李經九) 120
 이경식(李敬植) 22, 23, 246, 287, 299, 310, 340, 344
 이경우(李卿雨) 98
 이경주(李瓊柱) 152, 154, 155
 이관현(李觀鉉) 166
 이규영(李奎滌) 146
 이규하(李奎河) 182
 이근옥(李根沃) 306
 이궁환(李肯煥) 141
 이기(李琦) 492
 이기범(李箕範) 92

- 이기옥(李起鈺) 96
 이나타히메노미코토(稻田媛命) 413
 이낙수(李樂洙) 182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437
 이노우에(井上文雄) 26, 280
 이대영(李大榮, 駒城大榮) 17, 24, 25, 248, 286, 298, 309
 이덕주(李德周) 133
 이동섭(李東燮) 111
 이락고(稚郎子) 445
 이만규(李萬奎) 165
 이명선(李明璇) 108
 이명세(李明世, 春山明世) 18, 27, 28, 29, 288, 300, 311, 327, 330, 340, 341, 344, 346
 이문범(李文範) 93
 이백인(李伯仁) 518
 이범수(李凡秀) 177
 이범주(李範柱) 295
 이병엽(李秉曄) 98
 이병훈(李炳勛) 176
 이보순(李輔舜) 188
 이산(伊山) 346
 이상묵(李相默) 121
 이상옥(李商煜) 189
 이상호(李尙鎬) 76
 이석로(李錫魯) 104
 이성근(李聖根, 金川聖) 352
 이승근(李承瑾, 牧山承瑾) 291, 301, 319
 이시봉(李時鳳) 133
 이식(李植) 231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455
 이왕(李王) 382, 495
 이용구(李容求) 91
 이용직(李容植) 17, 36, 58
 이원보(李家源甫) 289, 338
 이윤(伊尹) 249
 이율곡 198, 275
 이인성(李麟成) 107
 이인직(李人植) 16, 38, 60
 이장로(李莊魯) 97
 이재교(李在校) 148
 이재형(李宰炯) 172
 이정방(李正芳) 151
 이재녕(李齊寧) 99
 이재환(李齊桓) 131
 이종구(李鍾龜) 111
 이종남(李鍾楠) 177
 이종백(李鍾白) 81
 이종상(李鍾瑳) 128
 이종옥(李鍾玉) 127
 이종환(李鍾奐) 183
 이중렬(李仲烈) 97
 이중인(李重仁) 107
 이직(李植) 427
 이찬(李燦) 100
 이창섭(李昌燮) 141
 이창우(李彰雨) 109
 이창훈(李昌垣) 153
 이철응(李哲應) 110
 이춘규(李春奎) 88
 이치기시마 히메노미코토(市杵島姬命) 357
 이태운(李家泰潤) 296
 이태응(李台應) 109
 이태진(李泰鎭) 174
 이토 노리유키(伊東範行) 340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446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276, 488, 493, 495, 514, 515
 이토(伊藤) 547
 이학재(李鶴在) 56, 70, 199, 265

이학증(李學曾) 518
 이현(李炫) 98
 이현상(李鉉商) 95
 이형호(李炯鎬) 107
 이희홍(李熙鴻) 96
 일야자조(日野資朝) 542
 일야준기(日野俊基) 542
 일진회(一進會) 200
 임낙정(林洛理) 102
 임노일(林魯一) 110, 295
 임나산(林羅山) 542
 임무수(林茂樹) 338
 임묵순(任默淳) 118
 임봉순(任鳳淳) 95
 임성재(任聖宰) 125
 임양호(林讓鎬) 101
 임인흡(林麟洽) 172

【ㄹ】

자공(子貢) 219
 자사(子思) 383, 385
 장개석(蔣介石) 192, 239, 423
 장기원(張基元) 86
 장낙두(張樂斗) 132
 장두진(張斗鎭) 84
 장량(張良) 332
 장봉한(張鳳翰) 143
 장비(張飛) 332
 장순(張巡) 332
 장시형(張時亨) 102
 장영수(張永洙) 187
 장자(莊子) 451
 장자방 257
 장작랍(張作霖) 191
 장주(莊周) 243

장지순(張志琿) 120
 장지연(張志淵) 18, 19, 491, 492
 장지한(張志漢) 110
 장징후이 483
 장쥘린 467
 장추섭(張樞燮) 188
 장학량(張學良) 191
 장행원(張本行遠) 291, 301, 315
 장현갑(張鉉甲) 107
 전기승(田基菴) 94
 전남유도장명회(全南儒道彰明會) 235
 전덕룡(田德龍) 144
 전라남도유도연합회 194
 전석진(田錫珍) 169
 전전승(前田昇) 520
 전준원(田俊元) 171
 전중장(田中莊) 416
 정경태(鄭炯兌) 108
 정경환(鄭炯煥) 108
 정관영(鄭觀榮) 140
 정기남(鄭基南) 189
 정낙봉(東村樂鵬) 294, 305
 정두연(鄭斗淵) 90
 정만조(鄭萬朝) 17, 252, 492
 정명도(程明道) 243, 244
 정병조(鄭丙朝) 18, 496, 505, 516
 정봉시(鄭鳳時) 17, 21, 49, 69, 253, 492
 정봉현(鄭鳳鉉) 45, 64
 정샤오취 479
 정석모(楓川碩謨) 314
 정순현(鄭淳賢) 349, 380
 정우주(鄭佑柱) 126
 정원표(鄭元杓) 134
 정위영(鄭煒永) 103
 정윤수(鄭崙秀) 16

- 정인서(鄭寅書) 311
 정자(程子) 243
 정재규(鄭在奎) 176
 정종석(鄭宗錫) 184
 정종하(鄭宗夏) 153, 156
 정주 228
 정준민(鄭準民) 65
 정철규(鄭喆奎) 87
 정철영(鄭喆永) 82
 정치호(鄭致浩) 136
 정학룡(鄭學龍) 158
 정학선(鄭學善) 159
 정현(鄭玄) 243
 정효서(鄭孝胥) 487
 제갈공명 275, 333
 제전회(祭典會) 230
 조규연(趙珪衍) 121
 조기승(曹奇承) 132
 조기택(趙基澤) 313
 조남준(趙南駿) 312
 조명진(趙明晉) 517
 조민희(趙民熙) 516
 조병렬(趙炳烈, 嘉川久士) 344, 349, 355, 360,
 367, 373, 374, 376, 384, 391, 399, 400, 406, 416,
 417, 422, 423, 426, 428, 435, 442, 444
 조본중화(趙本重和) 341
 조비(曹丕) 333
 조상준(曹相準) 103
 조선군예국부 344
 조선유도연합회 16, 18, 19, 20, 22, 26, 27, 30,
 269, 271, 330, 348, 349, 353, 382, 408, 444
 조선유도회 348
 조선유림대회 266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17, 34, 36, 37, 38
 조성복(曹聖福) 343
 조순(趙盾) 331
 조순원(趙洵元) 292, 305, 312
 조은석(趙殷錫) 154, 158
 조종건(趙鍾建) 139
 조중응(趙重應) 516
 조진태(趙鎭泰) 516
 조창하(趙昌河) 173
 조천(趙穿) 331
 조희용(曹喜鎔) 103
 周公(周公) 249, 541, 545
 주병건(朱柄乾) 290
 주순수(朱舜水) 396
 주왕(紂王) 393
 주자(朱子) 243, 449, 535
 주체(朱泚) 333
 주태원(朱泰源) 182
 죽내준평(竹內俊平) 339
 죽산일랑(竹山一郎) 339
 중추원(中樞院) 34, 36, 37, 58, 59
 증자(曾子) 196, 383, 385
 지완수(池琬洙) 78, 79
 지현규(池顯規) 89
 진구(神功)황후 396
 진무(神武)천황 357, 368, 394, 399, 400, 401, 422,
 442, 492, 537
 진토쿠(仁德)천황 408, 530
 징병제 실시 감사선양(宣揚)대회 345

【*】
 채동식(蔡東式) 102
 청원헌교(淸原憲敎) 339
 청하달빈(淸河達斌) 349, 355, 360, 367, 370, 371,
 373, 376, 378, 382, 384, 389, 392, 406, 412, 416,
 417, 420, 424, 429
 최구락(崔龜洛) 162

최두연(崔斗淵, 山本權一郎) 291, 341
 최세봉(崔世鳳) 126
 최승희(崔承姬) 408, 412
 최영민(崔泳敏) 169
 최용관(崔用觀) 148
 최운섭(崔雲涉) 145
 최원재갑(崔原在甲) 341
 최인돈(崔仁敦) 149
 최일홍(崔一洪) 105
 최재홍(崔在洪) 106
 최정환(崔晶煥) 142
 최중(崔仲) 322
 최중절(崔重節) 151
 최춘승(崔春升) 134
 최호연(崔浩然) 289
 추밀원 294
 추산의식(秋山義植) 308
 충렬왕(忠烈王) 322
 츠지카와(土川福雄) 379

【ㄱ】

카시와바라(柏原依郎) 380
 카잔인 모로카타(花山院師賢) 275
 카토 키요마사(加藤清正) 277, 379
 칸무(桓武)천황 363, 366
 케이타이(繼体)천황 445, 541
 코다마 겐타로 488
 코마(高麗明津) 384
 코오메이(孝明)천황 366
 코쿠라 산세이(小倉三省) 446
 쿄우고쿠 타카츠크(京極高次) 413
 쿠리타 히로시(栗田寬) 395, 396
 쿠마자와 반잔(熊澤蕃山) 446
 쿠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275
 기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 275, 446, 542

기타지마 겐지로우(北島謙次郎) 380
 킨메이(欽明)천황 402, 445

【ㄴ】

타고리 히메노미코토(田心姫命) 357
 타기즈 히메노미코토(湍津姫命) 357
 타까다 신지(高田眞治) 449
 타니 지추우(谷時中) 446
 타니 타테키(谷干城) 455
 타니무라(谷村靈眞) 409
 타이라노 시게모리(平重盛) 365, 539
 타이라노 키요모리(平清盛) 357
 타이코 히데요시(太閤秀吉) 359
 타치하라 수이켄(立原翠軒) 394
 탁준모(卓濬謨) 163
 탁희열(卓僖烈) 157
 태재춘대(太宰春臺) 537
 텐지(天智)천황 396
 토오고 시게노리(東郷茂德) 436

【ㄷ】

파리장서운동 30
 팽월 499
 평산(平山) 372, 438, 443
 평산태인(平山泰仁) 339, 348
 풍천명익(豊川明益) 315

【ㄹ】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384
 하백(河伯) 223
 하본겸익(河本兼益) 342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 276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338
 하야시 도순(林道春) 383
 하야시 라잔(林羅山) 446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271
 하중청(河重淸) 181
 하한덕(河漢德) 132
 하희섭(河熺燮) 134
 한고조(漢高祖) 48
 한민교(韓民敎) 174
 한병선(韓秉善) 149
 한병옥(韓柄玉) 117
 한상규(韓相圭) 147
 한상룡(韓相龍) 285, 298
 한석봉(韓錫朋) 188
 한신 499
 한영기(韓榮琦) 172
 한용건(韓用健) 143
 한유(漢儒) 455
 한주승(韓周承) 186
 한준석(韓準錫) 18, 21, 179, 183, 502, 504
 한진만(韓鎭萬) 186
 한창동(韓昌東) 82
 한창우(韓昌愚) 43, 63
 한태석(韓台錫) 87
 한호련(韓皜鍊) 180
 향계(香溪) 413
 향월(香月) 192
 향천(香川) 520
 허근(許根) 177
 허언(許埜) 186
 허정(許鼎) 317
 허종녕(許宗寧) 129
 현혜(玄惠) 275, 446
 협화회 361, 362, 365, 406, 407, 409, 410, 412, 442
 혜제(惠帝) 332
 호리 마코토(堀誠孝) 416
 호리가메 고로(堀龜五郎, 芙蓉) 415, 416
 호리오 요시하루(堀尾吉晴) 346, 413
 홍공섭(洪肯燮) 516
 홍대수(洪大修) 146
 홍명익(洪昞翊) 130
 홍산은식(洪山殷植) 311
 홍순복(洪淳復) 86
 홍순택(洪淳澤) 157
 홍인표(洪寅杓) 88
 화강탁(花岡卓) 339
 황돈수(黃敦秀) 42, 62
 황득삼(黃得三) 150
 황석규(黃錫圭, 黃家錫圭) 296, 145
 황석환(黃錫煥) 77
 황윤현(黃胤鉉) 174
 황철(黃鐵) 517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오우(伏見宮博恭) 383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542
 후지와라 스케토모(藤原資朝) 275
 후지와라 토시모토(藤原俊基) 275
 후지와라 후지후사(藤原藤房) 275
 후지타 도코(藤田東湖) 427
 후지타 유우코쿠(藤田幽谷) 394
 후지타 토오코(藤田東湖) 279, 331, 395
 후카즈(深津精) 416
 후쿠지마(福島四雄三) 380
 흠명(欽明)천황 324
 히다리 진고로(左甚五郎) 366, 397
 히메타타라이스즈(媛蹈躰五十鈴)황후 368, 399